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지원 과제

-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주보혜
황남희·정찬우·김미리·안서연·박신아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찬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미리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박신아	(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42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지원 과제

-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에코디자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96-6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42>

발|간|사

베이비부머와 함께 사회도 고령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라는 대규모 인구집단이 차례로 노년기에 진입하는 상황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적 없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노년기 진입은 일생의 마지막 단계 생애주기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다. 생애주기 단계가 변화되는 의미 이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환경에서 전환 요구가 생긴다. 생애전환기에 적극적 생활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편입이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은 이들의 욕구에 적합한 새로운 노년기 사회참여 문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연구진은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유행하는 등 노화과정에서도 '성취'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근로활동 이외의 사회참여 영역은 관심영역 밖에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주된일자리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에 주목했다.

베이비부머의 긍정적 생애전환을 위한 사회참여적 접근 방안을 모색한 이 연구는 주보혜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에서 황남희 연구위원, 정찬우 연구원, 박신아 연구원, 원외에서 안서연 박사, 김미리 박사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자문위원으로서 이 연구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상명대학교 이금룡 교수와 원내 이아영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결과는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 개인 입장임을 밝혀 둔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12
제3절 사회참여의 정의와 연구 범위	13
제2장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과 사회참여	21
제1절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	23
제2절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 국내 제도와 프로그램	31
제3장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65
제1절 체계적 문헌고찰: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관련 국내 연구	67
제2절 체계적 문헌고찰: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관련 국외 연구	95
제3절 소결	117
제4장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현황과 변화	119
제1절 한국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현황과 일반적 특성	121
제2절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 양상	142
제3절 소결	170



제5장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과 사회참여에 관한 심층면접조사 179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181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91

제3절 소결 238

제6장 사회참여적 생애전환 지원 과제 247

제1절 국외 사례 249

제2절 대안 논의 265

제7장 결론 281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83

제2절 사회참여적 생애전환 지원 과제 293

참고문헌 297

부 록 323

[부록 1] 다중채널 시퀀스 유형화 분석 결과 323

[부록 2] 사례 내 분석(사례별 기술) 325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개인과 타인의 관여 수준과 활동 목표에 근거한 사회활동 분류	16
〈표 1-2〉 연구 범위	20
〈표 2-1〉 사회참여 관련 기본계획과 베이비부머 역할	35
〈표 2-2〉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39
〈표 2-3〉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연혁	40
〈표 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42
〈표 2-5〉 주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공헌 지원사업	45
〈표 2-6〉 사회적 경제 영역 정의	48
〈표 2-7〉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49
〈표 2-8〉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유형과 사업 내용	50
〈표 2-9〉 마을기업 운영현황	52
〈표 2-10〉 사회적기업가 육성 정책 개요	53
〈표 2-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정책(단계별)	54
〈표 2-12〉 서울시 마을기본계획	58
〈표 2-13〉 지자체별 마을활동가 예시	60
〈표 3-1〉 최종 선정 문헌 분류	72
〈표 3-2〉 국내 문헌 사회참여 범위 및 측정방법	76
〈표 3-3〉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 이분형 척도	80
〈표 3-4〉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 5점 리커트 척도	82
〈표 3-5〉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7
〈표 3-6〉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결과 변인	93
〈표 3-7〉 최종 선정 문헌 분류	98
〈표 3-8〉 국외 문헌 사회참여 범위 및 측정방법	102
〈표 3-9〉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 이분형 척도	105
〈표 3-10〉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1
〈표 3-11〉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결과 변인	116
〈표 4-1〉 1차 베이비부머(1955~1963): 60~68세(2023년 6월 말 기준)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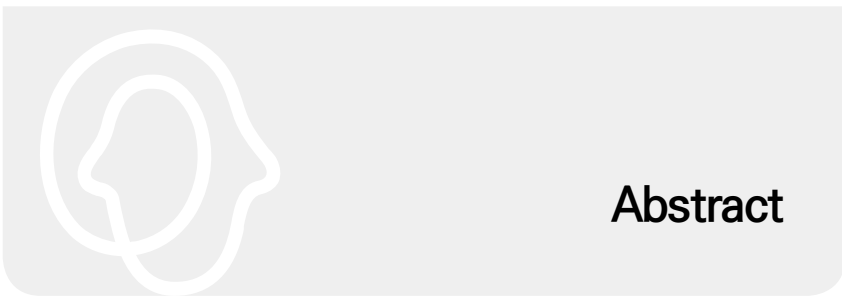
〈표 4-2〉 2차 베이비부머(1968~1974): 49세~55세(2023년 6월 말 기준)	122
〈표 4-3〉 연령별 거주지역	122
〈표 4-4〉 사회조사 2022 성별 세대별 거주지역	124
〈표 4-5〉 인구센서스 2020 성별 세대별 학력 수준	125
〈표 4-6〉 사회조사 2022 세대별 건강상태	126
〈표 4-7〉 인구센서스 2020 성별 세대별 고용률	127
〈표 4-8〉 인구센서스 세대별 경제활동 상태 장기분석	128
〈표 4-9〉 인구센서스 세대별 직업 분포 장기분석	131
〈표 4-10〉 사회조사 2022 성별 세대별 가구소득	132
〈표 4-11〉 사회조사 2022 세대별 가구구조	133
〈표 4-12〉 사회조사 2022 세대별 교육의 미충족 여부	134
〈표 4-13〉 사회조사 2022 세대별 교육의 미충족 이유	136
〈표 4-14〉 사회조사 2021 세대별 자원봉사 참여 여부	137
〈표 4-15〉 사회조사 2021 세대별 자원봉사 참여 동기	139
〈표 4-16〉 사회조사 2021 세대별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	139
〈표 4-17〉 사회조사 2021 세대별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	140
〈표 4-18〉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20 성별 연령별 직업훈련 참여 여부	141
〈표 4-19〉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20 성별,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 여부	142
〈표 4-20〉 직업분류별 기술 숙련도 구분 코드	148
〈표 4-21〉 고령화 패널 설문 내용: 사회참여 시간	150
〈표 4-22〉 고령화 패널 설문 내용: 사회참여 빈도	151
〈표 4-23〉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난 1년간 사회참여 여부 및 시간(평균)	153
〈표 4-24〉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빈도(모임·단체 참여 기준)	155
〈표 4-25〉 베이비부머 세대(n=984) 기술통계	158
〈표 4-26〉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형별 기술 분석	162
〈표 4-27〉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결정요인	167
〈표 4-28〉 베이비부머와 유형화에 따른 사회참여 활동 결정요인	169



〈표 5-1〉 조사 대상 특성	186
〈표 5-2〉 유형별 조사 대상 분류	187
〈표 5-3〉 사례 내 주제, 사례 간 통합주제	190
〈표 5-4〉 조사 참여자 경력 활용 사례	221
〈표 5-5〉 집단 유형과 경제활동 현황	240
〈표 5-6〉 사회참여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	241
〈표 5-7〉 유형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	243
〈표 6-1〉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 지원 내용	251
〈표 6-2〉 모임 형태와 정례모임 규칙	252
〈표 6-3〉 비컨힐 빌리지 프로그램과 서비스 예시	254
〈표 6-4〉 U3L의 프로젝트 그룹	259
〈표 6-5〉 릿교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수업 과정	261
〈표 6-6〉 지역 데뷔 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	270
〈표 6-7〉 마을공동체 사회적 인정체계(안)	275
〈표 6-8〉 주민공모사업과 주민제안사업 비교	277
〈표 7-1〉 체계적 문헌분석 국내 연구: 32편 분석	285
〈표 7-2〉 체계적 문헌분석 국외 연구: 15편 분석	285
〈표 7-3〉 베이비부머 세대 유형별 기술분석	287
〈표 7-4〉 사회참여의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	289
〈표 7-5〉 유형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	291

그림 목차

[그림 1-1] 사회참여 위계 모델	15
[그림 1-2] 참여의 8단계 모델	18
[그림 1-3] 참여의 9단계 모델	18
[그림 3-1] 국내 문헌 선정 과정	68
[그림 3-2] 국외 문헌 선정 과정	96
[그림 4-1] 유형화를 위한 4개의 채널과 항목 분류	149
[그림 4-2]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형화 (1 & 2)	163
[그림 4-3]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형화 (3 & 4)	164
[그림 4-4]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형화 (5 & 6)	165
[그림 6-1] 지역공동체 지원방안	268
[부록 그림 1] 베이비부머 세대 6개 유형 도출을 위한 덴드로 그래프	323
[부록 그림 2] 베이비부머 세대 6개 유형 도출을 위한 양적 지표	323
[부록 그림 3] 베이비부머 세대 6개 유형 도출을 위한 나무그림	324



Abstract

Supporting Baby Boomers in Transition : Ways to Increase Their Social Participation

Project Head: Joo, Bohye

As baby boomers enter their senior years, there is a pressing need to establish a novel framework for social engagement that caters specifically to their requirements. This study delves into the social engagement strategies that baby boomers employ as they navigate positive life transitions, emphasizing the urgent need for a societal approach tailored to their distinct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To facilitate initial engagement, the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linkage networks, connectivity platforms, and "community debut" opportunities as community-building initiatives. These endeavors seek to bridge diverse audiences with varying level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thereby fostering inclusivity and access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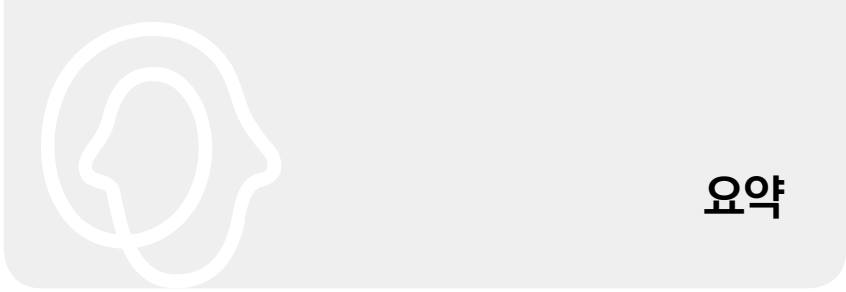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For the expansion and enrichment of participation activities, we suggest promoting the recognition of talent contributions by baby boomers who have socially valuable experiences and skills. Additionally, we recommend the introduction of a personalized compensation model that reflects the diverse needs and capacities of baby boomers. Furthermore, streamlining and standardizing

Co-Researchers: Hwang, Namhui·Jung, Chanwoo·Kim, Miri·Ahn, Seoyeon·Park,
Sina

2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the participation process, along with the creation of a framework for the refinement and consideration of meaningful proposals, are deemed essential steps towards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impact of social participation initiatives.

Keyword : Baby Boomers, Transition, Social Participation, Active Ageing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긍정적 생애전환을 위한 사회참여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였다. 고령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시간 자원의 양적, 질적 가치를 사회의 유용한 자산으로 개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공식적·비공식적 형태의 모임·단체에서 구성된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참여활동'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참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임·단체 활동을 구성원 간 의미있고 호혜적인 상호작용에 기반한 능동적·적극적 활동으로 이끄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사회참여의 진입요인과 확대·심화단계의 매커니즘은 다르다는 전제하에, 참여의 위계적 분류를 참고하여 미참여에서 참여로 변화되는 진입요인과 참여 활동이 확장되고, 능동성과 적극성을 갖는 확대·심화 요인을 탐색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가.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과 사회참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부머는 국내의 공통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였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자본, 사회적지지, 국외연구에서 지역사회공동체성이 자원봉사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베이비부머 사회참

4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여의 결과요인으로는 정신적 건강은 물론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 증진, 사회적 신뢰 제고, 고독감 완화 등의 효과가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나. 베이비부머 사회참여에 대한 2차자료 분석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궤적, 학력, 건강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특성과 유형화를 실시하고, 유형에 따른 친교활동과 사회공헌활동 참여 특성을 분석했다. 다채널배열분석(multi-channel sequenc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6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본 연구의 관심집단인 고숙련 집단으로 대표되는 집단1, 베이비부머의 가장 대표적 성격(비근로·은퇴·고졸·중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된 집단2, 고졸·자영업자로 대표되는 집단3을 중심으로 생애전환지원으로서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관련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는 위의 베이비부머 집단 유형화 결과에 따라 도출된 집단별 특성에 맞는 총 17명을 대상(1차: 12명, 2차: 5명)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대면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접근을 시도하면, 먼저 고숙련 집단(집단1)은 활동내용에서 오는 보람에 가치부여를 하며,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매칭'을 통한 생애경력 활용 기회 확대와 스스로 도전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활동 내용 고도화가 필요하다. 집단2는 모임 구성원의 좋은 관계, 긍정적 피드백 등에서 보람을 크게 느끼

며, 제도적, 정책적으로 마련되는 참여기회에 높은 관심을 보이므로, 지역사회 친목, 여가, 문화활동을 위한 소모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후속 활동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이 주로 분포하는 집단3은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여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므로 사회참여 활동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 국외 사례 검토

국외사례는 활동기반 만들기(사회적 공간 모형), 활동 역량 갖추기(시민 역량 강화 모형), 활동 연계하기(매칭 플랫폼)를 중심 주제로 구성하여 주제별 참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사회참여 진입단계 촉진요인과 활동의 확장과 심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진입단계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을 여러 차원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계 네트워크, 연결 플랫폼, 지역사회 초기관문으로서의 ‘지역사회 데뷔’ 계기 마련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활동의 확장, 심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베이비부머의 재능기부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정방식의 공론화와 함께 경력 인정 방식의 다양화, 보상방안에 대한 개별화된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주민제안, 참여제도의 간소화, 표준화 노력과 함께 의미있는 제안을 숙성하고 숙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주요 용어 :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사회참여, 활동적 노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사회참여의 정의와 연구 범위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의 중심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있다. 2020년대 중반 국내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만형 격인 1955년생이 60대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막내 격인 1963년생이 만 60세에 도달했으며, 특히 2024년은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60대가 되는 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베이비붐이 있었던 1968~1974년에 태어난 소위 '2차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접어드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처럼 대규모 인구집단이 차례로 노년기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둔 상황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적 없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노년기 진입은 일생의 마지막 단계 생애주기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생애주기 단계가 변화된다는 의미 이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환경에서 전환 요구가 생긴다. 모든 개인은 인생 과정에서 일상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개인의 행동과 사고의 방향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다양한 내용의 수많은 사건에 직면하게 되지만(Filipp, 1981, p. 3), 특히 전환기에는 더욱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의 성공적인 전환 경험은 긍정적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생애전환기에 적극적인 생활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동적인 사회활동은 노년기 생애전환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고립과

단절 대신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활용해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미래형 사회현상으로 여겨진 베이비부머의 고령인구 편입이 현실이 된 현시점에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이전 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유한 코호트 특성에 주목할 때,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인구 전반의 내적 성향 변화에 대한 사회구조적 수용이 지연되는 현실은 '구조적 지체(structural lag)'로 표현되며(Riley, Kahn, Foner, & Mack, 1994), 이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한국 사회에서 더 크게 우려되는 현상이다.

노인이 된, 또는 되어가는 베이비부머의 사회 내 '역할', '기능', 사회가 부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은 기존의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논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언급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생애전환기 활동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기회와 여건에 한정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전환 능력은 사회 시스템적 역량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Griebel & Niesel, 2011, p. 38). 새로운 생애주기에 따른 적응행동이 요구되는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생애 연속성 관점에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오래 발휘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사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체 인구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지는 양적·질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들의 경력 활용에 사회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현재 법적·제도적 지위와 경제적 사정이 변화하는 생애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경험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편입으로 사회적 생산성 저하와 사회보장 제도의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 고령자 적합적 역할을 제

시하고 관련 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적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생애전환 지원 과제는 긍정적 생애전환 경험을 지원하는 정책과제이며, 이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매개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 마지막 생애주기인 노년기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령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시간 자원의 양적, 질적 가치를 사회의 유용한 자산으로 개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현시점을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새로운 노년기 사회참여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으로 판단했다. '성공적 노화'가 한때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기도 하는 등 노화 과정에서도 '성취'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근로활동 이외의 사회참여 영역은 매우 제한적인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전환기에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루고, 특히 기존 연구에서 '참여/미참여'의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사회참여의 단계와 맥락을 이해하여 참여 활동의 능동성·적극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다룬다. 또한 활동의 연관성이 높으나 기존 연구에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져 온 자원봉사·사회공헌-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을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영역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 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 지원 과제로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첫째, 문헌 연구에서는 노년기 사회참여 지원, 생애전환 지원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 문건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기존 사회참여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의 사회참여를 재정의하고, 연구 범위를 제시하였다. 체계적 문헌분석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다룬 국내외 연구를 대상으로 사회참여의 범위 및 측정 방법,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둘째, 2차 자료 분석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형태에 대한 기초 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1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이후 세대인 2차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인 산업화 세대와 다양한 세대적 특성과 사회참여 활동 양상을 비교했다. 이어서 수행한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유형화에서는 고령화 패널을 활용하여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1차 베이비부머 12명, 2차 베이비부머 5명을 반구조화 설문지로 대면 면접 방식으로 인터뷰했다.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베이비부머를 개별 사례로, 사례 내,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고 2차 자료 분석에서 수행한 유형화 결과와 연관 지어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넷째,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현장전문가 자문회의는 마을활동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가와 중간 지원 조직의 센터장, 전담직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한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의 다양한 지원 사례를 청취함으로써 자원 봉사,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영역에서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확대

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학계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연구모형 논의, 자료 분석과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전환 지원 과제 도출을 논의했다.

제3절 사회참여의 정의와 연구 범위

1. 사회참여의 정의

2002년 WHO의 보고서를 통해 Active Ageing 개념이 국제사회에 제안된 이래 사회참여 활성화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인 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적 접근으로 여겨진다. 사회참여는 지금까지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담론의 핵심적 구성 요소로 다루어져 온 것은 물론, 개념적, 이론적 연구도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됐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다양하게 정의해 왔다. 사회참여를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과 참여 방식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특정 대상이나 의미 부여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먼저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윤종주(1994)는 사회참여 개념을 다루면서 협의와 광의의 개념을 구분하여 협의의 개념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광의의 개념으로는 취업활동,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활동을 포함하였다. 김종인, 김윤정(2013)은 사회참여를 “2인 이상의 공식적, 비공식적 단체에서의 참여로, 경제활동과 자원봉사 및 여가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 연구에서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나 가족 간 행사를 제외하였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교육활동을 여가활동에 포함하여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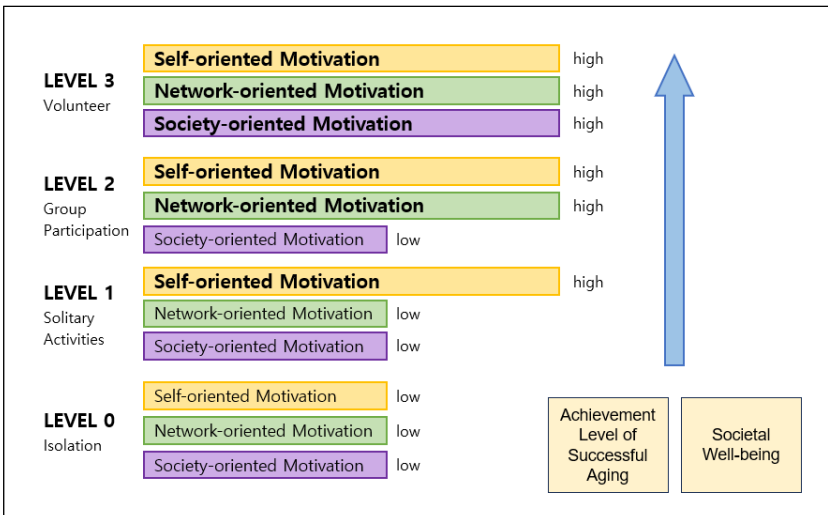
사회참여에 대해서 학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의로, Levasseur, Richard, Gauvin, & Raymond(2010, p. 2148)는 사회참여를 “사회 또는 커뮤니티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사회참여 관련 선행연구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으로, 2022년에는 이후의 연구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상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회적 참여는 커뮤니티 생활과 중요한 공유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가용한 시간과 자원에 따라 발전하고 사회적 맥락과 개인이 원하는 것과 의미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Levasseur et al., 2022, p. 8).

사회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참여 관련 정의에서는 대부분 참여에서 타인과의 관련성을 전제하나, 타인과의 교류와 친목도모를 넘어서 공동의 이익, 나아가 공동의 목표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사회참여에서의 가치 추구 관련 의미를 부각시킨 정의로, Chan(2010)은 사회참여를 “사회적 행위자가 공동의 선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 잠재력”을 모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Roßteutscher는 사회참여를 “사적 영역을 넘어서고, 직접적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는 공동의 행동을 하는 참여 형태를 총칭하는 개념”(Roßteutscher, 2009, p. 163)으로 정의하여 가족 범위를 넘어서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경혜, 김주현, 박경숙, Hiroko Akiyama, 이재인(2011)과 Levasseur et al.(2010)에서는 사회참여의 동기, 목적에 따라 개념을 위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경혜 외(2011)에서는 사회참여를 “모임이나 단체 참여와 같은 비교적 조직화된 형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경혜, 박경숙, 히로코 아키야마, 이재인(2010)에서는 공식적인 형태인 모임/단체 참여와 이웃과의 교류를 포함하는 비공식적 형태의 사회참여를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회참여 위계 모델에서는 3가지 참여 유형(혼자 하는 취미활동, 모임이나 단체활동, 자원봉사 성격의 모임이나 단체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를 판단하여 사회참여를 4단계로 구분한다. 세 유형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고립상태(0수준), 혼자 하는 활동(1수준), 지역사회 모임이나 단체, 취미·여가모임 참여(2수준), 봉사활동 참여(3수준)로 분류한다. 각 단계는 위계성을 가지므로,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개인의 성공적 노화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낮은 단계에서 바로 최상 단계로 진입하기보다는 중간단계를 거쳐 더 높은 단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1] 사회참여 위계 모델



자료: Katagiri(2006), 한경혜 외(2010, p. 24)에서 재인용

비슷한 맥락에서, Levasseur et al.(2010, p. 2146)은 ‘사회활동’(social activities)을 관여 수준과 활동 목표에 근거하여 6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1-1〉 개인과 타인의 관여 수준과 활동 목표에 근거한 사회활동 분류

	관여/개입 수준 (상호작용)	활동 목표	활동 단위
1: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한 준비 활동	혼자	기본 욕구 지향	혼자 활동
2: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음	(물리적) 같이 있음		
3: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상호작용	사회적 지향	타인과 활동
4: 타인과 같은 목표로 협력하기		과업 지향	
5: 다른 사람을 돕기		타인 지향	타인을 위해 활동
6: 사회에 기여하기		사회 지향	

자료: Levasseur et al. (2010) p. 2146을 바탕으로 작성

이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1)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한 준비 활동, 2)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음, 3) 특정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4) 타인과 같은 목표로 활동하기(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5) 다른 사람들을 돕기, 6) 사회에 기여하기로 구분된다. 이 중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한 활동은 3)~6)에 해당하는 활동이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친교와 교류 중심(3), 목표 중심(4), 타인(5)과 사회(6)에 유익이 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활동단위로 구분하면, 홀로 단독으로 활동(1, 2)하는 형식, 타인과 함께 활동하는 형식(3, 4), 자신이 아닌 타인과 사회를 위해 하는 활동(5, 6)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타인 지향 활동(5)이 도움받는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되는 데 반해, 사회 지향(6) 활동은 잠재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개념화한다.

이처럼 ‘사회’ 활동은 관여/개입 수준, 활동의 목표, 단위 등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포괄하는 사회활동을 사회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활용도가 높다. 본 연구는 한경혜와 Levasseur et al.(2010)의 위계적 분류를 참고하여 3단계부터 6단계에 이르는 다양한 목표의 상호작용을 다루고자 한다. 단순 친교 목적의 사회적 지향부터 공동의 과업 지향, 나아가 타인과 사회 지향 등 다

양한 목표를 가진 사회활동이 시작되고 심화, 확대되는 맥락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차원의 교류 및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구성원 간 타인 지향적이고, 사회적 기여를 추구하는 사회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활동과 상호작용에 개인이 개입 또는 관여하는 것은 비교적 수동적인 참여에서 매우 적극적 참여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 (Levasseur et al., 2010, p. 2146). Boje 또한 사회참여를 공식조직과 비공식적 관계에의 능동적, 수동적 참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Boje, 2010). 이처럼 ‘참여’(participation) 개념 또한 다양한 수준과 단계로 분류될 수 있는데, 참여의 단계를 제시한 Arnstein(1969)에 따르면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권력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8단계로 구분하면 비참여 단계는 조작(manipulation), 대책치료(therapy), 형식적 참여 단계는 정보제공(informing), 상담(consultation), 회유(placation), 주민참여 단계에서는 파트너 관계(partnership), 권력위임(delegated power), 주민 통제(citizen control)로 이루어진다.

비참여 단계는 ‘조작’과 ‘대책치료’는 자기결정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도구화되는 상태이며, 또한 형식적 참여 단계는 수동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단계, 그 상위 단계는 질의응답이 가능한 수동과 능동의 중간 단계로서의 상담, 회유로 표현되었다. 주민권력 단계부터 현안에 개입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공동결정과 권력 위임, 마지막으로 주민 통제 단계를 가장 높은 참여 단계로 개념화했다.

18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그림 1-2] 참여의 8단계 모델

주민 통제(citizen control)	주민권력 단계
권력위임(delegated power)	
파트너관계(partnership)	
주민회유(placation)	형식적 참여
상담(consultation)	
정보제공(informing)	
대책치료(therapy)	비참여
주민조작(manipulation)	

자료: Arnstein.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p. 217.

Wright, Block, & von Unger(2007)에서는 Arnstein(1969)의 모델을 발전시켜 참여를 9단계로 구분하여 위임, 전권(8단계) 단계를 넘어서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Selbstständige Organisation)하는 상황을 참여의 가장 높은 단계로 보았다.

[그림 1-3] 참여의 9단계 모델

직접 운영	참여 이상
전권	참여
부분적 전권	
공동결정	
고려, 참작	참여 전단계
청취, 경청	
정보수신	
통보	미참여
도구화	

자료: Wright et al.. (2007). Stufen der Partizipation in der Gesundheitsförderung.
https://www.armut-und-gesundheit.de/uploads/tx_gbbkongressarchiv/Wright_M..pdf

이처럼 사회참여의 개념은 사회활동의 성격만이 아니라 참여의 범위, 참여 배경, 참여 형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활동의 다양한 목적과 지향, 참여의 수준(참여적 수준)에 따른 사회 참여의 다양한 조합을 기존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다루어 왔고, 오히려 수동적 참여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사회 참여의 형태, 배경, 자기주도성 등 복합적인 의미를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과 참여활동의 위계적 구분 모델을 참고하여 직접 결정 과정의 일원이 되어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과 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능동적, 주도적 참여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참여를 ‘공식적·비공식적 형태의 모임·단체에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참여활동’으로 정의한다. 특히 사회적, 참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성원 간의 의미있고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하는 활동으로 이끄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로는 시민참여 실천 영역을 구분한 이금룡(2022)의 분류를 참고하여 사회참여 영역을 자원봉사/사회공헌, 지역공동체 활동, 사회적경제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룬다.¹⁾

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참여 활동은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경제활동과의 접점에 있는 사회적경제·사회적 협동조합 활동과 친목, 지역 문제해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포함한다.

1)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신념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조직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20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표 1-2〉 연구 범위

구분	연구 범위		
	자원봉사/사회공헌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활동
의미	- 생애 경력 활용 - 새로운 역할 모색	- 친교·친목 및 공동체 기반 여가·문화·교육 활동 - 지역사회 문제해결	- 구성원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형태	- 공식·비공식 봉사 단체 활동 - 일회적, 주기적 사회공헌, 재능기부 활동	- 공식·비공식 지역사회 단체 활동(마을공동체, 주민동호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활동 등)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조합원·구성원· 운영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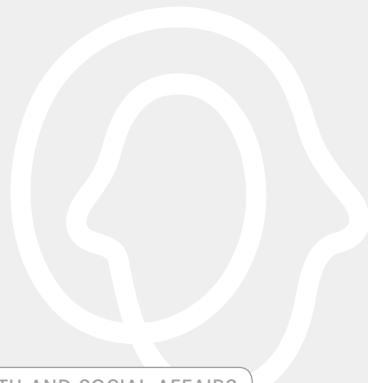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본 연구에서는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가 퇴직 후 지역사회에 데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참여의 기회와 계기가 열린다는 점에 주목하여 퇴직 후 만나는 새로운 ‘사회참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참여 영역별 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데뷔하는 베이비부머 입장에서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영역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베이비부머라는 참여 주체의 관점으로 여러 사회참여 영역에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과 사회참여

제1절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

제2절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과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
국내 제도와 프로그램



제 2 장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과 사회참여

제1절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

1. 생애전환의 개념

Laslett(1996)은 생애주기 4단계론에서 퇴직 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간(60~90세)을 ‘제3기 인생’으로 개념화하였다. 생애주기 4단계론에서 제3기 인생은 경제적, 육체적 의존성이 없으면서도 인생의 여러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다. 최근 제3기 인생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소득, 교육, 건강상태 측면에서 이전 세대보다 훨씬 나은 노년기를 보내고 있으며, 활동적으로 사회, 문화생활을 영위한다(Kohli, Künemund, Motel, & Szydlik, 2000).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생 제3시기의 역동성도 증가하고 활동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동성 증가는 개개인의 노화 과정을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만든다.

제3기 인생으로의 전환, 즉 새로운 생애주기로의 이행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한편으로는 성장의 기회가 되는 긍정적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생애(이력)의 변화와 단절을 의미하며 위기와 도전 과제로 인식되기도 한다(Franke, Heusinger, Knopik & Wolter, 2017). 역동적인 사회에서 노화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과정은 동일 연령대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아동, 청소년은 학교 입학, 진학, 전학 등 교육체계 내에서 생애전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나, 노년기 진입은 관련 경험에서 개인차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 생애 과정의 탈정형화와 베이비부머의 특징인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이 결합하여 노년기의 다양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반적 경향을 보면,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느끼고 있으며, 기존의 노인 분류에 대한 재검토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Künemund, 2005, p. 535). 따라서 소위 '이상적인' 은퇴 모델은 점점 사라지고, 노인의 삶의 단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발달과 기능 전반의 사항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임과 동시에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의무와 압박이 부여될 수 있다.

인생 후반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은퇴'는 노년기 생애전환의 가장 중요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현대 근로 사회에서 직업은 개인적 정체성과 인생에서의 다양한 기회의 핵심적 원천이기 때문이다(Kohli, 1985). 자신이 직장에서 해온 역할을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퇴직 후 자신이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처럼 여길 수 있다. 또한 일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근로시간이 빠진 자신의 생활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행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경제적 사정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족 외 동료, 친구 등과의 관계 등 사회적 네트워크 전반을 포함하는 일상의 재구조화를 필요로 한다(van Solinge, 2013).

이처럼 퇴직은 당사자의 심리적, 사회적, 감정적 적응을 필요로 하는 이력상의 전환점이다(Rosenkoetter & Garris, 1998). 퇴직 이후에 특정한 역할 부여가 없는 상황을 '역할 없는 역할(Burgess, 1960)'로 표현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생애전환 경험은 '퇴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년기에 사별, 자녀 분가 등으로 인해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 또한 '빈 둥지(가족)들(empty nesters)'이라는 단어가 활용될 정도로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자녀동거 여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베이비부머 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생애전환기는 우울감,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 계기와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며 ‘원치 않는 외로움’이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WHO에 따르면 중국, 유럽, 라틴아메리카, 미국 노인의 20~34%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사회적 접촉의 빈도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불만족”으로 정의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Holt-Lunstad, Smith, Baker, Harris, & Stephenson, 2015).

사회참여는 노인이 가족과 친구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통합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 권리로 이해된다. 노년기는 결핍과 상실의 단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사회적 관계, 교육 등의 측면에서 이전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았던 역량이 부각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은 노인의 인지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향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은퇴 이후에도 지역사회 혹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줌으로써,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생애전환기의 발달적 특성과 적응 관련 이론적 논의 검토

노년기 생애전환과 발달적 특성에 대해서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 연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활동이론은 현재 노인 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인정되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이론적 틀이 된 이론으로 노화의 부정적, 의존적 특성을 부각시키던 결핍 모델(deficit model)에 대한 반론으로 출발하였다. 활동이론은 노인은 활동적으로 생

활할 때 행복하다고 전제하고, 스스로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노화는 노인이 되어서도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지속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년기의 활동은 노인의 자아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긍정적 자기 이미지가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활동이론과 거의 동시에 개발된 이탈이론은 능동적 사회참여를 강조한 활동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노인들은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원하며, 노년기에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의무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고 노년기의 삶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활동성이 아닌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한 개별적 검토의 결과로 본다.

활동이론의 출발점은 노년기 또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으며 연령으로 인한 기능제한은 상당 부분 완화하거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Backes & Clemens, 2013, p. 60). 따라서 사회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은 '외부에서 부과된 강제'로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며, 노인들은 활발한 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찾으며, 기능제한으로 기존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함으로써 노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활동이론과 이탈이론은 노인기의 변화와 생활 사정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이론이었지만 노인기를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나머지 시간”(Künemund et al., 1999, p. 3)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은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가 시작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노년기의 생활이 기존 생활을 유지하고 내적 외적 연속성과 안전성을 가지기 위해 사회적 적응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연속성이론이 주목받았다(Künemund & Schroeter, 2014, p. 19). 연속성이론은 나이가 들어도 기존의 행동패턴과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연속성이론은 이탈이론(disengagement theory)과 활동이론(activity theory)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한다.

연속성 이론에서는 내적·외적 연속성이 구분되어 강조되고 있다. 내적 연속성은 개인의 특성, 감정, 선호도, 태도, 아이디어에서 나타나는 자기 보존 및 개성의 지속성을 의미하고, 외적 연속성은 사회공간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표현을 의미한다. 특히 중년에서 후기 성인으로 전환하는 동안 두 연속성의 성공적인 적응을 유지하는 것, 즉 자기 안전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기존의 생활 패턴과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Atchley(1989)는 이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삶의 부정적인 변화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 경험으로 나타나는 안정적인 역할 모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예를 들면, 연령 증가와 함께 경험하는 내부적 변화(예: 건강 악화)와 외부적 변화(예: 퇴직)에 직면하여 개인은 연속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자기 일관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Rupprecht, 2008, p. 8). 연속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생애 과정에서 행동 패턴을 통해 얻은 경험과,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생활 상황과 생활 조건의 발전에 대한 고려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나, 연속성 이론은 과거의 영향요인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생애 연속성은 전환과 혼란의 시기에 적어도 우리 삶의 한 영역은 안정되고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근거한다. 노년학에서는 노년기에 이전 생애주기에 수행했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년기 사회활동이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한다(Toffler, 1970; Kiyak & Hooyman, 1999; Atchley, 1989). 따라서 기존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생애전환 지원 차원에서 중요한 접근이다.

SOC 모델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스스로 자원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접근으로, 사람들이 중요한 목표를 선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최적화함으로써 손실을 줄인다고

가정한다. 기본 가정은 선택(Selection), 최적화(Optimization), 보상(Compensation)이라는 세 기본 구성요소의 결합이 사람들의 웰빙을 향상시킨다는 논리로, 노년학적 접근으로 연령 증가로 인해 제한되고 또 변화하는 자원 사용의 최적화를 이루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Baltes & Dickson, 2001).

이 이론은 노년기 이행이라는 생애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여기서 '선택'은 개인적 동기 또는 대면한 문제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의 추가 사용이 포함되는 '최적화'는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한 행동의 실천을 늘리거나 다른 적합한 행동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며, '보상'은 목표를 달성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장애물을 피하는 것과 필요에 따라 다시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조언, 지원, 대안적 접근 등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Zacher, Chan, Bakker, & Demerouti, 2015). 퇴직, 건강 악화 등 생애전환기 노인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와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경험은 적절한 목표 설정과 이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자원의 최적화와 보상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은 자신에게 있는 시간을 고려하는 인간 고유 능력에 기초한 발달이론이다(Carstensen, 2021).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추구하는 사회적 동기나 목표는 '획득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관계된 목표'와 '감정의 조절과 관계된 목표'로 나눌 수 있다(윤태웅, 김형문, 조준, 하지희, 조용준, 2019, p. 152). 사람이 자신에게 남겨진 삶이 많다고 생각하면, 미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우선시하지만, 제한된 시간이 남았다고 느낄 경우 현재의 정서적 목표에 우선순위를 둔다(Carstensen, 2006).

이처럼 사람들은 몇 가지 중요한 지점에 투자를 집중하며 그 결과 사회적 환경의 폭은 줄어들지만 제한된 커뮤니티 내에서의 정서적으로 깊고 친

밀한 유대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 이론은 나이가 들수록 지인 범위와 긴밀한 사회적 접촉 수가 비특이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과 모순되며,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에서 정서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접촉을 추구한다고 본다.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적다고 생각되면,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우선시하는 변화로 이어진다는 이론은 노인이 관계망 규모가 작아진 상태에서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인간의 행동 방침이 개인의 현재 우선순위와 미래에 가져올 일에 따라 수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과 사회참여

생애전환 역량은 사회적 역량이며, 성공적인 생애주기 전환은 세대 연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생애전환은 기존 연속성과 새로운 전환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일어난다. 전환요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회적 구조와 노년과 시대 특징적 기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구와 가능성, 자원 등과 관련 있다. 현재 베이비부머는 중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생애단계에 있으므로, 이 집단의 사회참여 욕구와 지원방안 또한 이러한 생애전환기라는 생애단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활동, 지위, 제도적용, 나아가 건강까지 다양한 변화를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상실'을 경험할 수 있고, 고립,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처럼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생애주기에 적응하는 데 진통을 겪을 수 있지만, 노년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해답이 존재한다. 오랫동안 신체적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과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능동적, 활동적 삶을 이어가는 것이 노년기에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확실한 것은 노인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유급 노동에서의 은퇴가 개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지역사회 구성원, 이웃, 멘토 및 고문 등으로 새로운 역할을 이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Kurz, 2011, p. 17). 따라서 노년기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옵션이 있는 삶의 한 단계이다.

물론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제안으로서의 Active Ageing은 전통적인 노년기 결핍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못했다. Höpflinger는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보다는 활발하고 능동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행동 변화가 먼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Höpflinger, 2019). 여전히 존재하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평가절하, 제한된 기회 등은 참여에 제한요인이 된다. 여기에는 개인, 지역사회 또는 국가 자원 및 시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개인 역량과 기회 부족,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Kurz, 2011, p. 17). 이처럼 베이비부머는 새로운 생애주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개인적 전환 경험,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 변화,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적 사회인식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다음 핵심 요소가 언급된다(UNECE, 2010, p. 12).

- 노인의 사회적 기여, 공헌에 대한 인정
-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 활성화
-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
- 그룹 활동 장려(예: 스포츠, 건강 및 영양 관리 관련 등)
- 새로운 사회적 만남을 촉진하기 위한 동년배 자원봉사자
-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
- 소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노인의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 노인의 기여와 공헌에 대해 인정하는 문화적 요소가 언급되었다. 이어서 친교활동, 소통의 전제가 되는 연락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자신의 이익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그룹활동, 노년기에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촉진할 기회를 갖는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또한 건강한 상태는 물론 기능제한을 가지고도 자신의 집에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소외지역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지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참여 기회에는 연락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 만남의 계기, 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과 서비스를 위한 인적·물적자원 등 여러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중요한 특성은 세대 내 '다양성'에 있으므로, 이들의 다양한 참여 욕구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욕구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 국내 제도와 프로그램

1. 생애전환기 사회참여 관련 정부정책

가. 노후준비서비스

현재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지원 정책은 대부분 재취업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경제활동 외의 영역은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노후준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커지면서 시작된 노후준비서비스는 대표적인 생애전환기 지원정

책이다.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406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생활 지원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2015년 12월 23일부로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에 기초하고 있다. 노후준비지원법에서는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제2조 1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후준비서비스의 분야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로 이루어진다(제2조 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2c). 서비스는 진단과 상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각종 교육,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맞춤형 재무설계와 연금이나 보험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영역이 있고, 비재무 영역으로 분류되는 ‘건강’ 영역에서는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이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건강실천정보를 제공하고, ‘여가’ 영역에서는 여행이나 평생교육, 취미, 자원봉사 등을 아우르는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건강한 소통방법을 다룬다(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2023). 특히 이러한 비재무 영역은, 향후 노후생활의 삶의 질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참여 기회의 연결 창구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2020년에 마련된 2차 노후준비 기본계획에는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노후준비 상담 및 교육 콘텐츠 재정비, 신중년 욕구에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개발 및 확대,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서비스 개발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신중년의 욕구에 특화된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도 신중년 특성별로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고, 신중년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 보급하여 확산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황남희 외, 2020).

나. 신중년 대상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신중년, 중장년 대상 정책에는 재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40세 이상 중장년의 욕구에 특화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중장년내일센터는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지자체 연계 특화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제공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생애과업을 이해하고 자신의 직업역량 및 가치관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은 선택 과정으로 자산관리, 관계, 여가, 건강을 포함하고 있으며, 퇴직 후 새로운 관계 맺기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 건강한 노후생활과 웰다잉을 위한 과정 등을 다루고 있다(고용노동부, n.d.a.).

2023년부터는 중장년의 여가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서 17개소를 지정하여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마련하였다. 청춘문화공간은 ‘중장년의 활력-재도약-사회활력 제고’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독서·글쓰기 등 자기계발, 여가문화 및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등을 제공하고 있다(중장년청춘문화공간, n.d.)

다. 사회참여 관련 기본계획

노인복지법은 노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법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했다(1장 2조). 또한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힘과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직종개발과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3장 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에는 고령자가 사회에서 다양한 참여기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중장년층의 직업과 경력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나,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²⁾에서는 사회공헌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전문인력의 기술과 경험 전수를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기여활동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회공헌활동 정보제공과 전문성 활용 기회 확대라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우선, 전문인력이 희망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는 사회공헌활동 정보를 ‘중장년 워크넷’, 중장년 센터 등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전문성 활용 기회 확대 과제에서는 퇴직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닥터제’, 학교에서는 우수 숙련 기술인의 기술 전수, 지식 멘토링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3. 1. 27.).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전 생애에 걸쳐서 삶과 학습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평생학습의 개념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을 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학습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대학의 전담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며, 독거노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수요가 높은 분야(인문, 자연, 건강, 문화예술 등)의 강좌를 대학에서 제공함과 동시에 고령층이 가진 지식과 기술의 사

2)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3에 의해 제1차(2007~2011), 제2차(2012~2016), 제3차(2017~2021)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제4차(2023~2027)를 시행하고 있다.

회적 활용을 위해 고령층의 평생학습강사 활동 지원 방안 또한 포함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2. 12.).

이외에 자원봉사진흥기본계획, 여가활성화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도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중요하게 다뤘다. 자원봉사기본계획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능기부, 프로보노 및 기업 자원봉사 모델 발굴 방안이 제시되었고, 여가활성화기본계획 또한 노인이 선배 세대로서 경험을 전달하고 사회적 독서를 실현하는 인문 멘토링, 문화봉사단,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 50+재단의 마을 기록가 양성사업을 인용하며 개성 있는 지역 문화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중장년의 역할을 주문했다. 기본계획 내용 중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재구성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1〉 사회참여 관련 기본계획과 베이비부머 역할

구분	과제	내용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관련 예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23~2027)	과제3. 일자리. 창업 기회 확대 3-2 사회가여 활동 지원 활성화	사회공헌활동 정보제공 - 사회공헌활동 정보 안내, 업데이트		
		전문성 활용기회 확대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전문인력의 지역사회 경력 활용 기회 확대 - 지역사회(경기도): 기업경영 경험 퇴직전문인력의 지역 내 청년 창업기업 대상 창업 멘토링 - 지역사회(부산시): 드론 자격 보유 신중년 활용 도시 안전시스템 지원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보유 산업전문가가 지역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술닥터제 운영 - 선배 벤처인이 ICT 분야 성장 지원, 퇴직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매칭, 애로기술 해결 지원 등

36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분	과제	내용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관련 예시
			학교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023~2027)	과제4.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4-1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정책 강화	고령층 특화형 대학 전담 과정 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숙련 기술인을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등 대상 맞춤형 기술 전수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세대 간 융합 프로그램 개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층 사회활동 참여 관련 일자리, 자격증 등 '액티브 시니어 트랙' 신설 고령층의 지식 및 기술 기부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 강사 활동 지원
		마을 단위 고령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화 - 고령층 맞춤형 학습컨설팅, 찾아가는 고령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 간 융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구상안 리더십 교육: 임원 출신 은퇴 기업인이 강사로 활동 실버 디지털교육: 청년층이 강사로 고령층 대상 교육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노인 건강대학(괴산읍) 교양강화, 여가활동 각 54회, 문화활동 3회(21년)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 (2023~2027)	과제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1-1 시민성 가치 확장 1-1-2 자원봉사 참여 영역의 확장	시민주도형 자원봉사 프로 그램 발굴 및 지원 재능기부 및 프로보노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및 신노년(베이비부머) 은퇴세대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봉사활동 활성화 프로보노 및 기업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지역 상생형 모델 발굴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2023~2027)	과제1 자유로운 여가누림 확대 1-3 생애주기별 맞춤 여가정책 추진	청년 중장년층 일과 여가 균형 지원 - 신중년 세대 특성에 맞는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통한 인문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이 예술 창작, 공연 주체가 되는 활동 : 이야기 할머니, 실버마이크 프로그램 등 선배 세대의 경험 전달 및 사회적 독서 실현: 인문 멘토링,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등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등

구분	과제	내용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관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로 어르신 삶의 활력과 품격 제고 - 창조적 여가, 사회공헌형 여가 등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2024)	과제3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 활용 3-2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미래 자산화	개성 있는 지역 문화의 개발 및 활용 지원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서울시 50+ 마을 기록가 양성 사업; 지역 이해도가 높은 50대 이상 주민이 전문기관과 마을기록물을 작성하고 관리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3. 1. 27.).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23~2027); 관계부처 합동. (2022. 12.).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평생학습 진흥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20. 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행정안전부(2023. 3).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 합동. (2023. 4.).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 문화체육관광부. (2020.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

2.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베이비붐세대 높은 교육수준과 의미 있는 직장 경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직접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앞으로의 사회적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을 돌보고 후속 세대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 대표적인 자발적 사회참여 영역인 자원봉사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1항」)로 정의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a).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 무급성, 공익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이금룡, 2013). 자원봉사는 활동 영역이 제한되는 노년기에 특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직장 생활의 종료가 삶의 의미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대가 없는 활동 수행의 원칙을 강조하는 자원봉사와 함께 전문성을 가

진 퇴직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여 고경력자가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 후 활동 무대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인구구조 전환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이 된다. 이러한 사회공헌 지원사업은 무급성에 기초한 자원봉사활동과 구분하여 ‘시민서비스’ 사례로 분류된다(이금룡, 2016). 시민서비스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지역, 국가 또는 국제사회에 관한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과 가치를 부여받는 활동으로, 참여자에게는 최소의 금전적 보상이 주어진다(Sherraden, 2001, p.2; McBride, Brav, Menon, & Sherraden, 2006, p. 307에서 재인용).

아래에서는 ‘무급성’을 대표로 하는 봉사의 원칙에 충실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정책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경험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활동의 결과로 정해진 대가를 받는 시민서비스(사회공헌 관련 사업)를 차례로 제시한다.

가. 베이비부머 자원봉사 관련 사업: 기관별 분류

1) 보건복지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노인 사회참여 지원’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의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에 근거하여 60세 이상(일부 사업 55세 이상 참여 가능) 고령자의 경험을 활용한 봉사 및 재능나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과 함께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동 사업은 개인이 아닌 5~50명 내외의 회

원으로 구성된 봉사단(클럽) 단위로 활동하며 봉사단(클럽)의 성격에 따라 <표 2-2>와 같이 활동 유형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재능나눔활동, 특성화 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봉사단(클럽)은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운영지원을 위탁받아 대한노인회지회와 노인복지관 등에서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실제 고령자의 자원봉사자 모집과 선발, 교육,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한다. 노인자원봉사단(클럽)은 1인당 154천 원의 사업비(수행기관 운영비와 봉사활동 지원비)를 10개월 동안 지원받으며,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8개월 활동기간 중 월 2회 이상의 활동시간을 투입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23, p.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n.d.).

<표 2-2>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유형	세부 활동	활동 내용
지역사회 봉사활동	주거 및 환경보호	마을공동체, 주거개선, 농이촌봉사, 기능·기술
	생활편의지원	급식지원, 식사·반찬지원, 이동지원, 청결지원, 활동보조
	안전지도	교통안전, 어린이·청소년·취약계층 안전제도, 지역방법
재능나눔 활동	상담 및 안내	말벗·상담, 전문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집단상담, 우울·자살 예방, 치매 예방,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강사(바둑, 장기 등) 등
	교육지도	멘토링, 학교폭력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스마트폰 및 IT 정보화 교육, 시니어 소비피해 예방교육, 학습지도, 세대공감 교육
	문화예술	민요, 국악, 악기, 스포츠댄스, 인형극, 가요, 사진, 연극 등 공연활동, 관광안내, 숲생태문화해설, 캠페인, 행사보조 등
	보건의료	간호·간병, 발마사지, 약손봉사, 수지침, 지압, 테이핑요법, 수기요법, 이·미용서비스 등 ※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참여 가능
특성화 활동	특성화 활동	위탁기관별 특성화 활동
기타	기타	위 활동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주: 60세 이상 고령자 참여 가능하며 활동기간 8개월, 활동시간 월 2회 이상임. 다만 특성화 활동은 55세부터 참여 가능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n.d.).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자원봉사활동.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08>에서 2023. 6. 22. 인출.

2)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지역사회 기반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2006년 ‘지역사회 변화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7년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를 시작으로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전국 노인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노인자원봉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사업으로는 ‘선배시민자원봉사단’과 ‘생애전환기 경험 프로그램’이 있다. 선배 시민자원봉사단은 2018년 처음으로 특화 운영을 시작했고, 2020년에 들어 본격적인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2021년 기준 수행기관 수는 239 개소이며, 488개의 봉사단에서 7,625명이 참여하고 있다(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보건복지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2021).

〈표 2-3〉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연혁

연도	내용
2006	Communtiy Impact ‘지역사회변화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7	제1회 전국노인자원봉시대축제 개최
2008~2009	노인자원봉사 리더양성 교육 및 활동지원 전문교육, 활동지원, 운영모델 보급
2010~2011	전국 노인자원봉사 네트워크 형성
2012~2013	대축제 향후 15년 노인자원봉사 미래비전 제시
2014~2015	실무자 실행공동체 형식 구축
2016~2017	우울자살예방 봉사단 특화 운영
2018~2019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특화 운영
2020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양적 확대 공동체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 선배시민 정책대회 운영

자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보건복지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2021). 2021년 선배시민자원 봉사 제1차 기관장 세미나 자료집. https://jwnoin.org/bbs/?act=bbs&subAct=view&bid=report&page=1&order_type=desc&seq=10885에서 2023. 6. 22. 인출.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의 ‘선배시민’은 자각, 학습, 참여를 통해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며 돌보는 존재라는 자기인식의 표현이다. 선배시민의 소양과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는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은 전국 18개소의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교육지원센터’를 두고 실무 네트워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및 예비 노인 대상 ‘생애전환기 경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동체 및 지역사회 권리증진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선배시민 총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배시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선배시민 강사클래스100’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보건복지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2021).

이외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애전환기 경험 프로그램도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젊은 노인집단의 교육과, 자조모임 및 학습, 실천, 성과평가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만 55세 이상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 세대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기반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하고 자기 주도적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이금룡, 2020, p. 44).

나.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관련 사업: 기관별 분류

1)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업³⁾

현재 고용노동부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⁴⁾ 퇴직한 전문인력에게

3) 고용노동부(2023, n.d.d.)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취업능력 향상, 전직 및 재취업 제도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므로, 부분적으로만 다룬다.

4)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2011년 20억 원 예산으로 716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어 2020년에는 예산 179억 원, 11,615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이로운넷, 2020.12.21.). 2022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 전환 보전금사업으로 분류되어 2026년까지만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42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근로 경험을 쌓아 민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행기관은 행정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등이다. 사업 대상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해당 분야의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이며 지원 내용은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과 4대 보험 가입이며,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등의 요건이 다르다.

〈표 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구분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대상	지원요건/운영기관	지원 내용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50~69세 퇴직 전문 인력 의 지역사회 공공 일자리 제공 으로 민간일 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 시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 수행기관: 행정·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등 - 활동 분야: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재무회계금융, 사회 서비스,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13개 분야	-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연차수당 포함), 4대 보험 가입

자료: 1) 고용노동부(2023), 2023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 pp.20-31을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2) 고용노동부. (n.d.d.). 정책자료)분야별 정책(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6.do>에서 2023. 6. 22. 인출

2) 공무원 연금공단: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지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지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G-시니어(www.g-senior.kr)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상록 봉사단’은 자생적, 자발적 성격을 가진 지역사회 봉사조직으로, 노력봉사, 재능봉사, 전문봉사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중 전문봉사는 행정 상담이나 재난안전봉사 등 공직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다. 전국 10개 지역의 퇴직공무원 지원센터는 플랫폼에 접수된 참여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연결한다(공무원연금공단 블로그, 2019.4.27.).

Know-how+ 사업은 2017년 인사혁신처 주도로 50세 이상 퇴직자 중에서 사업별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8년에는 국민안전, 사회적 가치, 현장컨설팅, 역량개발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는 국민안전 분야 14개, 사회통합, 행정혁신 분야 14개, 경제활성화 분야 1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인사혁신처, 2023.4.13.).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ReSEAT)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능력과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시행되는 ReSEAT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청소년 과학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활동을 위해서는 ReSEAT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야 한다. 2023년 기준 1,96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계재료 분야 559명,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553명, 지식서비스 분야 227명 등 과학의 주요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경력과학기술인, 2023a). ReSEAT의 대표적 사업인 '중소기업 기술 멘토링'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 제품화, 산업화, 마케팅 등 기술과 경력 관련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계 등에서 퇴직한 회원(만 50세 이상)이 중소기업과 벤처 및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지원방식은 1:1 방식(개별과제), 1:다수 방식(공동과제)이 있고, 각각 600만 원,

9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경력과학기술인, 2023b).

4) 대표적 지자체 프로그램: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기도

서울시 ‘50플러스센터재단’은 서울시가 중장년 통합지원을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재단에서는 만 50~64세를 주 대상으로 하여 근로, 교육, 문화, 사회공헌 등 여러 영역의 상담과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50+ 보람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의 주력 사업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일자리를 지원한다. 2023년 기준으로 사회공헌일자리 5,156개를 운영하고 있고, 복지, 안전 교육/보육, 문화/예술, 환경, 경제, 지역특화 일자리 총 7대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0~67세 시민이며, 활동기간은 월 57시간 이내, 시급은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된다. 또한 교육참여자 수당이 실비로 지급되며, 상해보험 적용을 받는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사업은 지역복지사업단, 우리동네돌봄단/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상담원으로 각각 1,000명과 1,250명을 모집한다(서울시50플러스포털, 2023).

경기도에서는 2022년 12월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한 것에 이어 ‘5대 기회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는 이음일자리, 4060 맞춤형 재취업지원,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 중장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경기일보, 2023.3.29.).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에는 기후환경, 디지털, 돌봄문제 해결에 앞장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4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세부 분야로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자전거 업사이클링단, 펫티켓 지킴이가 있고, 디지털 분야는 미디어홍보단, 추억복원단이 있고, 돌봄분야는 주거환경개선단 등이 있다(경기포털뉴스, 2023.6.12.).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대상 대표적 사업으로는 행복캠퍼스 사업이 있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설계, 평생교육, 취·창업 등을 지원하는 행복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행복캠퍼스의 설치·운영 근거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 3조,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이며, 베이비부머(중장년)를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인 생애재설계를 돕기 위한 종합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사회공헌활동 등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경기신문, 2023.8.23).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회공헌 지원사업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5〉 주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공헌 지원사업

주관기관	프로그램	지원 단위	지원	활동시간
보건복지부 ⁵⁾	노노케어	개인	월 29만 원	(활동기간) 평균 11개월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취약계층지원	개인		
	공공시설봉사	개인		
	경륜전수활동	개인		
	지역상생활동	개인		
교육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⁶⁾ (각 지자체 교육청 및 평생학습관)	개인	1일 3시간 이상 활동 시 10,000원 1개월 최고 지급한도액 100,000원	-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⁷⁾	개인	활동실비 1일 4시간 이상 9천 원 지급 참여수당 시간당 2,000원 지급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20시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⁸⁾	개인	최저임금 이상 임금 (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 보험 가입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수준 상이
	SE프로 지원사업 ⁹⁾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개인	시간당 13,000~15,000원 (최대 58시간)	월 최소 40시간 월 최대 58시간

46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주관기관	프로그램		지원 단위	지원	활동시간
문화관광 체육부	인생나눔교실 ¹⁰⁾		개인	멘토링활동비 대면 1회 100,000원	15회 차 멘토링 진행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¹¹⁾		개인	월례교육(6회) 참석수당 1회 30,000원 활동 1회 40,000원	1년 중 3~12월 주 2~3회, 약 85회 활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경력 과학 기술인 활용지원 사업	중소기업기술 멘토링 ¹²⁾	개인/ 기관	기업 부담: 월급 50%, 기준월급 3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개별/공동 (자문형/과제형)에 따라 지원기간(횟수) 상이
		상시현장자문 ¹³⁾	개인	자문 1회당 30만 원	1사 최대 3회
서울시	서울시 50+보람일자리		개인	월 최대 525,020원	월 57시간 이내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린터 ¹⁴⁾		개인	시급 11,485원 월 최대 654,650원	5개월 활동 월 15~57시간
	경기도 이음일자리 ¹⁵⁾		개인	- 인턴 채용 연계 - 고용유지장려금 (60만 원) - 일경험수료지원금 (60만 원)	- 인턴 채용 연계: 월 40시간 이상 근로 - 고용유지장려금 (60만 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 - 일경험수료지원금 (60만 원) 3개월 인턴 수료

주: 프로그램 참여 연령조건은 프로그램별 상이함. 경기도 이음일자리의 경우 40세~64세 대상

-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07>에서 2023. 11. 20. 인출.
- 6) 대전평생학습관. (2023). <https://www.dllc.or.kr/web/board.do?menuIdx=108&bbsIdx=31115>에서 2023. 11. 20. 인출.
- 7)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n.d.).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http://www.seniormanse.org/rankup_module/rankup_cooperation/introduce.html에서 2023. 11. 20. 인출.
- 8) 고용노동부. (n.d.c.).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3.do>에서 2023. 11. 20. 인출.
- 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a). 2023년 「SE프로 지원사업」 SE프로 활동 희망자 추가모집.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pg=1&board_code=BO02&category_id=&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ed%94%84%eb%a1%9c&search_type=title&seq_no=249872에서 2023. 11. 20. 인출.
- 10)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 (2023). <https://aec.skuniv.ac.kr/4857>에서 2023. 11. 20. 인출.
- 11)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 (2023). https://www.storymama.kr/bbs/AWM020101_P002/26660?page=1에서 2023. 11. 20. 인출.
- 12) 고경력과학기술인. (2023c). <https://www.reseat.or.kr/portal/reqst/pblanc/list.do?pblancSeCd=M&menuNo=200088>에서 2023. 11. 20. 인출.
- 13) 고경력과학기술인. (2023d). <https://www.reseat.or.kr/portal/reqst/pblanc/list.do?pblancSeCd=C&menuNo=200090>에서 2023. 11. 20. 인출.
- 14) 경기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 (2023). <https://gg5060.or.kr/bbs/?Act=bbs&subAct=vie>

3. 사회적경제 활동

사회적 가치 제고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이타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위기 등 불가항력의 위기를 겪고, 기존의 성장주의,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사회 전반의 회의감을 경험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해법을 담은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관심이 커졌다. 이런 배경에서 OECD는 2022년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 (Recommendation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지역경제고용개발협력 프로그램 운영위원회가 제기한 안에 대한 각료이사회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문에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문화조성, 사회적경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본 틀 마련 방안, 금융 및 자금 이용 지원, 공공 및 민간시장 진출 촉진 방안 등이 명시되어 있다(OECD, 2023).

국내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되고, 201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시작되었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2014년에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고,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운영이 시작되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b).

이러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베이비붐 세대에 특화된 것은 아니나, 이 사업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정규 노동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은퇴하는 과정에서 일과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

w&bid=support&seq=1835에서 2023. 11. 20. 인출.

15) 경기도일자리재단. (2023). https://www.gif.or.kr/web/gif/bbs/notice/5521?cp=1&sv=%EC%9D%B4%EC%9D%8C&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bcId=notice&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true&baUse=true&allBoardSearch=false에서 2023. 11. 20. 인출.

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조합을 다룬다. 각 영역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마을기업의 경우 아직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한다.

〈표 2-6〉 사회적경제 영역 정의

	사회적경제 영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2). 사회적기업육성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사회적기업육성법#undefined>에서 2024.2.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협동조합기본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협동조합기본법#undefined>에서 2024.2.1. 인출; 행정안전부. (2023a).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82564>에서 2023. 7. 20. 인출.

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의미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c).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접 및 간접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동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예비적 사회적기업 지정이 요구되며 사회적기업 인정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진행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과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표 2-7>에 제시하였다. 2023년 6월 7일 기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총 3,534개이며(사회적기업포털, 2023), 사업적 기업 육성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인증 사전심사, 인증 등의 업무, 사업적 기업가 육성 지원 관련 위탁운영기관 및 창업활동 지원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한다.

<표 2-7>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¹⁶⁾

구분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대상	지원요건/운영기관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보험료 포함) 및 사업 개발비, 경영 컨설팅, 모태 펀드 등 직· 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사업주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②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 목적 실현(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일정 비율 비원('23년 지원단가 1인당 월 2,010,580원×지원율* *예비 50%, 인증 40%+ 20%~30% 추가(취약계층)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1인당 월 206,050원, 4년 한도) - 그외 사업개발비, 브랜드· 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경영지원, 판로개척, 금융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등

16)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는 2023년 9월 발표된 제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다. 자생력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영역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0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자료: 1) 고용노동부. (2023). 2023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 pp.20-31을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2) 고용노동부. (n.d.e.). 정책자료>분야별 정책(사업주 지원, 일자리창출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do>에서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2023.06.07. 인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조합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주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인가와 설립등기를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합원이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한다.

지역 사회 개발, 고용 창출, 교육 지원, 환경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공익 사업 비중이 40%이 되어야하며, 지역사회공헌과 지역 주민권의 증진을 목표로 취약계층에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 국가 및 지자체의 위탁사업 등을 수행한다(COOP 협동조합, n.d.a).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 5,037개소로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2036개소로 가장 많다(COOP 협동조합, n.d.b).

사회적협동조합은 여러 사업유형 중에서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주사업 유형을 선택하며, 사업계획서나 수입·지출 예산서상 40%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 주사업 유형은 아래와 같다.

〈표 2-8〉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유형과 사업 내용

주사업유형	사업 내용
지역사업형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권리 복지증진 및 기타 지역 사회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복지·의료·환경 등 분야) 제공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위탁 사업형	국가·지자체 위탁 사업
기타 공익증진형	기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혼합형	위 유형 중 2개 이상 해당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2). 협동조합설립안내.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eyword=&page_now=&brd_no=10828&brd_mgrno=6&menu_no=2042 p. 8에서 재구성(2024.1.2. 인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도와 법인 성격, 소관부처, 배당 등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에 따라 소관부처가 다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고, 배당이 불가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당 가능한 이윤이 생기는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 인가 이후 인증 신청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p.4)

나.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2011년에 처음 출범하여 2023년 기준 약 1,700개가 운영되고 있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운영으로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의 설립 요건은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이며,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춰야 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 시 최대 3년간(1차 연도 5천만 원, 2차 연도 3천만 원, 3차 연도 2천만 원)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의 20% 수준의 별도 자부담이 요구된다. 전국에 마을기업으로 등록된 기관은 총 1,770개로, 서울 109개, 경기 208개, 전남 201개, 충남 158개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행정안전부, 2023b).

〈표 2-9〉 마을기업 운영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업수	1,770	109	73	98	58	67	59	48	35	208	140	94	158	113	201	141	128	40

자료: 행정안전부. (2023b). 마을기업운영 현황(2022.12 기준). <https://mois.go.kr/frt/sub/a06/b06/village/screen.do>에서 2023. 7. 20. 인출.

2023년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 41개를 선정하였다.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되면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행정안전부, 2023. 6. 18.).

지자체별 지원정책 중 대표적인 서울시 마을기업 전문교육 ‘마을기업 사업역량강화교육’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재지정을 위한 필수 이수 사항으로 시행한다(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3a). 교육과정과 함께 개별 컨설팅 서비스인 ‘마을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컨설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울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6~10회의 컨설팅을 기업의 자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영전략, 경영관리, 마케팅 영역에서 총 15개 세부 분야 중 기업별로 2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사업 기준으로 총 67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에 참여했고, 지원 대상 마을기업은 13개 사이다(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3b).

다.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 과정을 초기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팀)나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기업)이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면, 창업준비공간, 창업자금,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방식은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상시적, 전문적으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2-10〉 사회적기업가 육성 정책 개요

구분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대상	지원요건/운영기관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가 육성	-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자를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	- 지원방식: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상시적·전문적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창업준비공간, 창업자금*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킹 등 * 창업팀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팀당 7백만 원~5천만 원)

자료: 1) 고용노동부. (2023). 2023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 pp.20-3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고용노동부. (n.d.f.). 정책자료>분야별 정책(사업주 지원, 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14.do>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업 단계별로 예비창업팀과 초기창업팀에 다른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는 소셜미션 확인, 사업모델 수립 등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초기창업팀을

대상으로는 기업가가 가진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 멘토링과 교육, 자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정책(단계별)

	예비창업팀	초기창업팀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여 대상 확대 및 소셜미션에 기반한 창업팀 육성을 위해 창업 희망자를 선정하여 육성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가(창업희망자 대상) 발굴을 통해 창업자금 및 소셜미션 확립·사업 모델 수립 등 기초역량 제고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및 창업자금, 교육·멘토링 등 지원
사업 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팀/창업을 준비 중인 미창업자	-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선정 규모	185팀 내외	640팀 내외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기관 내 사무공간 입주 가능, 상시 담임멘토링 및 분야별 전문가 연계, 창업필수교육 제공, 민간·공공부문 자원 및 네트워크 연결 - (창업자금) 사업개발, 팀 빌딩, 구성원 역량강화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백만 원) 지급.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육성사업 지원 시 혜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기관 내 사무공간 입주 가능, 상시 담임멘토링 및 분야별 전문가 연계, 창업필수교육 제공, 민간·공공부문 자원 및 네트워크 연결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5백만 원 협약('23.3월 예정) →중간평가('23.5~8월)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자료: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d).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모집공고.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pg=1&board_code=BO02&category_id=&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2023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예비창업팀+모집+공고&search_type=titl&seq_no=249456에서 2023. 11. 20. 인출.
-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e).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seq_no=248938에서 2023. 11. 20. 인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신중년 세대에 특화된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 입문과정과 전문성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별 창업 입문과정(중장년~시니어)에서는 사회적경제 창업을 위한 전문적인 실습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SE프로 지원사업은 진

흥원에서 은퇴전문가 신중년 세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경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 향상 및 개선을 위한 멘토링·자문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f). 이외에도 민·관·공공기관·사회적기업의 협업프로젝트로서 굿잡 5060은 현대차그룹, 고용노동부,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주)상상우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신중년 세대가 보유한 전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스타트업에 채용을 연계한다(굿잡5060, 2023).

지자체가 베이비부머와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사례로는 경기도의 이음 일자리 사업이 있다. ‘이음 일자리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베이비부머 인력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구직 중인 베이비부머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5인~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참여했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만 40세~65세 미만)을 매칭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로운넷, 2023.3.13).

4. 지역공동체 활동

노년기에 다양한 공동체와 네트워크 안에서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것은 Active Ageing 개념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최근 노인을 위한 생활공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커뮤니티 만들기’에 정책적 관심이 높다. 안정된 이웃과 안정된 가족 단위가 있는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균형 잡힌 ‘복지혼합’을 갖춘 ‘사회적 구성물(아키텍처)’이 필요하다(Heinze, 2016, p. 14).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한 도시 위주의 개발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어 지역공동화로 이어져 지역공동체가 함께 해체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김현호, 2013).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론의 대두와 함께 주민자치와 지역 활성화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행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노력은 2010년대 들어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침체된 지역단위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다양한 지역 문제에 대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해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공동체는 베이비부머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

가. 지역(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생적 또는 제도적으로 구성되는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한 구심점으로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지역주민 모임으로 반사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지역 동호회 등이 있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에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보편화되고, 개인주의와 가족 중심의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감소했고,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유지 관련 의결과 실행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루는 기구,

모임으로 남게 되었다.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의 의미가 퇴색되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이뤄낼 사업의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민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새롭게 지역의 공동체성을 구축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2019.11 개정)에 따르면, 마을공동체는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1장 3조 3항)를 말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1장 3조 4항)”을 의미한다. 조례에 명시된 주민의 권리와 책무(1장 5조)에는, 주민 모두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상호 간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지자체별로는 다양한 지역(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에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3월)하고, 같은 해 9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공동체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을공동체는 성장단계에 따라 ‘씨앗’, ‘새싹’, ‘희망’ 단계로 분류하여 커뮤니티 활동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표 2-12〉 서울시 마을기본계획

구분	내용
마을공동체기본계획 1기 사업 (2012~2017년)	- 교육돌봄 / 문화 / 주거 / 경제 / 모임형성 지원 / 활동지원 / 공간지원 / 모임 간 연계지원 등
마을공동체기본계획 2기 사업 (2018~2022년)	- 마을 깎이어 프로그램: 50플러스 캠퍼스의 중년-노년 이행기(gap-year) 교육프로그램의 지역사회형 모델로 연계 - 고령친화마을: 서울어르신복지종합계획(복지본부)에 따른 고령친화마을과 연계

자료: 1) 안현찬, 구아영.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2) 서울특별시. (2018. 3.). 2기(2018년~202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https://opengov.seoul.go.kr/public/16768662>에서 2023. 11. 20. 인출.

마을기본계획 1기 사업(2012~2017년)의 지역공동체 지원은 교육돌봄 / 문화 / 주거 / 경제 / 모임형성 지원 / 활동지원 / 공간지원 / 모임 간 연계 지원 등으로 분류되었다(안현찬, 구아영, 2016). 마을기본계획 2기 사업(2018~2022년)에서는 50+ 어르신 대상 사업을 개발하여 마을 깎이어 프로그램, 고령친화마을이 기획되었다(서울특별시, 2018.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2012~2020년 기간 동안 서울시 실·국 서울마을센터 공모사업 6,112건, 25개 자치구 공모사업 9,916건(130,686명), 뉴딜 일자리, 지역혁신 청년활동 참여 청년 활동가 480명(2013~2020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21).

경북 의성군에서 청년 지역 정착을 목표로 운영된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시행한 의성군은 특히 마을자치, 미래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주력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행복의성지원센터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의성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이웃사촌, 마을자치, 미래교육 등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서 진행되는 자치교육은 자치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권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행복의성지원센터, 202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도 매년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주요 사업으로는 ‘중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있다(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2023a).

나.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프로그램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지자체별로 다양한 형태로 기획하고 모집, 양성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지자체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양성하는 도시재생 관련 마을활동가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중장년세대(50대 이상)가 지역사회의 다채로운 활동을 취재하는 ‘50+마을기록지원단(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서울기록원, 서울마을센터 3주체의 협력사업)’, 커뮤니티 공간 활동가, 동 네트워크 지원 활동가 등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필요와 의제를 다루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86명에 이르는 마을지원활동가가 활동하였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21).

서울시 마을활동가로 활동한 이들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50대, 60대, 20대 순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서울시 마을기본계획 1기 사업의 전체 참여자 총 11,294명의 연령대는 40대 37%, 30대 22%, 50대 19%, 60대 10%, 20대 6% 순으로 보고되었다(안현찬, 구아영, 2016, p. 43). 이외 지자체의 각종 마을활동가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해도, 조사참여자 중에서 4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한편, 20대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전 연령

대에 걸쳐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다. 경기도 마을활동가 역량 정의 연구의 마을활동가 설문조사를 예로 들면, 조사에 참여한 마을활동가 (191명 대상, 여성 157명, 남성 34명)는 여성 40대가 34.6%, 50대가 34% 비중이고, 남성 60대는 7.3%, 40~50대 8.9% 분포를 보였다(고대권, 주미옥, 2021, pp. 52-53).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역별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다. 관련하여 활동 영역별로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13〉 지자체별 마을활동가 예시

구분	내용
마을계획수립	마을코디네이터(광주), 마을강사(서울 강서구), PM마을활동가(전주), 퍼실리테이터(의성),
교육·문화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전통문화체험강사(원주, 2020), 커피해설사(강릉)
주민관계, 문제해결	주민화해지원플래너(광주)

자료: 본문 각 활동별 설명에서 제시

마을 기획, 마을 계획수립 분야 활동가는 마을코디네이터(광주), 마을강사(서울 강서구), PM 마을활동가(전주), 퍼실리테이터(의성) 등이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성군의 퍼실리테이터는 주민자치 촉진자로 양성된 마을활동가이다. 이들은 지역 현안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각 마을에 적합한 창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퍼실리테이터 교육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행력 중심의 실습형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행복의성지원센터, 2023.2). 현재 의성군은 퍼실리테이터협회를 설립하여 활동가의 역량강화와 협회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에서도 PM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동을 선정한 후에 동별 현황에 맞게 마을계획 과정 기획, 마을조사 실시, 주민 요구 수요조사 진행, 주민 역량강화 교육, 마을계획

디자인 등을 수행한다(전주도시혁신센터, 2023).

교육/문화 분야에서 보성군, 원주시, 강릉시는 신중년, 고령층을 대상으로 활동가를 양성하였다. 보성군에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로 찾아가는 행복돌봄 코디네이터, 산림복지 기획, 시설운영 및 숲체험 지원 직무를 채용하고 있다. 원주시는 ‘흥해라 프로젝트’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전통문화체험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강릉 ‘송정동 라떼마을 프로젝트’는 마을의 고령층 주민들을 커피해설사로 양성하여 커피해설 투어, 커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이로운넷, 2022.8.22.).

광주에서 운영하는 광주마을분쟁해결 지원센터에서는 주민화해지원 플래너가 활동하고 있다. 화해지원 플래너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다양한 생활 갈등(층간소음, 누수, 주차, 반려동물, 층간 흡연 등)을 주민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이다. 이러한 활동가를 통해 마을 갈등을 맞춤형으로 예방 및 해결하고, 광주다운 마을 분쟁해결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정책 기반을 마련하며, 교류협력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2022).

5. 소결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과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 국내 제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생애전환기 지원사업이 ‘재취업’이라는 노동시장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활동 이외의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다. 생애전환 지원에 속하는 노후준비지원제도 또한 재무영역 외의 분야는 상담, 연계 서비스에 그치고 있어 생애전환기를 지나는 베이비부머가 직면한 노후생활에서 적절히 활용할 만한 내용은 부족하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분야인 자원봉사,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영역에서는 영역별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책의 적절성, 충분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확인된다. 자원봉사-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영역은 현재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며, 통합적 관점에서 해당 영역의 활동을 연계하는 주체가 없고, 따라서 통합적 관점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경력 활용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공무원, 과학기술인 외에는 경력자의 사회공헌을 지원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활동 기회가 역량 있는 베이비부머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베이비부머가 보람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에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참여 지원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내외부적 요소로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미있는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사업기간 종료 후 다른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예를들어 마을활동가 사업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한 사례는 전국적 확산을 고려해 볼 만한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진행한 마을활동가 양성사업은 구체적인 양성 목표와 활용계획에 대한 청사진 없이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여 의미있는 활동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본 장에서 확인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생애전환을 경험하는 베이비부머의 입장에서 적절한 사회참여 기회에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사회참여가 가져오는 결과를 탐구한다. 나아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 사회참여 욕구를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여러 정책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3장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제1절 체계적 문헌고찰: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관련
국내 연구

제2절 체계적 문헌고찰: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관련
국외 연구

제3절 소결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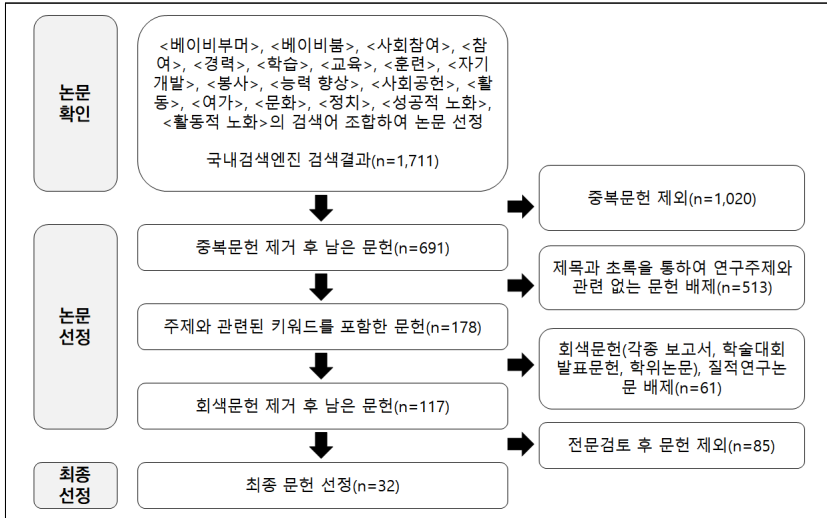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제1절 체계적 문헌고찰: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관련 국내 연구

1. 연구 방법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과 관련한 국내 학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KCI와 RISS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단계적 검색 작업을 수행하였다. 국내 문헌에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자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문헌의 출판 시점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았으며 2023년 9월 15일까지 검색되는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분석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문헌 검색과정에서는 <베이비부머>, <베이비붐>, <사회참여>, <참여>, <경력>, <학습>, <교육>, <훈련>, <자기개발>, <봉사>, <능력향상>, <사회공헌>, <활동>, <여가>, <문화>, <정치>,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관련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사회참여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3-1] 국내 문헌 선정 과정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3-1]에 국내 문헌 선정 과정을 제시하였다. 문헌의 선정 기준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검색어가 포함된 국내 학술지 논문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사회참여와 관련된 변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로, 즉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 양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양한 검색어의 조합을 통해 초기에 총 1,711개의 논문이 수집되었으나, 중복되는 문헌 1,020개를 제외한 결과, 총 691개의 문헌이 남았다. 이 중에서 제목과 초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헌 513개를 제외하였다. 제목과 초록 검토 과정에서는 사회참여의 다양한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본 논문(예.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은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나 여가 동기를 다룬 연구(예. 베이비부머의 여가동기, 여가만족도, 행동의도에 관한 영향관계) 등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 역시 실제 사회참여의 효과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고자 한 본 연구의 주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더불어 사회참여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예. 여가활동 참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생활만족 및 행복 결정요인) 또한 실제 사회참여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제목 및 초록의 검토를 통해 연구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문헌을 선별한 결과,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논문은 총 178개로 확인되었다. 그 후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문헌, 학위논문 등의 회색 문헌과 질적 연구 문헌 61개를 배제한 117개에 대하여 전문 검토를 실시하였다. 전문 검토 이후 85개의 논문을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32개의 논문이 선정되었다.¹⁷⁾

2. 연구 결과

가. 일반적 특성: 게재 연도 및 학술지, 연구 대상자, 자료수집 방법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과 관련한 문헌의 게재 연도와 분류를 <표 3-1>에 정리하였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건의 학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12편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게재된 것으로 해당 기간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다음으로 2014년부터

17) 본 연구의 1장 3절에서는 사회참여를 '공식적·비공식적 형태의 모임·단체에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참여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다양하고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발전시켜 호혜적 상호작용을 이루고,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하는 활동으로 이끄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체계적 문헌연구에서 검토하는 '사회참여'의 범위는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학습, 시민활동, 여가활동 등 참여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모임·단체 활동을 포함하였다.

2016년까지와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반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1편의 논문만이 게재되어 연구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확인하였다.

게재된 학술지 분야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학에서 11개의 논문이 게재되어 가장 많은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 학제 간 연구에서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관광학에서 4편, 공학에서 2편, 교육학에서 2편, 그리고 사회과학 일반, 정책학 및 행정학에서 각 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노인복지연구 5편, 한국콘텐츠학회지 3편, 호텔경영학연구 3편, 디지털융복합연구 2편, 사회복지정책 2편, 여가학연구 2편, 평생학습사회 2편, 한국노년학 2편, 한국산학기술학회 2편,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 1편, 인문사회21 1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편,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편, 한국융합과학회지 1편, 한국자치행정학보 1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편, MICE 관광연구 1편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2차 베이비부머인 1968~1974년생에 초점을 맞추었다(변진숙, 권찬호, 2016; 윤예인, 이현민, 김육진, 2019).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정의를 확장하여 1954~1968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여성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연구(변진숙, 권찬호, 2016)와, 남성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연구(김종순, 오세숙, 2018)가 각각 1편씩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남녀의 성비가 균등한 편이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에 비해 10%p 이상 많았다. 구체적으로 3편의 논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10%p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호길, 2016; 이호길, 2017; 이호길, 김광용, 심준섭, 2020), 5편의 논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0%p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경배, 모선희, 2023; 권수현, 현영섭, 2021; 길태영, 이진용, 2017; 김동주, 김나현, 도광조, 2020; 박승탁, 2021). 또한, 2편의 논문에서는 성별에 따른 분포를 명시하지 않았다(전성범, 임진선, 2021; 황영호, 2016).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집 방법을 살펴보았다. 총 32편의 논문 중 14편이 기존의 패널데이터(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강철희, 황지민, 이경혜, 2015; 김동주 외, 2020; 김소희, 2021; 김수영, 문경주, 장수지, 2016; 김종순, 오세숙, 2018; 김지훈, 강옥모, 문수열, 2013; 양지명, 정영금, 윤소영, 2017; 오주현, 2018; 윤예인 외, 2019; 이원지, 2017; 이현기, 2013; 전성범, 임진선, 2021; 정영금, 윤소영, 2014; 황영호, 2016). 그리고 나머지 18편의 논문은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1차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정, 2012; 공경배, 모선희, 2023; 권수현, 현영섭, 2021; 권현정, 박화옥, 2008; 길태영, 이진용, 2017; 김민정, 2013; 김윤정, 강현정, 2013; 김윤정, 이상진, 2017; 박승탁, 2021; 박혜영, 2020; 변진숙, 권찬호, 2016; 이호길, 2016; 이호길, 2017; 이호길 외, 2020; 정순둘, 전해상, 정주희, 2015; 정유수, 권소연, 이영순, 2021; 정유수, 이영순, 2022; 정은경, 김종근, 2017). 사용된 패널데이터에는 통계청 사회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한국복지패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다음, 각 연구의 대상자 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 수는 최소 213명에서 최대 7,831명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1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가 170명에서 1,115명 사이에 분포하였다.

연구 방법론의 경우 총 17편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론이었으며(강현정, 2012; 권수현, 현영섭, 2021; 권현정, 박화옥, 2008; 김소희, 2021; 박승탁, 2021; 박혜영, 2020; 변진숙, 권찬호, 2016; 양지명 외, 2017; 오주현, 2018; 이원지, 2017; 이호길, 2016; 이호길 외, 2020; 전성범, 임진선, 2021; 정순둘 외, 2015; 정영금, 윤소영, 2014; 정유수 외, 2021; 황영호, 2016), 9편에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공경배, 모선희, 2023; 길태영, 이진용, 2017; 김동주 외, 2020; 김민정, 2013; 김지훈 외, 2013; 윤예인 외, 2019; 이호길, 2017; 정유수, 이영순, 2022; 정은경, 김종근, 2017). 그 밖에도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문헌이 2편(김윤정, 이상진, 2017; 김종순, 오세숙, 2018), 다층모형을 활용한 문헌이 1편(김수영 외, 2016), 일원변량분석을 활용한 문헌이 1편(김윤정, 강현정, 2013), 이항 로지스틱을 활용한 문헌이 1편(이현기, 2013), 헤크만-선택 분석모형을 활용한 문헌이 1편(강철희 외, 2015)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최종 선정 문헌 분류

구분	2008 ~2010	2011 ~2013	2014 ~2016	2017 ~2020	2021 ~2023	총
사회복지학	1	3(2)	3(2)	2(1)	2	11(5)
학제 간 연구			1(1)	6(4)	3(2)	10(7)
관광학			1	3		4
학술지 분류	공학	1			1	2
	교육학		1		1	2
사회과학 일반				1(1)		1(1)
정책학			1			1
행정학			1(1)			1(1)
총	1	5	7	12	7	32

주: 2차 자료(패널데이터) 활용 논문 수를 () 안에 표기하였음.

자료: KCI와 RISS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문헌

나. 사회참여 범위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사용된 문헌을 분석하였다. 문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회참여가 종속변수로 사용된 논문은 총 17편이었으며(강철희 외, 2015; 공경배, 모선희, 2023; 권수현, 현영섭, 2021; 권현정, 박화옥, 2008; 길태영, 이진용, 2017; 김민정, 2013; 김윤정, 강현정, 2013; 김윤정, 이상진, 2017; 김지훈 외, 2013; 변진숙, 권찬호, 2016; 오주현, 2018; 윤예인 외, 2019; 이현기, 2013; 이호길, 2016; 이호길, 2017; 정유수, 이영순, 2022; 황영호, 2016), 독립변수로 사용된 문헌은 총 19편으로 나타났다(강현정, 2012; 권수현, 현영섭, 2021, 김동주 외, 2020; 김소희, 2021; 김수영 외, 2016; 김윤정, 강현정, 2013; 김종순, 오세숙, 2018; 박승탁, 2021; 박혜영, 2020; 양지명 외, 2017; 오주현, 2018; 이원지, 2017; 이호길, 2017; 이호길 외, 2020; 전성범, 임진선, 2021; 정순돌 외, 2015; 정유수 외, 2021; 정유수, 이영순, 2022; 정은경, 김종근, 2017). 또한, 사회참여가 종속변수이자 독립변수로 사용된 연구는 총 5편이 있었다(권수현, 현영섭, 2021; 김윤정, 강현정, 2013; 오주현, 2018; 이호길, 2017; 정유수, 이영순, 2022).

다음으로는 사회참여 범위 및 측정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그 결과를 <표 3-2>에 정리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사회참여 범위는 여가활동으로 총 21편의 문헌에서 문화생활 참여 및 관람, 체육활동 참여 및 관람 등의 여가활동을 살펴보았다. 여가활동의 정의는 다양하게 다루어졌는데, 그중에서 체육활동 및 관람을 다룬 문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문화 관람 및 참여 등 문화생활 참여 여부를 살펴본 문헌이 9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를 포괄적으로 다룬 문헌, 종교활동을 살펴본 문헌, 기타 사교활동을 다룬 문헌이 각각 3편

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여가활동의 개념적 정의를 하위 변수 또는 유형화를 통해 다룬 문헌이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이호길(2016)과 이호길 외(2020)의 문헌에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종교활동, 사교활동, 취미 및 휴양, 학습 같은 정신적 여가활동과, 운동 및 스포츠 활동 같은 신체적 여가활동, 그리고 사회참여나 봉사활동 같은 사회적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호길(2017)의 문헌에서는 스포츠활동, 사회활동, 취미활동 등의 외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면적 여가활동과, 개인의 마음수양이나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내면적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은경과 김종근(2017)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생산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의 유형으로 유형화하여 다룬 것을 확인하였다.

여가활동의 측정 방법을 살펴본 결과, 여가활동 참여 여부를 이분형 척도로 측정한 문헌이 총 7건 있었으며(강현정, 2012; 권현정, 박화옥, 2008; 김동주 외, 2020; 김윤정, 강현정, 2013; 김윤정, 이상진, 2017; 양지명 외, 2017; 정영금, 윤소영, 2014), 연간 참여 횟수를 연속형 변수로 측정한 문헌이 2건으로 나타났다(김소희, 2021; 김수영 외, 2016). 그리고 여가활동 참여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헌이 9건 있었으며(박혜영, 2020; 변진숙, 권찬호, 2016; 이호길, 2016; 이호길, 2017; 이호길 외, 2020; 전성범, 임진선, 2021; 정유수 외, 2021; 정유수, 이영순, 2022; 정은경, 김종근, 2017), 여가활동 참여 정도를 8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헌이 1건(오주현, 2018), 라이프스타일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문헌이 2건 있었다(김종순, 오세숙, 2018; 정순돌 외 2015).

여가활동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사회참여의 개념은 자원봉사로 총 15편의 문헌에서 자원봉사를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문헌은 0=참여하지 않음, 1=참여함 같은 이분형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나, 6편의 논문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박

승탁, 2021; 변진숙, 권찬호, 2016; 이호길, 2016; 이호길 외, 2020; 정유수 외, 2021; 정유수, 이영순, 2022), 7점 리커트 척도(윤예인 외, 2019) 및 8점 리커트 척도(오주현, 2018)를 활용한 문헌도 각각 1편씩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참여 여부를 살펴본 문헌이 7편 있었다. 그중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논문이 4편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공경배 외, 2023; 박혜영, 2020; 이호길, 2016; 이호길 외, 2020), 2편의 문헌에서는 이분형 척도를 활용하여 참여 여부를 측정하였다(강현정, 2012; 김윤정, 강현정, 2013). 더불어 1편의 논문에서 연속형 변수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 강도 수, 학습 시간 및 학습 비용을 측정하였다(권수현, 현영섭, 2021).

지역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 등 사회단체 참여를 통하여 살펴본 문헌은 총 6편으로 나타났다. 그중 이분형 척도를 활용하여 참여 여부를 측정한 논문이 총 3편으로 나타났으며(강철희 외, 2015; 김윤정, 강현정, 2013; 양지명 외, 2017),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살펴본 문헌이 총 2건(공경배, 모선희, 2023; 박승탁, 2021), 8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살펴본 문헌이 1건으로 나타났다(오주현, 2018).

다음으로는 일반적 사회참여를 살펴본 문헌이 총 4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중 3편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길태영, 이진용, 2017; 이원지, 2017; 이호길, 2017), 1편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13).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회참여를 살펴본 논문이 1편 있었다(황영호, 2016). 인터넷 기반 사회참여를 PC 기반 사회참여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 기반 사회참여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국내 문헌 사회참여 범위 및 측정방법

사회참여 범위		측정방법		사용 문헌	
자율봉사 (15편)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강철희 외(2015); 강현정(2012); 김소희(2021); 김수영 외(2016); 김윤정, 강현정(2013); 김지훈 외(2013); 이현기(2013)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박승탁(2021); 변진숙, 권찬호(2016); 이호길(2016); 이호길 외(2020) 정유수 외(2021); 정유수, 이영순(2022); 윤예인 외(2019); 오주현(2018)		
교육 및 학습 (7편)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강현정(2012); 김윤정, 강현정(2013)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공경배 외(2023); 박혜영(2020); 이호길(2016); 이호길 외(2020)		
사회단체 참여 (6편)	참여 수준(연속형)		권수현, 현영섭(2021)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강철희 외(2015); 김윤정, 강현정(2013); 양지명 외(2017)		
일반 사회참여 (4편)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공경배, 모선희(2023); 박승탁(2021); 오주현(2018)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김민정(2013); 김태영, 이진용(2017); 이원지(2017); 이호길(2017)		
온라인 사회참여 (1편)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황영호(2016)		
여가활동 (21편)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권현정, 박화옥(2008); 김동주 외(2020); 김윤정, 강현정(2013); 김윤정, 이상진(2017); 정영금, 윤소영(2014)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박혜영(2020); 오주현(2018); 잔성범, 임진선(2021); 정영금, 윤소영(2014)		
	삶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		정순돌 외(2015)		

사회참여 범위	측정방법	사용 문헌
문화관광 및 참여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권현정, 박화옥(2008); 김윤정, 이상진(2017); 정영근, 윤소영(2014) 박혜영(2020); 변진숙, 권찬호(2016); 오주현(2018); 정유수, 이영순(2022)
일반 여가활동	참여 수준(연속형)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삶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	김소희(2021); 김수영 외(2016) 강현정(2012); 양지명 외(2017) 김종순, 오세숙(2018)
종교활동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및 연속형 변수)	오주현(2018); 정유수 외(2021); 정유수, 이영순(2022)
기타 사교활동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정영근, 윤소영(2014)
정신적 여가활동, 신체적 여가활동, 사회적 여가활동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정유수 외(2021); 정유수, 이영순(2022)
외면적 여가활동, 내면적 여가활동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이호길(2016), 이호길 외(2020)
생산적 여가활동, 소비적 여가활동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이호길(2017) 정은경, 김종근(2017)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3-3>과 <표 3-4>에 정리하였다.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수준은 이분형 척도, 리커트 척도, 연속형 변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문헌에서 활용한 이분형 척도와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을 조사하였다.

우선 <표 3-3>에 이분형 척도를 통해 살펴본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을 정리하였다. 자원봉사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4.5%부터 70.0%까지의 참여율을 보여 큰 편차를 보였으나(강철희 외, 2015; 강현정, 2012; 김소희, 2021; 김수영 외, 2016; 김윤정, 강현정, 2013; 김지훈 외, 2013; 양지명 외, 2017; 이현기, 2013), 김지훈 외(2013)의 연구에서만 70.0%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10%대의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철희 외, 2015; 김소희, 2021; 김윤정, 강현정, 2013; 양지명 외, 2017; 이현기, 2013). 교육 및 학습활동 참여율은 17.5%로(김윤정, 강현정, 2013) 대다수의 베이비부머가 해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참여율은 5.6%에서 17.2% 사이로 확인되어(김윤정, 강현정, 2013; 양지명 외, 2017), 비참여율이 참여율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일반 사회참여의 경우 33.7%가 기타 사회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여(김윤정, 이상진, 2017), 참여하지 않는 베이비부머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중 문화예술 활동 경험 및 관람 참여 여부는 10.6%부터 79.1%까지 조사되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정, 2012; 권현정, 박화옥, 2008; 김윤정, 강현정, 2013; 김윤정, 이상진, 2017). 체육활동 및 관람에 대한 참여는 44.2%부터 51.7% 범위로 나타나(권현정, 박화옥, 2008; 김윤정, 이상진, 2017) 약 절반의 베이비부머가 체육활동 또는 관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활동 참여율은 한 연구에서 36.8%로 나타났다(김윤정, 강현정, 2013).

이외에도 이분형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2편 더 있었으나, 김동주 외(2020)는 구체적인 사회참여 수준의 값을 보고하지 않아 본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정영금과 윤소영(2014)의 논문에서는 여가활동별 참여 순위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구분했으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참여 여부의 정확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연구 결과를 본 표에 추가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표 3-4>에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살펴본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을 정리하였다. 자원봉사 참여 수준은 평균 3.34점(SD=.643), 교육 및 학습 참여 수준은 평균 3.52점(SD=.67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 사회참여 수준은 평균 2.99점(SD=.512)에서 3.34점(SD=.590)까지, 여가활동 참여 수준의 경우 평균 3.42점(SD=.552)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은 중간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7편의 논문이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를 분석하였으나, 구체적인 평균값을 제시하지 않아 본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길태영, 이진용, 2017; 박승탁, 2021; 이호길, 2016; 이호길, 2017; 이호길 외, 2020; 전성범, 임진선, 2021; 정은경, 김종근, 2017).

〈표 3-3〉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 이분형 척도

문헌	자원봉사	교육 및 학습	사회단체 참여	일반 사회참여	여가활동
강철희 외(2015)	자원봉사 참여(16.0%), 미참여(84.0%)				
강현정(2012)	자원봉사 참여(27.0%), 미참여(73.0%)				여가단체활동 참여(79.3%), 미참여(20.7%) 문화예술 직접 관람 경험 있음(79.1%), 경험 없음(20.9%) 문화예술 창작·발표활동 경험 있음(22.3%), 경험 없음(77.7%)
권현정 박화숙(2008)					문화시설 이용 경험 있음(40.1%), 경험 없음(59.9%)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경험 있음(11.6%), 경험 없음(88.0%) 체육활동 및 관람 경험 있음(51.7%), 경험 없음(48.3%)
김소희(2021)	자원봉사 참여(10.3%), 미참여(89.7%)				
김수영 외(2016)	자원봉사 참여(4.5%), 미참여(95.5%)				

문헌	자립봉사	교육 및 학습	사회단체 참여	일반 사회참여	여가활동
김윤정, 강현정(2013)	자립봉사 참여(19.3%), 미참여(80.7%)	교육활동 참여(17.5%), 미참여(82.5%)	시민활동 참여(5.6%), 미참여(94.4%)		종교활동 참여(36.8%), 미참여(63.2%) 문화활동 참여(29.0%), 미참여(71.0%)
김윤정, 이상진(2017)				기타 사회활동 참여(33.7%), 미참여(66.3%)	문화예술 활동 참여(18.4%), 미참여(81.6%) 대중문화 활동 참여(10.6%), 미참여(89.4%) 스포츠 활동 참여(44.2%), 미참여(55.8%)
김지훈 외(2013)	자립봉사 참여(70.0%), 미참여(30.0%)				
양지명 외(2017)	자립봉사 참여(11.9%), 미참여(88.1%)		동호회 참여(17.2%), 미참여(82.8%)		
이현기(2013)	자립봉사 참여(18.2%), 미참여(81.8%)				

〈표 3-4〉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 5점 리커트 척도

문헌	자원봉사	교육 및 학습	일반 사회참여	여기활동
공경배, 모선희(2023)			3.69(SD=.893)	
박혜영(2020)		3.52(SD=.678)		
변진숙, 권찬호(2016)	3.34(SD=.643)			3.42(SD=.552)
이원지(2017)			3.34(SD=.590)	
정유수 외(2021)			2.99(SD=.512)	
정유수, 이영순(2022)			3.21(SD=.388)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참여가 종속변수로 사용된 논문 17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3-5>에 제시하였다.

우선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 여부, 소득 및 경제수준, 경제활동 및 생산적 활동, 근로시간, 교육수준, 종교, 건강수준, 가족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강철희 외, 2015; 이현기, 2013)와 일반 사회참여(김윤정, 강현정, 2013)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 수준을 살펴본 경우 자원봉사와 일반 사회참여의 영역에서는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강철희 외, 2015; 김윤정, 강현정, 2013; 이현기, 2013),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여가활동 특성에 따라 남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권현정과 박화옥(2008)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문화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는 문화예술 동호회활동과 체육활동 및 관람 참여를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윤정과 이상진(2017)의 연구에서는 남성 베이비부머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은 기타 사회활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이 높은 베이비부머일수록 일반 사회참여에 더욱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우자가 있는 베이비부머일수록 여가활동(변진숙, 권찬호, 2016)과 자원봉사(강철희 외, 2015)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득과 경제수준은 다양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학습과 일반 사회참여에서는 소득 및 경제적 상태와의 정적인 연관성을 보였으나, 여가활동과 자원봉사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권현정과 박화옥

(2008) 그리고 김윤정과 이상진(2017)의 연구에서는 소득이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여가활동 참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변진숙과 권찬호(2016)의 연구에서는 더 높은 소득이나 경제수준을 가진 대상자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현기(2013)의 연구에서는 낮은 소득 및 경제수준 그룹에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지만, 강철희 외(2015)와 변진숙과 권찬호(2016)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원봉사 참여 간의 정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경제활동 및 생산적 활동에서도 다양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수의 연구에서 활발한 경제활동 또는 생산적 활동이 여가활동(변진숙, 권찬호, 2016), 자원봉사(변진숙, 권찬호, 2016), 일반 사회참여(길태영, 이진용, 2017; 김민정, 2013)의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철희 외(2015)의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수준이 낮은 베이비부머일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근로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참여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이현기, 2013). 여덟 번째,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철희 외, 2015; 이현기, 2013). 아홉 번째, 개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여가활동(권현정, 박화옥, 2008), 자원봉사(이현기, 2013), 일반 사회참여(김윤정, 강현정, 2013)에 더욱 적극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열 번째,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기, 2013).

다음으로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살펴해보았다. 환경적 요인 중 거주지 특성과 거주지 만족도가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특성의 경우, 농촌이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보다 여가활동(김윤정, 이상진, 2017), 자원봉사(강철희 외, 2015), 일반 사회참여(김윤정, 강현정, 2013)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 만족도의 경우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기, 2013).

이어서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 문화자본, 사회단체 참여,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심리적 안녕, 삶의 질,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공정인식, 은퇴 및 죽음에 대한 불안감 등이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지지는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이호길, 2017), 자원봉사(강철희 외, 2015; 김지훈 외, 2013), 교육 및 학습(권수현, 현영섭, 2021), 그리고 일반 사회참여(김민정, 2013)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단체 참여 등의 문화자본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여가활동과(권현정, 박화옥, 2008) 자원봉사에(강철희 외, 2015)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심리적 안녕, 삶의 질 등을 포함하는 주관적 삶의 질 및 정서적 안정감은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희 외(2015)와 김지훈 외(2013)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그리고 길태영과 이진용(2017) 및 김민정(2013)의 연구에서는 일반 사회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베이비부머는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강철희 외, 2015). 다섯 번째, 사회공정 인식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은퇴나 죽음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갖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여가활동(이호길, 2016; 정유수, 이영순, 2022) 및 자원봉사(정유수, 이영순, 2022)에 상대적으로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노력 성취에 대한 부정 평가는 자원봉사 참여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윤예인 외, 2019).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상황 이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약화될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적게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였다. 둘째,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는 교육 및 학습과 사회단체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경배, 모선희, 2023). 이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동기 부여 전략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학습몰입은 교육 및 학습과 사회단체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경배, 모선희, 2023). 이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학습몰입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PC 및 모바일 정보 콘텐츠 제작 능력과 네트워크 능력이 베이비부머의 온라인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황영호, 2016). 이로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3-5〉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정 결과: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높게 나타남					
문헌	자원봉사	교육 및 학습	사회단체 참여	온라인 사회참여	여가활동
연령	높음 (강철휘 외, 2015; 이현기, 2013)	높음 (강철휘 외, 2015; 이현기, 2013)	높음 (김윤정, 강현정, 2013)		
성별	여성 (강철휘 외, 2015; 이현기, 2013)	여성 (강철휘 외, 2015; 이현기, 2013)	여성 (김윤정, 강현정, 2013)		여성 (권현정, 박화옥, 2008 김윤정, 이상진, 2017) 남성 (권현정, 박화옥, 2008 김윤정, 이상진, 2017)
학력	높음 (강철휘 외, 2015; 이현기, 2013)	높음 (강철휘 외, 2015; 이현기, 2013)	높음 (김윤정, 강현정, 2013)		
배우자 여부	있음 (강철휘 외, 2015)	있음 (강철휘 외, 2015)			있음 (변진숙, 권찬호, 2016)
소득: 경제수준	낮음 (이현기, 2013)	낮음 (이현기, 2013)	높음 (권수현, 현영삼, 2021)	높음 (김윤정, 강현정, 2013)	낮음 (권현정, 박화옥, 2008 김윤정, 이상진, 2017)
경제활동: 생산적 활동	낮음 (강철휘 외, 2015)	낮음 (강철휘 외, 2015)	높음 (변진숙, 권찬호, 2016)	높음 (김태영, 이진용, 2017; 김민정, 2013)	높음 (변진숙, 권찬호, 2016)

인구
사회학적
요인

측정 결과: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높게 나타남					
문헌	자원봉사	교육 및 학습	사회단체 참여	온라인 사회참여	여가활동
	근로시간	낮음 (이현기, 2013)			
	종교	있음 (강철희 외, 2015; 이현기, 2013)		일반 사회참여 (오주현, 2018)	있음 (오주현, 2018)
인구 사회학적 요인	건강수준	높음 (이현기, 2013)	높음 (김윤정, 강현정, 2013)	높음 (김현정, 박희우, 2018)	높음 (김현정, 박희우, 2018)
	가족관계	높음 (이현기, 2013)			
	거주지 특성	읍면지역 (강철희 외, 2015)	농촌지역 (김윤정, 강현정, 2013)	농촌지역 (김윤정 이상진, 2017)	농촌지역 (김윤정 이상진, 2017)
환경적 요인	거주지 만족도	높음 (이현기, 2013)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	높음 (강철희 외, 2015; 김지훈 외, 2013)	높음 (권수현 현영섭, 2021)	높음 (김민정, 2013)	높음 (이호길, 2017)
	사회단체 참여; 문화자본	높음 (강철희 외, 2015)			높음 (김현정, 박희우, 2018)
심리 사회적 요인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심리적 안녕; 삶의 질	높음 (강철희 외, 2015; 김지훈 외, 2013)		높음 (갈태영, 이진용, 2017; 김민정, 2013)	높음 (갈태영, 이진용, 2017; 김민정, 2013)
	주관적 계층의식	높음 (강철희 외, 2015)			

측정 결과: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높게 나타남						
문헌	자임봉사	교육 및 학습	사회단체 참여	일반 사회참여	온라인 사회참여	여가활동
심리 사회적 요인	사회공정인식 (강철희 외, 2015)	높음				
	은퇴 불안; 죽음 불안	낮음 (정유수, 이영순, 2022)				낮음 (이호길, 2016; 정유수, 이영순, 2022)
	노력성취 부정평가	낮음 (윤예인 외, 2019)				
	평생교육 참여동기	높음 (공경배, 모선희, 2023) (정유수, 이영순, 2022)	높음 (공경배, 모선희, 2023)	높음 (공경배, 모선희, 2023)		
기타 요인	학습몰입	높음 (공경배, 모선희, 2023)	높음 (공경배, 모선희, 2023)	높음 (공경배, 모선희, 2023)		
	PC 및 모바일정보콘텐츠 소 제작 능력; PC 및 모바일 네트워킹 능력				높음 (황영호, 2016)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마.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가 미치는 결과 요인 분석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참여가 독립변수로 사용된 논문 20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3-6>에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봉사 참여가 베이비부머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높은 자원봉사 참여는 주관적 만족감, 심리적 안녕, 삶의 질,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김수영 외, 2016; 박승탁, 2021; 정영금, 윤소영, 2014; 정유수 외, 2021).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이 의미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와 우울감 간에는 여가활동 참여와 유사하게 부적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정유수 외, 2021; 정유수, 이영순, 2022). 이는 자원봉사 참여가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자원봉사는 여가활동과 함께 자기성장, 자기실현, 자아통합감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유수, 이영순, 2022). 이는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정서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참여가 사회통합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현정, 2012). 이는 자원봉사가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며,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교육 및 학습 참여가 베이비부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베이비부머의 교육 및 학습 참여가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권수현, 현영섭, 2021). 이는 교육 및 학습이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삶을 더욱 활발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 및 학습 참여는 베이비부머의 사회통합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강현정, 2012). 이러한 결과는 교육 및 학습이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육 및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노화 과정과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지속적으로 학습과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노화를 더 건강하게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사회단체 참여가 베이비부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사회단체에 더욱 많이 참여하는 베이비부머일수록 높은 신체적 건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원지, 2017). 사회단체 참여는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촉진해 신체 활동과 움직임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사회단체 참여는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심리적 안녕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승탁, 2021; 정영금, 윤소영, 2014). 이러한 결과는 사회단체 참여가 개인의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통하여 긍정적인 감정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즉, 사회단체 참여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적 복지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일반 사회참여는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심리적 안녕 및 삶의 질을 증진시켰다(김동주 외, 2020; 김윤정, 강현정, 2013). 일반 사회참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가활동, 자원봉사, 교육 및 학습, 사회단체 참여 등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새로운 경험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일반 사회참여는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주 외, 2020). 사회참여는 개인의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로써 우울 증상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가 다양한 사

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보았다. 우선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 참여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돌 외, 2015).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운동 등의 여가활동을 통해 신체적 활동성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 참여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 심리적 안녕,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소희, 2021; 김수영 외, 2016; 김종순, 오세숙, 2018; 박혜영, 2020; 정유수 외, 2021; 정은경, 김종근, 2017). 여가활동은 개인의 삶에 즐거움과 의미를 더하며,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증진시킨다. 더불어, 비슷한 기전을 통하여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이호길 외, 2020; 정유수 외, 2021; 정유수, 이영순, 2022). 여가활동 참여는 또한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이호길 외, 2020; 전성범, 임진선, 2021), 자기성장, 자아실현,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며 개인의 발전을 지원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이호길, 2017; 정유수, 이영순, 2022). 그 밖에도 여가활동 참여는 사회통합감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강현정, 2012), 대인관계(이호길, 2017)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여가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도(양지명 외, 2017) 및 ICT 이용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하였다(오주현, 2018). 이는 여가활동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기술 습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3-6〉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결과 변인

측정 결과: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교육 및 학습	사회단체 참여	일반 사회참여	여가활동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이원지, 2017)	높음 (이원지, 2017)	높음 (정순돌 외, 2015) 높음 (정순돌 외, 2015)	높음 (정순돌 외, 2015) 높음 (정순돌 외, 2015)
심리정서적 요인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심리적 안녕; 삶의 질	높음 (김수영 외, 2016; 박승탁, 2021; 정영근, 윤소영, 2014; 정유수 외, 2021)	높음 (박승탁, 2021; 정영근, 윤소영, 2014)	높음 (김동주 외, 2020; 김윤정, 강현정, 2013)	높음 (김소희, 2021; 김수영 외, 2016; 김종순, 오세숙, 2018; 박혜영, 2020; 정유수 외, 2021; 정은경, 김종근, 2017) 낮음 (이호길 외, 2020; 정유수 외, 2021; 정유수, 이영순, 2022)
성공적 노화	우울감	낮음 (정유수 외, 2021; 정유수, 이영순, 2022)	높음 (권수현, 현영심, 2021)	낮음 (김동주 외, 2020)	높음 (이호길 외, 2020; 권성범, 임진선, 2021)
자기성장; 자아실현; 자이통합감	성공적 노화	높음 (권수현, 현영심, 2021)	높음 (정유수, 이영순, 2022)	높음 (이호길, 2017; 정유수, 이영순, 2022)	높음 (이호길 외, 2020; 정유수, 이영순, 2022)
사회통합감	사회통합감	높음 (강현정, 2012)	높음 (강현정, 2012)	높음 (강현정, 2012)	높음 (강현정, 2012)

측정 결과: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교육 및 학습	사회단체 참여	일반 사회참여	여가활동
대인관계					높음 (이호길, 2017)
심리정서적 요인					높음 (양지명 외, 2017)
기타	ICT 이용 능력				높음 (오주현, 2018)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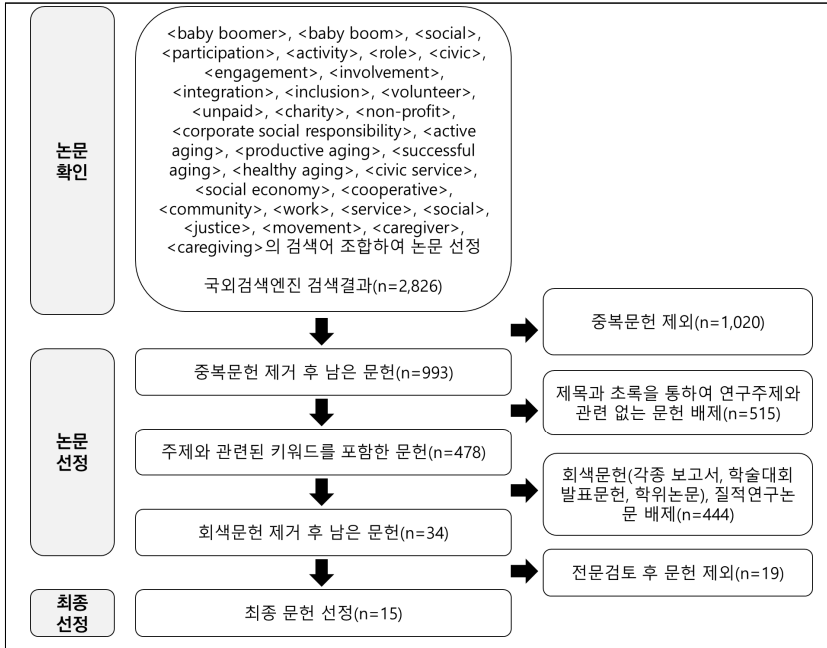
제2절 체계적 문헌고찰: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관련 국외 연구

1. 연구 방법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과 관련한 국외 연구 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PubMed, CINAHL, Web of Science, Scopus, and PsycINFO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단계적 검색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2023년 9월 15일까지 게재된 학술 저널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적 연구만을 포함시키고 질적 연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전문이 영어로 작성된 문헌으로 한정하여 최종 연구를 선정하였다.

문헌 검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적절하게 조합하였다: <baby boomer>, <baby boom>,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 <role>, <civic>, <engagement>, <involvement>, <integration>, <inclusion>, <volunteer>, <unpaid>, <charity>, <non-profi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e aging>, <productive aging>, <successful aging>, <healthy aging>, <civic service>, <social economy>, <cooperative>, <community>, <work>, <service>, <social>, <justice>, <movement>. 선정된 문헌의 출판 시점은 한정하지 않았다.

[그림 3-2] 국외 문헌 선정 과정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3-2]에 국외 문헌 선정 과정을 제시하였다. 검색어를 조합하여 수집된 논문은 총 2,826편이었고, 이 중 중복 문헌 1,833개를 제외하여 993개의 문헌이 남았다. 그중에서도 제목과 초록을 통하여 연구주제와 무관한 문헌 515개를 제외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유급 근로로 인한 사회 참여 활동과 관련된 문헌은 배제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회색 문헌인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학위논문 등의 회색문헌과 질적 연구 문헌 444편을 배제하였고, 34편의 연구에 대해 전문 검토를 실시하였다. 전문 검토 이후 19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2. 연구 결과

가. 일반적 특성: 게재 연도 및 학술지, 자료수집 방법, 연구 대상자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과 관련한 국외 문헌의 게재 연도와 분류를 <표 3-7>에 정리하였다. 첫째, 문헌의 게재 연도를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건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의 논문 게재 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3편의 논문이 발간되어 초기 연구 활동은 미미하였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7편의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건의 논문이 발간되어 2016년 이후로 최근까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술지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학제 간 연구에 6편, 노년학 연구에 3편이 게재되었다. 다음으로는 정치학에서 2편, 그리고 사회복지학, 사회학, 사회과학 일반 및 종교학에서 각각 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서 총 3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가장 많은 문헌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Acta Politica,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BMC Geriatrics, BMC Women's Heal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Political Communication, Religions, Sociologica, SSM-Population Health의 학술지에 각각 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학회지 발행 국가를 살펴보았을 때, 영국이 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위스와 미국에서는 각각 4편, 그리고 호주와 슬로바키아에서는 각각 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표 3-7〉 최종 선정 문헌 분류

구분	2001 ~2003	2004 ~2007	2008 ~2011	2012 ~2015	2016~ 2019	2020~ 2023	총
노년학					2(2)	1(1)	3(3)
학제 간 연구					2(2)	4(3)	6(5)
정치학	1(1)	1(1)					2(2)
학술지 분류	사회복지학				1(1)		1(1)
	사회학				1(1)		1(1)
	사회과학 일반			1(1)			1(1)
	종교학					1(1)	1(1)
총	1(1)	1(1)		1(1)	7(7)	5(4)	15

주: 2차 자료(패널데이터) 활용 논문 수를 () 안에 표기하였음.

자료: PubMed, CINAHL, Web of Science, Scopus와 PsycINFO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문헌

셋째, 연구 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중 연령 분포는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한국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미국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분류하고 있어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와는 다른 연령 범위를 보였다. 미국, 유럽, 영국, 호주 등에서 진행한 연구의 대상자 연령 범위는 대체로 1943년에서 1964년 사이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과 대만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연령 범위가 1945년부터 196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 측면에서는 20편의 연구 중 대다수인 18편에서는 남성과 여성 베이비부머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Chiao와 Chen(2018)의 연구에서는 여성 베이비부머만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넷째, 연구 대상 국가 중 단일 국가를 중점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Jennings & Stoker, 2004; Shah, Kwak, & Holbert, 2001; Wolfer, Myers, & Polson, 2017), 호주 3편(Loh &

Kendig, 2013; Miranti & Evans, 2019; O'Loughlin, Loh, & Kendig, 2017), 영국 1편(Mak, Coulter, & Fancourt, 2022), 일본 2편(Tomioka, Kurumatani, & Hosoi, 2017; Watanabe, 2023), 한국 2편(Hwang, Lee, & Kim, 2021; Kwon & Park, 2018), 노르웨이 1편(Hansen & Slagsvold, 2020)과 대만 1편(Chiao, Kuo, Li, & Hu, 2022)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다수 국가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연구한 논문이 2편 확인되었다(Chiao & Chen, 2018; Saz-Gil, Gil-Lacruz, & Gil-Lacruz, 2019). Chiao & Chen(2018)의 연구는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대만, 영국, 미국, 호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 등 총 19개국, Saz-Gil et al.(2019)의 연구는 World Values Surveys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및 우크라이나 같은 유럽 국가들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섯 번째, 연구의 대상자 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포함된 연구에서 참여자 수는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최소 297명에서 최대 18,629명까지의 차이를 보였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대상자 수는 1,000명에서 3,000명대에 분포해 있었다.

여섯 번째, 연구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전체 연구 중 8편에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7편에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나머지 연구들에서는 t-검정, 카이제곱 검정 등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나. 사회참여 범위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어떠한 문헌에서 종속변수 혹은 독립변수로 활용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문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회참여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논문은 8편(Saz-Gil et al., 2019; Hansen & Slagsvold, 2020; Hwang et al., 2021; Loh & Kendig, 2013; Miranti & Evans, 2019; O'Loughlin et al., 2017; Watanabe, 2023; Wolfer et al., 2017)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회참여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논문은 9편(Chiao & Chen, 2018; Saz-Gil et al., 2019; Hwang et al., 2021; Jennings & Stoker, 2004; Kwon & Park, 2018; Mak et al., 2022; O'Loughlin et al., 2017; Tomioka et al., 2017; Wolfer et al., 201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총 15편의 문헌 중 4편에서 사회참여가 종속변수이자 독립변수로서 활용되었다(Saz-Gil et al., 2019; Hwang et al., 2021; O'Loughlin et al., 2017; Wolfer et al., 2017).

다음은 사회참여 범위와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그 결과를 <표 3-8>에 정리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도 9편인 것으로 나타났다(Chiao & Chen, 2018; Saz-Gil et al., 2019; Hansen & Slagsvold, 2020; Jennings & Stoker, 2004; Loh & Kendig, 2013; Mak et al., 2022; Miranti & Evans, 2019; Tomioka et al., 2017; Wolfer et al., 2017). 모든 문헌에서 자원봉사 참여 여부를 이분형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Tomioka et al.(2017) 및 Mak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다시 측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당 참여 시간의 연속형 변수로 참여 수준을 측정한 문헌도 있었다(Hansen & Slagsvold, 2020; Loh & Kendig, 2013).

시민 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 등의 사회참여는 총 4편의 문헌에서 살펴 보았다(Jennings & Stoker, 2004; Miranti & Evans, 2019; Tomioka et al., 2017; Shah et al., 2001). 대부분의 연구에서 참여 정도를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나(Jennings & Stoker, 2004; Tomioka et al., 2017; Shah et al., 2001), 이분형 척도로 참여 여부를 확인한 문헌도 있었다(Miranti & Evans, 2019).

사회참여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2편에서 발견되었다(Chiao et al., 2022; Watanabe, 2023). 이분형 척도를 활용하여 참여 여부를 측정한 연구가 1편 있었으며(Chiao & Chen, 2018), 참여 수준을 연속형 변수를 통해 살펴본 연구가 1편 있었다(Watanabe, 2023).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는 총 4편에서 확인되었다(Hwang et al., 2021; Kwon & Park, 2018; Tomioka et al., 2017; Watanabe, 2023). 여가활동은 체육활동 및 관람, 문화관람 및 참여, 예술 및 문화교육, 일반 여가활동 그리고 기타 사교활동으로 분류되었다. 그중 일반 여가활동을 살펴본 연구가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관람 및 참여를 살펴본 연구가 2편 있었다. 그 외에는 체육활동 및 관람, 예술 및 문화교육, 그리고 기타 사교활동을 살펴본 연구가 각각 1편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참여 여부를 이분형 척도나(Hwang et al., 2021; Kwon & Park, 2018; Tomioka et al., 2017), 참여 빈도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Hwang et al., 2021; Tomioka et al., 2017). 그러나 그 외에도 일일 참여 시간의 연속형 변수를 통해 여가활동 참여를 측정한 문헌도 있었다(Watanabe, 2023).

〈표 3-8〉 국외 문헌 사회참여 범위 및 측정방법

사회참여 범위	측정방법	사용문헌
자원봉사 (9편)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Chiao & Chen(2018); Saz-Gil et al.(2019); Hansen & Slagsvold(2020); Jennings & Stoker(2004); Loh & Kendig(2013); Mak et al.(2022); Miranti & Evans(2019); Tomioka et al.(2017); Wolfer et al.(2017)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Tomioka et al.(2017); Mak et al.(2022)
	참여 수준(연속형)	Hansen & Slagsvold(2020); Loh & Kendig(2013)
시민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 (4편)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Miranti & Evans(2019)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Jennings & Stoker(2004); Tomioka et al.(2017); Shah et al.(2001)
일반 사회참여 (2편)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Chiao & Chen(2018)
	참여 수준(연속형)	Watanabe(2023)
체육활동 및 관람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Tomioka et al.(2017)
문화관람 및 참여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Hwang et al.(2021); Kwon & Park(2018); Tomioka et al.(2017)
여가활동 (4편)	참여 여부(1=참여, 0=비참여)	Kwon & Park(2018)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Hwang et al.(2021); Tomioka et al.(2017)
	참여 수준(연속형)	Watanabe(2023)
기타 사교활동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Tomioka et al.(2017)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3-9>에 정리하였다.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수준은 이분형 척도, 리커트 척도, 연속형 변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문헌에서 활용한 이분형 척도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을 조사하였다.

먼저, 국가별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르웨이 자원봉사 참여율은 65.0%로 여러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Hansen & Slagsvold, 2020). 미국에서는 41.0%에서 48.4%의 범위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나타냈다(Jennings & Stoker, 2004; Wolfer et al., 2017). 호주의 경우, 24.4%에서 36.9%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원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h & Kendig, 2013; Miranti & Evans, 2019). 대만에서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34.5%로 호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hiao et al., 2022). 영국의 참여율은 21.0%로 나타났다(Mak et al., 2022). 유럽 전체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3%에서 40%의 범위로 나타났으나, 이는 1994년도에서 2014년 사이의 종단 연구 결과로, 최근으로 올수록 참여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였다(Saz-Gil et al., 2019). 마지막으로, 일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남성 17.6%, 여성 16.9%로 성별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omioka et al., 2017).

다음으로, 국가별 시민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율을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시민활동 참여율은 측정 시점에 따라 5%에서 33%의 범위를 보였다. 또한, 지역사회단체 참여율도 이와 유사하게 7%에서 34%의 범위를 나타냈다. 종단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시절에는

시민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율이 높았으나, 젊은 성인 기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뒤 중년기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Jennings & Stoker, 2004). 호주에서는 남성의 정치참여율이 15.1%, 여성은 16.1%로 나타났다(Miranti & Evans, 2019). 한편, 일본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는 시니어 클럽에 9.0% 참여하였으며, 지역사회 단체에는 40.1%가 참여하였다. 일본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는 7.0%가 시니어 클럽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42.3%가 지역사회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omioka et al., 2017).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국가별 참여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 중 17.5%가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Kwon & Park, 2018),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19%에서 40%의 범위로 참여율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스포츠 활동 데이터의 경우 1965년부터 1997년 사이의 종단 연구 결과로,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의 수가 감소하고 있었다(Jennings & Stoker, 2004). 일본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는 남성 중 26.5%가 스포츠 활동에, 12.6%가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여성에서는 31.4%가 스포츠 활동에 그리고 20.8%가 문화관람에 참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활발한 여가활동 참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Tomioka et al., 2017).

〈표 3-9〉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수준: 이분형 척도

문헌	자원봉사	시민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	여기활동
Chiao et al.(2022)	대만 자원봉사 참여(34.5%), 미참여(65.5%)		
Saz-Gil et al.(2019)	유럽 남성 자원봉사 참여 (1994~1998년 40%, 2005~2009 29%, 2010~2014년 24%)		
	유럽 여성 자원봉사 참여 (1994~1998년 30%, 2005~2009 25%, 2010~2014년 23%)		
Hansen & Slagsvold(2020)	노르웨이 자원봉사 참여(65%), 미참여(35%)		
Jennings & Stoker(2004)	미국 자원봉사 참여 (1982년 41%, 1997년 46%)	미국 시민활동 참여 (1965년 33%, 1973년 5%, 1982년 7%, 1997년 11%)	미국 스포츠 활동 참여 (1965년 40%, 1973년 20%, 1982년 25%, 1997년 19%)
		미국 지역사회 단체 참여 (1965년 34%, 1973년 7%, 1982년 18%, 1997년 26%)	
Kwon & Park(2018)			미국 문화관광 및 참여(17.5%), 미참여(82.5%)
Loh & Kendig(2013)	호주 자원봉사 참여(24.4%), 미참여(75.6%)		
Mak et al.(2022)	영국 자원봉사 참여(21%), 미참여(79%)		

문헌	자원봉사	시민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	여가활동
Miranti & Evans(2019)	호주 남성 자원봉사 참여(32.1%), 미참여(67.9%)	호주 남성 정치참여(15.1%), 미참여(84.8%)	
	호주 여성 자원봉사 참여(36.9%), 미참여(63.1%)	호주 여성 정치참여(16.1%), 미참여(83.9%)	
Tomioka et al.(2017)	일본 남성 자원봉사 참여(17.6%), 미참여(82.4%)	일본 남성 시니어 클럽 참여(9.0%), 미참여(91.0%)	일본 남성 스포츠 참여(26.5%), 미참여(73.5%)
		일본 여성 시니어 클럽 참여(7.0%), 미참여(93.0%)	일본 여성 스포츠 참여(31.4%), 미참여(68.6%)
	일본 여성 자원봉사 참여(16.9%), 미참여(83.1%)	일본 남성 지역사회 단체 참여(40.1%), 미참여(59.9%)	일본 남성 문화관광 및 참여(12.6%), 미참여(87.4%)
		일본 여성 지역사회 단체 참여(42.3%), 미참여(57.7%)	일본 여성 문화관광 및 참여(20.8%), 미참여(79.2%)
Wolfer et al.(2017)	미국 자원봉사 참여(48.4%), 미참여(51.6%)		

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참여가 종속변수로 사용된 논문 10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3-10>에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 여부, 소득, 경제활동, 건강수준, 거주지 특성, 지역사회 공동체성, 사회적 신뢰, 직장업무 책임 및 가족과 부양 의무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 중 연령, 성별, 배우자 여부, 경제활동 참여, 건강수준은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예컨대, 연령과 관련하여 고령자가 자원봉사에 더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으나(Hansen & Slagsvold, 2020), 다른 연구들에서는 젊은 연령대에서 더욱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Loh & Kendig, 2013; Miranti & Evans, 2019; Watanabe, 2023). 성별 역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의 자원봉사 참여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Saz-Gil et al., 2019),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이 더 활발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Hansen & Slagsvold, 2020). 성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려면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지만, 남성의 경우 지역사회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Miranti & Evans, 2019),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배우자 유무(Saz-Gil et al., 2019; Hansen & Slagsvold, 2020; Loh & Kendig, 2013), 경제활동(Saz-Gil et al., 2019; Miranti & Evans, 2019), 건강수준도(Hansen & Slagsvold, 2020; Loh & Kendig, 2013; O'Loughlin et al., 2017)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학력과 소득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높은 학력(Saz-Gil et al., 2019; Hansen & Slagsvold, 2020; Loh & Kendig, 2013; Miranti & Evans, 2019; O'Loughlin

et al., 2017) 및 높은 소득(Saz-Gil et al., 2019; Loh & Kendig, 2013; O'Loughlin et al., 2017)이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춘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이며,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학력과 소득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높은 자기 효능감은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 참여와 연관성이 있는 환경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 중 거주지 특성에 따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자원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이었다(Miranti & Evans, 2019). 이는 중소도시의 사회적 연결망이나 커뮤니티 의식이 대도시보다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때문일 수 있다. 중소도시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참여 의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높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도 일치하는 바이다(Miranti & Evans, 2019).

그 외의 자원봉사 참여 촉진 요인으로 사회적 신뢰와 주관적 계층 인식이 있었다. 높은 사회적 신뢰를 가진 사람일수록(Miranti & Evans, 2019),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게 느끼는 사람일수록(O'Loughlin et al., 2017)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람들이 사회나 주변 사람들을 신뢰할 때 이웃과의 협력이나 공동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갖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자원봉

사활동을 통해 그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는 정부의 부재, 시간 부족, 건강 문제, 직장 업무 책임이나 부양 의무 등 특정 생활 상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nsen & Slagsvold, 2020; Wolfer et al., 2017).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봉사활동에 있어 유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인 약속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구성할 때 이러한 유연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참여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Hansen & Slagsvold, 2020).

둘째, 시민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한 요인으로는 학력, 거주지 형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나타났다. 우선, 낮은 학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시민 및 사회단체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Miranti & Evans, 2019). 더불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높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단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Miranti & Evans, 2019). 여러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정치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단체 참여와 강한 연관성을 보여왔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와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Miranti & Evans, 2019).

셋째, 일반적인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과 주말 여부 등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연령대에서 일반 사회참여율이 더 높았으며, 주말에 주중보다 일반적인 사회참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atanabe, 2023). Watanabe(2023)가 해당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60대에 은퇴로 인하여 평일 근무 시간이 감

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 같은 사회참여의 형태로 전환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찰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사회활동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거주지 특성, 그리고 주말 여부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Watanabe, 2023) 또는 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Hwang et al., 2021)여가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Hwang et al.(2021)은 도시와 읍면지역 간의 자원 차이가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의 부족을 초래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Hwang의 연구팀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 차이와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의 원인 중 하나는 문화시설과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 부족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성의 부족은 사회참여의 제한으로 이어져, 결국 낮은 삶의 만족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주중보다 주말에 여가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Watanabe, 2023).

〈표 3-10〉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측정 결과: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높게 나타남				
문헌	자원봉사	시민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	일반 사회참여	여가
연령	높음 (Hansen & Slagsvold, 2020)	낮음 (Loh & Kendig, 2013; Miranti & Evans, 2019; Watanabe, 2023)	낮음 (Watanabe, 2023)	
성별	남성 (Saz-Gil et al., 2019)	여성 (Hansen & Slagsvold, 2020)		남성 (Watanabe, 2023)
인구사회학적 요인	높음 (Saz-Gil et al., 2019; Hansen & Slagsvold, 2020; Loh & Kendig, 2013; Miranti & Evans, 2019; O'Loughlin et al., 2017)	낮음 (Miranti & Evans, 2019)		
배우자 여부	있음 (Saz-Gil et al., 2019; Hansen & Slagsvold, 2020)	없음 (Loh & Kendig, 2013)		

측정 결과: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높게 나타남			
문헌	자원봉사	시민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	일반 사회참여
	높음 (Saz-Gil et al., 2019; Loh & Kendig, 2013; O'Loughlin et al., 2017)		여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소득	참여 (Saz-Gil et al., 2019)	
	경제활동	낮은 수준 참여 (Miranti & Evans, 2019)	
환경적 요인	건강수준	높음 (Hansen & Slegsvold, 2020; O'Loughlin et al., 2017)	
	거주지 특성	낮음 (Loh & Kendig, 2013)	도시 (Hwang et al., 2021)
심리사회적 요인	지역사회 공동체성	중소도시 (Miranti & Evans, 2019) (Miranti & Evans, 2019)	읍면지역 (Miranti & Evans, 2019)
	주관적 계층의식	높음 (Miranti & Evans, 2019) (Miranti & Evans, 2019)	높음 (Miranti & Evans, 2019)
사회신뢰	사회신뢰	높음 (O'Loughlin et al., 2017)	
		높음 (Miranti & Evans, 2019)	

측정 결과: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높게 나타남		
문헌	자원봉사	여가
	시민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	일반 사회참여
	주말 여부	주말
		(Watanabe, 2023) (Watanabe, 2023)
기타 요인	직장업무 책임	
	낮음	
	(Wolfer et al., 2017)	
	가족 및 부양 의무	
	낮음	
	(Wolfer et al., 2017)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마.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가 미치는 결과 요인 분석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참여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논문 15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3-11>에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대체로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원봉사, 여가, 그리고 시민 및 사회단체에 참여한 베이비부머는 높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수준을 보였다(Mak et al., 2022; Tomioka et al., 2017). 높은 사회참여가 베이비부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때문일 수 있다. 자원봉사나 여가활동, 그리고 시민 및 사회단체 참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와 그들의 심리적 및 정서적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자원봉사와 여가활동 참여는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였다(Saz-Gil et al., 2019; Hwang et al., 2021; Kwon & Park, 2018; Wolfer et al., 2017). 자원봉사 참여는 참여자에게 사회적 의미와 목적감을 제공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 참여는 스트레스 해소, 새로운 경험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예술과 문화활동 참여는 그들의 삶의 질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Kwon & Park(2018)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문화활동은 음악 감상 및 영화 시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술적 활동에 대한 높은 참여율은 경제적인 요인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

인 사회참여는 고독감을 완화시켜 정서적 웰빙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Chiao et al., 2022). Chiao et al.(2022)에 따르면 퇴직 이후의 사회적 참여, 특히 사회적 교류는 고독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보호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배우자나 파트너가 없는 경우 외로움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녀 돌봄이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켜주었다(Chiao et al., 2022). 즉, 자원봉사나 여가 활동 등의 일반적인 사회참여는 개인이 사회와 연결됨을 느끼게 해주며 고독감 감소에 기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게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퇴직 후 사회적으로 활발한 참여가 고독감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 후에도 고독감 완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와 시민 및 사회단체 참여는 개인의 사회적 신뢰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ennings & Stoker, 2004). 그 밖에도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사역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었다(Wolfer et al., 2017).

〈표 3-11〉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결과 변인

측정 결과: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기 높을수록	자원봉사	시민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	일반 사회참여	여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적 건강 높음 (Mak et al., 2022)	높음 (Tomioka et al., 2017)	높음 (Tomioka et al., 2017)	높음 (Tomioka et al., 2017)
심리정서적 요인	정신적 건강 높음 (Mak et al., 2022)	높음 (Tomioka et al., 2017)	높음 (Tomioka et al., 2017)	높음 (Hwang et al., 2021; Kwon & Park, 2018)
기타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심리적 안녕; 삶의 질 고독감 높음 (Saz-Gil et al., 2019; Wolfer et al., 2017)	낮음(Chiao et al., 2022)		
	사회적 신뢰 높음 (Jennings & Stoker, 2004)	높음 (Jennings & Stoker, 2004)		
	지역에 대한 동기부여 높음 (Wolfer et al., 2017)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제3절 소결

본 장에서 시행한 체계적 문헌분석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문헌분석이 이루어졌다. 문헌고찰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의 범위 및 측정방법의 다양성을 조사하고,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사회참여의 결과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간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적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문과 보도자료가 생산되었으나, 아직 국내의 사회참여 양상과 영향, 결과요인이 체계적으로 분석된 바 없다. 베이비붐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국가별로 시기상 차이는 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비슷한 이행과정을 거쳤으므로 국내외 연구를 동시에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국내문헌은 총 32편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사회참여의 범위는 자원봉사, 교육 및 학습, 사회단체 참여, 일반 사회참여, 온라인 사회참여, 여가활동 등으로 살펴보았다.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수준은 연구에 따라 참여여부,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또는 삶에서 참여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측정하였다. 국외문헌은 총 15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외문헌은 베이비부머의 자원봉사, 시민 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 일반 사회참여, 여가활동 참여를 다루었다. 측정방법은 참여여부 또는 참여 정도를 리커트척도 또는 연속형 변수(일일 참여 시간)로 측정하였다.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수준은 국내외 연구별로 비교적 큰 편차를 보였다.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내연구는 대부분 10%대의 참여율로 나타났다. 교육 및 학습활동의 경우 17.5%, 시민단체 참여율 5.6%-17.2% 등 비교적 참여율이 낮았다. 국외연구에서는 노르웨이 베이비부머의 참여율이 65.0%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41.0-48.4%, 호주 24.4-36.9% 수준이고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종단연구 결과(1994-2014)를 살펴보면 봉사활동 참여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 여부, 경제수준, 경제활동, 종교, 건강, 가족관계 등), 환경적 요인(거주지 특성, 거주지 만족도), 심리 사회적 요인(사회적 관계망, 사회단체 참여, 주관적 만족감, 계층의식, 공정의식, 은퇴불안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양한 요인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패턴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는 국내외 공통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였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 국외연구에서 지역사회공동체성이 자원봉사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있는 결과이다. 노년기 자원봉사활동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역할 강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저해요인으로는 정보의 부재나 접근성의 문제가 있었다. 지역사회 거점공간 등을 활용한 접근성 강화, 베이비부머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정신적 건강은 물론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 증진, 사회적 신뢰 제고, 고독감 완화 등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국외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또한 여가활동과 같이 정신적 건강은 물론 신체적 건강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휴식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이 공통적으로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자기성장 제고, 우울감 감소 등 참여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활동이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따라서 능동적이고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들어 봉사활동 참여는 이전보다 도덕적 의무감보다 새로운 체험 기회로 접근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분석(주성수, 정희선, 윤영미, 김민정, 2014)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베이비부머 자원봉사 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참고할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현황과 변화

제1절 한국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현황과 일반적 특성

제2절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
양상

제3절 소결



제 4 장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현황과 변화

제1절 한국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현황과 일반적 특성¹⁸⁾

1.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 규모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 급증기에 출생한 1955년 생부터 1963년생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을 기준으로 7,029,875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총인구의 13.6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¹⁹⁾ 연령별 분포를 확인하면, 가장 인구 규모가 큰 집단은 1961년생으로, 2023년 기준 93만 7,938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1960년생, 1963년생이 다음으로 높은 규모를 보인다.

〈표 4-1〉 1차 베이비부머(1955~1963): 60~68세(2023년 6월 말 기준)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총합
남	320,971	315,660	338,462	366,458	387,436	428,927	462,457	403,305	440,529	전체 3,464,205명/ 총인구의 6.74%
여	347,690	335,739	353,877	374,477	399,906	448,256	475,481	403,035	427,209	전체 3,565,670명/ 총인구의 6.94%
합	668,661	651,399	692,339	740,935	787,342	877,183	937,938	806,340	867,738	전체 7,029,875명/ 총인구의 13.68%

주: 주민등록 인구 전체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임. 2023년 6월 말일 조회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원데이터

18) 본 연구에서 서술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1955년부터 1963년생을 의미한다. 1차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산업화 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본 장과는 달리 다른 장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1차 베이비부머'를 '베이비부머 세대'로 표현한다.

1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3.07.05. 인출.

두 번째 베이비붐이 있었던 1968~1974년에 태어난 세대는 1차 세대와 구분하여 ‘2차 베이비부머’ 세대로 표현한다. 2차 베이비부머는 2023년 6월 기준 만 49~55세로 10세 후에 공식적으로 고령 인구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은 1969년생으로, 94만 2,087명이 있으며 1971년생이 93만 938명으로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의 12.22%에 해당하는 규모로, 1차와 2차 베이비부머는 현재 국내 총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 2차 베이비부머(1968~1974): 49~55세(2023년 6월 말 기준)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총합
남	422,780	472,922	452,860	472,762	456,597	451,281	443,997	전체 3,173,199명/ 총인구의 6.17%
여	425,213	469,165	441,968	458,176	438,161	441,199	433,193	전체 3,107,075/ 총인구의 6.05%
합	847,993	942,087	894,828	930,938	894,758	892,480	877,190	전체 6,280,274명/ 총인구의 12.22%

주: 주민등록 인구 전체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임. 2023년 6월 말일 조회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원데이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베이비부머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총 3,306,157명으로 전체 1차 베이비부머의 47%에 달한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는 총 3,178,371명, 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표 4-3〉 연령별 거주지역

지역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전국	7,029,875	6,280,274
서울특별시	1,215,245	1,101,228
부산광역시	518,475	386,458
대구광역시	331,694	298,633
인천광역시	405,694	367,264

지역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광주광역시	169,824	178,036
대전광역시	186,937	179,481
울산광역시	156,437	143,708
세종특별자치시	34,378	43,067
경기도	1,685,218	1,709,879
강원특별자치도	253,943	184,382
충청북도	237,956	191,817
충청남도	298,791	250,009
전라북도	261,598	214,712
전라남도	279,872	215,507
경상북도	418,344	312,053
경상남도	489,536	416,645
제주특별자치도	85,933	87,395

주: 주민등록 인구 전체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임. 2023년 6월 말일 조회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원데이터

2. 세대별 일반적 특성: 1, 2차 베이비부머, 산업화 세대

이어서 한국 베이비부머의 일반적 특성을 세대별, 성별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이 작업은 다양한 2차 자료를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자료원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또한 다양한 세대별 특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1차, 2차 베이비부머뿐만 아니라, 만 69~83세에 해당하는 산업화 세대²⁰⁾까지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는 노인 내부 집단에서 존재하는 연령별 특성 차이를 반영해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개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20) 산업화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의 주역으로 한국식 세대 분류에서 가장 윗세대로 분류된다(김수정, 최향섭, 이명진, 2021). 산업화 세대의 출생 연도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1954년생 이전 출생자로 정의하는 것은 대체로 일치한다(장윤정 & 이재정, 2023). 본 연구는 1940~1954년을 산업화 세대로 정의하고 해당 분류를 사용해 분석을 수행한다(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2021).

우선 세대별로 거주지역 특성을 살펴본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세대별, 성별로 특성이 유사하여 전 세대에 걸쳐 성별의 차이 없이 거주 비율이 약 8%였다. 반면 서울 외 동부, 읍면부 지역의 경우 세대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컸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2차 베이비부머는 서울과 서울 외 동부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적, 생애주기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특히 각 세대별로 종사하는 직업군의 차이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한다. <표 4-4>의 결과를 참고하면, 2차 베이비부머가 다수 종사하는 사무직의 경우 서울과 서울 외 동부 지역에 있는 반면, 산업화 세대가 종사하는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경우 읍면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산업화 세대의 경우 은퇴 후 주거비 부담의 해소와 귀농귀촌 등 읍면부 지역으로 이주할 유인이 높은 세대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아 읍면부 거주 비율이 높았다.

<표 4-4> 사회조사 2022 성별 세대별 거주지역

구분		거주지역				Total (N, %)	
		서울	서울 외 동부	읍면부			
1차 베이비부머	남	8.84	60.74	30.42	3008	100	
	여	8.25	60.51	31.24	3153	100	
2차 베이비부머	남	8.53	67.38	24.09	2943	100	
	여	8.55	68.26	23.19	2949	100	
산업화 세대	남	8.06	54.57	37.37	2604	100	
	여	7.95	53.77	38.27	3206	100	

자료: 통계청(2022).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다음으로 성별, 세대별 학력 수준을 검토한다. 산업화 세대에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학력으로 여성은 초졸 이하가 50.92%인 반면, 남성은 고졸 이하가 32.35%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화 세대의 경우 시대적 영향으로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1차 베이비부머는 남성과 여성에 걸쳐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한 학력 수준은 고졸 이하로 남성 49.54%, 여성 54.44%였다. 반면 1차 베이비부머 남성은 4년제 대졸 비율이 17.35%로 여성의 9.22%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고등 교육의 경우 남성의 진입이 훨씬 높아 성별 불평등이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이러한 성별 불평등이 거의 사라져 각 학력 수준 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나아가 2차 베이비부머는 남성과 여성에 걸쳐 동일하게 고졸 이하 학력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4년제 대졸 비율이 높아, 이전 세대에 비해 성별 간 차이 없이 학력 수준 자체가 매우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4-5〉 인구센서스 2020 성별 세대별 학력 수준

구분		학력 수준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산업화 세대
초졸 이하	남	4.53	0.74	29.2
	여	7.68	0.73	50.92
중졸 이하	남	15.58	4.46	21.23
	여	22.04	5.15	19.81
고졸 이하	남	49.54	45.63	32.35
	여	54.44	53.5	22.22
2, 3년제	남	6.9	13.16	2.35
	여	4.36	13.03	1.61
4년제 대졸	남	17.35	27.46	11.13
	여	9.22	22.07	4.7
석사 이상	남	6.09	8.56	3.73
	여	2.26	5.52	0.74

자료: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재분석

세대별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1차 베이비부머는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43.03%로 가장 높았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도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86%로 가장 높았다. 반면 ‘나쁜 편이다’와 ‘매우 나쁘다’라는 응답에 걸쳐 1차 베이비부머는 16.88%로 응답했지만, 산업화 세대는 33.06%로 산업화 세대에서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2차 베이비부머는 건강상태에 관해 건강이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87%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표 4-6〉 사회조사 2022 세대별 건강상태

구분	건강상태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산업화 세대
매우 좋다	4.56	7.20	2.94
좋은 편이다	35.53	43.87	24.13
보통이다	43.03	40.39	39.86
나쁜 편이다	15.32	7.88	29.14
매우 나쁘다	1.56	0.66	3.92

자료: 통계청(2022). 2022년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3. 세대별 경제활동, 사회참여 현황(1, 2차 베이비부머, 산업화 세대)

다음으로 세대별 경제활동, 사회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성별, 세대별로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산업화 세대는 42.57%, 1차 베이비부머는 73.93%, 2차 베이비부머는 89.14%였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 조사시점인 2020년 기준 만 66~80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높은 고용률을 보인다.

여성 고용률의 경우 산업화 세대는 25.74%, 1차 베이비부머는 49.87%,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67.13%였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의 여성 고용률은 67.13%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 2020년 당시 만 46~54세의 해당 여성 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해당 결과는 정규 근로 외에 파트타임과 잠시 쉬고 있는 휴직자를 포괄한 결과로 일자리의 특성은 상당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7〉 인구센서스 2020 성별 세대별 고용률

구분	고용률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산업화 세대	Total(n)
남자	73.93	89.14	42.57	136043
여자	49.87	67.13	25.74	100814

주: 고용 여부는 일함, 파트타임, 잠시 쉬고 있음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재분석

고용률 추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인구센서스 2000년, 2010년, 2020년의 3개 차수 데이터를 활용해 세대별 경제활동 상태를 검토한다.

우선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2000년 당시 만 37~45세로 해당 연령의 고용률이 70.15%였다. 2010년의 경우 만 47~55세 당시 고용률이 73.11%로 10년 전보다 해당 연령의 고용률은 더 높았다. 반면 2020년 만 57~65세 연령의 고용률이 61.51%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 10년 사이에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2000년 당시 만 26~34세로 해당 연령에서의 고용률이 62.62%였다. 2010년의 경우 만 36~44세인데 당시 고용률이 74.36%로 10년 전과 비교해 노동시장 진입이 약 12% 증가하였다. 2020년에 2차 베이비부머의 연령은 만 46~54세로 해당 연령에서 고용률은 78.06%였다. 이는 유사한 연령 구간을 보이는 2010년 1차 베이비부머의 고용률 73%와 비교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화 세대의 장기 고용률을 살펴본다. 2000년 당시 산업화 세대의 연령은 만 46~60세로 고용률은 61.43%였다. 2010년에는 만 56~70세로 고용률은 53.32%였다. 해당 연령 구간은 은퇴한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 구간으로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럽다. 2020년의 경우, 산업화 세대의 연령은 만 66~80세로 고용률은 33.37%이다. 해당 연령 구간은 전 연령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약 33%로 상당 규모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8〉 인구센서스 세대별 경제활동 상태 장기분석

고용률	2000		2010		2020	
	일함	일하지 않음	일함	일하지 않음	일함	일하지 않음
1차 베이비부머	70.15	29.85	73.11	26.89	61.51	38.49
2차 베이비부머	62.62	37.38	74.36	25.64	78.06	21.94
산업화 세대	61.43	38.57	53.32	46.68	33.37	66.63

주: 일하고 있음은 일함, 파트타임, 잠시 쉬고 있음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2000, 201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재분석

세대별 직업 특성이 장기적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인구센서스 3개 연도 데이터(2000년, 2010년, 2020년)를 활용해 분석을 수행한다. 2000년 1차 베이비부머의 직업으로 1위는 판매 종사자(13.87%), 2위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2.88%), 3위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2.66%)였다. 산업화 세대의 직업으로 1위는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20.92%), 2위는 판매 종사자(12.55%), 3위는 단순노무 종사자(11.87%)였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직업으로 1위는 사무 종사자(20.58%), 2위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3.83%), 3위는 판매 종사자(12.51%)였다. 종합하여 2000년 당시 전 세대를 걸쳐 판매종사자로 근로하는 인구가 많았다. 반면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기술직 비율이 높은 반면, 산업화 세대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가 많았고,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사무직 및 전문직의 비율이 높아 세대별 특성이 나타났다.

2010년의 결과를 살펴본다. 1차 베이비부머의 직업으로 1위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4%), 2위는 단순노무 종사자(12.55%)이고 3위와 4위는 각각 동일한 비율인 12.38%로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가 차지하였다. 산업화 세대 직업으로 1위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6.62%), 2위는 단순노무 종사자(18.64%), 3위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9.17%)가 차지하였다. 2차 베이비부머의 직업으로 1위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0.88%), 2위는 사무 종사자(18.36%), 3위와 4위는 각각 동일한 비율인 12.69%로 판매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차지하였다. 종합하여 2010년의 경우 각 세대에서 고령화가 진행된 만큼 직업 특성도 1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12.55%를 차지하였다. 2010년 당시 1차 베이비부머의 연령은 만 47~55세로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연령이 도래하지 않은 시기임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거시 경제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자가 36.62%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약 19%의 비율을 차지해 고령자 직업의 특수성이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이전 세대와 비교해 숙련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의 결과를 검토한다. 1차 베이비부머의 직업으로 1위는 서비스 종사자(15.48%), 2위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4.29%), 3위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4.25%)였다. 산업화 세대 직업으로 1위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5.81%), 2위는 단순노무 종사자(24.6%), 3위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18%)였다. 2차 베이비부머 직업으로 1위는 사무 종사자(19.98%), 2위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8.27%), 3위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3.29%)였다. 2010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 1차 베이비부머의 직업으로 서비스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단순노무자의 종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근로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적인 현실이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여전히 숙련도가 높은 사무직과 전문직에의 종사자가 많은 반면,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약 13%로 해당 업계의 종사자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인구센서스 세대별 직업 분포 장기분석

구분	2000				2010			2020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산업화 세대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산업화 세대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산업화 세대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7.53	2.95	7.45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15	13.83	5.35	관리자	3.13	3.56	1.79	1.17	1.08	0.44
기술공 및 준전문가	7.16	11.89	4.3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08	20.88	6.53	8.92	18.27	4.03
사무 종사자	11.21	20.58	6.23	사무 종사자	10.57	18.36	4.51	11.21	19.98	5.2
서비스 종사자	11.69	8.14	10.37	서비스 종사자	12.38	9.27	7.73	15.48	12.77	9.7
판매 종사자	13.87	12.51	12.55	판매 종사자	12.38	12.69	8.65	10.23	11.96	6.97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7.37	2.66	20.9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76	3.72	36.62	14.29	3.89	35.8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66	11.21	9.8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89	9.9	6.34	10.71	10.49	5.0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88	11.12	10.8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	12.69	9.17	14.25	13.29	8.18
단순노무 종사자	7.06	4.52	11.87	단순노무 종사자	12.55	8.37	18.64	13.7	7.82	24.6
군인	0.44	0.6	0.25	군인	0.27	0.57	0.02	0.03	0.45	0

주: 2000년 데이터는 한국표준직업분류 5차를, 2010년 데이터는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를, 2020년 데이터는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를 따름. 2010년과 2020년의 직업 대분류는 동일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2023)

자료: 통계청(2000, 201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재분석

성별, 세대별 가구소득 분석 결과를 검토한다. 본 분석은 성별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실제 소득은 가구소득으로 집계한다는 점에서 성별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성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표 4-10〉 참조).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 걸쳐 가구소득이 200~3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22.61%와 21.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 걸쳐 가구소득이 300~400만 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17.09%와 16.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장 주목할 결과는 산업화 세대이다. 산업화 세대 남성의 경우 가구소득이 100~200만 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48%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이 44.04%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1인 가구의 영향으로 보이며, 2022년 당시 만 68~82세의 고령 여성의 상당히 높은 비율이 10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표 4-10〉 사회조사 2022 성별 세대별 가구소득

	남자			여자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산업화 세대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산업화 세대
100만 원 미만	11.57	5.06	27.3	15.03	4.78	44.04
100~200만 원 미만	17.49	7.92	35.48	26.39	10.44	28.82
200~300만 원 미만	22.61	15.43	17.13	21.41	15.43	11.6
300~400만 원 미만	16.99	17.09	9.25	14.62	16.51	6.86
400~500만 원 미만	11.14	15.46	4.3	8.69	14.21	3.12
500~600만 원 미만	7.55	12.5	2.61	5.36	12.85	1.78
600~700만 원 미만	3.66	7.68	0.88	2.38	7.56	0.94
700~800만 원 미만	2.63	5.64	0.73	1.52	5.15	0.72
800만 원 이상	6.38	13.22	2.3	4.6	13.06	2.12

주: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 등의 합계를 이룬 자료: 통계청(2022). 2022년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세대별 가구구조를 살펴본다. <표 4-11>에서와 같이 1인 가구의 비율은 27.37%로 산업화 세대에서 가장 높았고, 1세대 가구의 비율도 53.43%로 산업화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1차 베이비부머에서는 1세대 가구가 48.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세대 가구의 비율도 30.35%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독립, 분가하지 않은 영향으로 고려된다.

2차 베이비부머에서는 2세대 가구가 60.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해당 조사 당시 2차 베이비부머의 연령은 만 48~54세로 보편적으로 다수의 자녀가 원가구에서 독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1> 사회조사 2022 세대별 가구구조

구분	가구 구조					Total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혈연 가구	
1차 베이비부머	17.74	48.35	30.35	3.26	0.29	100.00
2차 베이비부머	13.90	21.69	60.45	3.72	0.24	100.00
산업화 세대	27.37	53.43	15.20	3.73	0.28	100.00

자료: 통계청(2022). 2022년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다음으로 세대별 교육의 미충족 여부를 분석한다. 교육의 미충족 여부는 원하는 수준까지 충분히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문항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산업화 세대의 경우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47%인 반면, 1차 베이비부머 41.88%, 2차 베이비부머 62.39%로 젊은 세대로 올수록 교육에의 미충족이 컸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의 미충족 이유를 통해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아래 <표 4-12> 결과와 종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표 4-12〉 사회조사 2022 세대별 교육의 미충족 여부

구분	교육의 미충족		
	그렇다	그렇지 않다	Total
1차 베이비부머	41.88	58.12	100.00
2차 베이비부머	62.39	37.61	100.00
산업화 세대	28.47	71.53	100.00

자료: 통계청(2022). 2022년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사회조사 2022년에는 원하는 단계까지 충분히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7가지 문항으로 조사했다. 전 세대에 걸쳐 교육 기회의 미충족 이유는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라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으나 세대별 특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교육의 미충족을 경험한 1차 베이비부머의 미충족 이유는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가 62.40%로 가장 높았는데, 다른 세대와 비교해 해당 문항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족의 성차별,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가 18.53%로 상당한 비율이 응답했다.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가 교육을 미충족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과 동시에 이전 세대가 경험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제한이 여전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 교육에 미충족한다는 답변이 28.47%였는데, 그 이유로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가 58.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의 성차별,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가 24.72%, ‘가사를 돌보아야 해서’가 9.68% 순으로 높았다. 해당 이유 문항의 응답 비율은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와 비교해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산업화 세대의 경우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교육 미충족을 응답한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이전 세대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표 4-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차 베이비부머에서 교육 미충족 비율은 62.39%로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로 ‘학비를 마련

하기 어려워서'가 54.45%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한 반면, '입학시험 실패 또는 학업 부진으로'가 20.28%로 다른 세대에 비해 해당 문항의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이에 교육 미충족을 경험한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기회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높은 반면, 개인 목표와의 불일치로 인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화 및 1차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지연된 교육과정 또는 박탈당한 교육 기회에 재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고려된다. 반면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미충족된 교육 기회와 관련한 특정한 개인 목표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개별화되고 고도화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미충족 욕구가 해소될 수 있다.

〈표 4-13〉 사회조사 2022 세대별 교육의 미충족 이유

구분	교육 미충족 이유								Total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입학시험 실패 또는 학업 부진으로	가족의 성차별,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가사를 돌보아야 해서	질병 또는 장애가 있어서	기타		
1차 베이비부머	62.40	2.18	6.47	18.53	8.79	0.98	0.64	100.00	
2차 베이비부머	54.45	2.22	20.28	13.79	6.49	1.50	1.27	100.00	
신입화 세대	58.15	3.68	2.38	24.72	9.68	0.77	0.63	100.00	

자료: 통계청(2022). 2022년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세대별 자원봉사 참여 현황을 분석한다. 2021년 사회조사는 자원봉사 관련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설문 내용을 사용하여 세대별 특성을 검토한다. 우선 1차 베이비부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9.97%로 참여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에는 4.91%로 참여 수준이 더 열악한 반면 2차 베이비부머는 10.01%로 이전 세대에 비해 참여 비율이 약간 높았다. 종합하면, 국내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 세대를 아울러 약 10% 이하 수준으로 참여가 낮았다.

〈표 4-14〉 사회조사 2021 세대별 자원봉사 참여 여부

구분	자원봉사 참여 여부		
	예	아니요	Total
1차 베이비부머	9.97	90.03	100
2차 베이비부머	10.01	89.99	100
산업화 세대	4.91	95.09	100

자료: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다음으로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따라 세대별로 자원봉사 참여와 미참여 이유를 분석한다(〈표 4-15〉와 〈표 4-16〉). 우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유로 전 세대에 걸쳐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므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이타적인 동기에서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1차 베이비부머와 산업화 세대에서는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2번째 이유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라는 이타적인 이유가 여전히 높았다. 반면 2차 베이비부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단체활동에 동참하려고'의 사회활동 참여 수단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를 분석한다. 1차 및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각 42.65%, 5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산업화 세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으므로'가

42.24%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원봉사 미참여 두 번째 이유로 1차 및 2차 베이비부머는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으므로'라고 응답하고, 산업화 세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4-15〉 사회조사 2021 세대별 자원봉사 참여 동기

구분	자원봉사 참여 동기										Total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므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의 책임이므로	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갚고 싶으므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려고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려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단체활동에 동참하려고	학교, 취업 등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므로	기타		
1차 베이비부머	36.77	18.23	10.81	3.06	15.48	10.32	5.16	0	0.16	100	
2차 베이비부머	32.33	17.17	10.17	4.17	8.33	8.5	18.33	1	0	100	
산업화 세대	36.52	15.25	13.83	4.96	14.54	12.41	2.13	0.35	0	100	

자료: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표 4-16〉 사회조사 2021 세대별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

구분	자원봉사 미참여 이유							Total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자원봉사활동 경비가 부담되므로	자원봉사 참여 방법을 모르므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가 있으므로	희망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없으므로	기타	
1차 베이비부머	34.13	42.65	7.38	5.31	5.23	3.56	1.75	100
2차 베이비부머	27.91	53.18	5.14	6.23	2	3.39	2.15	100
산업화 세대	42.24	23.69	9.64	4.8	14.89	2.71	2.03	100

자료: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세대별 자원봉사 향후 참여 의사의 경우 전 세대에 걸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30.84%의 비율로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1차 베이비부머는 24.48%, 산업화 세대의 경우 12.3%로 고령자일수록 자원봉사에의 참여 의사가 소극적이었다.

〈표 4-17〉 사회조사 2021 세대별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

구분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		
	있음	없음	Total
1차 베이비부머	24.48	75.52	100
2차 베이비부머	30.84	69.16	100
산업화 세대	12.3	87.7	100

자료: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 재분석

성별, 연령별 직업훈련 참여 여부를 분석한다. 2020년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는 직업훈련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해당 조사는 각 세별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세대별 자료로 결과를 구성할 수 없었다. 이에 연령 집단별 직업훈련 참여로만 해당 결과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전 연령 집단에 걸쳐 직업훈련에 참여한 비율이 매우 높았고, 특히 만 45~54세의 경우 74.35%, 만 55~64세의 경우 60.46%, 만 65~79세의 경우 36.95%로 신중년, 고령자 집단에서도 남성의 직업훈련 참여는 매우 활발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만 45~54세의 경우 36.77%, 만 55~64세의 경우 25.45%, 만 65~79세의 경우 11.55%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65~79세의 여성 고령자 집단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약 12%로 조사되어 고령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고령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확장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직업훈련의 경우 성별 간, 연령 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고, 특히 고령자 여성은 직업훈련의 취약계층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고령자만이 아니라 만 25~44세의 젊은 연령에서도 성별 불평등이 나타나 적극적인 개입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직업훈련 같은 노동시장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성별 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참여자 모집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표 4-18〉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20 성별 연령별 직업훈련 참여 여부

구분		직업훈련 참여 여부		
		없음	있음	Total
25~34세	남	23.99	76.01	100
	여	45.56	54.44	100
35~44세	남	26.87	73.13	100
	여	49.74	50.26	100
45~54세	남	25.65	74.35	100
	여	63.23	36.77	100
55~64세	남	39.54	60.46	100
	여	74.55	25.45	100
65~79세	남	63.05	36.95	100
	여	88.45	11.55	100

주: 평생학습실태조사의 경우 각 세별 연령을 제공하지 않음. '지난 1년간 직업능력향상 교육에 참여한 프로그램은 몇 개입니까?'의 질문을 활용하여 한 개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직업훈련 참여 경험이 있음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2020). 2020년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성별,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 여부를 분석한다. 평생학습의 경우 직업훈련과 달리 전 연령에 걸쳐 성별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만 45세 이상의 경우 여전히 남성의 평생학습 참여가 여성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남성 집단에서 만 45~54세의 경우 37.23, 만 55~64세의 경우 33.27%, 만 65~79세의 경우 24.43%가 평생학습에 참여하였다. 반면

여성 집단의 경우 만 45~54세는 40.67%, 만 55~64세의 경우 35.79%, 만 65~79세의 경우 34.39%가 참여하였다. 남성과 여성에 걸쳐 고령자가 될수록 평생학습에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 및 자원봉사 등 대비하여 고령자 참여에의 욕구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개발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표 4-19〉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20 성별,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 여부

구분		평생학습 참여 여부		
		있음	없음	Total
25~34세	남	51.24	48.76	100
	여	48.95	51.05	100
35~44세	남	49.9	50.1	100
	여	41.88	58.12	100
45~54세	남	37.23	62.77	100
	여	40.67	59.33	100
55~64세	남	33.27	66.73	100
	여	35.79	64.21	100
65~79세	남	24.43	75.57	100
	여	34.39	65.61	100

주: 평생학습실태조사의 경우 각 세별 연령을 제공하지 않음. 평생학습 참여자 정보를 활용해 산출함
 자료: 통계청(2020). 2020년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제2절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 양상

1. 연구 내용

본 절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의 사회 참여 형태가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 경력과 사회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고, 유형별 사회참여 활동을 비교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활동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2. 베이비부머는 노동궤적, 학력, 건강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그 유형에 따라 사회참여 활동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3.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가. 연령 코호트 정의

베이비붐(baby boom)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라 부른다(안서연, 백학영, 2020). 베이비부머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출산율 또는 출생아 수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연도보다 두드러지게 출산율이 높았던 1955년에서 1963년 기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로 정의하고 있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은퇴에 돌입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 후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고용의 질이 낮은 곳에서 일을 할 경우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이영라, 이숙중, 2018).

나. 분석자료

본 절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이하 고령화 패널)를 이용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된 일 자리를 포함하여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수준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고 유형별 사회참여 활동의 특성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고령화 패널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대상 대규모 조사이며, 조사 대상 표본에 읍·면 지역 거주자와 농어업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노인 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우수하다(김수린 외, 2019). 그로 인해 베이비부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도 적합한 자료로 간주된다. 둘째, 여러 경쟁 패널 중에서 직업지위를 포함한 근로 형태 정보 및 사회공헌활동(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활동 포함) 참여,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정보를 함께 조사하고 있는 패널은 고령화 패널이 유일하였다. 한국 노동패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시계열 정보를 갖고 있지만,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긴 시계열 정보를 가진 한국복지패널은 자원봉사와 직업훈련 참여 정보는 조사했으나, 다른 형태의 사회활동 정보는 조사하지 않았다.

다만 고령화 패널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2006년에 조사가 시작되어, 격년 조사주기로 2023년 현재 8차(2020년)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었다. 또한 중고령자만 대상(만 45세 이상)으로 한 패널조사의 특성 때문에, 연구 문제 분석에 시계열 자료의 한계가 있다. 즉 고령화 패널은 1차 조사에서 만 4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격년 조사로 인해 매 조사 시마다 샘플의 연령이 2세씩 상승한다. 2006년 조사 시에 만 45세인 1961년생 이하부터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그 이후 출생한 1962년생과 1963년생은 표본이 추가되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분석이 불가하다. 즉 2020년 기준 베이비부머

의 1961년생은 만 59세에 진입하였으며 1955년생은 65세 노인에 진입하였다. 즉 1차부터 8차 자료에 걸쳐서 1차 베이비부머의 연령은 45세에서 65세에 걸쳐 분포한다.

다. 분석 방법: 다채널 배열분석과 군집분석

베이비부머 세대를 유형화하기 위해 다채널 배열분석 방법(multi-channel sequence analysis)과 군집분석을 사용하도록 한다. 1980년대에 도입된 배열분석은 생명과학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개인의 노동경력, 생애 과정, 그리고 일상생활(시간 자료) 같은 주제들에서 이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다(조미라, 2017).

이 분석 방법은 시계열적으로 관찰되는 사건의 배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 배열 간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해 Hamming 거리 측정 방법(Dynamic Hamming Matching, 이하 DHM)을 사용하여 배열 간 거리값을 구하고, 계산된 거리값에 근거하여 유형화(Cluster analysis)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사회과학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OM 방법은 배열 간 거리값은 모든 배열들을 돌씩 짝지어서 동일한 배열을 만들도록 하는 전환 과정에서의 최소비용으로 정의된다. 또한 동일한 배열을 만들기 위한 전환 과정은 ‘삽입/삭제’, ‘대체’를 통해서 이뤄진다(조미라, 2017). OM 방법과 관련된 비판은 삭제와 삽입을 통해 실제와 다른 경로를 생성할 위험이 있다. 즉, 개인의 노동 궤적이나 24시간 시간대가 실제와는 달리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어,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체(substitution)만을 이용하는 Hamming 거리 측정이 고려될 수 있다. DHM 방식은 삽입이나 삭제 없이 오로지 대체를 통해 거리를 측정하며 (Gabadinho, Ritschard, Müller, & Studer, 2011, p. 25), 본 연구에

서는 이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한다. 이 방법의 강점은 전환의 타이밍을 잘 반영한다는 점인데, 두 시점 간 전환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자주 전환되는 경우에는 낮은 대체비용을 부여하고, 전환되는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높은 대체비용을 적용하여 거리값을 크게 계산한다(조미라, 2017).²¹⁾

본 연구에서 유형화를 위해 4개의 채널을 설정하며, 각각 ① 노동경력, ② 교육수준 ③ 건강상태(활동제한 정도) ④ 소득수준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경로와 건강상태 및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함께 고려한 이유는 건강상태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같은 요인들이 근로동기 및 은퇴 그리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활동과 강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60세 법정 정년 연령 이후에도 계속근로를 하는 사유가 꼭 경제적 이유만은 아닐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수급 비율과 수급액이 중장년기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소득수준과 근로 욕구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퇴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유로 생활비 마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통계청, 2023).

21) 예를 들어, 60세 이후에 은퇴/비경활로 가는 궤적은 전환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60세 이후에 비경활 상태에서 상용직으로의 전환은 낮은 빈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두 시점 간(본 연구에서는 t년도와 t+2년도 간) 전환 빈도에 따라 거리값을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노동경력의 변화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노동궤적을 분류할 수 있다. 각 채널별로 거리값을 계산하고 이 거리값을 평균 또는 합을 구하여 새로운 비용을 산출하여 유형화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DHM 방식을 통해 산출된 배열 간의 거리값을 이용하여 적절한 수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군집 수는 3~12개 정도로 나누곤 한다(조미라, 2017). 군집 수를 적절히 판단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시각적 판단이다. 덴드로그램이나 나무그림 같은 그래픽 표현을 통해 판단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군집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통계 지표도 함께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Ward 연결 방법을 통한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를 덴드로그램이나 나무그림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ASWw 같은 양적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최적의 군집 수를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높은 학력과 건강상태(통계청, 2019)는 능동적 사회참여 혹은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술된 4개의 채널에 의해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 유형화에 따라 사회참여 활동 영역과 참여 빈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을 독립적인 채널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빈도분석 결과 해당 세대의 사회참여 경향이 다양한 패턴을 보이지 않아 유형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대다수의 베이비부머들은 친교 활동을 제외한 사회공헌활동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이 또한 시계열에 따라 큰 변화폭을 보이지 않아 유형화를 위한 채널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4가지 채널을 설정하였으며,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경력 및 퇴직경로의 측정은 개인이 가진 기술 숙련도(skill-level) 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에 노동경력은 8가지 범주로 나뉘었으며, 1) 비경험(노동시장 비참여자), 2) 은퇴, 3) 부분은퇴, 4) 고숙련-임금노동자, 5) 중숙련-임금노동자, 6) 저숙련-임금노동자, 7) 자영업, 8) 무급가족종사자이다. 숙련도에 대한 분류는 OECD(2017)의 분류를 기본적으로 따랐으며, 고령화 패널의 직업분류에서 ‘관리자’, ‘(준)전문가’ 직업을 고숙련으로, ‘사무직’,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직업군인’을 중숙련 근로자로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비스 근로자’, ‘판매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는 저숙련 노동자로 분류하였다(〈표 4-20〉 참조).

〈표 4-20〉 직업분류별 기술 숙련도 구분 코드

	직업분류	숙련도
1	관리자	고숙련(high-skilled)
2	(준)전문가	고숙련(high-skilled)
3	사무직	중숙련(Middle-skilled)
4	서비스근로자	저숙련(Low-skilled)
5	판매근로자	저숙련(Low-skilled)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중숙련(Middle-skilled)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중숙련(Middle-skilled)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중숙련(Middle-skilled)
9	단순 노무 종사자	저숙련(Low-skilled)
10	직업군인	중숙련(Middle-skilled)

자료: OECD (2017)의 자료를 저자가 가공함.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초등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초대졸 이상’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건강수준은 활동제한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의사의 장애 판정 여부 변수를 사용하여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²²⁾ 건강과 관련해서 실제로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척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령화 패널조사 설문문항 중 “건강상태로 인해서 일을 하시는 데 지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4개의 범주로 조사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를 ‘활동에 제한 있음’으로 분류하였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지장 없다’의 3가지 범주로 다시 재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도록 한다. 소득수준은 가구총소득을 루트 가구원 수로 조정하여 균등화된 값을 사용하였다. 가구원은 가구의 소득을

22)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활동적 노인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정도와 활동욕구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즉 분석 대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참여가 저조하거나 불가능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소득보다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소득수준은 전체 가구를 3분위(상, 중, 하)로 균등하게 나누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첫째, 고령화 패널이 전체 인구 집단을 포괄하지 않고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기준 50%)이라든지, 차상위 빈곤(빈곤선의 1.2배에 해당하는 선) 같은 빈곤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 둘째, 서베이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국가의 공식적인 빈곤선(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베이비부머 세대 유형화를 위한 4가지 채널과 채널별 변수 분류는 [그림 4-1]에 제시하였다.

[그림 4-1] 유형화를 위한 4개의 채널과 항목 분류



다음으로 고령화 패널 조사에서 사회참여 활동에 관해 조사한 내용은 <표 4-21>, <표 4-22>와 같다. 고령화 패널에서는 두 가지 질문영역(인구학적 배경과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임과 개

인적, 비공식적 참여활동을 조사한다. 먼저 ‘인구학적 배경’ 파트에서는 종교,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접촉 빈도를 조사한다. 이 질문은 현재 시점의 질문으로, 해당 질문을 ‘사회참여 빈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 및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와 같이 교제, 여가활용 중심의 참여활동을 ‘친교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및 기타 단체 모임 참여를 ‘사회공헌활동’ 참여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영역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사회참여 활동과 참여 시간이다. 질문 내용은 지난 1년간의 취미 및 오락 관련 모임 또는 프로그램의 월평균 참여 시간, 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월평균 참여 시간, 자원봉사활동 월평균 참여 시간을 조사하였다.²³⁾ 이 두 영역에서 묻고 있는 ‘사회참여 시간’의 자원봉사 참여 비율과 ‘사회참여 빈도’의 자원봉사 단체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조사영역’과 ‘질문 시점’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표 4-21〉 고령화 패널 설문 내용: 사회참여 시간

사회참여 시간 (활동기준, 지난 1년간)	취미 및 오락 관련 모임 또는 프로그램의 월평균 참여 시간(단위: 시간)
	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월평균 참여 시간(단위: 시간)
	자원봉사활동 월평균 참여 시간(단위: 시간)

23) 고령화패널조사는 이외에도 여행, 관광, 나들이 경험 횟수와, 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 횟수 등도 조사하고 있으나, 공식 및 비공식 모임의 단체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참여를 정의한 본 연구의 분류에 부합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22〉 고령화 패널 설문 내용: 사회참여 빈도

사회참여 빈도 (모임·단체 참여 기준, 현재 시점)	친교 활동	종교모임	① 거의 매일 (일주일에 4회 이상)
		친목모임 (계모임, 노인정 등)	②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가/문화/ 스포츠관련 단체	③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동창회, 향우회, 총친회	④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회 공헌 활동	자원봉사	⑤ 한 달에 두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모임	⑥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기타 모임	⑦ 일 년에 서너 번 정도 (3~4개월에 한 번)
			⑧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 (2개월에 한 번 정도)
			⑨ 일 년에 거의 하지 않음
			⑩ 거의 활동하지 않음

3. 분석 결과

가. 사회참여 빈도 분석

본격적인 유형화 분석에 앞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시계열 빈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난 1년간의 사회참여 시간을 참여 여부 및 횟수와 시간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표 4-23〉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취미 및 오락 관련 프로그램 참여한 베이비부머의 비중은 대략 3%에서 7% 수준을 보였으며, 월평균 참여 시간은 대략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로 조사되었다. 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중은 대략 1%로 매우 낮았으며 평균 시간은 2020년 기준 13시간 정도를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원봉사 참여는 2008년 기준 대략

5%의 베이비부머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여 2020년 1.75%의 베이비부머 세대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 참여 비율도 감소하지만 월평균 참여 시간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8년 16.18시간에서 2020년 6.75시간으로 감소하였다.

〈표 4-23〉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난 1년간 사회참여 여부 및 시간(평균)

(단위: %, 시간)

연도	취미 및 오락 관련 프로그램		능력개발 프로그램		자원봉사	
	%	월평균 시간	%	월평균 시간	%	월평균 시간
2008	4.09	15.48	1.06	16.20	4.72	16.18
2010	3.79	16.73	1.47	21.63	3.66	16.43
2012	4.33	13.87	1.12	7.43	4.22	13.37
2014	4.32	15.33	0.61	7.83	3.38	8.56
2016	6.44	16.60	0.58	18.30	2.91	9.96
2018	7.81	13.50	0.46	8.45	3.17	7.81
2020	4.57	14.87	0.38	13.41	1.75	6.7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8차 원자료 재분석

다음으로 베이비부머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모임 참여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4>와 같다. 마지막 차수인 2020년의 경우, 조사시점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이 응답 비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2006년 23.75%에서 2020년 13.93%로 감소하였다.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략 절반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친목모임의 참여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기준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동창회·향우회·종친회 같은 단체의 참여 비율은 2006년 35.53%에서 2020년 22.2%로 감소하였다. 대략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 년에 한두 번' 참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자원봉사 참여의 경우 2006년 대략 5%의 참여를 보였으며 이 수치는 감소하여 2020년 기준 0.82%로 1% 미만까지 감소하였다.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활동 같은 사회참여 활동은 대략 1% 미만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참여를 보였다. 활동이 없는 비율이 2006년 20.35% 대비 소폭 감소하여 2020년 18.90%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4〉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빈도(모임·단체 참여 기준)

(단위: %)

년도	%	다수응답	%	다수응답	%	다수응답	%	다수응답	%	%	%
	종교모임	일주일에 한 번	친목모임	한 달에 한 번	여가/문화/ 스포츠	한달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번)	동창회/ 향우회/ 총친회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한두 번)	자원봉사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활동 없음
2006	23.75	48.34	60.80	59.25	8.83	14.26 (31.14)	35.53	26.38 (41.12)	4.96	1.39	20.35
2008	22.66	50.51	69.48	57.43	6.63	40.07	30.28	36.06	2.02	0.57	13.32
2010	19.49	51.08	68.44	56.33	5.66	30.28	26.88	39.41	1.46	0.09	14.10
2012	21.18	56.35	68.13	53.10	4.48	29.47	27.35	31.26	1.57	0.10	12.51
2014	17.58	57.29	70.34	49.34	6.27	23.32 (26.70)	27.68	38.91	0.64	0.07	11.21
2016	17.75	59.29	73.22	52.74	8.44	25.41	29.20	39.16	1.05	0.27	11.48
2018	14.50	61.21	71.84	52.46	8.10	25.11	26.83	36.99	0.73	0.59	10.83
2020	13.93	50.43	64.89	44.35	7.93	29.54 (29.62)	22.20	31.08(36.01)	0.82	0.29	18.90

주: 연도별로 다수응답이 다를 경우 괄호 안에 표기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8차 원자료 재분석

나. 다중채널 특성 빈도분석

앞에서 언급한 4가지 특성을 이용하여, 다중채널 배열분석(multi-channel sequences analysis)과 유형화 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해당 변수들의 기술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4-25〉 참조).

분석에 포함된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에서 8차까지 조사된 1,369명 중에서 직업지위, 교육수준, 건강상태 및 소득수준에서 결측치가 없는 984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중 남성은 48.11%이고 여성이 51.89%로 여성의 비율이 3.78%p 높았다.

직업지위는 조사 첫해인 2006년치를 적고 마지막 wave인 2020년의 지위는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2006년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연령은 45세에서 51세에 분포하며 2020년 기준 59세에서 65세 사이에 분포한다. 2006년과 비교할 때 2018년 은퇴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2006년 기준 은퇴 비율은 3.31%에 불과하였지만, 2020년 16.87%로 증가하였으며 ‘부분은퇴’ 비율 또한 2006년 3.65%에서 2020년 기준 6.82%로 증가하였다. 은퇴 비율을 성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06년 0.85%로 1% 미만에서 2020년 15.66%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5.89%에서 18.18%로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고숙련 임금근로자는 6.61%에서 2.86%로 감소하였으며,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였지만, 여성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숙련 임금노동자 비율은 2006년 기준 16%에서 2020년 10.52%로 감소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저숙련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2006년 12.51%에서 오히려 2020년 15.74%로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에서 저숙련 임금노동자 비율은 증가하였다. 자영업은 지난 16년 동안 약간 감소하였다(34.03%→28.58%).

전체 기준으로 학력수준은 초졸 이하가 12.81%이었는데, 여성은 18.26%로 여성의 학력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남성은 이 비율이 7.74%에 불과하였다. 초대졸 이상은 전체의 19.78%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남성은 대략 28%로 높았으며, 여성은 10.91%로 낮았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학력수준이 전체적으로 이전 노인세대보다 높다고 평가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내에서도 남녀 학력수준의 차이는 여전히 큰 편이다.

건강상태의 경우 2020년 기준 활동제한 비율이 18.61%였으며, 이 중 남성은 15.97%이며, 여성은 21.45%로 활동제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2020년 기준 소득은 상중하 중 '하'의 비중이 전체 10.78%로, 여성의 경우 12.66%가 소득 '하'에 속하였으며, 남성은 9.03%가 속하였다. 소득 '상'의 비율은 58.01%로 남성은 소득 '상'에 속한 비율이 61.98%로 여성의 53.75%보다 8.23%p 높았다.

참여하고 있는 모임·단체를 기준으로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동창회/향우회/종친회를 '친교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원봉사 및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활동을 '사회공헌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두 활동을 모두 하고 있는 집단과 모두 하지 않는 집단(활동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참여 전반을 봤을 때, 1차에 비해서 8차에서 참여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2020년 8차 기준으로 남성의 77.82%와 여성의 81.32%가 친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공헌활동은 1차 대비 8차에 오히려 감소하였다. 1차 조사 시 대략 6%의 베이비부머가 사회공헌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차에서는 1.27%로 이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즉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친교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율은 증가하고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사회참여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도 20% 정도에 이르렀다. 8차 기준 남성의 21.42%, 그리고 여성의 16.82%가 사회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4-25〉 베이비부머 세대(n=984) 기술통계

(단위 %)

베이비부머 세대 전체		전체	남성	여성
			48.11	51.89
직업 지위	비경활	18.44(14.58)	2.9(3.02)	34.72(26.98)
	은퇴	3.31(16.87)	0.85(15.66)	5.89(18.18)
	부분은퇴	3.65(6.82)	3.12(7.08)	4.21(6.54)
	임금_고숙련	6.61(2.86)	7.91(4.26)	5.26(1.36)
	임금_중숙련	16.2(10.52)	24.18(15.04)	7.85(5.65)
	임금_저숙련	12.51(15.74)	10.38(14.34)	14.73(17.24)
	자영업	34.03(28.58)	50.33(39.94)	16.95(16.39)
	무급가족종사자	5.24(4.04)	0.33(0.66)	10.39(7.65)
	합계	100.00	100	100
학력 수준	초졸 이하	12.81	7.74	18.26
	중졸	18.11	15.41	21.01
	고졸	49.30	48.82	49.81
	초대졸 이상	19.78	28.04	10.91
	합계	100.00	100.00	100.00
활동 제한 수준	활동에 제한 있음	18.61	15.97	21.45
	그렇지 않은 편	56.82	58.67	54.83
	전혀 지장 없음	24.56	25.35	23.72
	합계	100.00	100.00	100.00
소득 수준	하	10.78	9.03	12.66
	중	31.21	28.99	33.59
	상	58.01	61.98	53.75
	합계	100	100	100
사회 참여 활동	친교활동	73.38(79.51)	73.31(77.82)	73.45(81.32)
	사회공헌활동	6.04(1.27)	6.29(0.76)	5.78(1.83)
	친교활동+사회공헌활동	0.37(0.00)	0.16(0.00)	0.59(0.00)
	활동 없음	20.21(19.22)	20.25(21.42)	20.18(16.82)
	합계	100	100	100

주: 직업지위와 사회참여(친교·사회공헌활동)는 1차 값과 8차 값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8차 값은 괄호 안의 값임. 나머지 변수들의 값은 8차 값을 제시함. 개인횡단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8차 원자료 재분석

다. 다중채널 시퀀스 유형화 분석 결과

다음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유형화한 결과, 6개의 적정 군집이 도출되었다. 적정 군집 수를 판단하기 위해 시각적 판단 자료인 덴드로그램과 나무그림 및 양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였으며, <부록>에 제시하였다. 각 유형은 [그림 4-2]에서 [그림 4-4]에 제시하였다. 6개의 유형별 비중과 유형별 주요 변수의 기술분석 결과는 <표 4-26>에 제시하였다.

집단 1은 '고속련-대졸-고소득'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6.26%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6개 집단 중 고속련 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관리자와 (준)전문가에 해당하는 고속련 임금노동자가 이 유형화에 대다수 속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가 2020년 기준 높은 비율로 은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시퀀스 그림에서 2020년 기준 고속련 임금노동자(연두색)에서 은퇴·비근로 비율로 전환한 부분이 이를 설명한다. 집단 1 집단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도 높았는데(8차 기준 25.62%), 이들은 대부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자영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상)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 제한이 있다'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2020년 기준으로 '활동제한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대략 29%여서 전체 평균인 22.87%보다 높은 건강 수준을 보였다. 소득수준은 '상'의 비율이 8차 기준으로 73% 정도로 매우 높았다. 이 유형의 친교활동 참여 비율은 86.25%로 평균인 80.59%보다 높았으며,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도 2.50%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반대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 또한 11.25%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집단 2는 '비근로·은퇴-고졸-중소득' 유형이며, 전체 베이비부머 집단 중 26.42%를 차지하여 6가지 유형 중 비중이 가장 커, 베이비부머 세대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비경활 및 은퇴 비율이 높고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대부분 저숙련 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학력수준

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건강상태 중에서 '활동제한 없음' 비율은 대략 24%로 평균인 23%보다 약간 높았다. 또한 유형 1에 비해서 '중'에 해당하는 소득 비중이 컸으며 소득 '상'의 비율은 대략 50%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았다. 이 유형은 대부분 주요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저임금·저숙련 임금노동자로 근로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저숙련 임금노동자에서 은퇴함으로써 소득 수준도 함께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궤적 중에서 비근로/은퇴의 궤적과 소득수준의 궤적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건강수준, 즉 활동제한(빨강색)이 증가하고 있다. 친교활동은 85%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대략 1.54%로 나타났다. 친교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이 모두 없는 비중은 13.08%로 나타났다.

집단 3은 '자영업-고졸-고소득'이며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 중 15.35%를 차지하였으며, 고졸의 자영자로 이뤄졌다. 건강상태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좋은 편이며 '활동제한 없음' 비율이 유형 1과 비슷하게 29.80%에 이르렀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활동제한 없음' 비율에서 '그렇지 않음' 비율로 서서히 옮겨가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 비율은 64.24%로 집단 1에 비해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고소득으로 분류하였다. 친교활동 참여 비율은 86%로 높은 편이었으며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은 1.32%로 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 친교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이 모두 없는 비중은 12.58%로 나타났다.

집단 4는 '자영업-저임금-중졸-중소득' 집단으로 베이비부머의 19.72%를 차지하였다. 자영업과 저숙련 임금 노동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졸 수준의 학력을 가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활동 제한 없음' 비율은 19.59%로 평균에 비해서 건강수준이 낮았다, 소득 '상' 비율은 49.48%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았으며, 소득 '중'의 비율이 높아 '중소득'으로

분류하였다. 친교활동 참여 비율은 대략 76.8%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은 0.52%로 낮았다. 친교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이 모두 없는 비중은 22.68%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집단 5는 '중숙련-고졸-고소득' 집단으로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 중 7.22%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력수준은 고졸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활동제한 없음' 비율은 25.35%로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소득 '상'의 비율은 71.83%로 소득 '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친교활동 참여율은 80%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이 2.82%여서 다른 유형보다 높은 편이었다. 친교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이 모두 없는 비중은 16.9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 6은 가장 열악한 집단으로 '저숙련·비근로-초졸-저소득' 집단으로 전체 베이비부머 집단에서 15.04%를 차지하였다. 이 집단은 저숙련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다른 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의 베이비부머 세대로 구성되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제한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반대로 '활동제한 없음' 비율은 10.14%에 불과해 평균인 대략 2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득 '상'의 비율 또한 34.46%로 평균인 55%보다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다. 친교활동 참여율은 65% 수준에 그쳤으며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전혀 없었다. 또한 친교활동이나 사회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34.46%로 평균인 18.09%보다 16.37%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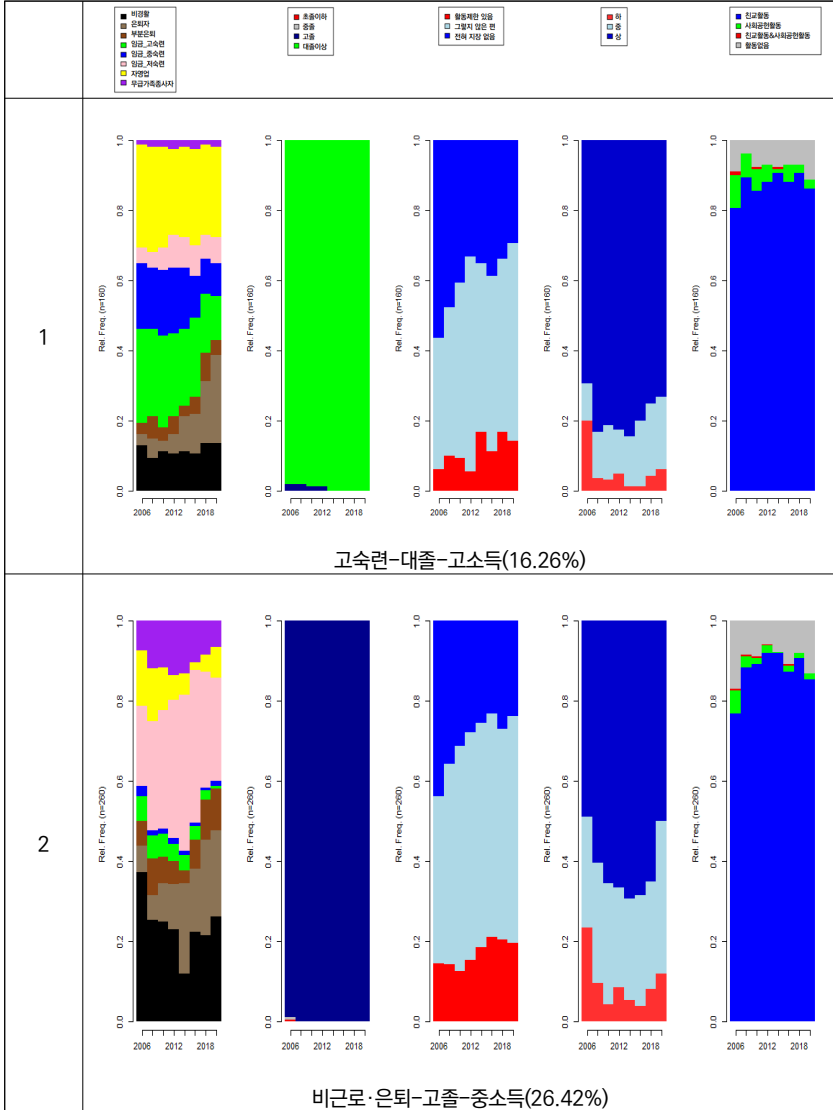
〈표 4-26〉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형별 기술 분석

(단위 %)

	분류	비율	비근로은퇴	활동 제한 없음	소득 '상'	사회참여 활동		
						친교활동	사회공헌 활동	활동 없음
1	고숙련-대졸- 고소득	16.26	38.75	29.38	73.13	86.25	2.50	11.25
2	비근로·은퇴- 고졸-고소득	26.42	47.69	23.85	50.00	85.38	1.54	13.08
3	자영업-고졸- 고소득	15.35	6.63	29.80	64.24	86.09	1.32	12.58
4	자영업·저임금- 중졸-중소득	19.72	36.60	19.59	49.48	76.80	0.52	22.68
5	중숙련-고졸- 고소득	7.22	16.90	25.35	71.83	80.28	2.82	16.90
6	저숙련·비근로- 초졸-중소득	15.04	33.11	10.14	34.46	65.54	0.00	34.46
합계/ 평균		100.0	33.34	22.87	55.08	80.59	1.32	1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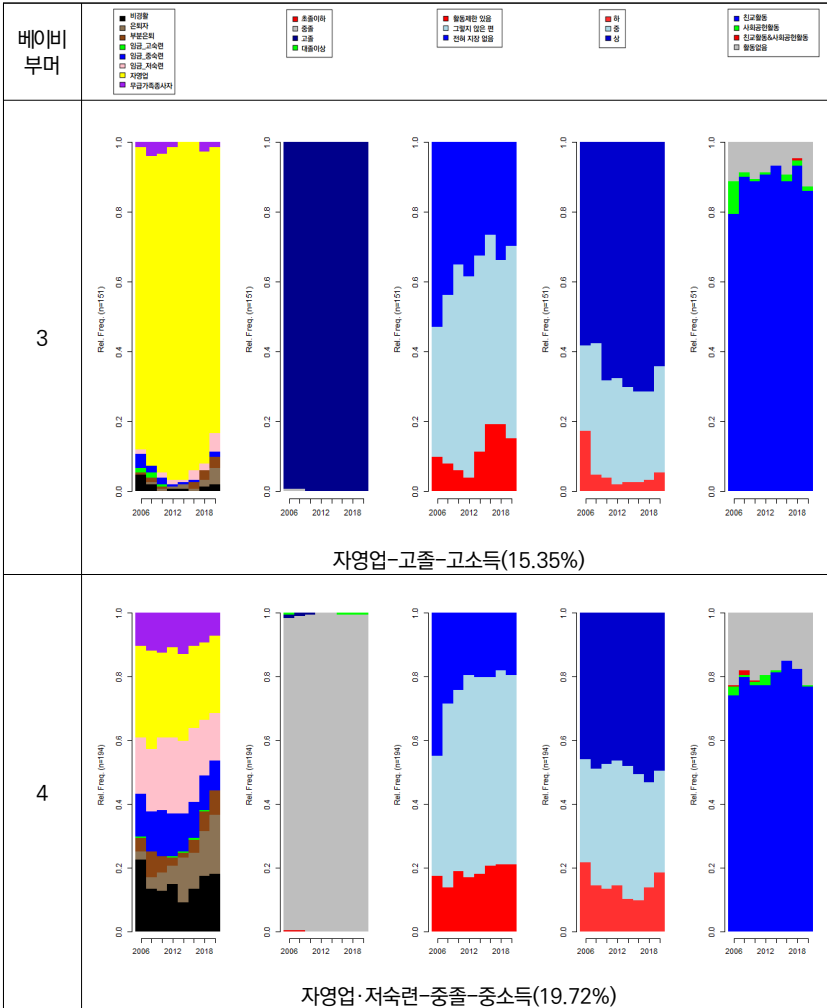
주: 비근로·은퇴, 활동제한 없음, 소득 '상', 친교활동,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은 8차 값을 제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8차
 원자료 재분석

[그림 4-2]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형화 (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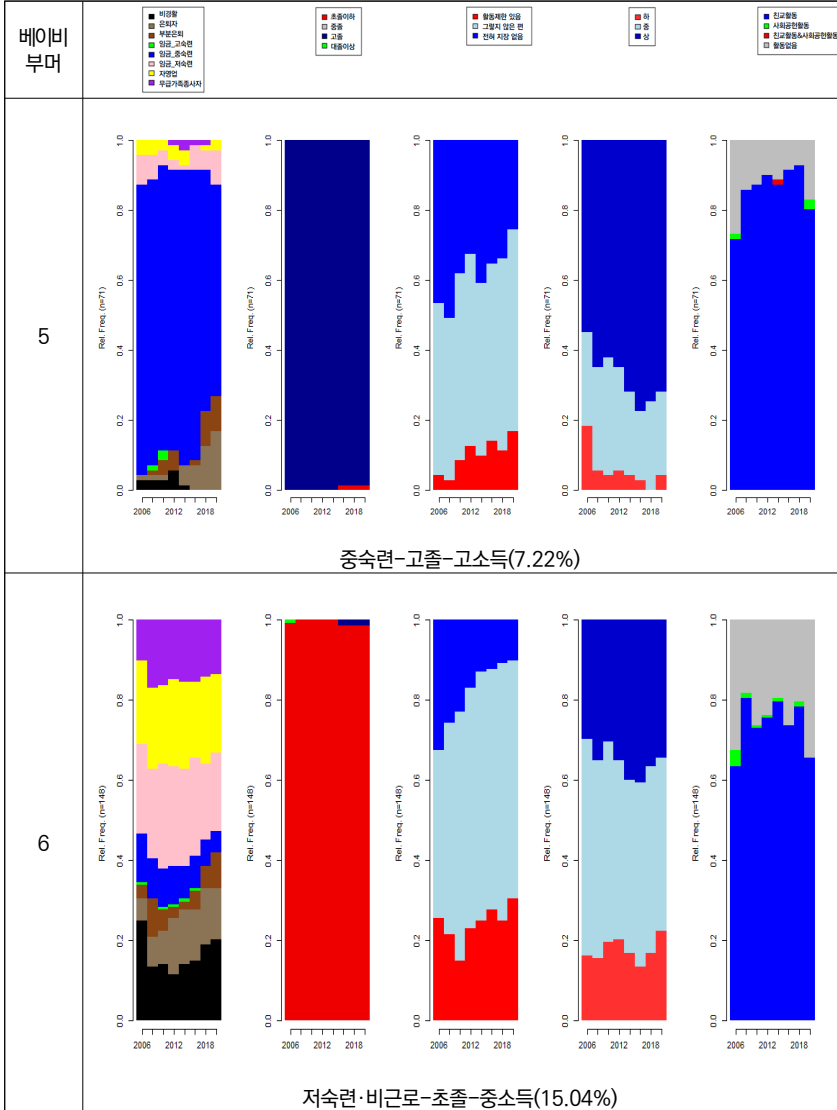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8차 원자료 재분석

[그림 4-3]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형화 (3 & 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8차 원자료 재분석

[그림 4-4]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형화 (5 & 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8차 원자료 재분석

라. 사회참여 활동 결정요인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활동(친교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의 참여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직업지위, 학력수준 및 건강수준(활동제한 수준 1 '매우 그런 편'~4 '전혀 그렇지 않음')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참여 형태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해당 특성 외에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동) 그리고 성별(남성=1)과 혼인상태(혼인=1, 그 외=0), 시간더미 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였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유형화' 결과에 따른 친교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의 참여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분석 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인 수준에서 클러스터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으며, 오즈비를 제시하였다.

친교 및 사회공헌 활동의 참여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표 4-27>과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친교활동에 참여할 확률은 1.06배,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확률은 1.13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비경활 집단 대비 '임금-고속련' 집단의 친교활동 참여 확률이 1.68배 통계적으로 높았다.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경활 집단 대비 '임금-저속련' 집단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학력수준,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른 친교활동 참여 확률은 매우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교활동 참여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 초졸 대비 대졸 이상의 베이비부머의 친교활동 참여 확률은 2.33배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률은 3.11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친교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배우자일 경우 친교활동 참여 활동이

베이비부머의 경우 비경활 집단 대비 2.25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거주지역에 따른 친교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7〉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결정요인

변수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친교활동	사회공헌활동
성별 (남성=1)		1.06* (0.026)	1.13* (0.058)
직업지위 (기준범주: 비경활)	은퇴	1.15 (0.139)	1.42 (0.367)
	부분은퇴	1.04 (0.137)	0.76 (0.258)
	임금_고속련	1.68** (0.320)	1.17 (0.368)
	임금_중속련	1.07 (0.158)	0.68 (0.209)
	임금_저속련	1.01 (0.113)	0.48* (0.169)
	자영자	1.18 (0.153)	1.28 (0.271)
	무급가족종사자	1.50* (0.258)	1.28 (0.489)
소득수준 (기준범주: 하)	소득수준=중	1.40** (0.122)	0.97 (0.223)
	소득수준=상	2.50** (0.241)	1.08 (0.221)
건강상태 (기준범주: 활동제한 있음)	활동제한 있는 편	2.85** (0.404)	2.72 (2.002)
	그렇지 않은 편	3.62** (0.512)	2.84 (2.132)
	전혀 그렇지 않음	4.41** (0.650)	6.05* (4.468)
교육수준 (기준범주: 초졸이하)	교육수준(중졸)	1.34* (0.164)	1.54 (0.567)
	교육수준(고졸)	2.18** (0.241)	1.68 (0.550)
	교육수준(대졸 이상)	2.33** (0.353)	3.11** (1.178)

변수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친교활동	사회공헌활동	
유배우자(유배우=1, 그 외=0)	2.25** (0.234)	1.18 (0.548)	
거주지역 (기준범주: 읍면동)	대도시	1.02 (0.112)	0.80 (0.191)
	중소도시	0.96 (0.105)	0.80 (0.210)
	관측치	13,895	13,895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 안은 개인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제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8차 원자료 재분석

다음으로 ‘유형화’ 결과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유형별 친교 및 사회공헌 활동 참여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가장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집단 2 유형인 ‘비근로·은퇴-고졸-중소득’ 집단(전체에서 26.42%)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해당 유형 대비 ‘고소득’에 해당하는 집단의 경우 친교활동과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률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예를 들어 ‘고숙련-대졸-고소득’ 집단은 기준집단 대비 친교활동의 오즈비는 1.52,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참여 오즈비는 2.90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반면 ‘자영업·저숙련-중졸-중소득’ 집단과 ‘저숙련·비근로-초졸-중소득’ 집단은 기준집단 대비 친교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각각 36%, 66%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베이비부머와 유형화에 따른 사회참여 활동 결정요인

변수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친교활동	사회공헌활동
기준범주: 비근로·은퇴-고졸-중소득		
고숙련-대졸-고소득	1.52 (0.500)	2.90 (2.149)
자영업-고졸-고소득	1.53 (0.507)	1.91 (1.736)
자영업·저숙련-중졸-중소득	0.64+ (0.170)	0.48 (0.543)
중숙련-고졸-고소득	1.11 (0.433)	3.64 (3.389)
저숙련·비근로-초졸-중소득	0.34** (0.092)	
성별(남성=1)	1.17** (0.057)	1.47* (0.262)
유배우(=1)	3.89** (0.858)	0.69 (0.547)
기준범주: 읍면동		
대도시	1.12 (0.269)	1.02 (0.580)
중소도시	0.91 (0.214)	-
관측치	984	692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 안은 개인수준의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제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차~8차 원자료 재분석

제3절 소결

1. 한국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현황과 일반적 특성

1차, 2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인 산업화 세대까지 분석에 포함하였다. 종합적으로 산업화 세대의 특성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2차 베이비부머의 현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개입방안을 모색한다.

1차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13.68%, 2차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12.22%에 달하여 두 집단의 합은 전체 국내 총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1차 베이비부머는 47%, 2차 베이비부머는 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세대별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1차 베이비부머는 고졸 이하에 해당하는 학력이 가장 높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성별 학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비교를 위해 살펴본 산업화 세대는 여성의 경우 초졸 이하 학력이 50.92%, 남성은 29.2%에 이를 정도로 성별 차이를 보였다.

고용률을 살펴보면, 1차 세대는 2020년 기준 남성 73.93%, 여성은 49.87%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2차는 각각 89.14%, 67.13%로 대부분 근로 상태에 있었다. 장기적으로 1차 세대 전체를 두고 살펴보면, 2000년과 2010년에 각각 70.15%, 73%의 고용률을 보였고, 2020년에는 61.51%를 보여 노동시장 이탈이 10년 사이에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기준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1차 세대의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15.48%)가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4.2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4.25%)가 뒤를 이었다. 산업화 세대의 직업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5.81%), 2차 세대는 사무 종사자(19.98%)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8.27%)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분포했다.

가구구조를 살펴보면, 1차 세대는 1세대 가구가 48.35%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2세대 가구는 30.35%로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비율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세대는 2세대 가구가 60.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의사를 살펴보면, 전 세대에 걸쳐 참여 의사가 높지 않았다. 1차 베이비부머는 24.48%, 2차는 30.84%, 산업화 세대는 12.3%만이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금 현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앞으로 고령자로 진입하는 신중년 집단에 걸쳐 자원봉사에의 참여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원봉사 참여 이유로 전 세대에 걸쳐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므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1차 베이비부머와 산업화 세대에서는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두 번째 이유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라는 이타적인 이유가 여전히 높았다. 반면 2차 베이비부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단체활동에 동참하려고'라는 사회활동 참여 수단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이전 세대와 달리 개인의 이타적인 신념에 의해서만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와 단체 활동의 필요를 이유로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결과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아울러 고령자로 진입을 앞둔 신중년 집단에 걸쳐 사회참여의 한 형태로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전 세대에 걸쳐 자원봉사에 미참여하는 이유로 자원봉사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1차 및 2차 베이비부머와 비교해 가족 부양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화 세대

에서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내 고령자 대상 자원봉사에 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이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2.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 양상

본 절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1차(2006년)부터 8차(2020년) 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부머의 친교·사회공헌활동 참여 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형화를 위해서 학력수준과 건강 같은 인적 자본과 노동생애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을 함께 반영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친교·사회공헌활동 가능성은 유형화에서 고려한 노동궤적 및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및 소득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간의 사회참여 여부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미 및 오락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10% 미만의 참여율을 보였다. 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와 자원봉사 참여 비율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관련하여, 2020년 8차 자료의 경우 조사시점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교·사회공헌활동을 모두 하지 않는 비율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2018년 10.83%에서 2020년 2년 사이 18.90%까지 증가하였다. 전체적인 추이는 종교활동 참여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친목모임은 2006년 대비 대략 2016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소폭 감소하고, 202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06년부터 친목모임 참여 비율은 60.80%에서 2016년 73.22%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 65%까지 감소하였다. 이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여가/문화/스포츠 단체 활동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뚜렷한 증감 추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창회/향우회/종친회 같은 사적 모임의 참여율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였다. 자원봉사와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같은 사회공헌활동 참여율은 2006년 5% 수준에서 계속 감소하여 2020년 0.82%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자원봉사활동이 본인의 직장이나 종교단체와 관련되어 있었고, 직장에서의 은퇴 혹은 종교활동 참여 비율이 감소한 것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감소라면,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 혹은 사회참여 활동 자체가 주활동이 아닌 것에 따른 결과이며,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 활동이 지속성을 가진 주요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의 노동지위, 학력수준, 건강수준, 소득수준의 4가지 채널로 다채널 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적정 유형을 도출한 결과, 6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단 1은 '고속련-대졸-고소득'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6.26%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6개 집단 중 고속련 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2020년 기준 높은 비율로 은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학력은 대졸(이상)이며, 건강상태가 좋았으며 73%가 소득 '상'에 속하여 소득수준도 높았다. 이 유형의 친교활동 참여는 86.25%로 평균인 80.59%보다 높았으며,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도 2.50%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이 집단 유형은 향후 국가가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본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기준 비근로 은퇴 비율이 38.75%이지만, 향후 은퇴 비율이 더 늘어날 경우, 주요한 활동으로 자원봉사 혹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출생 연도 기준 1955년부터 1961년까지의 베이비부머 코호트의 전체 인구수는 2020년 기준 5,436,809명이며, 이 중에

서 대략 16.26%인 88만 명 정도는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원봉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 2는 '비근로·은퇴-고졸-중소득' 유형이며, 전체 베이비부머 집단 중 26.42%를 차지하여 6가지 유형 중 비중이 가장 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비경활 및 은퇴 비율이 높고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대부분 저숙련 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다. 이 유형은 대부분 주요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저임금·저숙련 임금노동자로 근로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저숙련 임금노동자에서 은퇴함으로써 소득수준도 함께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집단은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고졸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비근로, 은퇴 비중이 높아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실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시민서비스 활동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 143만 6천 명 수준이다.

집단 3은 '자영업-고졸-고소득'이며 15.35%를 차지하였으며, 고졸의 자영자로 이뤄졌다. 건강상태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좋은 편이며 소득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친교활동 참여 비율은 86%로 높은 편이었으며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은 1.32%로 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 자영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이 베이비부머 유형은 현재 시점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단 4는 '자영업·저숙련-중졸-중소득' 집단으로 19.72%를 차지하였다. 자영업과 저숙련 임금노동자가 주를 이뤘으며, 중졸 수준의 학력을 가졌다. 소득수준은 중소득으로 분류하였다. 친교활동 참여 비율이 대략 76.8%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사회참여 활동이 없는 비중은 22.68%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이들에게는 향후 은퇴 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집단 5는 '중숙련-고졸-고소득' 집단으로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 중 7.22%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졸의 학력수준과 소득수준 '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참여 활동이 없는 비중은 16.90%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 또한 집단 4와 같이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집단 4와 5가 속한 베이비부머는 총 146만 명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6은 '저숙련·비근로-초졸-중소득' 집단으로 15.04%를 차지하였다. 이 집단은 초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가졌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제한을 겪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가장 열악한 집단으로 파악된다. 친교활동 참여율은 65.54% 수준에 그쳤으며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전무하였다. 또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34.46%로 평균인 18.09%보다 16.37%p 높았다. 이들 유형의 베이비부머를 위해서는 적당한 강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시민서비스 활동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총인원은 81만 7천 명 수준이었다.

베이비부머 집단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참여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과 학력수준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른 친교활동 참여 확률이 매우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즉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친교활동 참여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유형화한 결과, 중간소득계층(비근로, 은퇴-고졸-중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코호트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에 비해 취약집단의 친교활동 참여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2028년까지 고학력의 상대적으로 건강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의 은퇴와 함께 노인 집단의 생태계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의 노인들은 빈곤하고 수동적 시니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는 이전의 부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소득과 자산을 확보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안서연, 백학영 2020), 양질의 인적 자본이다. 이들이 은퇴 후에 의미 있는 활동들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 베이비부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친교활동 참여 격차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형화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중간소득과 고소득 유형의 베이비부머의 친교활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간소득 대비 취약계층의 친교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의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능력개발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중은 현재 기준으로 매우 낮았다. 또한 사회참여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의 비율도 대략 1%대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분석 결과이며, 참여 정도가 낮은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베이비부머는 여전히 근로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회참여 비중이 사회참여 비율이 낮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유형 4에서는 소득수준도 높고 건강상태도 양호하였지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22.6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의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사회참여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참여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박소정 외(2023)의 FGI 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활동적 중간소득 노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기여에 관심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서도 1955년생에서 1961년생까지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동질한 특성을 지닌 인구 코호트라고 하더라도 베이비부머 세대 내에서의 이질성과 불평등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김수린, 배지영, 안서연, 허선영, 김혜인, 2020) 2개 연도의 후기 베이비부머 세대가 분석에 포함될 경우, 분석 결과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제5장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과 사회참여에 관한 심층면접조사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소결



제 5 장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과 사회참여에 관한 심층면접조사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1. 사례연구

앞에서 양적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여러 사회참여 영역의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사회참여의 의미 체계는 전 생애적 맥락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과 개인별 고유한 특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기존 이론과 양적 연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맥락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며, 본 장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여러 질적 연구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현상과 맥락을 다루는 사례연구를 시행한다.

사례연구는 “정의 가능한 단위(사례)를 내부 구조와 환경 조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포괄적인 연구 전략”(Hering & Schmidt, 2014, p. 529) 으로 정의된다. ‘사례’는 사람, 더 높은 수준의 행동의 사회 구조, 사회적 과정 및 사건, 의사 결정 절차가 될 수 있다. 사례연구는 “특정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an in-depth exploration of a bounded system)”를 통해 현상에 대한 근거를 찾는 방법이다(Creswell, 1994). 사례연구의 핵심은 어떤 대상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석적인 보고서 형식에서 수행되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독자에게 상황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Marshall & Rossman, 2006).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이 우세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며, 현상과 그 맥락을 다루기 때문에 고려할 변수가 많으므로 무작위 표집을 하지 않는

다. 따라서 사례연구에서 사례는 특정 관심과 관련하여 의식적으로 선택되며, 해당 사례를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선정이 이루어진다(Baur & Lamnek, 2005, p. 241). 이와 관련하여 Creswell은 최대의 여러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이한 사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대편차표집’으로 개념화하였다(Creswell, 2007).

사례 정의, 연구 설계 결정 및 사례 선택은 해당 주제 분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각 사례는 유사한 결과를 제공하거나 다른 결과를 제공하지만 예측 가능한 원인을 제공하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야 한다. 유사점이나 차이점과 관련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개별 사례만 고려하더라도 일반화 가능하거나 전환 가능한 진술이 작성되어야 한다. 비교 가능한 상황적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사례 분석에서 확인된 패턴은 개별적 특성 드러나지만, 결코 고유하고 개인적이지만 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행위나 사건 진행에서 확인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Baur & Lamnek, 2005, p. 246).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상이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을 발견하여 심화되면 일반화를 통해 이론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개인을 사례로 정의하고, 사례의 주제 분석에 특히 유용한 방법을 제시하는 Creswell의 분석 방식을 활용한다. 사례 내, 사례 간 분석을 주축으로 수행하는 Creswell의 사례연구는 사례들의 공통적 맥락과 사례별 특성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베이비부머라는 세대적 특성과 생애 과정에서의 시대적 특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참여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의 요소에 관심을 가진 본 연구는 사례 내 분석을 통해 주제를 발굴하고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사회참여의 다양한 배경요소를 탐구하는 Creswell의 분석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례연구는 내용이나 사례 수, 고려된 분석단위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사례 선택은 내용 분석과 후속 유형 형성(선형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이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긍정적 생애전환을 위한 사회참여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초점에 두고 있으므로, 다양한 대상을 개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참여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전후하여 여러 ‘사회참여’ 영역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확인한다. 양적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연속적 과정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동기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각 영역별로 개입 지점을 확인하고, 이들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에서 역할 찾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생애전환 경험의 재구성: 베이비부머로서 지난 삶과 생애전환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활동의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은 무엇인가?
 - 2-1. 촉진 요인: 진입 요인/ 확장 요인
 - 2-2. 저해 요인: 진입 저해 요인/ 중단 요인

2. 자료수집의 원칙

다중 사례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정보 수집의 세 가지 통일된 원칙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이 원칙은 다양한 데이터 사용(multiple data-sources), 사례연구 데이터베이스 활용(case study database), 일련의 증거 유지(chain of evidence)로 요약될 수 있다(Yin, 2003, p. 97). 삼각화(trinulation) 과정은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이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 활용(데이터 삼각화), 다양한 관찰자 관여

(관찰자 삼각화), 동일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론 삼각화) 활용 및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론적 삼각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진행을 1인 연구자가 수행한 관계로 관찰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지 못했지만, 조사 대상 모집 단계에서 연구원이 사전 인터뷰를 통해 사실적 정보들을 확인하였고, 각 사례에 대해 인터뷰 수행자와 긴밀하게 소통하였다. 또한 체계적 문헌고찰(제3장) 결과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사례별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덧붙여, 베이비부머의 생애에 대한 신문기사, 연구논문, 연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 분석의 객관성을 갖고자 노력했다.

사례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화는 분석에서 해당 연구를 통해 생산한 조사 결과와 기존에 수행된 문헌연구, 조사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자료들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전체 연구의 신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행한 사전면접 결과와 총 1,108분에 이르는 인터뷰 전사자료가 주로 활용되었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의 상황 서술, 대상자 특징 파악 등의 메모, 연구진 회의의 회의문서, 회의록을 활용하였다. 조사의 질문을 구성하고, 인터뷰 종료 후 자료의 부호화 단계에서는 체계적 문헌 분석의 결과 자료, (전자)출판된 보고서(전자문서, 인쇄본 포함), 연구 진행 과정의 기록 및 문서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과정에 포함된 논문 외에도 베이비부머의 생활상, 사회참여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출판물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에 언급한 자료들은 소프트웨어 MAXQDA Plus 2022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화는 일련의 증거(Chain of evidence)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연구 과정의 각 절차와 내용들이 유기적이며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독자는 사례연구 결과에서 연구 질문까지 일련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반대로도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화 이외에도 정확하게 구조화된 참고 구조와 외부(예: 다른 저자의 에세이) 및 내부(예: 연구 내 다른 곳에서 제공된 증거) 출처 인용에 유의하였다.

3.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유의표집을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앞선 제4장 제2절의 집단 1, 집단 2, 집단 3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고르게 포함하고자 하였다. 고숙련 집단으로 대표되는 집단 1, 베이비부머의 가장 대표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된 집단 2, 고졸-자영업자로 대표되는 집단 3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다음, 생애전환 지원으로서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²⁴⁾ 또한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생애 경력을 사회적 유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계획한 연구 목적에 맞게 생애 근로 경험(자영업 포함)이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여, 사회참여의 다양한 형태와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직군(전문관리직/사무직/기능기술직), 지역, 소득군을 포함하고자 하였다.²⁵⁾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수행하였다. 전국의 다양한 지

24) 집단 4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평균 이하의 건강상태와 종교활동 참여 비율이 낮아 사회참여 여력이 없는 집단으로 판단했다. 집단 5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고, 집단 6은 저숙련,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이 분포하여 생애전환 지원 과제를 제시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25) 생애전환 경험 중 가장 큰 변화를 차지하는 경험이 '퇴직'이므로, 본 연구는 근로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 단계에서 근로경력을 가진 대상 중 관계로 증출 이하 저학력 대상자를 구하지 못하여 포함하지 못했음을 밝히며, 이를 연구의 한계로 남긴다.

역의 베이비부머를 인터뷰하기 위해 광주, 수도권(서울/경기), 대전, 부산, 경북(상주시)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장소는 회의실 또는 면담자 자택이며, 전사된 녹음 시간은 최소 52분~최대 93분이다. 개인화된 경험을 질문하는 조사 내용의 특성상 17회의 대면 면접의 전 과정은 연구자 1인이 진행하였고, 인터뷰의 전 과정은 녹음하여 전사 과정을 거쳤다. 아래에 조사 대상의 특성과 제4장 제2절에서 시행한 분류에 따른 면접 참여자 구성을 현재 경제활동별로 제시한다.

〈표 5-1〉 조사 대상 특성

참여자	성별	출생연도(년)	월소득(만 원)	학력	주된 일자리 경험과 현재 경제활동 상태	사회참여 활동
A	여	1963	120	대졸	- 어린이집 35년 근무 (원장 5년)	- (현)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양육코칭전문가
B	여	1962	400	대졸	- ** 텔레콤 고객상담원 25년 근무, 2022년 퇴직	- 퇴직 후 다양한 지자체 활동, 봉사활동 - ** 지역 마을플래너
C	남	1968	400	대학원졸	- 교육, 공동체 분야 개인 회사 대표 경험. - ** 교육청서기관(4년 임기제) 2023.3 퇴직	-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대표 역임. - 사회적협동조합 회원
D	남	1963	300	대졸	- 시설관리회사 15년 근무, 2020년 퇴직 - 동일계열 재취업	- 동대표, 입주자 대표 역임
E	남	1969	600	대학원졸	- (현) 10년 차 조리사(장)	- 교회 봉사활동
F	여	1974	700	대졸	- ** 사무직 27년 근무, 2022년 퇴직	- (현) 지역 배드민턴 동아리 회원
G	남	1958	700	대졸	- 기술연구소 15년 근무, 2014년 퇴직	없음
H	여	1963	700	고졸	- ** FP 사무직(22년 이상), 1년 후 퇴직 예정	없음
I	여	1955	200	고졸	- ** 생명보험설계사 20년 근무, 2000년 퇴직. - 현재 ***협동조합 (부동산 사업) 3년째 활동	- 부녀회 활동 경험

참여자	성별	출생연도(년)	월소득 (만 원)	학력	주된 일자리 경험과 현재 경제활동 상태	사회참여 활동
J	남	1960	300	전문대 졸	- (**스마트교육원 대표 이사, 컴퓨터강사	- 아파트 방범단 단장 역임. 고등 등창모임 총무, 회장 경험
K	남	1960	300	고졸	- (현) 건축사무소 대표(현업)	- (현) 아파트 감사
L	남	1958	200	고졸	- 전직 공무원 2018년 퇴직	없음
M	남	1956	200	고졸	- 식품회사 30년 근무, 2004년 퇴직 - 자영업 (업종 변경 포함 13년) - 현재 아파트 경비	- 로타리클럽 활동 경험 - 현재 활동 없음
N	여	1974	300	고졸	- 의료공장 4년 근무, 판매업 10년째 종사	- 아파트 동대표 역임 - 부녀회 활동 경험 - (현) ** 봉사단체 지역대표
O	남	1959	300	대졸	- 전직 공무원, 2019 퇴직 - (현) ** 도시농업협동조합 이사장	- ** 대학교 50+ 평생 교육센터에서 동호회 활동 후 협동조합 설립. - 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 경험
P	남	1960	100	고졸	- ** 자동차회사 20년 근무, 퇴직 - ** 향운노동조합 22년 근무, 2023 퇴직.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역임(관리이사 2년, 총무이사 2년)
Q	남	1962	300	고졸	농업	- (현)**면 **2리 이장(9년) - (현)이장 협의회장 - (현)문화체육회회장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표 5-2〉 유형별 조사 대상 분류

구분	경제활동 현황		
	집단 1(5명) (고숙련-대졸-고소득)	집단 2(9명) (중숙련-고졸)	집단 3(3명) (자영업-고졸-고소득)
주된 일자리 유지	E (조리장)(2차)	H (사무직 22년 근무 중, 1년 후 정년퇴직)	K (건축사무소 대표) Q (농업) J (**교육원 대표, 컴퓨터 강사)

구분	경제활동 현황		
재취업	A (사회공헌일자리)	D (시설관리회사 퇴직, 관련 소규모 업체 재취업) I (부동산 협동조합 조합원) M (자영업 거쳐 아파트 경비) N (판매업 종사)(2차)	
구직 중	C (임기제 공무원 퇴직)	B (통신사 정년퇴직 후 구직 중) P (항운노조 정년퇴직 후 구직 중)	
구직 의사 없음	G (연구소 15년 근무 후 퇴직) F (27년 근무 후 자발적 퇴직)(2차)	L (공무원 정년퇴직) O (공무원 정년퇴직,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4. 조사 내용

본 연구는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의 긍정적 전환 경험을 위한 사회참여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생애전환 경험과 사회참여 현황, 욕구, 동기를 파악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면접을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본 배경(사회참여 현황과 유지기간, 향후 계획)
- 세대 인식: 가정, 직장에서의 경험
- 생애전환 인식: 직업, 건강, 관계 측면
- 생애전환 경험, 적응 어려움
- 제도/정책 관련 경험: 지자체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마을공동체 활동 경험 등)
- 교육, 자원봉사 관련 경험: 복지관 교육 참여, 기부, 경력 활용 봉사 등

5. 조사 분석 절차

Creswell(2007)의 제시에 따라 개별 17개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읽고 코딩하여 각 사례별 주제가 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사회참여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배경, 활동 시작, 지속 또는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향후 계획의 다양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어진 사례 간 분석에서는 사례 내 분석에서 나타난 사례들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범주화하였다.

주제 분류는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 사례 내 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의 생애전환 경험 전반과 결과로 나타난 사회참여 양상,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코딩을 수행했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전체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이나 연구에서 설정한 유형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포착하여 주제별로 분류하고 범주화하였다. 사례 내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 귀납적 접근을 주로 활용한 것에 비해 사례 간 통합주제를 제시하는 데는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모두 활용했다. 예를 들어 사례 간 통합주제 중 상위 범주인 ‘베이비부머 세대인식’, 하위범주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요소’는 귀납적으로 인터뷰 분석 과정에서 추가되었다. 또한 사회참여를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으로 구분하고, 참여의 주도성이 생기고 활동 내용이 심화된 계기로 확장 요인과 활동 시작 이후의 중단 요인을 분석한 다음, 카테고리 추가하여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경험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는 ‘참여’의 다양한 단계를 고려하여 의미를 세분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연역적 접근에 해당한다. 또한 주제별 분류를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제3장)에서 나타난 사회참여에의 영향요인 변수를 참고하였다. 이외 제시된 사례 내 주제는 전사된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두 귀납적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4개의 상위범주, 10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했고, 총 36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했다.

〈표 5-3〉 사례 내 주제, 사례 간 통합주제

사례 내 주제	사례 간 통합주제	
베이비부머의 성장 과정과 급격한 사회변화 이웃·친구 간 신뢰와 정(情)을 경험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	함께 겪어온 지난 세월	베이비부머 세대인식
이중 부양부담을 가진 세대 직장과 가정에서 세대차이 체감 자기인식: 가치 지향적이며 진취적	우리 세대의 특징	
퇴직 전 위기감/ 퇴직 직후 상실감 퇴직에 대한 양가감정 할 수 있는 일과 갈 곳이 없음 '일'의 의미 변화 기준에 누리지 못한 문화·여가생활 희망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적응 경험	생애전환 경험
신체적, 인지적 기능저하 체감 건강 악화로 인한 활동 중단, 의지 저하	건강상태 변화	
최근 관계 단절 경험: 생애주기 변화, 코로나19 직장, 동창에 한정된 인적 네트워크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회의적 지역사회 교류 희망	사회적 관계 변화	
생애전환을 경험하며(퇴직 등) 관심 지인 소개나 친분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 지역에 대한 애정	진입 요인	사회참여 시작·축진·확대 요인
모임·조직 구성원 간 좋은 관계 의미 있는 교육 수강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생애경력 활용 보람 적절한 보상·감투	지속·확장 요인	

사례 내 주제	사례 간 통합주제	
아동,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연민 언젠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사회공헌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요소 (미참여자 특성)	
무경험, 미지의 세계 홍보 부족, 낮은 인지도 원하는 프로그램, 과정 없음 경제활동이 우선순위		
프로그램, 교육 제공 후 후속 과정 부재 주변의 부정적 피드백이나 무관심 활동 내용에 불만족 활동 강도에 비해 적은 보상과 복잡한 지원절차	진입 저해 요인	사회참여 중단·저해 요인
	중단 요인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 베이비부머로서 지난 삶과 생애전환 경험: 베이비부머의 세대 인식

가. 함께 겪어온 지난 세월

1) 베이비부머의 성장 과정과 급격한 사회변화

베이비부머는 자신이 살아온 시절을 ‘격동의 시절’로 표현했다. 전후세대로 태어나 부족한 자원 속에 성장하였으나,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풍요를 경험하는 한편, 외환위기라는 사회적 충격을 동시에 경험한 독특한 생애 과정을 거쳤다.

조사에 참여한 베이비부머는 공통적으로 다자녀가정, 과밀학급 배경에서 성장하였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경쟁이 일상이었다고 회고한다.

참여자L: “당시 전기 로스쿠이가 유명했을 때인데 그걸 한 대여섯 마리를 사오셨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봐요. 식구가 10명이 넘으니까 **쟁탈전**이 심했죠. 눈치를 봐야 되고 **항상 부족했지.**”(58년생/ 남/ 3 - 3)

참여자O: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학교에 입학생이 이제 그 학교가 지금 올해 입학생이 모자랐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반 **한 반에 거의 90명씩** 있었고 열세 반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 그때 사람이 많았긴 많았구나. 이런 생각해요.”(59년생/ 남/ 2 - 2)

참여자G: “우리가 자라고 직장 다니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베이비부머라고 느낀 게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도 그냥 인원이 꽤 꽤 많아가지고 교실 한 교실에 60명씩 차가지고 정신이 없었고.”(58년생/ 남/ 22 - 22)

그래도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이 용이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참여자L: “우리 때는 일자리는 많았어. 대학교만 나오고 그러면 일자리들은 많았어. 그다음에 일을 또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쪽 쪽쪽 나가는 놈은 쪽쪽 나가고 그러던 **격동의 시절**이지.” (58년생/ 남/ 24 - 24)

참여자J: “이제 너무 빨리 **베이비부머들이 진짜 죽을 등 살 등 해가지고** 경제 부흥을 시켰는데 너무 빨리 올라간 거예요.”(60년생/ 남/ 21 - 21)

외환위기는 베이비부머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당시 중년층에 속했던 베이비부머는 당시 원하지 않는 퇴직을 당하기도 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도 대학 졸업 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취업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참여자J: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베이비부머들이 전쟁만 안 겪었지 겪은 게 많잖아요. IMF**라는 그 큰 걸 겪고.”(60년생/ 남/ 22 - 22)

참여자C: “IMF가 터져가지고 IMF 터지면서 ****그룹이 거의 뭐 해체돼 버렸다** 아 님니까. 해체되면서 완전히 뭐 정리를 다 하고 이러는 바람에 **희망퇴직**을 했습니다.”(60년생/ 남/ 43 - 45)

참여자E: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해서 이제 아저씨도 집에 있다가 공부를 한다고 법무사 공부를 한, 했는데 뭐 이게 전에 공부한 건 까먹고 자꾸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보험 이제 보험.” (55년생/ 여/ 29 - 29)

참여자F: “저희가 진짜 **졸업하니까 imf 터지고**. 좀 살 만하니까 외환위기 터지고. 저희 앞 세대는 더 하셨겠지만 약간 꺼서 진짜 힘든 세대였어요. 취업도 힘들고 살아남기도 힘들고.” (74년생(2차)/ 여/ 98 - 98)

급격한 사회발전, 기술발전을 거치면서 자신이 쌓아온 업무능력이 필요 없어지는 경험을 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사용환경이 변화했고, 인터넷 기술 발달로 예전에 작동하던 영업방식이 무의미해졌다.

참여자J(컴퓨터 강사): “학원에서는 제가, 우리 학원이 컴퓨터 수리하는 학원이에요. 그게 2000년부터 2013년, 2012년 그때까지는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흥행을 해가지고 학원이.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변에 보면 컴퓨터 A/S 하는 가게들 있죠? 그게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0년, 2014년, 2013년 이때가 되면서 이제 **윈도우 7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가 좋아지니까 운영체제가 좋아지니까 고장이 안 나**. 그러면서 이제 학원들이 하나들 문을 닫다가 이제 마지막에 남은 학원이 우리 학원밖에 없었어요, 사실은.”(60년생/ 남/ 35 - 35)

참여자(보험업 종사): “**요새는 빌딩에 못 들어가요.** 다 저기, 현관에서 경비 아저씨들이 이상한 잡상인 취급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새는 저기, 다이렉트로도 들 수 있고 보험 시장이. 메리트가 설계사를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죠. **다이렉트로 본인이 알아서 다 들 수도 있는데 뭐 인터넷에서.**”(55년생/ 여/ 20 - 21)

2) 이웃·친구 간 신뢰와 정(情)을 경험

베이비부머는 성장 과정에서 이웃 간 친밀한 정서를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경험한 과거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나 친구를 대가 없이 돕는 ‘정’이 살아 있던 시절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안전한 신뢰사회였다고 회고한다.

참여자A: “저희는 어려서부터 집 없는 애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이런 사정에 따라 어쩔 때는 어린이집에 아이들 놔두고 도망가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바람나서. 그런 애들 데려다가 키우다 보니까 여러 번 키웠어요. 말하자면.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재는 돈 낼 형편이 안 돼. 저희가 그냥, 그래 그냥,** 그냥 이렇게. 그저 그렇게 배고파하면.” (63년생/ 여/ 28 - 28)

참여자C: “저희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는 안전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하면 지나가던 이웃집, 옆집 형, 옆집 누나 아니면 옆집 삼촌, 그 동네에 있는 삼촌들이 다 저를 알기 때문에 야 너 지금 우리 동생한테 뭐 하는 거야? 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이 없어도 다들 돈 없이 살았는데. 저희 세대는. 그 돈이 없어도 동네 가게에 가서 거기 그 삼촌한테 우리 엄마가 뭐뭐뭐 뭐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하드 하나 가지고 갈게요. 그러면 **돈을 안 내도 그걸 하나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은 말이 안 되잖아요.**” (68년생(2차)/ 남/ 11 - 11)

이웃 간 한 지역에서 오래 어울려 살면서 쌓아온 정은 ‘자원봉사’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의 연속적 교류와 선행으로 이어진다.

참여자A: “(동네) 근데 그분들을 알 때, 내가 30대에 알았던 말이에요. 30이 못 돼서부터 알았는데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분들이 90대가 넘잖아요. 지금 내가 60대가 넘었고. (...) 한 동네 오래 살다 보면, 근데 지금도 거기서 좋은 거 뭐냐 하면 **내가 목욕 합시다 해서 올 수 있는 분**. 걸을 수 있는 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지팡이로 건너라도 두 발로 걸어 오시는 분들은 목욕을 따라올 수 있어요. (...) 한 번씩은 또 **온천 갈까요?** 그래서 보성 해수욕장 있는데 온천 갔다오기도 하고 담양 온천 가기도 하고 (...)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가봐야 두 분, 세 분 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행복해 하세요.” (63년생/ 여/ 29 - 30)

3)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

베이비부머는 ‘부지런함’, ‘고생’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살아내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보상으로 ‘열매’는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참여자P: “제일 크게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한** 세대죠, 뭐. 제일 부지런히 일을 했고.”(60년생/ 남/ 559 - 559)

참여자L: “우리가 기여한 거는, **많이 했어요**. 이미, 우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워라벨 이니 뭐니 이런 거 한 지 얼마 안 되잖아. (...)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일조를 했지. 근데 그 **열매는 못 따 먹은 것 같아.**”(58년생/ 남/ 23 - 27)

한편으로는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으로 전국적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은 점, 자녀세대에게 많은 지원을 하며 자립심을 길러주지 못한 점을 들었다.

참여자O: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세상을 버려놓은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를 버려 놓은 게 전부 다 가가지고 살 거라고 시골에 가가지고 땅 다 사났거든요. **가격을 많이 올려놨어요**”(59년생/ 남/ 28 - 28)

참여자O: “**지금 우리가 세상을 버렸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 자식 세대, 그리고 그 밑의 세대들이 문제가 되는 그계, 그래, 니가 맞다. 니는 무조건 다 해라. 이거는 **싫은 건 내가 다 할게**. 하는 그걸 우리 부모한테서도 들었었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애들이 책임감이 없잖아요.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도 결혼 안 하고 있잖아요. 결혼 안 하려 그래요.”(59년생/ 남/ 29 - 29)

참여자K: “지금 이 **젊은 애들 일 안 해요. 참 큰일이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하는 게 그렇다 이 말이야.”(60년생/ 남/ 26 - 26)

나. 우리 세대의 특징

1) 이중 부양부담을 가진 세대

베이비부머의 상당수는 아직 자녀 지원과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 은퇴를 했거나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부양으로 생기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호소한다.

참여자C: “젊었을 때는 지점장 하고 막 하니까 그 당시에는 참 여유 있게 살았거든요. 뭐 이혼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 건 난 후회는 안 하는데 애들이 내 마음 같이 안 따라주니까 그것도 그런 거고. **애한테 좀 보탬을 받아야 되는데 보탬은커녕 내가 보태주니까 참**. 차 사는 것도 내가 500만 원 대줘서 차 샀지.”(56년생/ 남/ 59 - 59)

참여자B: “지금 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자녀한테도 계속 지금 물질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요. (...) 어머니가 지금 연로하셨는데, 사실 뭐 또 케

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 **정기적으로 찾아 뵙고 안부 전하고 그다음에 또 비용적인 부분. 왜냐면 병원비 같은 거 그런 것도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죠.” (63년생/ 남, 16 - 16)

참여자E: “**참 이게 위에도 신경 써야 되고 밑에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고 그게 가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더라고 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있냐.”(69년생(2차)/ 남/ 102 - 102)

베이비부머를 자신들의 세대를 ‘희생하는 세대’, ‘긴 세대’, ‘샌드위치’로 정의하고, 부모와 자녀부양은 사는 동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L은 그간 가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다.

참여자P: “좀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세대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베이비부머란 희생하는 세대다. 희생 세대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사회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라면서 부모 공양하고 그다음 부모 이제 공양하고 나면 또 자녀들 또 뒷바라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하늘나라 가겠죠. 그 정도. **긴 세대. 샌드위치.**”(60년생/ 남/ 249 - 253)

참여자N: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무슨 내가 고맙다는 소릴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좀 그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인정을 좀 해줘야 되잖아.** 당신 참 가족을 위해서 치열하게 잘 살았어. 고맙단 소리는 안 해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세대들은 그런 얘기를 못 들어요.**”(58년생/ 남/ 27 - 27)

그러나 자기 자신은 현실적으로 나중에 자녀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자L은 자녀의 도움을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참여자H는 자신이 부모 부양으로 가졌던 부담감을 자녀세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참여자L: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우스갯소리로다가 너 인마 어릴 적에 아빠가 똥 기저귀니 뭐니 다 갈아서 다 했으니까 **나중에 아빠가 힘이 없고 그러면 니가 나 케어해야 돼. 그랬더니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이려는 거야.** (웃음) 난 그래서 굉장히, 근데 뭐 요즘 세대들은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동기애들도 부모들이 80 넘고 90 넘으니까 열에 일곱, 여덟은 요양원에 보내더라고.” (58년생/ 남/ 25 - 25)

참여자H: “저는 자녀들한테 우리는 부모님들한테 당연히 부모님이 아프면, 아니면 경제력이 없으면, 다 생활비 다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하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것만큼은 저는 싫어요. 하라 하고 싶지 않아요.** 지네들 재밌게 살고 지네들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63년생/ 여/ 20 - 20)

2) 직장과 가정에서 세대 차이 체감

참여자 D는 베이비부머는 직장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의 직원을 보면서 자신이 과거에 처음 경험한 직장문화와 차이를 느낀다.

참여자D: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누가 야근하면 뭐 도와줄 거 없나 예를 들어서 가서 같이 하고 같이 퇴근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자기.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인 관계만 있지 정적인 관계는 없더라고요. 진짜로 동료로서의 그런 **끈끈한 정**이라든가 그런 거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63년생/ 남/ 15 - 15)

세대 차이를 느끼지만 세대 간 교류를 원한다. 참여자D는 아랫세대에게 가르쳐줄 게 있고, 이를 스스로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참여자E 또한 자신의 시행착오를 젊은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한다.

참여자D: “저도 직장에 그런 젊은 직원들이나 그런 직원들이 조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아무래도 끈대 소리를 듣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지금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또 직장인의 도리고. 그러면 그런 거를 뭐 어린 직원들은 뭐 진짜 끈대, 라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강요한다. 그런 얘기를 듣죠 (...) 저희 기성세대가 또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왜냐하면 **가르쳐준다는 취지에서 또 그것을 기피하지 말고 또 제 생각에는 해줘야 되는 거**를 느껴요. 왜냐하면 또 그게 우리의 의무고. 왜냐하면 저희마저 기피한다고 그러면 너무 기강이 없어지고 또 **젊은 세대들이 배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회식할 때 그럴 때 조금 인생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했죠.” (63년생/ 남/ 17 - 17)

참여자E(요리사): “**젊은 친구들** 그들이 저보다 요리라든가 그걸 한 경력이나 연차가 저하고 비슷하다 하더라도 저는 또 예전부터 겪어왔던 그때 저도 또 중간에 시도했다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런 거를 **같이 좀 고민하면서 해보고 싶은 때가 많은데** 그 친구들이 이제 앞에 나이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같이 좀 머리를 맞대보지 않고 안 되겠다.** 그냥 바로 좀 자를 때 그거 나중에 또 그 친구들도 또 겪을 수도 있거든요.” (69년생(2차)/ 남 / 160 - 160)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인 참여자F는 윗세대와도 차이를 느끼는 점이 많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보다 ‘우아하게’ 사회를 사랑하고 싶다고 말한다.

참여자F: “(사회를) 전 세대가 사랑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지만 좀 더 **우아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창피하지 않게.** (웃음) 남편하고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74년생(2차)/ 여/ 138 - 138)

3) 자기 인식: 가치 지향적이며 진취적

2차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참여자C는 베이비부머가 가치 지향적이나 현실의 벽에 무관심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C: “(베이비부머는) 가치 지향적인데 그 가치를 내가 실현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여서 그 가치에 관심조차 안 가져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68년생(2차)/ 남, 16 - 16)

그는 이어서, 유용한 경력을 가진 집단을 ‘조그마한 틀’에 가두려 하여 이들의 역량 발휘가 어렵다고 말한다.

참여자C: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박사, 외국 박사. 외국 박사 받고 와서 회사 다니다가 관두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생각들이 정말 다양한데 그 다양함을 이 조그마한 틀 안에 가두려고 하니 누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만 더 틀을 좀 넓혀주면 그 안에 가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발휘하게 하면 그 발휘된 역량이 사실은 국가 경제로 들어가잖아요.” (68년생(2차)/ 남/ 21 - 21)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진취적이고 새로운 생활에 대한 저항감이 적다. 참여자 H는 지역사회를 위한 아이디어와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한다.

참여자B: “**도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제가 봐서 아 저건 적성이 맞다, 저거 하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거는 도전하거든요. 근데 아 저거는 나 적성에도 안 맞고, 내가 저거는 기계치 막 이러니까 저거는 나는 아니야 그럼 아예 도전 안 하는데, **제가 뭐 50프로 이상 정도만 느낌만 온다 하면은 어떤 분야든 새로운 분야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62년생/ 여/ 20 - 20)

참여자H: 4~5년쯤 됐겠네요. 거제를 가는데, 충무에서 거제를 가는데 그 길에가 전부 다 핑크색 수국이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다가 수국을 다 심어야지.** 제가 우리 식구한테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아파트에다.” (63년생/ 여/ 8 - 10)

그러나 눈에 띄는 사람의 행동이나 강하게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베이비부머의 역량 발휘, 가치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참여자H: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받을 때 내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거나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을 교육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또 약간 되게 동양적인 정서의 겸손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재 왜 이렇게 나대 막 이렇게. (...) 사회적으로 그런 게 어디 sns라도 올라가면 마녀사냥당하듯이 막 집중 공격받게 되고 그럴까 봐 두려운 것도 사실 있죠. 말조심하게 되죠.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로 말조심하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74년생(2차)/ 여/ 142 - 144)

2. 베이비부머로서 지난 삶과 생애전환 경험

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적응

‘퇴직’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험한, 또는 앞둔 가장 큰 생애전환 경험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3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된 일자리 퇴직과 재취업, 실패, 포기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종사 직종과 경제적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 퇴직 전 위기감 / 퇴직 직후 상실감

참여자들은 퇴직 전 위기감, 퇴직 후 상실감을 경험했다. 특히 퇴직 후 기존에 유지하던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D: “혼란스럽고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혼란이 오더라고요.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기소침하게 되고 아무래도

좀 주변하고 어울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좀 길었죠. 왜냐하면 주변에 만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좀 만나다 보면 직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좀 도태되는 것 같고.**" (63년생/ 남/ 12 - 12)

참여자P: "바쁜 것도 있는데 일단 퇴직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세상에 다 내 혼자구나. 고립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퇴직하고 나면 연락도 잘 안 와요.** 일단 뭐 경제적인 지출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좀 손해 본다는 느낌도 들겠지만 **퇴직하고 나면 저 사람 만나 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별로 득이 될 게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좀 기피하는 그런 걸 많이 보여요." (60년생/ 남/ 393 - 393)

1년 후 퇴직을 앞둔 참여자H 또한 당장에 할 일이 없어지는 것과 현재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아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H: "**논다. 라는 게 두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왜 해본 일이 이 일밖에 없는데 과연 내가 여기 그만두면, 지금은 이 가치로라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없어 그러면 내가 뭐를 하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63년생/ 여/ 2 - 9)

참여자H: "지금도 그만 제가 **퇴직을 하면은 이 좋은 사람들하고 못 만나겠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63년생/ 여/ 23 - 23)

참여자M은 퇴직으로 인한 관계 단절보다는 장차 나이 제한으로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경제적 사정이 걱정된다.

참여자M: "이제 70 먹으면 사람들 안 써요. 여기야 이제 기존 있던 사람이니까 계속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걱정이지. 그게 걱정이지, 앞으로. 그래서 그전까지 빚을 갚아야겠다. 빚을 갚아야지만 내가 그나마 산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아파트가 좀 싸지면 아파트에서 주택연금

받고 국민연금 받고 기초연금 받고. 하여튼 별생각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그만두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 (56년생/ 남/ 55 - 55)

2) 퇴직에 대한 양가감정

퇴직 경험에는 아쉬움과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C는 임기제 공무직을 퇴직하고 나서 업무 압박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느꼈다. 대체로 본 연구에서 구분한 집단 1에 해당 하는 유형이 이런 경향을 보였다.

참여자C: “순간이지않아요. 하루 차이잖아요. 근데 그 **하루 차이에 그 공허함과 동시에 저는 자유함도 느꼈거든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압박감과 날마다 해야 하는 결정들. 저희 직원이 한 20~30명 정도 됐는데 20~30명이 날마다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 찾아와서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결정들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 그런데 거기서 **자유로워지잖아요.**” (68년생(2차)/ 남/ 6 - 6).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서 자의로 은퇴를 선택한 참여자F는 ‘준비된 은퇴’로 표현했다. 성업 중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참여자K 또한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한다.

참여자F: “제 생애주기가 제가 조금 빨라요. 다른 분들보다. 결혼도 좀 빨리 하고 취업도 좀 빨리 하고 그래서 퇴직을 하게 됐죠. 저는 **아주 준비된 은퇴**를 한 셈이에요.” (74년생(2차)/ 여/ 8 - 8)

참여자K: “(사람들이) 사장님 참 부럽다고. 왜 그러냐면 자기 남편이라든가 자기 자식들이 불안하다는 거야. 지금 직장이지.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는데. 근데 **나는 그만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내가 그만뒀야만 두는 거고.” (60년생/ 남/ 17 - 17)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참여자L 또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면서 퇴직 당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참여자L: “그때는 나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그런 거는 부차적인 얘기고 일단은 **자유로워지고 싶다**. (사회자: 실제로 자유로워지셨어요?) 아니지. (웃음) 내가 얘기했잖아. 그건 아니라고. **자유로우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있어야 자유를 얘기할 수 있고. 있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마 나는 없으면서도 자유로우려고 지금 애쓰고 있으니까 조롱당하는 거지.”(58년생/ 남/ 21 - 22)

3) 할 수 있는 일과 갈 곳이 없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참여자들은 저마다 구직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구분한 집단 유형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 해왔던 일자리와 같은 조건은 이제 포기하고 더 낮은 처우의 직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참여자G는 만족스러운 재취업에 실패하여 직장생활을 이어가지 않는 선택을 했다.

참여자B: “아예 우리한테는 나이가 있으니까 차단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d 쪽. **3d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산후도우미나. 요양사는 하기 싫거든요.**” (62년생/ 여/ 13 - 13)

참여자G: “나도 더 좀 **내 능력을 발휘하고 하고 싶은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 하고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나한테 필요한 일. 그런 거 내 취미생활 뭐 그런데 관심이 쏠게 되더라고.” (58년생/ 남/ 25 - 25)

정부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취업 기회 중 인기가 많은 사회공헌일자리는 경쟁이 심하여 진입이 어렵다.

참여자A: “내가 그날 가서 봤을 때 저희가 **20명이 났다고 했는데 100명 가까이 왔단** 말을 들었어요. 100명이 넘었다던가. 확실히 어떤 분이 떨어졌고 몇 명이 왔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굉장히 비율이 섰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그랬는데.” (63년생/ 여/ 12 - 12)

일부 참여자는 이러한 생애전환기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참여자L: “제2의 무슨 뭘 하고 싶다든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의미를 못 찾았어. 왜, 무슨 저거였으면 **내가 뭘 위해서 걸어야 되지 하는 그런 희의 감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58년생/ 남/ 27 - 27)

참여자K: “그러니까 뭐 그냥 오로지 내가 그냥 취미로 좋아하는 건 바둑.” (60년생/ 남/ 18 - 18)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복지관 방문을 권유받고 있으나, 노인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아직은 진입하기 이르다고 생각한다.

참여자P: “그래가 이래 보니까 뭐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뭐 소일거리 하면서 뭐 용돈벌이 하겠쥬. 그래서 야, **아직 내가 올 때 아직 멀었구나, 싫어서 뭐 슬 보고 다시 도망 나왔습니다.** (….)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그래가지고 야, 아직 나는 젊은데. 아직 건강한데 저기 가기는 진짜 내가 또 쪽팔리는구나, 아직.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60년생/ 남, 575 - 581)

참여자L: (사회자: 복지관 다니신 적은 없으세요?) “**이 나이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58년생/ 남/ 19 - 19)

참여자P는 이처럼 퇴직 후 새로운 생활을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면, 공무원처럼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자P: “퇴직하기 전에 모든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퇴직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좀 퇴직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전부터 뭐 정기적으로 뭐 교육을 한다든지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게 돼 있다 하더라도.**” (60년생/ 남/ 591 - 591)

4) 일의 의미 변화

참여자C, 참여자D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참여자C: “**내가 (다시) 그 지위에 못 가더라도 내가 예상하던 연봉을 못 받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을 한다면 그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게 55세부터 85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굉장히 동의가 됐거든요” (68년생(2차)/ 남/ 8 - 8)

참여자D: “앞으로는 직업이 꼭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저희 나이 또래에 재취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직업이 어느 정도 자기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그런 수단도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계속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게 충족이 돼주면 진짜로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63년생/ 남/ 29 - 29)

특히 안정적인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가진 입장에서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활동을 찾기를 원한다.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 외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자체와 이전 경험과 연계되는 활동이나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참여자G: “작년부터는 65세가 되니까 좀 바뀌어야겠다. 예를 들어 돈이 정 필요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도 찾아가서 하고 뭐 약간 **좀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 그런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58년생/ 남 / 25 - 26)

참여자D: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재취업한다는 거는 경제적 능력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는 자기가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게 그런 게 크잖아요. 나름대로 또 계속 한다는 또 보람이 있는 거고. (...) 소득은 크게 뭐, 물론 안 중요하지는 않죠, 안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소득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 좀 정부 차원에서 (...) 너무 그런 **페이 위주로 정책을 짜지 말고** 그런 쪽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하면.” (63년생/ 남/ 28 - 29)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참여자F 또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 없으므로,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원한다.

참여자F: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사명감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영어를 전공해가지고 그 전에 회사생활을 할 때는 영어와 무관한 일을 했지만 다시 퇴직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면서 잠시 아이들을 학원에서 봐준 적이 있었거든요. 못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3시간 꼴랑 가서 학원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두 달 만에 때려치웠어요. 그런데 그 때려치우면서도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나? 돈은 주지만?**” (74년생(2차)/ 여/ 150 - 150)

5) 기존에 누리지 못한 문화·여가생활 희망

인터뷰 당시, 3개월 전에 정년퇴직한 참여자 P는 퇴직하고 처음으로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문화강좌를 신청했다. 참여자F 또한 퇴직 후 그간

바쁘게 살아오면서 해보지 못한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 지역 테니스클럽에 들어갔다.

참여자P: “내가 지금 퇴직하고 아파트 옆에 우리 집 옆에 저 뭐야, 노인복지회관 인가 있더라고요. 그러가지고, (...) 제 와이프가 이제 요가 신청하고 나는 이제 저기, 팝송 부르는 거 그거 신청했는데.” (60년생/ 남/ 425 - 427)

참여자F: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큰 체육관이 있어요. 실내 전용 체육관. 배드민턴. 거기 가면은 전용 클럽들이 있거든요. 거기 회원 가입하고 같이 활동하면 지역주민들을 만나게 돼서, 다 인근에 사시니까. 그중에 통장 하시는 언니들도 계세요. 언니들 다 나이가 많으세요. 저보다. 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빨도 안 들어가죠. (웃음) 어린 것이 막 이리신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면.” (74년생(2차)/ 여/ 42 - 42)

최근에 퇴직을 선택한 참여자F 또한 함께하는 여가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참여자F: “그래서 같이 놀러 다녀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굳이 너무 저희가 너무 많은 돈 때문에 나의 시간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25년, 30년 즐겁게 살자. 있는 돈 다 쓰고 죽자.” (74년생(2차)/ 여/ 20 - 20)

참여자L은 미국 대륙횡단이라는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

참여자L(3개월 전 출혼): “내가 또 한 가지 한 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있기는. 내가 미국을 말이야. 뉴욕에서 로스엔젤레스 쪽으로 한번 횡단을 한번 해보고 싶어.(...) (가려면) 그 4명은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4명이 안 모여져.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야.(...) 여자 친구는 하나 생각하고 싶어. 대화라는 게 답답하잖아. 이제 서로 부부 간에도 나중에 뭐 경

힘하게 되겠지만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그러면 부부라도 그냥 같이 동거하는 거지.” (58년생/ 남/ 15 - 19)

다. 건강상태 변화

참여자들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저하를 통해 나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이 우려되어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의식적으로 몸 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

참여자G: “65세가 지났으니까 건강도 작년에 비해서 확 떨어지더라고. 좋지 않은 것 같고. (...) 확실히 그래서 사람들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하고 그렇게 했는가. 그게 확실히 체력이 딸리고.” (58년생/ 남/ 17 - 17)

참여자M: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 우연치 않게 내가 어디서 복지관에서 어디서 하는 거 있어요. 인지 검사하는 거 뭐 하다 보니까 인지 검사를 딱 갔는데 어? 뭘 얘기하는데 이상하다.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 잘 잊어버려요, 자주. 머리가 안 돌아가. 이상하다, 이거. 그러가지고 뇌 검사까지 했어요(...) 다행히 알츠하이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56년생/ 남/ 109 - 109)

참여자: “아직은 뭐 그냥 경계성이 있더라고요. 뭐 저기, 당뇨나 뭐 고혈압도 약간 높아졌는데 그렇게 진단은 딱 안 받고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어라.” (55년생/ 여/ 7 - 7)

참여자A: “참여자 저는 지금 사실 당뇨가 좀 심하게 앓고 아프거든요. 중간에 일을 그만뒀을 때 알았어요. 그 전에 막 가서 해봐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 쌓이고 아프고 해서 그때서 알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자각을 하고 몸 관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뭐 지금 활동하는 데 별 문제 없잖아요.” (63년생/ 여/ 23 - 23)

건강 악화는 활동중단, 의욕저하로 이어졌다. 최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바쁘게 활동하던 참여자O의 건강 악화로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참여자I는 체력저하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피곤해지기도 했다.

참여자O: “그래서 아, 되겠다 싶어 했는데. 딱 작년 9월달에 병원,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때부터 딱 브레이크가 걸려요.**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사업을 하려 그러면 지금 뭐 관공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막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내가 활동, 못 움직여요. (...) 몸만 나오면 할 것 같아요, 또 사업을.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알아보고 있고.” (59년생/ 남/ 15 - 17)

참여자I: “애들이 놀러 가자 그래도 안 가요. 니네들끼리 가. 그리고. 가족 모임에 같이 가자 그래도. 그냥 안 가요. 피곤하다는 게 먼저 딱 들어와. 아, **놀러 갔다 오면 이제 피곤하고, 체력은 이제 안 따라주는 거지.** (...)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아이.”(55년생/ 여/ 19 - 19)

라. 사회적 관계 변화

1) 생애주기 변화, 코로나19로 관계 단절 경험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자녀 결혼 등 가족 생애주기 변화로 관계 단절이 있었던 경험을 말한다.

참여자I: “(예전에는) 더 많이 모였죠. 그런데 이제 다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 점점 없어져, 다. **애기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모임이 다 끊기더라고요.** 점점 끊겨.”(55년생/ 여/ 23 - 23)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상황이지만, 팬데믹 당시 단절된 만남이 쉽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자H: “이제 친구들이 손주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결혼했지만,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더 많긴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고 하면 **손주 보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계속 했었던 거고 한 번 맥이 끊어지니까 다시 이으려고 하니까 안 이어져요.**” (63년생/ 여/ 24 - 24)

참여자M: “그것도 뭐 한 20년 됐나 모르겠어. **처음에는 봉사활동도 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뿔뿔이 헤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5명밖에 없어요.** 그러가지고 내가 총무 맡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만나다가 어쨌든 뭐 또 각자 또 헤어져 있다 일이 바쁘니까 내가 그냥 1년에 두세 번 모여서.**” (56년생/ 남/ 243 - 247)

2) 직장, 동창에 한정된 인적 네트워크

조사에 참여한 베이비부머 중 특히 남성들은 네트워크가 이전 직장동료, 동창에 한정되어 있다. 지역사회에는 교제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 후 더 학창시절의 옛날 친구를 찾는 모습도 보인다.

참여자P: “많이 다니고 이랬죠. 이제 주로 이제 직장생활 할 때는 **자기 직장 내에 이제 바운더리 내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그 나머지 이제 퇴직하고 나면 이제 그게 이제 깨져버리니까.** 보통 남자들이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아마.” (60년생/ 남/ 397 - 397)

참여자D: “아무래도 지인들이나 친구들이었죠. **옛날 직장이나 아무래도 뭐 옛날에 동료들 그 정도 범주였죠. 새로운 사람은 거의 그런 접촉이 없었고.**” (63년생/ 남/ 24 - 24)

참여자J: “이제 또 나이가 먹으니까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모임에 잘 안 나오던 애들이 이제 퇴직하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인원이 많아졌어요. 참석하는 애들이. M 아, 또. 1 평균 20명씩은 나오는데 지금 뭐 어떨 때는 30명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뭐 친구밖에 없다고 뭐 맨날 단체 카톡방에 보면 아침마다 올리는** 놈들 있고.” (60년생/ 남/ 34 - 34)

바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참여자F도 마찬가지로, 이전 회사에서 알고 지낸 사람과 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참여자F: “**회사 사람들. 예전부터 친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 사정도 알고 속도 알고 하니까 가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저녁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근무를 10년 이렇게 같이 하니까. **소수만 남아 있어요.**” (74년생 (2차)/ 여/ 96 - 96)

최근 들어 오랫동안 이어온 모임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다툼이 일거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참여자L: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우리 50년 지기 모임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부터 5명이 모여가지고, 개네들하고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개네들만 있었지. 만나서 하는데 개네들하고도 뭐 **근래 와서 소원된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정치색을 좀 얘기를 하는 친구가 둘이 있어. 그래서 조국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뭐 그냥 흥분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58년생/ 남/ 17 - 17)

참여자F: “모임에 나가서 정치 얘기가 나오면 꼭 **쌈박질이** 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게 잘못된 거야. 사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들어줘야 되는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워. 그 모임이 그냥 아주 깡판이 나. **그래서 그냥 서로 안 하는 걸로. 종교 얘기, 정치 얘기 금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겁나요. 배드민턴 클럽도 가서 정치 얘기 나오면 옷 벗고 싸

위. 그래서 얘기 안 해. 아주 살벌해져요. 분위기가.” (74년생(2차)/ 여/
140 - 140)

참여자J: **“자식 얘기, 돈 얘기밖에 안 해.** 내가 건물 이번에 얼마짜리 샀다.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어디 병원 의사로 갔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60년생/ 남/ 33 - 33)

3)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회의적

퇴직 후 지역사회와 비교적 가까워졌지만, 그동안 서먹하던 이웃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벽’을 깨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무기력해진 탓도 있고, 성격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참여자L: “나이 든 사람 우리가 옛날 된 아파트다 보니 이십몇 년을 살았잖아. 이
십여 년을 살았으니까 집이 몇 가구가 있는데. 그거 주로 만나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지. 뭐 그렇다고 뭐 **밥 한 번 먹읍시다. 말로만 그렇지
이유 식사 한 번 해요**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각자들.” (58년생/ 남/ 18 - 18)

참여자E: **“시간도 없고 이제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진짜
굳이 딱 필요한 관련되는 동호회, 커뮤니티 뭐 그런 거 말고는 옛날에는
그냥 아는 친구가 여기 가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하고 몇 번 쫓아가 봤는데 지금은 딱 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내가 어
차피 필요도 없는 거 뭐 하러 나가나. 그냥 시간 까먹고 또 어떨 때는
뭐 가서 뭐 술 먹는다고 그러면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
고 막 이러니까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69년생(2
차)/ 남/ 132 - 132)

참여자D: “저도 사람 만나는 게 조금 꺼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을 친해
지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말도 잘 안 하고. 모르는 분들하고는.

그래서 먼저 접촉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안 다가가요. (...) **일단은 그 벽을 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자체가 벽이 생겼다 보니까 조금 그게 힘든 거죠.”(63년생/ 남/ 25 - 26)

최근 언론을 통해 다수 피해 사례가 보도되면서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을 우려하게 되는 등 상호신뢰가 없는 모습 또한 보인다.

참여자: “내가 전화를 안 받아. 뭐 이게 **입력이 안 된 전화는 안 받아버려**. 아유, 뭔 일이 또 당하려나 하고 **걱정대가지고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그쪽에서 문자가 오고 하면 아, 어디구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 갖고 이제 그 번호는 대응을 하죠. 워낙에 **보이스피싱이 많잖아. 이상한**.” (55년생/ 여/ 24 - 24)

참여자M: “만나고, 만나는 거 어려운 건, 단지 이제 뭐 그럴 돈도 없지만 이제 사귀자 하지 않고 살아야지. 겁나는 거야, 사실은. 나이 먹은 사람들 큰일 나죠. **나 사실은 나 돈 뜯긴 것도 많아요**. 빌려줘가지고. 나는 값을 건다 갖고 나 하나도 없지만 내 어려울 때 돈 뜯기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56년생/ 남/ 291 - 291)

4) 지역사회 교류 희망

지역사회에서 교류가 없는 아쉬움과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 ‘시작’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퇴직 후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 만남의 장이 생기길 바란다.

참여자G: “왜냐하면 동네에서 아는 사람도 있으면 사실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다못해 술 한 잔 하면서 대화도 하면은 친구도 되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어울릴 만한 큰 저기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도 바쁘니까 바빠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뭐 마주칠 때도 거의 없고 그렇더라고요. **아파트 생활이 다 그런가**. 그렇더라고요.” (58년생/ 남/ 21 - 21)

참여자D: “주변에서 이렇게 **만남의 장이 사실 어려워요. (...) 시작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일단 막상 넘으면 또 별 게 아닌데, 거기를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퇴직하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재취업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특별히 뭐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가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와라. 그러면 열이면 한둘 같까. 그 자체가 귀찮은 거야. 근데 아무런 주제도 없이 그냥 뭐 서로 그냥 **완전 다과화식으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갈 것 같아요. (...)** 그러면은 조금 소심한 사람들도 왜냐하면 조금 아무래도 자기만의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고 보면 지루하잖아요. 뭔가 변화를 찾고 싶고. 그럼 **자연스럽게 좀 어울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63년생/ 남/ 26 - 26)

복지관 수강이 관계 맺는 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자L은 복지관에 서 기타수강을 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단톡방 초대 제안을 거절했지만, 향후 기회를 마련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참여자L: “일주일에 두 번 가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나름 또 2시간 시간 가는 거고 또 시원해. 거기가 에어컨이 나와 가지고. 뭐 커피도 있고 막 준비해 놓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는 안 하지. 안녕하세요만 하지. (...)** 반장이라는 여자가 단톡방에 **초대해도 될까요?** (내가) 그래. **아니요, 아직은.** 내가 언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잠깐만요. 나 그런 거 낚히는 거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잠깐만요. 괜히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맨날 오라, 오라 할 것 같아서. 나 그런 거 싫어하거든.” (58년생/ 남/ 20 - 20)

3. 사회참여 시작, 촉진, 확대 요인

가. 진입 요인

1) 생애전환을 경험하며(퇴직 등) 관심

참여자들은 퇴직 시점을 계기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기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참여자B: “지금까지는 바쁘게 살아오니까. 그리고 또 제가 종교생활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자원봉사 그런 의미를 몰랐고 내 새끼들 키우고 내 가족 그리고 내 회사 일 하느라고 몰랐더니 **그게 눈에 또 플래카드가 보이는 거예요.**” (62년생/ 여/ 9 - 9)

참여자D: “**퇴직 후에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퇴직 후에 그때 한 거예요. (...) 아무래도 회사 다닐 때는 조금 여유가 없었죠. 심적으로. 왜냐하면 그것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눈 돌릴 여유가 없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나고 하다 보니까 좀 돌아볼 시간도 생기고 주변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한번 겪어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63년생/ 남/ 10 - 11)

참여자K는 오랜 경제생활 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사회공헌 기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참여자K: “그동안에는 버느라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러면 **이제 남을 위해서 좀 할 줄 아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 참 미리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가 미리 그걸 했을 텐데 **겨우 벗어날 정도 되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지.**” (60년생/ 남/ 10 - 14)

2) 지인 소개나 친분

참여자N은 아파트 통장으로 일하다가 지인의 ‘손에 이끌려’ 자원봉사 단체에 합류하게 되었다.

참여자N: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을 하면서 **지인의 추천과 소개로,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 사실은 처음에는 봉사의 개념이 뭘 얼마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관계 속에 있는 회원들 간의 끈끈한 정이 생기더라고요.”(73년생(2차)/ 남/ 89 - 89)

참여자J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동네 주민과 인사하면서 아파트 방범단에 들어가게 되었고, 참여자O는 평생교육원 교육기간 종료 후 수료한 기관에 (실적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점도 있다고 말한다.

참여자J: “혼자 술 먹고 있으니까 **어떤 젊은 친구 하나가 오더니 흑시 입주민이시냐고.** 이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맞다고 그랬더니 흑시 몇 동 몇 호에 사내요. 몇 동 몇 호라니까 아이고, 저는 바로 앞인데요. 젊은 친구가. 그러더니 바로 ‘그럼 **방법에 흑시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술김이니까 그냥 아이, 네네. 네네. 이려고. 자기네들 쪽으로 와서 또 술 먹자 그래서 또 끌려가서 술 먹고. 그랬더니 그다음 날 연락이 바로 왔어요. 방법에 가입시켰다고. 그래서 이제 방법단 했죠.”(60년생/ 남/ 25 - 26)

참여자O: “그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개인적인지 아니면 그것도 뭐 내 느낌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때 참 개인적인 느낌은 안 가지는 것 같고 욕심은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과가 또 필요했고.”(59년생/ 남/ 23 - 23)

3)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

구청 일자리 드림센터를 통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양육코칭 전문가 모집에 지원하여 면접을 거쳐 선발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참여자A: “**구 드림센터 직업 알선해주는 곳에 신청을 해가지고 알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볼 때도 잘 몰랐는데 제가 좀 약력이 돼서, 경력도 좀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와서 딱 처음에 보니까 경쟁률도 너무 셧고 (...) 나와서 제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적합한 일을 잘 찾은 거죠.**” (63년생/ 여/ 10 - 10)

참여자O는 **대학 평생교육원 도시농업 실용 과정 수강 이후 수강생들과 후속 활동을 논의하던 중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당시에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자문을 받으며 진행했다.

참여자O: “**대학교에 50플러스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그래가지고 뭐 도시 농업 실용 과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농업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거기서 뭐 씨 뿌리고 텃밭을 받아가지고, 그 테이블만 하겠네요. 여기다가 상추라든지 뭐 심고 또 뭐 벌레도 잡고 퇴비가 썩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농사를 시작했죠. (...) 수직 정원이라고. 벽면에 나무 심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하려 그러니까 **법인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가만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조합 하나 만들자** 하더라고요. (...) ‘어떻게 만드느냐’ 했더니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 가서 **지원, 자문을 구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 그런데 너무 크게 벌리더라고요, 판을. (웃음) 그러니까 최oo 팀장님이라고 그 분이 이제 빨리 조합을 만들면 자기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챙겨주겠다.” (59년생/ 남/ 12 - 24)

나. 지속·확장 요인

1) 의미 있는 교육 수강

참여자N은 최근에 교육을 받았던 것이 이전에 수동적으로 활동했던 것에서 벗어나 개념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구축하고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A 또한 퇴직 후 사회공헌활동을 모색하던 중 받았던 교육이 사고를 전환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참여자N: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언니들하고 수다 떨고 뭐 이렇게 좀 야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교육을 딱 받으니까 내가 왜 이 봉사를 해야 되는지 뭔가 **개념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내 생각이 구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겨서 조금 더 마음이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73년생(2차)/ 여/ 95 - 95)

참여자A: “예전에는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면 지루했어요. 사실. 안 받고 싶어. 왜냐, 나는 빨리 가서 애들 가르치고 싶어. 이런 욕심이 저한테 있었는데 지금은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야 이 나이에 돼서** 철이 든 거 같아요.” (63년생/ 여/ 2 - 2)

2) 모임·조직 구성원 간 좋은 관계

각종 봉사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참여자N은 활동에 매진하는 보람을 함께 하는 회원들 간의 ‘관계’에서 찾는다.

참여자N: “제 회비 내고 대금 써가면서 내 시간 쥐가면서 하는 봉사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건 **사람 간의 관계인 거 같아요. 회원 간의 믿음, 신뢰, 관계** 십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73년생(2차)/ 남/ 149 - 149)

참여자 J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사한 지역에 정착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참여자J: “아파트라는 게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이웃이 없는 게 아파트라고. (...) 그런데 **굉장히 잘한 거 같아요. 방법 들어간 거는.** 왜냐하면 만약에 방법에 안 들어갔으면 거의 매일 혼자 이렇게 출퇴근이나 하고 서울에 와서 친구들 만나고 그랬겠죠.” (60년생/ 남/ 28 - 28)

3)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기여하고 싶은 마음은 참여활동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헌신과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여자B: “맨날 퇴직하기 전부터 제가 구청에다가 이걸 여기를 구절초 공원, 정읍 구절초 공원처럼 구절초 꽃을 심어서 우리가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제안한다고 올하는 꼭 제안해야지. 꼭 제안해야지.** (...) 광주 가면 양림동에 선교사 마을이야. (...) 여기는 고려인 마을. 그러니까 2세, 3세 그리고 막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인, 베트남인, 엄청 많은 외국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 아 저것도 잘 하면은 월곡동에 그 관광 일번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지금은 치안이 무서워 버려요. (...) 치안이 문제고, 주차 문제니까, 마을 플래너 할 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일을 해보자. **그러면 씨씨티비를 하나 더 설치하고(...).**” (62년생/ 여/ 22 - 23)

참여자N은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고, 참여자F는 기회가 되면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을 고려하는 등 활동 내용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참여자N: “지인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사석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밴드를 만들어서 소통 창구를**. 입주민이 관리소에 가서 동대표 입주자회에 얘기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밴드에 만들어서 들어 와서 거기서 나 이런 게 건의사항 있다 글도 올리고 지금 아파트 돌아 가는 이런저런 상황도 거기다 사진 올려서 보여드리고 이제 그렇게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조금 활동을 하려고 해요.” (73년생(2차)/ 201 - 201)

참여자F: “(구청에서) 제안서 내고 통과하면 백만 원을 주고 그 백만 원 안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라던가 뭐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은 거 제안하면 내가 심사해서 골라줄게. 조금 너무 광범위하긴 한 것 같아요.**” (74년생 (2차)/ 여/ 106 - 124)

4) 생애경력 활용 보람

생애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는 다양했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보람과 만족감을 느꼈다.

〈표 5-4〉 조사 참여자 경력 활용 사례

구분	참여자	재능기부 활동 내용	전문성
수행 중	A	아동 양육코치로 활동	어린이집 근무, 운영 경험 활용
	D	동대표	시설관리 전문성 활용
	J	아동양육시설 정기적 컴퓨터 수리 봉사	컴퓨터 교육원 대표, 강사 경험 전문성 활용
	K	집수리 봉사	건축사무소 대표 전문성 활용
희망	F	고궁 해설, 지역아동센터 영어강사 희망	영어 전공 활용
	E	메뉴 개발 지원, 의미 있는 행사 음식 지원 희망	조리사 경력 활용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참여자A: “(양육코칭 할 때) 엄마한테 문제점을 얼른 그 자리에서 딱 터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게 60대에서 알아들은 게 **그전에 있던 경험이 노하우가 된 것 같아요.**” (63년생/ 여/16-16)

참여자D: “저는 제가 살면서 동대표를 했어요. 동대표 아파트. 입주자 대표. 그거는 한번 했고. 왜냐하면 **시설관리를 하니까 아파트를 잘 알잖아요.** 아파트 관리나 그런 거를. 그래서 그건 누가 추천을 해서 그걸 한번 했죠. 그래서 봉사는 아니고 그냥 (...) 동대표들은 그냥 무보수. 봉사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웃음).” (63년생/ 남/ 13 - 13)

참여자J: “제가 가진 재주가 그냥 흔하다고 보면 흔하지만, 또 이렇게 **제가 하는 일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컴퓨터를 수리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거니까.” (60년생/ 남/ 14 - 14)

참여자K: “저는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오로지. 자칭 **나 혼자 그냥 자칭하는 말이, 박사라고 그냥 자칭해요.** 혼자 나 나름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쪽이 아주 바닥이 능통해요.” (60년생/ 남/ 8 - 8)

비슷하게 참여자O는 서류작업이 복잡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공무원 업무 경력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여자O: “작년 2022년도 5월달인가, 5월 말에 총회를 했고 작년 11월 6일날 협동조합 했어요. 좀 시간 많이 걸렸는데, 돈 아낀다고 전체를 **서류 작업 내가 다 해냈습니다.** 뭐 공무원 출신이니까 서류 만드는 게, (...) 문서에 강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59년생/ 남/ 15 - 15)

참여자F는 아직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활용하고 싶은 재능이 있고, 구체적인 활동상도 생각하고 있다.

참여자F: “**영어를 좀 해서** 여행을 가든가 아무튼 그쪽으로 좀 통역이 만약에 된다면 봉사라든가 그거는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외 아니

면 국내에도 괜찮아요. 여행가이드는. 돈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자원 봉사 있잖아요. **고공 해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쪽 있으면 좋겠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제 재능도 기부할 수 있고. 돈 안 받아도 돼요. 그런 거는.” (74년생(2차)/ 여/ 158 - 158)

생애경력을 활용한 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자기 만족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참여자A는 수입이 적어서 다른 일을 해볼까 고려를 해봤지만 결국 일이 주는 만족감에 이 일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참여자A: “실제로 지금 해보니까 근무를 해보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내가 필요한 존재로 있구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말하자면 **저 스스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로 일을 하나면 보람으로 일을 해요. 수입이 적어서 불만이긴 하지만.” (63년생/ 여/ 5 - 5)

활동에서 오는 보람, 자신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은 스스로 “(일에) 미쳤다”고 할만큼 자발적인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참여자A: “양육코칭 잠깐 4월부터 시작했어요. (...) 이 일 할래요. 이 일에 느낌이 더 왔어요. 두 엄마 때문에. **그거에 나에 미쳤다고 할까요?** 뭔가 나도 옛날에는 뭔가에 미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미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63년생/ 여/ 26 - 26)

5) 적절한 보상·감투

참여자N은 활발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다가 어느 정도 소진을 경험하면서 중단할 뻔하였으나, 그 시기에 당근이 될 수 있는 상을 받게 되면서

활동을 이어갔고, 이후 단체의 장을 맡게 되면서 더 적극적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N: “저도 처음에는 이제 지인 소개로 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서 한 몇 년 하다가 친구랑 같이 하다가 친구가 직장 다니면서 그만두는 바람에. 사실 좀 취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 관두려고 타이밍을 찾다가 관둔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저를 상을 주더라고요.** 이제 당근처럼 채찍이 되도록. 그래서 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 보다. (...) 이제 제가 제일 거의 제일 어렸는데 언니들이 회장을 하라고 시켜서 (...) 이제 제가 **회장직을 맡고** 지금 이제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기 차에 3년째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최선은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73년생(2차)/ 남/ 59 - 61)

참여자Q: “지금 이장 일을 보면서 **이장님들 중에서도 협의회장을** 지금 역할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문화체육회 또 회장**을 맡고 있고. (...) 아버지도 여기서 이장 일을 보셨어요. 이장 일을 보셨고 또 여기 단위조합의 조합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를 보는 거는 좀 남달리 봤겠죠. 행동거지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이장 일을 한번 볼 생각이 없나. 물어보더라도. 그래서 뭐...” (Q 경북/ 60년생/ 남/ 73 - 75)

참여자Q는 이장이 된 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Q: “내가 저는 뭐 모르겠어. **내가 이런 일이 즐거워요. 즐겁고 재미있고.** 그런데 뭐 노상 와이프한테는 혼나지. 노상 나가서 하니까. 어저께도 내가 이 회의를 하면서 다른 마을의 할머니가 집에 뭐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어저께 건의를 하니까 이제 담당이 한번 가보고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 뭐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의 혜택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이장님들이 좀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60년생/ 남/ 277 - 277)

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요소

현재 봉사활동이나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참여자들의 관심사와 특징을 분석하여 사회참여로 연결할 수 있는 요소들을 탐색했다.

1) 아동,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연민

참여자M과 참여자H는 각각 아파트경비와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언젠가 장애인, 보호아동, 독거노인 등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M: “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요새 그런 표현 안 한다 그러던데 옛날에는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요새는 그렇게 표현 안 한다 그러던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그런 애들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독거노인들 그냥 고독사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난 아직까지도 자살해보겠다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오죽하면 자살하겠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생각도 하고 그래서.” (56년생/ 남/ 177 - 177)

참여자H: “가치보다도 아이들을 보면 좋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같은 데도 고아원에서 자라고 고아원 애들 나오면 되게 공감이 가요. 나도 저기 가서 일을 하는 거는 할 수 있겠다.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3년생/ 여/ 11 - 12)

참여자들 중 비교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인 참여자G는 요양병원에 서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자신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G: “병원에 갔을 때 보니까 병원에 그 아파가지고서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또 요양병원 가면은 요양병원에 거기서 사람들 자주 오지도 않고 그런데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조금 그 사람보다 건강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좀 힘이 있고 여력이 있을 때 가서 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58년생/ 남/ 21 - 21)

2) 언젠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향후 사회참여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참여자H: “우리 식구들이 맨날 그래요. 너는 나중에 통장해라. 맨날 그러거든요. 왜 아니, 다 보이잖아요. 왜 쓰레기는 여기다 놔두고 맨날 아침에 출근하려면 강아지는 저녁에 운동시키면서 똥 싸놓고 그대로 다니냐고. 그리고 뭔가가 아파트에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가 관리실에 알리고 해야 되잖아요. 저 그런 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 아니 이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왜 이렇게 놔둘까. 반장은 뭐 하고 있을까. 여기 엘리베이터에는 뭐가 붙어 있고 뭘 이렇게 자꾸 해놓으면 왜 이렇게 다 놔두는 걸까. 스티커는 다 붙어 있고 그런 것들. 좀 오지랴.” (63년생/ 여/ 18 - 18)

조사에 참여한 베이비부머는 언젠가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C는 그 이유를 ‘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장 과정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C: “저희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함께 연대한다는 게 뭔지를 또 알아요.” (68년생(2차)/ 남/ 10 - 10)

참여자M: “내가 항상 마음속에는 누구 좀 여유 있으면 좀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생각.” (56년생/ 남/ 169 - 169)

참여자G: “내가 살다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또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또 뭐 도와주지 못한 게 있고 **내가 도움만 받고 사회에서 도움만 받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주지 못한 게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58년생/ 남/ 23 - 23)

참여자G는 봉사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취미생활이 우선순위에 있어 실행하지 못하기도 하나, 막연하게 계획은 가지고 있다. 참여자M은 성격상 나서서 새로운 활동을 조직하지는 못하지만 좋은 기회에 합류하여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참여자G: “내가 취미생활이 코로나 때문에 취미생활을 못 해가지고서 좀 앞으로 **취미생활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남는다면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건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8년생/ 남/ 23 - 23)

참여자M: “누가 하자 그러면 나는 그거 뭐 참여는 많이 하고 싶어요. 나이 먹어서 혼자 살 필요,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누가 있더라도 뭐 어울려서 같이 지내야지. 쓸데없이 고독사, 혼자 처박혀갖고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건 싫고. 내가 성격이 좀 외향적이지 못해서 내가 주도를 해서는 못 하더라도 내가 누구 하자 하면 내가, 누가 하자 하면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는 해요.” (56년생/ 남/ 253 - 253)

4. 사회참여 중단·저해 요인

가. 진입 저해 요인

1) 무경험, 미지의 세계

인터뷰 참여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막연하게 어떤 활동 기회가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 어려웠다.

참여자P: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모든 게 이제 뭐 자본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자기 보통 사람들이 시간은 돈이다, 이래 생각 들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봉사라는 그런 개념을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생각이. 방향 전환이, 생각의 전환** 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60년생/ 남/ 571 - 571)

참여자D: “예를 들어서 성당을 다니니까 뭐 꽃동네 같은 거?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음성에 있는 거 그런 데 가서도 봉사활동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제 뭐 어린애들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기가.**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은 있어요.” (63년생/ 남/ 19 - 19)

특히 사회공헌 영역 중에 ‘사회적경제’ 분야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참여자들은 막연하게 대략적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정도였다. 현재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A는 활동 기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실제로 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참여자O 또한 예전에는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참여자M: “자기네들 해서 만들어서 그런 것도 팔고 자기네들 그런 거 하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거 나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내가 참여하는 방법 몰라서 몰랐어요, 사실. 내가 참여하는 방법이 뭐 그냥 뭐 물건 기부하는 거, 뭐. 그건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몰라가지고.” (56년생/ 남/ 339-339)

참여자A: “어떤 사람도 사회적기업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눈을 떠보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63년생/ 여/ 25 - 25)

참여자O: “협동조합을 시작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또 그게 뭘 하는지도.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래,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그 단어 말고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어디 뭐 딱 나가가지고, 농협은행이 그런 쪽이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 알았고.” (59년생/ 남/ 40 - 40)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는 막연하게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는 없었다. 지역에,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과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나, 자기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시도해보려니 쉽지 않고, 현실에서 절차와 방법을 잘 모른다.

참여자K: “그거를 그전에 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돈 봉투 좀 가지고 와서 연말에 이렇게 저거해서 그냥 어려운 사람갓다(주라고) 했더니 여기서 그 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한 성질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걸 전달하는 거 그러면 누구 일부러 한 사람씩 내가 찾아다니면 서 주라고? (...) 기부를 하라고 이렇게 준 건데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 **그걸 몰랐죠.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기에 돈 집어던지고 왔어요.” (60년생/ 남/ 9 - 9)

참여자H: “(아들한테) 내가 회사 그만두면은 아파트 잡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 그것도 다 내가 뜯어주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것도 다 이거 손질해 줘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관리사무실에 허가를 받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뭐라 그러더라,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서비스 해주는 건데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것도 그 담당 직원이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엄마가 그걸 하겠다라하면은 관리사무실에 허가를 받아야 돼.**” (63년생/ 여, 8-8)

2) 홍보 부족, 낮은 인지도

인터뷰 참여자들은 사회참여 기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 찾기를 어려워한다.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O는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소개로 도시농업에 입문하게 되었다. 참여자P는 정보전달 매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어디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혼란스럽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활동 기회에 대해 안내받기를 원한다.

참여자O: “어떤 분야든 간에 그쪽에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첫째 그게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대학에서 도시농업 실용 과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친구가 내한테 사진을 찍어가 특을 안 보내줬으면 몰랐지.”(59년생/ 남/ 37 - 37)

참여자P: “개개인들한테 이제 좀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매체**랄까? 그런 게 좀 **너무 분산돼 있는 것 같아요.** 분산돼 있고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 다가오고 다른 쪽으로만 이제 퍼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게 뭐 문자라든지 뭐 카톡 아님

니까? 그러면 카톡 쪽으로 연결돼서 뭐 어떻게 뭐 홍보가 된다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뭐 보통 보면 뭐 좀 사람 많이 가는 데 현수막 같은 것 좀
걸려 있고 뭐. **현수막 사실 붙여놔야 사람들 잘 안 봐요.** (...) 그러니까
좀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공무원들은 뭐 많이 알겠죠.** 공무
원들은.” (60년생/ 남/ 477 - 593)

참여자E: “정보의 접근성이랄까. 물론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 접속이라는
게 검색하느라고 게임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이
걸로 하다못해 오피스 작업부터 지금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혹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포털에서 검색해서 무
슨 지원금 뭐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번에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모
르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69년생(2차)/ 남/ 156 - 156)

참여자B와 E는 현재 다양한 활동 기회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하지
않아 아는 사람만 찾아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실
제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참여자B: “정부 지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요,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너무 방만해졌고, 이게 다 실효, 실효성이 있을까. 쉽게 말하면은 그 발
표를 위한 발표를, 대화를 하게 돼. 회의를 해도 **서류에 적고 사인하기
위해서.** (...) 그래서 보니까, 이걸 한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산하
기관이 많은데, 거기에 이 **한 사람이 몇 군데 소속돼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또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그러가지고
많이 소속되고 있더라고요. (...) **여기를 가도 똑같고 여기를 가도 똑같고
다 똑같은 사람이예요.** 원 말씀이 이해되죠.” (62년생/ 여/ 20 - 25)

참여자E: “**이는 사람만 계속 반복적으로 거기에 도전**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빼먹을
수 있으면 빼먹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게 되더라도 그거 같은 여러 가지로 **서류 준비를 한다거나
접근하기가.** 물론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도전한다고** 그래서.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 정보의 접근성이랄까.” (69년생(2차)/ 남/ 156 - 156)

3) 원하는 프로그램, 과정 없음

참여자M과 참여자E는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사회참여 기회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찾지 못했다. 현재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베이비부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웠다.

참여자M: “뭐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 요리 같은 건 사실 관심 있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가려니까 **또 여자들 많은데 또 안 가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할 건 많은데 내가 자꾸 내가 내 자신이 그걸 오픈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딱 정해진 거만 하려니까 안 돼.**” (56년생/ 남/ 99 - 101)

참여자E: “상당히 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저하고 **딱 좀 구미에 맞는 데가 없어서** 교육을 처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관심사가 비슷하면 아마 교육을 한번 받아봤을 건데 교육을 그때 받지는 않았었어요.” (69년생(2차)/ 남/ 50 - 50)

원하는 활동이 있더라도 베이비부머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닐 때도 있다. 참여자F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지만, 주로 20대 대학생이 하기에 적합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었다.

참여자F: “어려운 아동 돌보기라든가 그런 것도 지역아동센터가 있긴 하는데 거기도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근데 당연한 거야. 아이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그건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나이 어린 친구들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막 놀아줘야 되니까 일단 저는 나이에선 잘리더라고요. 여쭙보니까. **20대, 대학 휴학생 이런 언니 오빠지 엄마 아빠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그러니까 되게 어중간한 거야. 50대, 60대가.**” (74년생(2차)/ 여/ 136 - 136)

4) 경제활동이 우선순위

참여자M과 참여자E는 생업의 특성상 정해진 스케줄 외의 다른 약속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영업자인 참여자K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을 쉬는 것이 어렵다. 이처럼 경제활동이 우선순위인 상황에서 다른 사회참여 기회를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참여자M: “스마트폰을 해서 좀 하는 거 배워보려 그래도 좀 그것도 인원도 인원 이지만 내가 또 **시간도 안 맞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일이 **경비 일이라는 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56년생/ 남/ 95 - 95)

참여자E: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저기 저희는 **지금 있는 업장은 명절 때 빼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라고 해봐도 길어야 한 3일 그 정도기 때문에.” (69년생(2차)/ 남/ 140 - 142)

참여자K: “**실 때**라고는 주말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그리고 비 와서 일 못 하면 그때 쉬는 거고. 그리고 놀러 간다는 건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냐면 계속 일이 이렇게 있는데 뭐 휴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휴가 어찌고 그러는데 **휴가가 어디 있어요.**” (60년생/ 남/ 15 - 15)

실제로 참여자E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도와줄 여유를 갖기 힘들다고 한다.

참여자E: “**경제적으로 그게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솔직히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다니면서 누구 밥도 사주고 누구 뭐 뒤도 돌아볼 수 있지, 그게 진짜 만약에 내가 막 한 달에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끊었죠.” (69년생(2차)/ 남/ 152 - 152)

나. 중단 요인

1) 프로그램, 교육 제공 후 후속 과정 부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참여자O는 협동조합 설립 후 향후 활동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평생교육원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합 설립까지는 왔으나, 향후 갈 길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 참여자G 또한 집수리를 배워서 봉사활동을 해볼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지만, 일회성 교육은 실생활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협동조합 설립, 교육 등이 이루어진 후 후속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참여자O: “가장 그거 한 게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안 보여요. 우리가 다 찾아야 되거든요.” (59년생/ 남/ 36 - 36)

참여자G: “집수리하는 것도 배울 적에는 이해가 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배우니까 그때는 남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막상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별로더라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보통 첫째, 장비도 그렇지만 거기서 배운 걸 하려면 수십 번을 하고 그냥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한 번 배워가지고서는 써먹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 (58년생/ 남/ 7 - 7)

특히 참여자O는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당장에 수익에 욕심이 나지는 않지만 이를 기대하고 참여한 구성원들이 있으므로, 향후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참여자O: “실제 나는 수익이 내가 지금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뭐 돈에 내가 욕심을 가질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주변에

그리 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수익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59년생/ 남/
19 - 19)

2) 주변의 부정적 피드백이나 무관심

참여자N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통장)을 하면서 부정적 피드백에 힘들었다고 말한다. 참여자O 또한 입주자 대표 활동을 하면서 부정적 피드백으로 활동 동력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 참여자N과 참여자O는 이런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장, 입주자대표 활동을 이어가지 않았다.

참여자N: “(다른) 통장님들이 나 싫어하더라고요. 박수 소리 크다고 싫어하고 목소리 크다고 싫어하고 웃음소리 크다고 싫어하고. **저는 말을 대단하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말 많이 한다고 싫어하고.**”(73년생(2차)/ 남/ 113 - 113)

참여자O: “이제 뭐 득보다는 실이 많죠. 득보다. 시간도 그렇고 이제 뭐 주변 사람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뭐 칭찬보다는 욕을 많이 먹겠죠. (...) 그리고 그쪽으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잘못되면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뭐 하나. 이제 하는 게 뭐 있냐. 돈만 받아 먹고, 뭐 회의 참석비만 받아 먹고, 뭐 그런 식이냐. 뭐.”

주변의 무관심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장직을 맡고 있는 참여자Q는 지역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도, ‘어르신’과 ‘젊은 친구들’ 모두 관심이 저조하여 현실화하지 못한 경험을 말한다.

참여자Q: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 뭘 좀 해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용호2리의 마을 가꾸기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 뭐 **어르신들은 뭐 그런 거 몰라. 워낙 귀찮은데.**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뭐 거기서 **그냥 뭐 접어버렸지.** (...) 내가 이래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좀 나서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뭐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더라고**” (60년생/ 남, 139 - 139)

3) 활동 내용에 불만족

참여자J 또한 지역사회 ‘방법단’ 활동 중 내분이 생겨서 전체 활동 인원이 줄어들고 활동 참여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참여자I 또한 의미 없는 활동에 대한 회의감으로 부녀회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참여자J: “우리 방법단들이 입대위로 다 올라가서 입대위도 다 하고 있고.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또 무슨 뭐 발전위다 그래서 아파트 잘못된 거 방법단들이 사람들 모아서 뭐 촛불집회도 다 하고 별거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회의가 조금씩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방법만 도는데 친한 사람 몇몇. (사회자: 회의가 느껴지신 이유는 뭡까요?) **자꾸들 이렇게 패가 나뉘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원래 한 70명, 80명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원이 자꾸 줄, 물론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자들 이 나이를 먹으면.” (60년생/ 남/ 32 - 32)

참여자J: “부녀회 활동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다가, 그러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그냥 하고 거기 부녀 뭐 특별하게 활동한 것도 없어요. 부녀회라고.” (55년생/ 여/ 22 - 22)

참여자O는 지역대표를 선발할 때 형식적인 선거 절차로 부조리함을 느낀 이후 관련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참여자O: “통장, 반장은 또 뭐 새마을협의회 무슨 그게 나는 볼 때 **관변단체 그 자체가 자기들 간의 이권인 것 같아가지고 (...)** 쉽게 말해가지고 통장을 모집하는 현수막을 걸어요. 그러면 그랬다가 두 시간 뒤에 떼버려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걸어두고 사진 찍고, 그런 걸 한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다 짜고 치는 판이구나.**” (59년생/ 남/ 25 - 26)

4) 활동 강도에 비해 적은 보상과 복잡한 지원절차

구청에서 주도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양육코칭을 하고 있는 참여자 A는 경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임에도 적은 보수가 아쉽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은 사회공헌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사회적기업 활동에서 영리 활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참여자A: “금전적인 것도 나중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족해요. 한없이 많이.”(...) 실제로 우리 팀에서는 이 수익이 너무 적어서 아이가 셋이나 되니까 그만두셨어요.” (63년생/ 여/ 6 - 26)

참여자C: “예비 사회적기업을 받아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좀 해 봤었고요. 그런데 법인을 운영하는 게 그 사업 외적으로 비용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 법인은 접고 그냥 개인 사업자로 카페와 도서관을 운영을 좀 해 왔었고요.” (68년생(2차)/ 남/ 2 - 2)

각종 지역공동체 활동에서도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매우 적은 액수인데 이마저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을 주저하게 된다.

참여자E: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조건 까다롭고 전에도 보니까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제 옆 가게에 있는 사람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지금 전국적으로 전산화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예를 들어서 뭐 첨부 서류가 무슨 뭐 소득 무슨 서류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 그거는 내가 직접 저기 가서 막 때 오냐. 아니면 자기 그냥 관련 부서에서 내가 그냥 개인 정보 동의만 하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뭐 차 타고 또 가서 서류를 준비하고 또 서류 준비해갖고 뭐 다 낸다고 그래서 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69년생(2차)/ 남/ 154 - 154)

참여자O: “동아리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또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연간 뭐 70만 원, 80만 원 지원해주면서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

아.(...) 재정 지원도 인원수에 따라가지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금 융통성 있는 그게 필요한데, 동아리 회원이 스무 명이 돼도 70만 원, 80만 원. 뭐 다섯 명이 돼도 그런. 그러면 너무, 우리 뭐 물론 다 성인이니까 얼마씩 다 지출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너무 틀에 박혀 있다.” (59년생/ 남, 31 - 37)

참여자O는 도시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도시와 지방의 지원 형평성도 불만이다. 지방에는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농업에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도시농업은 여전히 지원 수단이 제한적이다.

참여자O: “도시 농업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듣거든요. 듣는데 그쪽으로(지방) 가서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걸 그쪽으로 **뭉 주소를 옮겨야 된다든지** 법적인 모든 게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거 다 요구하는 게 **그쪽 인구 늘리려고 애쓰지**. 그렇게 지원 안 해주잖아요.” (59년생/ 남/ 37 - 37)

제3절 소결

1. 결과 요약

1) 베이비부머의 세대 인식과 생애전환 경험

급격한 사회변화 시기에 성장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당시를 ‘격동의 시절’로 표현한다. 다자녀가정, 과밀학급의 배경에서 많은 사람이 부족한 자원을 나누어야 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이웃 간, 친구 간 신뢰와 끈끈한 ‘정’이 있었던 시절로 당시를 기억한다. 스스로를 부모와 자식 부양의 이중 부담을 가진 세대로 생각하고, 특히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서 힘든 상황으로 현실을 인식한다. 그러나 자녀세대에게 이런 부담을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또한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보다 가치 지향적이며 진취적, 도전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가치를 실천으로 옮긴 경험이 적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시민사회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 경험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로 위기감과 상실감, 심적 혼란을 경험했다. 특히 퇴직 후 관계 단절에 대한 우려가 있고, 경제적 사정 또한 우려한다. 생애전환기에 접어들면서 건강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신체적, 인지적 기능저하를 체감하는 시기로 건강 악화로 인해 사회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또한 체력, 기력 저하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에서는 생애 주기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관계 단절을 경험했다. 남성 참여자의 경우 친교집단이 학창시절 동창, 고향 친구 등 과거 인연에 한정된 경향을 보이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여력이 없고, 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로 새로운 전화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등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좀 더 심층적으로 집단 유형별 생애전환 경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가 주로 분포하는 집단 3을 제외하고는 생애전환의 대표적 경험인 '퇴직' 전후로 심적 혼란을 경험했다. 특히 고숙련 집단인 집단 1은 직장생활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던 사람으로, 전환 적응을 위해 지위를 '신화'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지위'와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체로 퇴직을 전후하여 위기감을 가지나,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게 되는 퇴직 후 삶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다. 또한 사회참여 기회에서는 예전보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일에 가치를 더 부여하게 된다. 베이비부머의 가장 대표적 유형인 집단 2는 생애전환 과정에서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상실감을 느끼며 재취업에서 경력 활용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집단 3은 중단 없이 계속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스

스스로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생애전환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여력이 되는 데까지 현재의 일을 지속하고자 한다.

〈표 5-5〉 집단 유형과 경제활동 현황

경제활동 현황	집단 구분		
	집단 1(5명) (고숙련-대졸-고소득)	집단 2(9명) (중숙련-고졸)	집단 3(3명) (자영업-고졸-고소득)
주된 일자리 유지	E (조리장)(2차)	H (사무직 22년 근무 중, 1년 후 정년퇴직)	K (건축사무소 대표) Q (농업) J (**교육원 대표, 컴퓨터 강사)
재취업	A (사회공헌일자리)	D (시설관리회사 퇴직, 관련 소규모업체 재취업), I (부동산 협동조합 조합원) M (자영업 거쳐 아파트 경비) N (판매업 종사)(2차)	
구직 중	C (임기제 공무원 퇴직)(2차)	B (통신사 정년퇴직 후 구직 중) P (항운노조 정년퇴직 후 구직 중)	
구직 의사 없음	G (연구소 15년 근무 후 퇴직) F (27년 근무 후 자발적 퇴직)(2차)	L (공무원 정년퇴직) O (공무원 정년퇴직,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2) 사회참여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살펴보았다. 진입 단계와 활동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활동에 능동성을

갖고 확장해가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과 중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했다. 사회참여의 진입 요인으로는 퇴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생애를 조망하게 된 시간적 배경과 친교모임, 지자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 수강 등이 있었다. 활동 지속, 확장 요인은 활동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활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던 경험, 자신의 능력 발휘를 통해 보람을 느꼈던 경험 등이 있었다. 특히 성과를 인정받아 상을 받거나 수장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 활동의 능동성을 갖게 된 요인이 되었다.

저해 요인으로는 무경험, 정보 없음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자신이 원하는 참여 기회를 찾을 수 없거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을 내거나 맞추기 어려운 상황 등이 있었다. 중단 요인으로는 개별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후속 과정으로 연계되지 못한 점, 활동 과정 중에 받은 내외부의 부정적 피드백, 활동이 요구하는 전문성에 비해 적은 보상 등이 있었다.

〈표 5-6〉 사회참여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

	촉진 요인	저해 요인
진입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김 - 친교모임에서 추천 - 지자체나 복지관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 지역에 대한 애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라 주저하게 됨 - 활동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찾을 수 없음 - 경제활동이 우선순위
활동단계	<p>〈지속, 확장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과정에서 의미 있는 교육 수강 - 사회에 기여, 또는 자신의 능력, 재능을 발휘하는 보람 - 적절한 보상과 '감투'로 표현되는 지위 부여는 특히 활동에 능동성, 적극성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줌 	<p>〈중단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프로그램 종료, 교육 종강 후 후속 과정으로 연계되지 못함 - 내외부의 부정적 피드백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무관심으로 무력감 - 활동의 의미와 요구되는 전문성에 비해 너무 적은 보상 - (지역공동체 지원) 복잡한 행정절차, 지원 형평성 불만 - 활동 내용에 불만족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촉진 요인에서 얻은 시사점을 살펴보면, ‘퇴직’을 겪으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제도적 개입 시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퇴직 전 다양한 활동 기회에 대한 안내 방안, ‘퇴직 직후’ 시점에 필요한 개입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친교활동, 교육이나 지자체 프로그램 수강은 다음 단계 사회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베이비부머가 오래 거주한 지역에 대한 애정도 지역사회 참여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활동단계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역할 범위를 확대하는 요소로는 교육 등을 통해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내면화하는 기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통해 얻는 보람감이 있었다. 이러한 요소는 참여활동에 능동성과 적극성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므로, 이런 기회를 확대하고, 적절하게 연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저해 요인의 시사점으로는, 진입단계에서 직장 외 다른 사회참여 경험이 전무하여 진입하기 어렵고, 활동 기회에 대한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어떤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주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요구, 실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활동 단계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참여 경험이 다른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프로그램, 수강강좌 종료와 함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활동 연계를 위한 정책적 개입 요구된다.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형성과 관리 간소화, 갈등 예방 요소 등을 포함한 지원 매뉴얼 필요)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참여,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유형별 접근

(표 5-7) 유형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

	집단 1 (고숙련-대졸-고소득)	집단 2 (중숙련-고졸)	집단 3 (자영업-고졸-고소득)
생애전환 경험 특성	“직장의 지위가 내 삶의 성공과 실패라는 (...) 그 신화를 벗어버리면” (참여자C)	“다양”	“나는 개인이 아니여. 다 남의 거여.” (참여자K)
사회참여 특징	-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 활동 내용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 보람에 가치 부여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에 대한 자발적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경향	- 모임 구성원의 좋은 관계, 긍정적 피드백 등 활동의 배경적 요소 중요하게 작용 - 지자체 활동 프로그램, 제도적, 정책적 기회에 관심, 제도지원 효과 높은 집단	- 자신의 특기,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나, 생업으로 시간 내기 어려운 집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	- 생애경력 활용,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매칭’ - 자신이 원하는 활동, 프로 그램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 - 활동 내용의 고도화	- 지역 기반 친목,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한 소모임 형성, 유지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수강 후 후속 활동으로 연계 시스템	- 활동시간에 대한 보상 모델 논의(시상, 홍보, 공유, 인증, 탄압뱅크 등)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고숙련 집단인 집단 1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 즉 활동 내용 자체와 수행을 통한 보람에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자발적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경향이 있다. 중숙련-고졸로 대표되는 집단 2는 사회참여에서 모임 구성원의 좋은 관계, 긍정적 피드백 등이 동기부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참여 기회에 관심이 높고, 지원효과 또한 높은 집단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 3은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여 사회참여를 위한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한 집단으로, 활동시간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참여 단계, 영역별 접근

1) 친교활동과 사회공헌활동

친교활동은 면접 참여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퇴직, 코로나19, 자녀 출가 등으로 관계 전반의 변화를 겪으면서 의미 있는 만남이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남성 집단에서는 특히 이웃과 교류가 없는 경향을 보였는데, 대다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참여하겠다는 의지 또한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 등을 직접 해본 경험이 적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근면, 성실한 생활로 가족은 물론 나아가 사회에 기여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가져본 적은 있어도 관련 경험이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간극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가 없고, 마음에 딱 드는 활동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동이나 노인에게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래 살아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활동 유형별 차이: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사회참여 영역별 참여 여건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공동체 활동은 가장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반사회 등에 참여하고, 나아가 통장과 반장, 이장 등 수장 역할을 맡기도 하는 등 지역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에 두루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 오래 살았어도 이웃을 잘 모른다는 사람들

도, 기회가 되면 지역행사나 소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었다.

반면, 자원봉사나 사회공헌활동은 경험이 없거나 막연하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나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진입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사회의 친분,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이 계기가 되었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지역공동체 활동이 사회참여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며,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 기회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지원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적경제 영역은 대부분 인터뷰 참여자들이 관련 정보가 없거나 제한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 경험이 있는 참여자 또한 이전에는 관련 정보를 접해보지 못했으며, 평생교육원 수강을 통해 외부의 지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용한 영역이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전반적으로 관련 정보와 이해가 없다는 사실은 관련 정책 추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요소이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상과 관련도가 낮거나 접할 기회가 없던 영역임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 지역공동체의 고도화된 단계로서 이해와 인식 제고부터 접근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사회참여적 생애전환 지원 과제

제1절 국외 사례

제2절 대안 논의



제 6 장 사회참여적 생애전환 지원 과제

제1절 국외 사례

본 절에서는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개발에 참고하고자 국외사례를 검토한다. 국외 사례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활동기반 마련하기’, ‘활동 역량 갖추기’, ‘활동 연계하기’를 주제로 하여 구성하였다.

1. 활동 기반 마련하기: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공간’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서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베이비부머의 세대적 특성과 함께,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적어 사회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스스로 구성해보지 못했다는 전반적 경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생애전환기에 접하게 되는 인생의 새로운 장에서 소속감을 주는 공동체와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에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새로운 활동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공간’ 개념을 검토한다. Kersten, Neu, & Vogel(2022)에서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새로운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추진하는 공간으로 정의한다(Kersten et al., 2022). 공동체에 기반하여 새로운 형태의 참여를 전제하는 이 개념은 개별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넘어선 개념이며,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 개념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는 생애전환기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생애전환

기에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요소의 변화를 경험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적 공간’으로 세대통합 모형과 세대특화모형, 그리고 멤버십모형을 차례로 검토한다.

가. 세대통합모형: 독일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Mehrgenerationenhaus)

독일은 최근 지방의 사회 기반 시설과 만남의 공간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을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현재 독일 전역에서 약 530개의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다. 멀티제너레이션 하우스운영의 목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과 지방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세대 간 교류, 참여, 자원봉사 및 사회적 공간 지향이라는 네 가지 원칙하에 이루어진다. 전국의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는 중점 분야가 다르지만, 스토리텔링 카페나 오후 게임 등의 형식으로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만남’을 공통으로 마련하고 있다(Neu, 2023, p. 2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기본 서비스, 만남 및 시민참여를 장려하는 이 모델은 10여 년 기간에 3차에 걸친 시범사업 끝에 2021년 1월 1일부터 연방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기부하고 다른 방문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센터 운영에서는 상근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1년 기준 4,000여 명의 상근직원과 30,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531개의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는 교환 모임, ‘수리(Repair) 카페’ 또는 디지털 교육 등 활동을 약 25,000건 진행했고, 그중 15,000건이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으로 기획되었다. 세대 간 여가활동, 조언 및 지원, 노년의 자기 결정적 삶, 세대 간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BMFSFJ, 2022, p.4, 9).

〈표 6-1〉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일가정 양립	영유아 돌봄 등 지원을 통해 기존 보육시설을 보충하거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돕는 영유아 돌봄 지원
가족과 수발 양립	다양한 가족적 생활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일상생활 수행 지원, 동행, 가족 지원, 가사 서비스나 보충적 수발 지원
노년의 자기결정적 삶	노인을 위한 참여 기회, 지원네트워크, 적극적 협력을 지원함. (노인위원회를 통한 건강, 수발 지원 제안, 요리와 사교 기회 제공, 컴퓨터와 인터넷 코스 같은 디지털 인프라 제공 등)
청소년에게 적합한 사회	청소년 의회, 청소년복지, 세대 간 만남, 역사 또는 전기 워크숍 등 젊은이들을 위한 매력적인 사회적 관점과 참여 기회 제공
노동시장 접근성 제고, 훈련과 고용 통합 강화	실업자의 사회통합과 청년의 직업(자원봉사활동의 직업경력으로 연계 프로젝트, 인턴 훈련장소 제공 등)
이주, 난민의 사회통합	난민 긴급 지원 등
참여와 민주주의 증진	공청회, 포럼, 원탁회의 및 도시컨퍼런스 등
디지털 교육	디지털 활용능력 제고를 통해 특히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시민사회, 정치, 경제 영역과 협업	아날로그 및 디지털 소통 플랫폼, 오픈하우스, 상담, 보수교육 등
환경적 지속 가능성	수리(Repair) 카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교환시장, 도시정원 가꾸기 등

자료: BMFSFJ. (2020). Förderrichtlinie Bundesprogramm Mehrgenerationenhaus. Miteinander - Füreinander. https://www.mehrgenerationenhaeuser.de/fileadmin/Daten/04_Bundesprogramm/Inhalte_des_Bundesprogramms/MGH_Foerderrichtlinie_ab2021_BF.PDF pp.8-9내용을 바탕으로 작성(2023.11.1. 인출)

위 프로그램은 독일 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한 사회문제와 정책과제 영역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의식, 세대통합, 실업, 이주민 통합,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접근한다는 취지이다. 사회적 공간에서 지역 주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반대로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간, 세대간 네트워크가 구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공동으로 구상하는 모델을 추구한다.

나. 세대특화모형 I: 정년퇴직을 한 중장년 남성들의 지역 데뷔 정례 모임 ‘男の集い(오토코노 츠도이)’²⁶⁾

일본 오사카시 아베노구에서 열리는 정년퇴직을 한 중장년 남성들의 지역 데뷔 정례모임 ‘男の集い(오토코노 츠도이)’는 지역 활동에 필요한 일손 부족 해결과 고령자 고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표 6-2〉 모임 형태와 정례모임 규칙

구분	내용
참여 대상	- 지역 거주 60세 이상 남성 25명 내외
정례모임 의제	- 지역 당면과제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의제
진행방식	- 의제 제시-그룹별 토론-전체 토론-의결 (전 과정 2시간으로 시간제한)
모임 규칙	- 과거 근무했던 회사명이나 직함 등 서로의 직업에 관한 경력에 대해 묻지 않음
동호회	- 요리 동호회 ‘男の料理(오토코노 료우리)’(남자의 요리) - 역사강좌 동호회 ‘地域を学ぶ・研究する(치이키오 마나부·켄큐스루)’(지역을 배운다·연구한다)

자료: 大阪市市民活動総合ポータルサイト(오사카시민활동종합포털)(2018.8.6.). 아베노구의 사례. <https://kyodo-portal.city.osaka.jp/case/8747/>에서 재구성(2023.11.1. 인출)

이 모임은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성이 참여하고, 민간 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의제를 논의하는 이 모임은 토론과 의결이 2시간 안에 끝나도록 규칙을 정하였다. 사회자(아베노구의 사회복지협의 회장)가 안을 체결하는 이유, 혹은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한

26) 大阪市市民活動総合ポータルサイト(오사카 시민활동 종합포털)(2018.8.6.). 아베노구의 사례. <https://kyodo-portal.city.osaka.jp/case/8747/>내용을 바탕으로 작성(2023.11.1. 인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모임 참가 시 주의 사항은 과거 근무했던 회사명이나 직함 등 서로의 직업에 관한 경력에 대해 묻지 않는 것인데, 이는 세이메이가오카 지역 주민이라는 평등한 입장에서 활동하기 위함이다.

이 모임은 퇴직 후 소속과 갈 곳을 상실한 남성들이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여러 동호회가 출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 중 ‘男の料理(오토코노 료우리)’(남자의 요리)라는 요리동호회는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요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배운 것을 지역사회 행사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地域を学ぶ・研究する(치이키오 마나부·켄큐스루)’(지역을 배운다·연구한다)라는 역사강좌 동호회가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 재난 대책까지 생각하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乡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다. 세대특화모형II: 멤버십 기반 지역공동체 미국 비컨힐 빌리지 (Beacon Hill Village)

빌리지 모델(Village model)은 훈련된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마을 전체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연계하고, 회원들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에 연결한다.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직접 설립, 스스로 운영하는 형태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고립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VtVN, n.d.).²⁷⁾ 아래에서는 멤버

27) VtVN(Village to Village Network)은 이러한 빌리지 모델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회원 간의 연대를 추구하는 회원 기반 조직이다. 비컨힐 빌리지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VtVN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마을들이 협력하고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연례 모임 지원, 지역 연합을 통한 협력을 추구한다. 네트워크는 지역사회가 번영하는 빌리지를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 수퍼비전, 자원을 제공한다(VtVN, n.d.). 2009년 59개 회원 마을로 시작된 VtVN은 미국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2022년 12월 회원 수는 오픈 빌리지(open Villages) 253개, 기회 빌리지(opportunity Villages) 58개로 구성되었다. 현재

십 기반 지역공동체로 비컨힐 빌리지 사례를 검토한다.

Beacon Hill Village는 2023년 기준 이사회는 총 15명, 상근직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BeaconhillVillage, n.d.a). 목적과 약속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비컨힐 빌리지는 회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와 권한을 제공한다. 자원봉사자와 회원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재능기부 및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술지원 활동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 및 소셜미디어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회원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회원들이 현재 거주 지역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고, 독립적인 노년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및 자원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건강, 교양, 문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비스는 장보기, 교통, 가정방문, 연락서비스 등이 있다. 회원들은 각 영역의 프로그램을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여 할인가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통수단이 제공된다(BeaconhillVillage, n.d.b).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표 6-3〉 비컨힐 빌리지 프로그램과 서비스 예시

	구분	내용
프로그램 ¹	웰니스와 피트니스 (Wellness and Fit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HV(Beacon Hill Village)와 계약된 자격 교사가 피트니스와 요가 강좌를 줌으로 진행, 지역 헬스클럽 멤버십 할인, BHV 산책, 가정 방문 개인 트레이너 연결 - 웰니스프로그램: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강연 및 침요법, 마사지 치료 등으로 구성 - MGH(매사추세츠 병원) 회원 등록 자격: 회원가 월 300달러(비회원가 월 1,200달러) 납입 시 해외여행 및 국내 여행 시 응급의료 및 24시간 의료 지원
	지식 확장 (Expand your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육 목적을 가진 강의, 토크, 저자와의 만남, 토론회 등에 참여기회 제공 - 행복한 삶과 죽음 프로그램: 주로 보스턴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빌리지는 동부와 서부 해안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 테네시, 유타, 미시시피에서도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VtVN, 2022, p.2).

	구분	내용
		행복한 노년기, 건강한 노후 등에 대한 강연과 교육
	문화와 세계 탐험 (Explore the world)	- 소속 회원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또는 기획하여 운영함. 매일 웹사이트를 통해 기획된 활동을 공지하고 있음. - 다양한 투어 및 여행 활동을 기획하여 참여 기회 제공.
	장보기 지원 (Grocery Services)	- 장보기 지원 서비스: 매달 장보기를 위한 교통편과 도움 제공 - 식료품 배달: 주 3회 식료품 배달
	교통서비스 (Transportation Services)	- 교통지원서비스: BHV 운전자 지원(시간당 요금부과, 도시 경계를 벗어나면 추가요금 부과) - 병원방문지원: 병원방문시 무료로 교통수단 제공(연 3회 제공, 의사 처방/요청 필수) - 택시이용: 정가의 절반가격으로 지역 내 택시 이용이 가능. 개인 기사 혹은 차량이 필요하면 예약지원(시간당 금액을 지불 필요)
서비스 ²	홈헬프 연결 (Home Help Referrals)	- 가정방문 서비스: 사례관리, 건강지원서비스, 간호서비스, 가사도우미, 법률/재정 자문 서비스, 회계서비스, 관리비 등 고지서 납부, 집 및 생활환경 유지 및 수리 서비스, 회계/세무 서비스, 전문의료 서비스(치과 등 필요 영역), 사회복지 서비스 등
	연락 유지하기 (Stay Connected)	- 안부전화나 이메일: 질환이 있거나 입원시 모니터링 전화나 이메일 서비스 - 온라인 BHV 이메일 커뮤니티: 이메일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간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공유 - 서비스 봉사(Service Volunteers): 회원에게 도움이 필요할시 전담 직원은 자원봉사자와 연결 또는 연결이 어려울시 서비스 제공업체 소개함 - 동료자원봉사(Peer Volunteers): 나이들면서 접하는 어려움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동료 자원봉사자가 빌리지에 있음

자료: 1) Beaconhill Village. (n.d.a.) WHAT WE DO > Programs. <https://beaconhill.helpfulvillage.com/pages/10065-programs>에서 재구성(2024.1.2. 인출)

2) Beaconhill Village. (n.d.b.) WHAT WE DO > Services. <https://beaconhill.helpfulvillage.com/pages/10085-services>에서 재구성(2024.1.2. 인출)

비컨힐 마을로 대표되는 빌리지 모델은 멤버십 형태의 지역공동체로, 주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공동체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 기회는 공동체에 속한 회원들이 최대한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특기와 재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

다. 이처럼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는 빌리지 모델은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형태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회원비를 지불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얻는 이 모형은 이전 세대보다 비교적 구매력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빌리지 모델의 다양한 형태를 추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활동 역량 갖추기: 시민 역량 강화 교육

노인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현재 노인들의 건강수준이 높아지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에서 제공하는 역할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이때 시민 역량을 갖추기 위한 양질의 교육은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시민성 교육’, ‘시민교육’이라는 개념 아래 다양한 교육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성 교육은 학습자의 지난 경험을 중요시하고 적극적 학습,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성인교육의 주요 영역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UNESCO, 2023). 유네스코 성인학습교육 5차 보고서에서 ‘시민성교육’은 ‘시민교육’의 확장으로, 시민권과 책임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 이해를 갖추고, 시민을 양성하며, 사회·경제·정치적 미덕을 배양하는 것이다. 시민성교육은 나아가 변혁적인 대화와 협상은 물론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UNESCO, 2023).

본 절에서는 독일과 일본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부설 또는 대학 연계로 노인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를 검토한다.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부설로 운영되는 노인대학 형태가 가지는 장점은 다양하다. 먼저 대학은 입

학, 개인적 학업 계획, 학업 형식 면에서 다양한 옵션이 있으므로 개인에게 맞춘 학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술적으로 스스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갈 수 있고, 학기제로 운영하므로, 개인 의사에 따라 학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물리적으로 대학이라는 공간의 시설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기도 하다. 나아가 대학은 학생, 교사, 연구자 등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한다(Dabo-Cruz, 2014, p. 27).

아래에서는 독일 대학부설 노인대학의 대표적 모델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생 제3기 대학(Universität des 3. Lebensalters)’과 일본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사례를 통해 대학연계 노인교육 운영을 검토한다.

가. 독일 인생 제3기 대학(University of the Third Age)

유럽국가에서 널리 알려진 인생 제3기 대학(University of the Third Age, 이하 U3A)은 국가별로 특징을 가지고 발전했다.²⁸⁾ 그 중에서 독일의 U3A는 대부분 독립기관이 아닌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대학의 예산으로 재정조달이 이루어졌다.²⁹⁾ 따라서 독일 연방 시스템에서 U3A는 개별 연방주의 교육부가 아닌 연방과학부가 주무기관이다. 이러한 구조는 독일 U3A이 전반적으로 높은 학문수준을 갖출 수 있게 하지만, 독자적 발전이 어려운 문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Schmidt-Hertha, 2019).

노인이 참여가능한 대학 교육 형태는 대표적으로 청강시스템

28) 1972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U3A 모델은 크게 영국형과 대륙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 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로미, 박성희(2022)를 참조할 수 있다.

29) 독일의 공식적 성인교육은 크게 직업교육과 일반성인교육으로 구분된다. 직업교육이 재 교육, 전직을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일반성인교육은 지식, 기술, 자아의 기본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다(Weinberg, 1999). 여기서 검토하는 인생제3기대학(U3A)은 일반성인교육에 해당하는 모델이다.

(Gasthörerstudium)과 대학에서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노인아카데미(Seniorenakademie)를 들 수 있다. 청강시스템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의 새로운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철학, 역사, 독문학 등 인문학 과목이 인기가 높다. 노인학생들은 시험이나 과제 수행에 대한 의무 없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반면 노인아카데미는 노인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맞춤화된 과정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노인들에게 특화된 수업에 참여하고 적절한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인생 경험과 근로경험을 공유하고 대학 수준의 학술적 내용과도 연결해볼 수 있다(Pfuhl, n.d.). 많은 대학에서 이러한 청강시스템과 노인아카데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예를들면, 뮌헨대학(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LMU))의 경우는 선별된 200여 강좌, 세미나, 실습 외에 노인 수강자를 대상으로 40여강좌, 세미나 등 자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함부르크대학(Universität Hamburg (UHH)) 또한 보통 350-400여개의 단과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65-70여 강좌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고령자 수강생을 위해 따로 마련한다(Dabo-Cruz, Lörcher, Lutz & Pauls, 2022).

가장 대표적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생 제3기 대학(Universität des 3. Lebensalters, 이하 U3L)은 은퇴 노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2년 설립되어 40년 넘게 운영되었고, 2023/24학기에는 2706명이 등록할 정도로 국내 최대 평생 교육 기관 중 하나로 발전했다(Goethe Universität Frankfurt a.M., n.d.). 세미나, 강의, 실무 그룹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 U3L은 노인학, 법/경제/사회/교육학, 심리학, 신학, 철학, 사학, 고고학, 미술학 등 넓은 학문범위를 아우른다. 학생들은 노인들에게 적합하게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른 수업 외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U3L에서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룹과 연구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6-4〉 U3L의 프로젝트 그룹

구분	프로젝트	내용
프로 젝트 그룹	Enigma ¹	- 디지털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변화를 다루는 자체 학습조직
	남동유럽 (Südosteuropa) ²	- 2018/19년 “우정의 다리 - 지식의 다리”라는 제목으로 시작됨. 발칸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역사적 발전을 연구하는 그룹
	Erasmus+ Projekt “Discovering European Neighbours in the Third Age” (DENTA) ³	- 이웃 국가들의 인생 제3기 생활(취미, 관심사, 도전, 소망 등)에 대해서 조사. - 연구팀은 유럽 6개국(독일,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프랑스, 이탈리아)의 8개 실무그룹으로 구성됨. 2019.10.-2021.9. 기간 60세 이상 인구와 120회 인터뷰를 수행함.
	U3L에서 토론하기 ⁴	- 사회, 문화, 정치 및 등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자체 학습조직 - 최근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 헤센주의 무료 대중교통 도입, 유럽 내 항공편에 대한 등유세 도입 등에 대해 토론함
	“ÜberLebensKunst” -프로젝트 실험실 ⁵	- 삶과 예술에 대해 성찰하는 형식으로 핵심 주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실험 공간 제공. - 학생과 강사가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알아가고, 소그룹 단위로 주요 주제를 연구하는 형태로, 현재는 온라인으로 진행함
연구 프로 젝트	참여적 남성노인연구 ⁶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탐구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배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연구대상이자 연구 주체로 역할함 (주제: 직장에서 은퇴로의 전환, 남성 노인, 배려하는 남성성, 젠더 문제에 대한 세대 간 학습)

- 자료: 1) U3L(n.d.a.). Forschung und Projekte > Enigma. https://www.uni-frankfurt.de/48281905/Internetprojektgruppe_Enigma에서 재구성(2023.11.29.인출)
- 2) U3L(n.d.b.). Forschung und Projekte > Südosteuropa. https://www.uni-frankfurt.de/49165779/Projektgruppe_S%C3%BCdosteuropa에서 재구성(2023.11.29.인출)
- 3) U3L(n.d.c.). Forschung und Projekte > Erasmus+ Projekt DENTA. https://www.uni-frankfurt.de/102379354/Erasmus_Projekt_DENTA에서 재구성(2023.11.29.인출)
- 4) U3L(n.d.d.). Forschung und Projekte > Debattieren an der U3L - „Meinungen austauschen und verteidigen”. https://www.uni-frankfurt.de/102600206/Debattieren_an_der_U3L에서 재구성(2023.11.29.인출)
- 5) U3L(n.d.e.). Forschung und Projekte > ÜberLebensKunst - das Projektlabor. <https://www.uni-frankfurt.de/105355354/%C3%9CberlebensKunst>에서 재구성(2023.11.29.인출)
- 6) U3L(n.d.f.). Forschung und Projekte > Partizipative Alter(n)sforschung mit Männern. https://www.uni-frankfurt.de/42656439/Partizipative_Alternsforschung_mit_M%C3%A4nnern에서 재구성(2023.11.29.인출)

위와 같은 프로젝트 그룹 활동의 장점은 자기주도적으로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젝트그룹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하기도 하고, Erasmus+ Projekt 와 같이 외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어 다국적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U3L에서 토론하기’와 같이 대학에서 마련하는 토론의 장 또한 시민사회 역할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이 된다. 토론 그룹(U3L에서 토론하기)의 논의주제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구성하고, 운영과정은 담당교수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하여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이 직접 연구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다. ‘참여적 남성노인연구’와 같이 노인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노년기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다.

나. 일본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Rikko Second Stage College)

일찍이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도 인생후반기 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실험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1969년 최초 고령자대학 효고현립 이나미노학원이 개설된 이래 고령자대학은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고령자 대학의 대표적 모델인 오사카고령자대학과 같이 지자체(오사카 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재정상 이유로 운영을 종료하였으나, 이후 동문들이 자체적으로 NPO를 설립하여 재개교한 사례도 있다(최일선, 2016, pp.40-41).

앞서 검토한 독일과 같이 일본에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연계한 고령자대학도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릿쿄대학교(立教大学)에서 2008년 개교한 릿쿄 세컨드스테이지대학(Rikko Second Stage College, RSSC)은 대표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5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으로 운영되

는 릿쿄 세컨드 대학은 세대 간 연대를 대학 안에서 구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다양한 사회참여 주체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고령사회 교양 과목군, 커뮤니티 디자인과 비즈니스 과목군, 세컨드 스테이지 설계 과목군 3개의 과목군으로 나뉘어 있다(立教セカンドステージ大学(릿쿄세컨드스테이지대학), (n.d.a.).

또한 방과 후 활동이 활발하여 학습 기회(강연회, 체험형 이벤트)가 많아서 수료 후 동창회가 주최가 되어 만든 동호회 및 연구회나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의 연구회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가하게 된다(立教セカンドステージ大学, n.d.b.).

〈표 6-5〉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수업 과정

구분	본과	전공과
과목/ 수료조건	필수 과목 +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에이징 사회 교양 과목군이 15과목, 커뮤니티 디자인과 비즈니스 과목군은 15과목, 세컨드 스테이지 설계 과목군이 14과목 개설되어 있음	필수 과목 2과목 10학점 ‘학문의 세계B’와 세미나(논문을 위한 수업) + 선택 과목
수료조건	선택 과목 6과목, 12학점 이상과 필수 과목 2과목 6학점. 합계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필수 과목 2과목 10학점 + 선택 과목 2과목 4학점을 취득해야 수료할 수 있음
모집인원	100명	50명
수료인원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263명 수료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71명 수료 수료증서 발급됨
수강료	430,000엔 (430만 원 정도=입학금 + 2학기 수업료).	300,000엔 (300만 원 정도-위 본과 코스 수강료에서 입학금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立教セカンドステージ大学.(n.d.a.). 교과과정. <https://rssc.rikkyo.ac.jp/curriculum/>에서 재구성(2023.11.1.인출)

졸업생은 본과 또는 전공과를 수료한 후에 ‘자유시민’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각종 연구회 활동), NPO 법인, 동호회 활동 등이 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는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이 2009년 수강생과 수료생의 사회공헌을 지원하

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현재 13개의 연구회가 등록되어 있으며 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立教セカンドステージ大学, n.d.b.).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의 수료생이 설립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NPO 법인 또한 여러 개 있는데 시니어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모임이 대표적인 예이다(シニアの再チャレンジを支援する会(시니어재도전지원협회), n.d.).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의 장점은 과정이 끝난 후에 수강생들이 사회에 공헌하도록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동창회에서 연구회 및 동호회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계속 참여하며 수강생 및 수료생 간에도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참가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다.

3. 활동 연계하기: 매칭 플랫폼 모형

베이비부머는 현재 욕구에 맞는 사회공헌 기회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전세대보다 인터넷,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이 높은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적절한 사회참여 기회 검색과 매칭을 위한 온라인 매칭플랫폼의 활용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요처와 연결될 수 있다.

미국의 비영리기관과 자원봉사를 연결하는 전국적 단위의 플랫폼 Taproot foundation, Catchafire 사례를 검토한다. Taproot Foundation과 Catchafire 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특화된 플랫폼은 아니지만 운영방식에서 국내에서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가진다.

Taproot은 지역사회 내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적 자원을 연결, 조정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비영리기관이 미션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운영 목적이다. Taproot의 주요 파트너는 비영리기관, 기업, 자원봉사자이며,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한 기관을 발굴하거나, 기관의 접수를 받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2001년부터 Taproot는 30,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마케팅, 인사, 테크놀로지, 전략 등 분야에서 10,000개가 넘는 비영리기관을 지원했다(Taproot foundation, n.d.a).

Taproot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비영리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및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마케팅, 인사, 테크놀로지, 전략, 회계 및 재정 등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업, 개인으로부터 프로보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Taproot foundation, n.d.b). 이 플랫폼은 2019년 사용자 환경을 대폭 개선한 Taproot plus를 출시하였다. Taproot plus에서는 사용자가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할 수 있는 사용자환경을 제공하며, 플랫폼 내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추적하며, 기업 프로보노 실무자들이 직원 참여율, 기부가치 등 지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3BL, 2019).

Catchafire은 비영리기관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연결, 프로젝트 자문, 교육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 종류, 범위는 신청 기관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지원범위를 살펴보면,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을 위한 보조금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보고서, 미디어 배포용 성과보고서, 기관 브랜딩, 성과 지표 개발 및 보완, 행사 기획 및 운영, 기관 홈페이지 재단장, 이사회 운영, SNS 운영 및 팝업 정보 기획, 기관 홍보 및 마케팅 전략 기획 등이 있다(Catchafire, n.d.a). Catchafire의 주요 파트너에는 기업, 기금조성기관, 비영리기관, 자원봉사자 등이 있다. 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일환으로 Catchafire에 참여하고 있다. MassMutual, Pantagnoia, Boehringer Ingelheim 등 다수의 기업이 함께 하고 있으며 Catchafire은 각 기업 내 직원들이 재능기부 가능한 프로젝트 등을 찾아 매칭하며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소속 직원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재능기부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 기술 등을 함양할 수 있다(Catchafire, n.d.b).

Taproot plus와 Catchafire은 프로젝트를 검색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직접 관심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자원봉사자들이 플랫폼에서 검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된 자원봉사자는 비영리 단체와 함께 작업하게 된다. Catchafire의 홈페이지에는 현재 1125건의 비대면 지원 8271건의 대면 지원 프로젝트가 게시되어 있다(2024.3.1. 기준). 참여기간은 1시간 전화연결부터 1-2주, 2-4주, 6주까지 다양하다(Catchafire, n.d.b, n.d.c).

Taproot Foundation와 Catchafire는 규모있고 신뢰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이다. 이들 기관은 단순한 검색엔진의 역할을 넘어 수요처와 재능기부자의 역량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연결가능한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단순 노력봉사, 교육 등에 한정되어 있는 국내와 달리 비영리기관에서 찾는 전문가는 Taproot의 경우 마케팅, 인사, 테크놀로지, 전략, 회계 등 전문적인 재능 기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Catchafire는 Taproot와 유사하지만, 디자인, 글쓰기, 회계 및 조직 개발과 같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다양화, 내용의 고도화는 의미있는 사회경력을 가진 베이비부머를 적절한 활동무대와 연결할 때 더 중요해진다. 또한 프로젝트별, 세션별 모집 방식 또한 사용자들이 만족하는 요소이다. 베이비부머는 의미있는 체험 기회, 생활의 활력소로 봉사활동에 접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정해진 기간 동안 활동하고 종료하거나 때로는 1시간 단위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등 방식으로 진행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와 조직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제2절 대안 논의

1. 진입단계 촉진 요인

진입단계 촉진 요인은 다양한 대상을 여러 차원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기에서는 연계 네트워크, 지역사회 초기 관문으로서의 ‘지역사회 데뷔’ 계기 마련, 연결 플랫폼 개발 방안을 차례로 제시한다.

가. 연계 로드맵 제시

1) 지역공동체, 자원봉사/사회공헌 활동 연계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영역의 연계협력에 대해서는 2015년 포럼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자원봉사의 융합」, 2018년 자원봉사x사회적경제 포럼 「시작된 미래 뜻밖에 만남」 등이 개최되었고(송소연, 2021.7.6.), 최근에는 2021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체로 「연대의 힘으로 만드는 변화,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라는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공동포럼이 개최되기도 하였다(LIFEIN 홈페이지, 2021.7.7.). 이들 영역 간 연계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이어지면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한상일, 박주희, 유한나, 2021) 등이 발표되었다.

한편 지역성은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영역이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하며, 해결하는 모든 지점은 시민성 확장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실천 운동으로서의 ‘자원봉사’와 연결되어 있다(권미영, 2021.7.6.).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지역성을 강조하는 ‘마을기업’ 개념이 생겨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상생 방안을 논한 연구(이금룡, 2013)가 수행되는 등 영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참여 기회를 모색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사회참여 분야에서 영역별 구분이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활동 기회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지역공동체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고, 이전에는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경제활동이 ‘수익추구’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면,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헌신에 대한 대가를 지원하는 시민서비스 형태의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활동 영역간의 경계는 행정편의적 구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사회참여 영역의 높은 연계성을 잘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랜 직장생활 이후 직장네트워크는 구축했지만 지역네트워크가 부족한 베이비부머의 관점에서 활동영역간 연계 방안을 제안하면, 무엇보다 지역사회 데뷔 차원에서 사회참여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공동체를 사회참여의 첫 관문이자 활동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계기로 시작되는 관계맺기가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 자원봉사, 나아가 사회적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친목 기반의 의미있는 참여활동, 가치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부머를 자원봉사활동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수요파악과 적절한 과업 프로파일을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베이비부머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공헌 기회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를 자원봉사활동에 유입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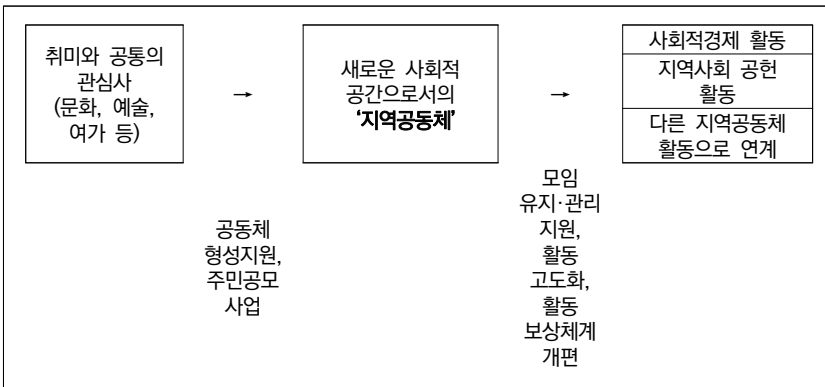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은 사회 전반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 하되, 지역공동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자원 봉사자나 공동체가 준비과정을 거쳐 성숙된 단계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정비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사회적경제 영역만 살펴 보아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활동의 내용과 참여자들의 활동 취지 등 매우 공통점이 많은 영역임에도 주무부처와 지원제도가 각각 다르다. 이러한 행정체제는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불필요한 중복 지원 등으로 이어져 정책 의도에 맞는 운영을 어렵게 한다. 활동영역간 경계에 제한되지 않으면서 활동별 진입장벽을 낮추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2) 활동 영역의 확장성: 함께 누리는 여가, 문화, 예술 활동

사회참여 활동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정책을 사회참여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여 영역확장을 이룰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생활에서 누리지 못한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언급하는 등 여행, 문화, 예술활동을 막연하게만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실현해볼 기회와 공간을 사회참여 정책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누리고 즐기고, 나아가 창작활동으로 발전시키는 등 생산의 주체가 되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여가, 문화, 예술활동을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복지관이나 대학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방과 후 모임, 동아리 활동으로 연계하여 정해진 수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만남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참여 주체가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 간 연계성과 확장성을 반영하여 대략적인 참여모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6-1] 지역공동체 지원방안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나. 선배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데뷔 지원

1) '지역사회 데뷔'와 새로운 사회적 공간

지역사회 데뷔 개념의 한국적 적용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소속과 활동 무대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생애전환으로 인한 변화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며, 나아가 베이비부머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장 제1절에서는 지역사회에 데뷔하는 베이비부머가 새롭게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구축한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세대

통합을 이루는 사회적 공간 모형을 제시한 독일 멀티제너레이션하우스(Mehrgenerationenhaus)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은퇴자들의 ‘오토코노츠도이’는 ‘은퇴한 중장년 남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참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만남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멤버십 기반 지역공동체 모형은 공동체의 중심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로, 회비를 납부하고 그 대가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함은 물론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참여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계기와 활동무대는 지역사회 참여 경험 없이 생애전환을 맞이하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함은 물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는 등 의미있는 ‘역할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외에서 사회적 공간을 구성한 다양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나아가 실험해보는 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데뷔’와 관련 교육

국내에서도 중장년 세대의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서울시 출연기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지역 데뷔 아카데미’를 진행하기도 했다.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생애전환으로 인한 변화관리, 지역참여에 대한 이해, 역량강화, 리더십 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자산과 자신에게 맞는 참여 유형, 협상의 기술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동대표 등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기회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표 6-6〉 지역 데뷔 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

	주제	내용
1	오리엔테이션	잔여수명과 잔여활동 나의 제 2인생 재설계 간이진단 동영상 시청(변화 준비 셀프 평가, ADKAR 모델과 사례)
2	변화관리1 Awareness	Awareness 요소 게임(Wrong handed game) building Awareness 전술
3	변화관리2 Desire	Desire 요소: 게임, Creating Desire 전술
4	변화관리3 Knowledge	Knowledge 요소: 게임, 동영상, Developing knowledge 전술
5	변화관리4 Ability	Ability 요소: 게임, Fostering Ability 전술
6	변화관리5 Reinforcement	Reinforcement 요소: 게임, Force Field Analysis Reinforcement change 전술
7	지역참여 이해1	지역참여 자산 파악과 활용전략 지역참여 순위 결정과 자원동원 지역참여 프로세스
8	지역참여 이해2	지역참여 유형과 사례 지역참여의 종류
9	지역참여 이해3	지역참여의 방법 나의 지역참여 방법 간이진단
10	역량강화1 협상	갈등의 유형과 갈등유형 테스트 분배적 협상 유형과 전략 사례 동영상
11	역량강화2 협상	통합적 협상 유형과 전략 사례 동영상 망고스틴 게임
12	역량강화1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자기진단, 유형별 특징 이해
13	역량강화2 커뮤니케이션	경청의 유형과 특징 경청 방해요인: ㄱㄴ게임, 경청유형 자기진단
14	역량강화3 커뮤니케이션	설득의 6법칙, 유형별 사례
15	역량강화1 리더십	리더십
16	역량강화2 리더십	리더십
17	역량강화3 리더십	리더십
18	지역참여사례1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사례
19	지역참여사례2	아파트 동대표 사례
20	지역참여사례3	종합정리

자료: 양해순. (2019.9.30). 지역데뷔 아카데미 강좌에서 조명된 50+세대의 일자리와 사회공헌. 서울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 <https://50plus.or.kr/dsc/detail.do?id=6319609> 에서 재구성 (2023. 11.30. 인출)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진행한 지역 데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데뷔 지원의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면, 첫째로, 시민이 되기 위한 역량교육(시민교육)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데뷔’와 연결하여 시민, 주민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회에 대한 안내, 지역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지역사회 데뷔의 일부로 자리잡아야 한다. 여기서 본 장 1절에서 검토한 대학교육과 연계한 고령자 대학 모델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을 고령사회의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존폐 위기에 있는 지방 소재 대학 활용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둘째, 지역 리더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 교육과정에서 지역 특색을 담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종로학, 수원학 등 지역사회 심화 이해를 위한 과정을 개발하고, 일련의 과정을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수요가 높은 탐사, 견학 등 활동과 연결시켜 여가 및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해결역량으로 발전시켜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3) ‘선배시민’ 개념에서 운동으로

최근 시민권적 관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고령층의 역할을 주문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에서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의 역할과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갖춘 존재로, 공동체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검토한 바 있는 선배시민 담론은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다양한 시민강좌,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었고, 폭넓은 동의를 얻게 되면서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대

표적 사업영역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2023년 11월 27일 공포된 경기도 조례에서 65세 이상의 도민을 '선배시민'으로 명시하기에 이르렀다(김명진, 2023.11.27.). 이러한 개정은 고령자를 선배시민으로 대우하는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후배시민에 선배로서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실제로 '선배시민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 조직화를 추구한 개념으로, 선배시민학교에서 더 나아가 선배시민학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장해 왔다. 기수별 모임, 마을진단, 마을활동계획 등 선배 역량을 통해 시군구 단위에서 조례를 만드는 등 한 단계 더 나아간 활동 심화가 기대되고 있다. 아직은 교육을 통한 지역 리더(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양성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위주 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며, 선배시민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또한 일반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최근 선배시민 개념이 경기도 조례에 반영되는 등 법적, 정책적 영역에서 두루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념 도입의 의미와 취지를 살려서 활동 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 욕구와 수요의 결합: 사회참여 플랫폼 개발

본 연구 결과에서 사회참여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것이 중요한 참여 저해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 복지관,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와 참여 기회가 있어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존에 참여 경험 있는 사람에게만 계속 주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찾는 것, 즉 욕구와 수요가 결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 재능, 아이디어, 시도를 실제 수요와 연결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베이비부머의 역량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수요체계를 이어주는 고리로서 새로운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대표적인 사회참여 플랫폼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으로, 자원봉사 정보를 종합하여 검색, 신청, 실적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마련하였다. 포털은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과 실적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12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포털의 활용성을 높여오고 있다. 2013년 교육부 NEIS와 연계한 것으로 시작해, 2014년 여성가족부 DOVOL, 청소년단체 걸스카우트, 2015년 청소년단체 RCY,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법무부 TEAMS와 국립공원 관리공단,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품앗이, 2019년 한국농어촌공사, 대한적십자사에 이르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2년에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도 연계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2, p. 12). 그러나 이 플랫폼은 매칭보다는 보상과 기록에 특화된 특징이 있고, 비공식적이거나 일상생활 관련도가 높은 활동이나 지역사회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한 플랫폼으로 구축되기 어렵다. 또한 베이비부머에게는 정보제공, 연결에 특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 인정을 통한 경력관리를 주된 목표로 하는 이 사업과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도 볼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을활동가Pool’이라는 의미에서 마을활동가 기록관리 시스템 ‘마플(<https://www.ggmapool.or.kr/>)’을 출시했다. 이러한 플랫폼은 개인정보에 관한 책임 소재 문제로 민간 주도의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 작업이므로, 콘텐츠 제작에 강점이 있는 민간과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행정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아직 출범 초반이지만 인천에서 출시된 시민참여형 마을플랫폼 ‘인천 온마을’은 지자체와 중간 지원조직이 함께 제작에 참여한 의미 있는 사례이

다.³⁰⁾ 특히 사회참여 플랫폼 구축에서는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와 정보 접근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사례로 미국 Taproot foundation, Catcha fire 등 매칭에 특화된 플랫폼 모델을 검토했다. 이들 플랫폼은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기관을 발굴 혹은 기관의 접수를 받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연계하는 범위도 마케팅, 인사, 테크놀로지, 전략, 회계 및 재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또한 인력 매칭이 필요한 비영리기관과 자원봉사자가 주된 파트너이지만,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업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플랫폼 구축과 운영의 범위가 정보제공과 사이트 관리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수요처와 참여 인력을 발굴하고,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는 역할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외 사례를 모델로 국내에도 이러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중간 지원조직’ 등의 형태로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참여의 지속, 확장

‘참여의 지속, 확장’ 방안에서는 베이비부머가 사회참여 활동에 진입한 다음에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역할과 참여 내용의 심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초반 진입단계에서 수동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면 여기서는 활동의 능동성,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단계로 이끄는 방안을 논한다.

30) 인천 온마을 홈페이지 <https://onmaeul.incheon.go.kr/oms/intro/index.do>

가. 사회적 인정체계 논의

사회참여에 대한 다양한 인정 방식은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책이 된다.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데 역할하는 행위에 대해 실질적 형태로 인정과 보상을 하는 것이다. 고경환 외(2023)에 따르면, 사회적 인정 방안의 쟁점은 인정 대상과 인정 주체, 인정 내용과 범위, 인정 방법과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를 다루는 인정 방법과 인정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 금전 외 시상, 홍보, 인증(자원봉사 카드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비금전적 보상에는 이외에도 교육, 행사 참여, 견학, 교통비 보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의 예시로 마을공동체 사회적 인정체계를 아래에 제시한다.

〈표 6-7〉 마을공동체 사회적 인정체계(안)

보상 모델	내용
금전적 보상 모델	개인이나 그룹이 지출한 사적 부담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 내 금전적 보상
금전 외 보상 모델 (시상, 홍보, 공유, 인증, 타임뱅크)	개인이나 그룹의 경력, 성과, 매력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상, 홍보, 공유하여 내외적 신뢰 관계나 성취감 증대 촉진
민관협력 연계 방식	개인이나 그룹의 경력, 자원, 재능, 성과 등을 인정하여 지역사회 공익사업자 혹은 기타 추가 정책기회에 관한 혜택 제공
사회적 일자리(마을전문가 모델)	개인의 경력이나 재능을 인정 및 선발하여 마을전문가로서 활동 기회와 혜택 제공

자료: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2022). 2022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연구자료집. pp. 12-13에서 재구성

위 인정체계에서 금전적 보상 모델은 참여활동에 대한 즉각적 보상이 되나, 이러한 금전적 보상은 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참여자의 투입된 시간에 대한 보상보

다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에서의 보상은 무보수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또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에 자발적인 호혜적 활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교통비와 식사비 지원 등의 실비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 문제로 시상, 인증 등 금전 외 보상 모델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모임이나 단체의 재능과 성과를 인정하여 향후 정책 기회 혜택을 제공하는 민관협력 연계, 사회적 일자리 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마을전문가 모델 등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인정체계에서 경력인정의 다양화 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공동체 운영 및 관리, 비영리 단체 운영 등은 해당분야 전문성을 가진 참여자가 필요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나, 인건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모집이 쉽지 않다. 차선택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높은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정 도구 적용에서 좀 더 개별화된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보편적인 효과를 갖지 않으므로, 기대와 다른 보상이 이루어질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Kaehler, 2020, p. 521). 이에 경영학에서의 자신에게 적합한 보상·인센티브를 선택하도록 하는 소위 '카페테리아 시스템'을 사회공헌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공헌활동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할인 제공, 각종 행사나 야외활동, 교육 기회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자원봉사는 행과 같이 자원봉사 참여자가 참여 시간당 1타임달러를 지불받고 추후 자신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로 교환하는 형태의 '타임달러 제도'가 이러한 개념의 제도로, 사회참여 활동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기대와 욕구가 매우 다양한 베이비부머에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다.

국외에서도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정체계를 도입하였다.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미국 Americorp의 예(수당이나 학자금대출 연기, 공공서비스 대출 등), 독일의 비과세 혜택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보상을 하는 사례 등의 적극적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7.21.). 또한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참여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생산적 논의, 공론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제안, 참여 제도 개선

공모사업은 주민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수요에 대응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민공모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이 있다.

〈표 6-8〉 주민공모사업과 주민제안사업 비교

	주민공모사업	주민제안사업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의 실링을 사전에 설정하여 주민 공모 실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링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실질적으로 결정(자치단체는 사업의 위법성 판단, 컨설팅 등 보조적 역할만 수행) * 이상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의 실링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공모 실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 우선순위 등 의견을 제시하나, 실질적 우선순위 결정권한은 자치단체가 가짐 * 이상의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운용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링 설정+사업 공모, 주민참여 예산기구 제안 후 주민 직접 투표 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심의 * 주민이 공개 제안한 사업 (주민 누구나 제안 내역을 알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외 주민제안을 받아 사업부서 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자료: 김윤승, 전성만. (2023).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 시를 중심으로. p.83에서 재구성

공모사업은 예산 실링을 사전에 설정하고 사업 제안을 공고하며, 일반 주민(주민참여 예산기구 포함)으로부터 제안을 공개적으로 받아 주민총회·주민투표 또는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심의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선정한다. 공모 외 제안사업은 공모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일반 주민(주민참여예산기구 등 포함) 제안 사업으로 해당 사업부서의 결정 또는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결정으로 예산에 반영된다. 사업공모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서정섭, 이장욱, 이효, 곽채기, 남궁근, 2019, p. 36).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사회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베이비부머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신청 과정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이 없는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지역모임, 공동체는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도 막연하여, 이러한 제도는 기존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전유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간소화, 심층적 공론 과정 강화가 필요하다.³¹⁾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공모사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중간 지원조직 차 차원에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신청과 정산, 결산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제도에 대한 접근성 확

31) 사회적 공간 개념은 행정학의 주민자치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참여공간 마련의 맥락에서도 다루어진다. 참여공간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수평적 참여공간으로서의 '민초의 공간'과 정부 활동 및 서비스 일환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참여제도로서의 '초대된 공간'으로 분류된다(박준, 김성근, 2019). 본 연구 결과로 확인된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경험이 부족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시민사회적 역량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들을 위한 '초대된 공간'을 구성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 차원에서, 주민제안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배경과 사안, 제안방식을 표준화하여 향후 더 많은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활용의 간소화, 표준화 노력과 함께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제안을 숙성하고 숙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제의식을 단계적으로 발전(build-up)시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장소 제공이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의 2022 마을상설공론장 사업이 대표적이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월간 진행한 이 사업에서 총 60회 마을상설공론장이 진행되었다. 2022년 9~12월 사이 7개군구에서 소모임부터 단체까지 참여했으며, 주제는 마을의제(지역현안)(9건), 교육(양육)(8건), 주민소통(8건)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생태환경, 주민공유공간 등의 의제가 제시되었다(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2023b). 이외에도 경기도, 대전시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마을컨퍼런스사업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노력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참여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지금 시점은 '참여'의 의미와 맥락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점차 이전의 익숙한 형태의 사회적 모습을 되찾아 가는 시점이다. 엔데믹 시기에 주민자치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도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주민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월 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한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으로 조례의 주민 직접 발의가 가능해졌고, 2023년 부산에서 첫 주민 직접발의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다. 2024년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또는 기각을 3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b; 김보미, 2023.8.15.). 이러

한 시민참여 여건의 전반적 변화는 지역사회에 데뷔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역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경험과 시간자원을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능동적 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새로운 참여문화가 만들어 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사회참여적 생애전환 지원 과제



제 7 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 연구 배경과 내용

한국에서 1950년대 중반 시작되어 6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진 베이비 붐 현상은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노인 붐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젊은 노인’들은 퇴직, 가족구성 변화, 건강 약화, 법적·제도적 지위 변화 등을 겪는 생애전환기를 지나고 있고,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고립, 단절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애주기에 따른 적응행동이 요구되는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전환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전환 지원 과제를 ‘긍정적 생애전환 경험을 지원하는 정책 과제’로 정의하고, 사회참여를 매개로 베이비부머의 인생 마지막 생애주기인 노년기로의 생애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참여 개념에서 사회참여, 사회활동을 동기, 목적에 따라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한경혜 외(2011)와 Levasseur et al.(2010)의 분류를 참고하여 개인 단위를 넘어서 다양한 목적과 형식으로 타인과 교류하고, 왕래하는 ‘의미있는 상호작용(친교활동)’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로 이어지는 ‘호혜적 상호작용(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다뤘다. 또한 사회참여의 진입 요인과 확대·심화단계의 매커니즘은 다르다는 전제하에, 참여활동의 위계적 분류(Arnstein, 1969; Wright et al., 2007 등)를 참고하여 미참여에서 참여로 변화되는 진입 요인을 탐색하고, 참여 활동이 확장되고, 능동성과 적극성을 갖게 되는 확대·심화 요인을 탐색했다.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공식적·비공식적 형태의 모임·단체에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참여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참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임·단체 활동을 구성원 간 의미있고 호혜적인 상호작용에 기반한 능동적·적극적 활동으로 이끄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시민참여 실천 영역을 구분한 이금룡(2022)의 분류를 참고하여 사회참여적 접근의 생애전환 지원 과제로서 자원봉사/사회공헌, 지역공동체활동, 사회적경제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2. 체계적 문헌고찰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와 그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 작업은 국내외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가 기존 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전반적 경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참여 활동의 영향요인과 참여활동이 가지는 다양한 효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분석에 활용한 국내 연구 32편과 국외 연구 15편에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활동 분야별로 제시하였고, 사회참여가 미치는 결과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7-1〉 체계적 문헌분석 국내 연구: 32편 분석

구분	내용	
사회참여 범위 및 측정방법	- 참여 여부/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참여 수준(연속형)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참여가 종속변수로 사용된 논문)	자원봉사 참여	- 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 여부, 소득, 경제활동, 근로시간, 종교, 건강수준, 가족관계, 거주지 특성, 거주지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문화자본, 주관적 만족감 등
	여가활동 참여	- 성별, 배우자 여부, 소득, 경제수준, 경제활동, 종교, 건강수준, 거주지 특성, 사회적 관계망, 문화자본 등
	교육 및 학습	- 소득, 사회적 관계망
	일반 사회참여	- 연령, 성별, 학력, 소득: 경제수준, 경제활동, 건강수준, 거주지 특성, 사회적 관계망, 주관적 만족감- 학력, 거주지 형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사회참여 전반	- 연령, 주말 여부 등(저연령, 주말 참여 높음)
사회참여가 미치는 결과 요인 (사회참여가 독립변수로 사용된 논문)	인구학적 요인	- 신체적 건강, 정신적건강
	심리정서적요인	- 주관적 만족감, 우울감, 성공적 노화, 자기성장; 자아실현; 자아통합감, 사회통합감, 대인관계, 여가 만족도
	기타	- ICT 이용 능력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표 7-2〉 체계적 문헌분석 국외 연구: 15편 분석

구분	내용	
사회참여 범위 및 측정방법	- 참여 여부/ 참여 정도(리커트 척도)/ 참여 수준(연속형)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참여가 종속변수로 사용된 논문)	자원봉사 참여	- 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 여부, 소득, 경제활동, 건강수준, 거주지 특성, 지역사회 공동체성, 사회적 신뢰, 직장업무 책임 및 가족과 부양 의무 등 - 기타 자원봉사 참여 촉진 요인: 사회적 신뢰와 주관적 계층 인식 - 자원봉사 장애 요인: 정부의 부재, 시간 부족, 건강 문제, 직장 업무 책임이나 부양 의무
	여가활동 참여	- 성별, 거주지 특성, 주말 여부 등
	시민참여 및 사회단체 참여	- 학력, 거주지 형태, 지역사회 의 공동체 의식
	사회참여 전반	- 연령, 주말 여부 등(저연령, 주말 참여 높음)
사회참여가 미치는 결과 요인 분석 (사회참여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논문)	인구사회학적 요인	-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높임(자원봉사, 여가, 시민참여 및 시민단체 참여)
	심리적 및 정서적 요인	-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증진(자원봉사, 여가활동), 고독감 낮춤(사회참여 전반), 개인의 사회적 신뢰 수준 높임(자원 봉사, 시민 및 사회단체 참여)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는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상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반대로 다양한 요인에 따른 자원 봉사 참여 패턴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는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그들이 단순한 노동보다는 자신이 지닌 전문지식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많은 베이비부머에게 정보의 부재나 접근성의 문제가 주요한 장벽인 것으로 확인된다.

3. 베이비부머 사회참여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1차(2006년)부터 8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궤적, 학력, 건강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화를 실시하고, 유형에 따른 친교활동과 사회공헌활동 참여의 특성을 분석했다.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확인된 노동지위, 학력수준, 건강수준, 소득수준의 4가지 채널로 다채널 배열분석(multi-channel sequence analysis)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유형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6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표 7-3) 베이비부머 세대 유형별 기술분석

(단위 %)

	분류	비율	비근로 은퇴	활동 제한 없음	소득 '상'	친교활 동	사회공 헌활동	활동 없음
1	고숙련-대졸- 고소득	16.26	38.75	29.38	73.13	86.25	2.50	11.25
2	비근로·은퇴- 고졸-중소득	26.42	47.69	23.85	50.00	85.38	1.54	13.08
3	자영업-고졸- 고소득	15.35	6.63	29.80	64.24	86.09	1.32	12.58
4	자영업-저임금- 중졸-중소득	19.72	36.60	19.59	49.48	76.80	0.52	22.68
5	중숙련-고졸- 고소득	7.22	16.90	25.35	71.83	80.28	2.82	16.90
6	비근로·은퇴- 초졸-중소득	15.04	33.11	10.14	34.46	65.54	0.00	34.46
합계 /평균		100.0	33.34	22.87	55.08	80.59	1.32	18.09

주: 비근로·은퇴, 활동제한 없음, 소득 '상', 친교활동,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은 8차 값을 제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8차 원자료.

집단 1은 '고숙련-대졸-고소득'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6.26%가 이 유형에 속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여력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했다. 집단 2는 전체 베이비부머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비근로·은퇴-고졸-중소득' 집단으로 명명했다. 비경활 및 은퇴 비율이 높고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대부분 저숙련 임금노동자에 속한다. 대부분 주요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저임금·저숙련 임금노동자로 근로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민서비스 활동 참여 유도가 가능한 집단으로 판단된다. 집단 3은 건강상태, 소득, 친교활동 참여 비율은 높은 편이나 사회공헌활동 참여 비율은 평균 수준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자영업자, 저숙련 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아 현재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할 필

요가 있다.

다음 4절에서는 본 연구의 관심 집단인 고숙련 집단으로 대표되는 집단 1, 베이비부머의 가장 대표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된 집단 2, 고졸-자영업자로 대표되는 집단 3을 중심으로 생애전환 지원으로서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³²⁾

4.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관련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는 베이비부머 총 17명을 대상(1차: 12명, 2차: 5명)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대면 면접을 진행하였다. 유의표집으로 사전인터뷰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파악하였고, 베이비부머 유형화 3집단에 각각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였다(집단 1(고숙련): 5명, 집단 2(중숙련-고졸): 9명, 집단 3(자영업): 3명). 면접 내용은 기본 배경(사회참여 현황과 유지기간, 향후 계획), 세대 인식(가정, 직장 경험/생애전환 인식: 퇴직, 건강, 관계 측면), 생애전환기 적응 경험, 제도·정책 관련 경험, 교육, 자원봉사 관련 경험(복합관 교육 참여, 기부, 경력 활용 봉사 등)이다. 분석 방법으로 Creswell 다중 사례연구 분석틀을 활용하여 사례 내 분석, 사례 간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생애전환 경험 특성에 관해 유형별 특징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고숙련자들이 주로 분포하여 직장생활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던 '집단 1'은 전환 적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지위'와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참여 기회에서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양적으로

32) 집단 4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평균 이하의 건강상태와 친교활동 참여 비율이 낮아 사회참여 여력이 없는 집단으로 판단했다. 집단 5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고, 집단 6은 저숙련,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이 분포하여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생애전환 지원 과제를 제시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가장 많이 분포하며, 베이비부머의 가장 대표적 유형인 ‘집단 2’는 퇴직을 전후하여 위기감과 상실감을 가장 크게 경험하였고, 퇴직 후 경력 활용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집단 3’은 자영업자가 주로 분포하여 생애전환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계속 생업에 종사하여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특징이 있다.

사회참여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은 진입단계와 활동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활동에 능동성을 갖고 확장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과 중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했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7-4〉 사회참여의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

	촉진 요인	저해 요인
진입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김 - 친교모임에서 추천 - 지자체나 복지관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 지역에 대한 애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라 주저하게 됨 - 활동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찾을 수 없음 - 경제활동이 우선순위
활동단계	<p>〈지속, 확장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과정에서 의미 있는 교육 수강 - 사회에 기여, 또는 자신의 능력, 재능을 발휘하는 보람 - 적절한 보상과 ‘감투’로 표현되는 지위 부여는 특히 활동에 능동성, 적극성을 가지는 계기 	<p>〈중단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프로그램 종료, 교육 종강 후 후속 과정으로 연계되지 못함 - 내외부의 부정적 피드백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무관심으로 무력감 - 활동의 의미와 요구되는 전문성에 비해 너무 적은 보상 - (지역공동체 지원) 복잡한 행정절차, 지원 형평성 불만 - 활동 내용에 불만족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사회참여 촉진 요인에서 얻은 시사점을 살펴보면, 사회참여 기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퇴직’으로 나타나, 퇴직은 실제로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시점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친교활동, 복지관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정 등이 다음 단계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참여 활동의 지속, 확장에 기여하는 요소로는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새겨볼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스스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거나 능력 발휘를 통해 얻는 효능감과 보람 등이 확인되었다.

반대로 사회참여 저해 요인으로는 참여활동 전반에 대한 무관심과 무경험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원하는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참여 저해 요인이다.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활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프로그램 자체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사회참여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지역공동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논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접근을 시도하면, 고속권 집단(집단 1)은 활동 내용에서 얻는 보람에 가치 부여를 하며, 자발적인 동기 부여가 잘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절한 '매칭'을 통해 생애경력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스로 도전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활동 내용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 2'는 모임 구성원의 좋은 관계, 긍정적 피드백 등에서 보람을 크게 느끼며, 제도적, 정책적으로 마련되는 참여 기회에 관심이 큰 경향이 있다. 이들 집단에는 지역 기반 친목, 여가, 문화활동을 위한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수강 후 후속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단 3'은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이 주로 분포하므로 사회참여 활동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7-5〉 유형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

	집단 1 (고속련-대졸-고소득)	집단 2 (중속련-고졸)	집단 3 (자영업-고졸-고소득)
사회 참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 활동 내용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 보람에 가치 부여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에 대한 자발적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 구성원의 좋은 관계, 긍정적 피드백 등 활동의 배경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 - 지자체 활동 프로그램, 제도적, 정책적 기회에 관심. 제도 지원 효과 높은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특기,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나, 생업으로 시간 내기 어려운 집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경력 활용, 지역사회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매칭 - 자신이 원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 - 활동 내용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반 친목,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한 소모임 형성, 유지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수강 후 후속 활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시간에 대한 보상 모델 논의(시상, 홍보, 공유, 인증, 타임뱅크 등)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5. 국외 사례

국외 사례는 ‘활동기반 만들기’, ‘활동 역량 갖추기’, ‘활동 연계하기’를 중심 주제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활동기반을 갖추는 방안으로 검토한 사회적 공간 모형은 세대통합모형인 독일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Mehrgenerationenhaus)와 세대특화모형으로 정년퇴직을 한 중장년 남성들의 지역 데뷔 정례모임 ‘男の集い(오토코노 츠도이)’, 미국 비컨힐 빌리지(Beacon Hill Village)를 검토했다. 독일의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는 다양한 세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기부하고 반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자원봉사자, 전담직원이 활동한다. 서비스 제공보다 관계 형성과 상호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다. 세대특화모형

으로 살펴본 ‘정년퇴직을 한 중장년 남성들의 지역 데뷔 정례모임인 ‘男の集い(오토코노 츠도이)’는 지역의 남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거나 지역 활동과 관련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다.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서의 생애전환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지역사회 데뷔’)와 모임 시간 제한(2시간), 생애 직업 언급 금지 등 모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규칙이 시사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미국 비컨힐 빌리지(Beacon Hill Village)는 빌리지모델의 대표적 형태이다. 빌리지모델은 일반적으로 연간 회비를 청구하고 그 대가로 사회참여 활동, 상호 자원봉사 기회, 교통 지원 및 지역사회의 기존 서비스 소개를 조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을 지원한다. 비컨힐 빌리지는 훈련된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마을 전체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연계하고, 회원들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에 연결하도록 운영한다.

‘활동 역량 갖추기’라는 주제로 검토한 시민 역량교육 모델로는 독일과 일본의 대학연계 노인교육 모델을 살펴보았다.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같은 공간에서 학업을 수행함으로써 세대간 교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사례 ‘프랑크푸르트 인생 제 3기 대학’은 노인들을 위해 특화된 다양한 강좌와 연구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관심분야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연합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일본의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은 다양한 사회 참가의 주체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시민’을 기르기 위하여, 세 개 과목군(고령사회 교양/커뮤니티 디자인과 비즈니스/세컨드 스테이지 설계)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했다. 세대통합적 교육환경 외에도 방과 후 활동(강연회, 체험형 이벤트), 교육과정 수료 후 동창회 기반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와 연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 연계하기’ 방안으로는 매칭 플랫폼 모형 Taproot foundation 과 Catchafire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 플랫폼은 전문가집단과 제3섹터를 연결하는 형태로, 전문가에게는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3섹터는 전문가 영입으로 운영관리 능력과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 연계에 특화된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전문가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요소가 있다.

제2절 사회참여적 생애전환 지원 과제

사회참여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인세대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그들의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그들이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특한 특성과 잠재력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다양한 능력과 동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설계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맥락과 참여의 다양한 단계에 주목하여,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는 단계부터 활동의 의미를 찾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제안하는 단계로 이끄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진입단계 지원방안과 유지·확장단계 지원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사회참여 진입단계 지원

진입단계 촉진요인은 다양한 대상을 여러 차원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동의 연계로드맵 제시, 연결 플랫폼, 지역사회 초기 관문으로서의 ‘지역사회 데뷔’ 계기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시각으로 각 활동 영역에 대한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특히 어렵게 이루어진 참여 기회가 지속, 확장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영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방안으로 연관성이 높은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참여 활동 영역 간 연계와 함께 여가, 문화, 예술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사회참여 영역을 다양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가, 문화, 예술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로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어서 제시한 선배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데뷔 지원’ 방안은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서 지역사회에 데뷔하는 것을 격려하고 새로운 소속과 활동 무대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이다. 지역사회 데뷔 지원 내용으로, 지역주민이자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안을 주제로 하는 시민사회교육이 지역사회 데뷔의 일부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심화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할 기회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선배시민’ 개념은 고령자를 선배시민으로 대우하는 문화와 함께 후배시민에게 선배로서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선배시민학교, 선배시민학회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노년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아직 이러

한 프레임하에 진행되는 활동들이 다른 자원봉사 활동과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념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활동 내실화를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욕구와 수요의 결합으로서의 사회참여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한이 참여 욕구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해 고경력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실제 필요한 수요와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앙 플랫폼에서는 비공식적이거나 일상생활 관련도가 높은 활동이나 지역사회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어렵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시도에서는 개인정보법 등으로 인해 정보 공개범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구축에서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와 정보 접근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미국의 매칭에 특화된 플랫폼 모델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이트 관리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수요처와 참여 인력을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를 창출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국내에도 이러한 플랫폼 개발, 운영 주체가 생겨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사회참여 유지·확장단계 지원

사회참여의 지속, 확장을 위해서는 활동에 능동성, 주도성을 갖게 하는 방안과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참여활동을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사회적 인정체계가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도 자신이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사회참여에 대한 대가로 자발적

활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교통비, 식사비 등의 실비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고, 이와 함께 비금전적 인정 방식이나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인정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 인정 방식의 다양화, 보상방안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으로서, 자신에게 적합한 보상/인센티브를 스스로 선택하는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제안, 참여제도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공모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사회 참여 경험이 적은 베이비부머 입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또한 제도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도 그간 신청, 정산, 결산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전반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활용의 간소화, 표준화 노력과 함께 주민 제안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배경과 사안, 제안방식을 표준화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미 있는 제안을 숙성하고 숙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 강철희, 황지민, 이경혜. (2015).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행동예의 영향요인 탐색연구: 이전 세대 및 이후 세대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41-71.
- 강현정.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참여 여부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7, 429-448.
- 경기도마을활동가Pool 홈페이지. <https://www.ggmapool.or.kr>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3). 2023년 경기도 이음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https://www.gif.or.kr/web/gif/bbs/notice/5521?cp=1&sv=%EC%9D%B4%EC%9D%8C&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 ESC&bcId=notice&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true&baUse=true&allBoardSearch=false에서 2023. 11. 20. 인출.
- 경기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 (2023). 2023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린터어 모집. <https://gg5060.or.kr/bbs/?Act=bbs&subAct=view&bid=support&seq=1835>에서 2023. 11. 20. 인출.
- 경기신문. (2023.8.23.). 경기도, '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 하반기참여자2550명모집.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60425>에서 2023. 11. 20. 인출.)
- 경기일보. (2023.3.29.). '베이비부머재도약지원'짜깁기급급..경기도역점사업무색.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329580246>에서2023. 6. 22. 인출.
- 경기포털뉴스. (2023. 6. 12.).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린터어' 400명 모집. <http://www.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9>에서 2023. 6. 22. 인출.
- 고경력과학기술인. (2023a). 참여인력검색. <https://www.reseat.or.kr/portal>

- /human/poolInfo/list.do?menuNo=200014에서 2023. 6. 22. 인출.
- 고경력과학기술인. (2023b). 중소기업기술멘토링 사업안내. <https://www.reseat.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66>에서 2023. 6. 22. 인출.
- 고경력과학기술인. (2023c). 상시현장자문신청. <https://www.reseat.or.kr/portal/reqst/pblanc/list.do?pblancSeCd=C&menuNo=200090>에서 2023. 11. 20. 인출.
- 고경력과학기술인. (2023d).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신청. <https://www.reseat.or.kr/portal/reqst/pblanc/list.do?pblancSeCd=M&menuNo=200088>에서 2023. 11. 20. 인출.
- 고경환, 박영선, 이연희, 김태완, 남기철, 손명구, ...조용찬. (2023).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고대권, 주미옥(2021). 경기도 마을활동가 역량 정의연구 최종보고서. ㈜이노소 설립.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https://ggmaeul.or.kr/template/skin/doc.html?fn=cdb8777a186a29b033ec75619bb9008a&rs=/storage/preview/202401> 에서 2024.1.2. 인출
- 고용노동부. (2023). 2023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
- 고용노동부. (n.d.a).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신중년, 중장년내일센터).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5.do>에서 2023.11. 20. 인출.
- 고용노동부. (n.d.b).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신중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6.do>에서 2023.11. 20. 인출.
- 고용노동부. (n.d.c).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신중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3.do>에서 2023. 11. 20. 인출.
- 고용노동부. (n.d.d). 정책자료>분야별 정책(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6.do>에서 2023. 6. 22. 인출.
- 고용노동부. (n.d.e). 정책자료>분야별 정책(사업주 지원, 일자리창출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6.do>에서 2023. 6. 22. 인출.

- 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do에서 2023.06.07. 인출
고용노동부. (n.d.f.). 정책자료)분야별 정책(사업주 지원, 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
기업가육성),<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14.do>
do에서 2023.06.07. 인출
- 공경배, 모선희. (2023).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성공적노화에
미치는 영향: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23(7), 465-477.
- 공무원연금공단 블로그. (2019.4.27.) 플랫폼 상록봉사단 모집 - 은퇴공무원 누
구나 참여. https://blog.naver.com/geps_hongbo/221524116503에서
2023. 9. 15. 인출.
- 관계부처 합동(2022.7.21.).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
<https://blog.naver.com/moeblog/222822395594> 에서 2024.1.4.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2. 12.).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평생학습
진흥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3. 1. 27.).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
-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2022).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의 운영체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https://www.gurcc.or.kr/index.php?cate=005001¤tPage=1&type=view&num=1805>에서 2023. 6. 20.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 사회적기업육성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사회적기업육성법#undefined> 에서 2024.2.1.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_inSeq=1420399&gubun=ELIS
에서 2024. 2.1.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협동조합기본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협동조합기본법#undefined> 에서 2024.2.1.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

=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고령자고용법#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2022b).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고령자고용법시행령#undefined>에서 2024. 2. 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2022c). 노후준비기본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노후준비기본법#undefined>에서 2024. 2. 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노인복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77&ancYnChk=0#0000> 에서 2024. 2. 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undefined>에서 2024. 2. 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a). 자원봉사활동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에서 2024. 2. 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b).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주민조례발안에%20관한%20법률> 에서 2024. 2. 1. 인출.

굿잡5060. (2023). 2022년 굿잡 5060 4차 참여자 모집. https://www.goodjob5060.com/news/notice_list_detail/48에서 2022. 11. 20. 인출.

권수현, 현영섭. (2021).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평생학습참여의 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7(2), 167-199.

권미영, (2021.7.6.).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2021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공동포럼 자료집. p. 45.

권현정, 박화옥. (2008).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복지 관점에서. 한국노년학, 28(3), 535-553.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협동조합설립안내.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

- eyword=&page_now=&brd_no=10828&brd_mgrno=6&menu_no=2042 p. 8에서 2024. 1. 2. 인출.
- 길태영, 이진용. (2017). 베이비부머의 생산적 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성격특성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정책*, 44(4), 103-126.
- 김동주, 김나현, 도광조. (2020).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11(1), 1233-1247.
- 김명진(2023.11.27.). 65세 이상 '노인→선배시민'으로...경기도 조례 공포.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11/27/2RCSPTFEYFDLVEELI32T5GC4YI/. 2024.1.2. 인출
- 김민정. (2013).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평생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 *평생학습사회*, 9(2), 23-50.
- 김보미(2023.8.15.). “내년 2월부터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용·각하 결정’의 무효”. *경향신문*.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308152036015#c2b>에서 2024. 1. 22. 인출.
- 김소희. (2021). 베이비붐세대와 노인세대의 행복영향요인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591-602.
- 김수린, 이철희, 변금선, 이승호, 신희균, 김혜진, 민진홍. (2019). 신노년세대 노동시장 전망과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수린, 배지영, 안서연, 허선영, 김혜인. (2020).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개편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수영, 문경주, 장수지. (2016). 다층모형을 이용한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71(4), 391-421.
- 김수정, 최항섭, 이명진. (2021). 산업화 세대의 삶의 경로와 조부모로서의 계층적 역할. *사회과학연구*, 33(2), 97-118.
- 김윤승, 전성만. (2023).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7(2), 67-110.
- 김윤정, 강현정. (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3), 1090-1099.

- 김윤정, 이상진. (2017). 베이비붐 세대의 일, 가족생활,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2), 671-680.
- 김종순, 오세숙. (2018). 일과 여가균형 정도에 따른 남성 베이비부머의 여가시간, 여가생활만족 및 행복수준의 차이. Journal of Leisure Studies, 16(3), 37-51.
- 김종인, 김윤정. (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2), 655-664.
- 김지훈, 강욱모, 문수열. (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 인식과 사회적 자본 형성간의 관계분석: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3), 25-50.
- 김현호. (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전평생학습관. (2023). 2023년 대전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 모집 공고. <https://www.dllc.or.kr/web/board.do?menuIdx=108&bbsIdx=31115>에서 2023. 11. 20. 인출.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홈페이지. 국민여가활동조사 2020 데이터. <https://mdis.kostat.go.kr/index.do> (2023.06.05. 인출).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홈페이지. 사회조사 2021, 2022 데이터. <https://mdis.kostat.go.kr/index.do> (2023.06.05. 인출).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홈페이지. 인구센서스 2000, 2010, 2020 데이터. <https://mdis.kostat.go.kr/index.do> (2023.06.05. 인출).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홈페이지. 평생학습실태조사 2020 데이터. <https://mdis.kostat.go.kr/index.do> (2023.06.05.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 합동. (2023. 4.).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
- 박소정, 김정근, 안서연, 고아라, 류병주, 백지혜, 이규연, 이소연. (2023).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시니어 주거공동체 서비스 모형 및 운영전략 연구. 굿네

- 이비스 미래재단, 에이징 투게더.
- 박승탁. (202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정체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1), 345-353.
- 박준, 김성근. (2019).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방안. 기본연구과제, 2019(0), 1-358.
- 박혜영. (2020).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도와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베이비부머와 단카이 세대의 한·일 비교. MICE 관광연구, 20(1), 91-111.
- 변진숙, 권찬호. (2016). 2 차 베이비부머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 분석: 386·X 세대 (코호트) 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4), 173-199.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n.d.).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http://www.seniormanse.org/rankup_module/rankup_cooperation/introduce.html에서 2023. 11. 20. 인출.
- 사회적기업포털. (2023). 사회적기업 조회. https://www.seis.or.kr/home/sub.do?menukey=7127&m_cd=D003에서 2023. 7. 20. 인출.
-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 (2023). 『2023 인생나눔교실(수도권)』 기획사업 ‘우리 동네 인생나눔교실’ 멘토 모집 공고. <https://aec.skuniv.ac.kr/4857>에서 2023. 11. 20. 인출.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 5.16.). ‘봉사로 세상을 잇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자원봉사단 900명 운영.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보도자료. <https://50plus.or.kr/detail.do?id=27407041>에서 2023. 9. 15. 인출
- 서울시50플러스포털. (2023). 보람일자리 사업 및 추진일정 안내. <https://50plus.or.kr/content-JBIntro1.do>에서 2023. 6. 22. 인출.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21).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종합성과 보고서 2012-2020. <https://lib.seoul.go.kr:9091/ezpdfweb/ezpdf/>

customLayout.jsp?target=Y&encdata=7A43D0C4E655F7E00FF27
627F2A562220FF27627F2A56222E806B9514FF26ACA4D10A9CFF
9A1994D54A54452DD5B98F0D7E8E18328A361B3596E0854C7B9
B71853F7EC38D90E8F1439F10D498DF757CB747CE05B1EAC54B
12BC4B82511B67F37BA32CCB9358FA53F569CD4E9B4524A70CF
7E69D5CE1D0DB0BD3F095182F210DB5B00F5FD41B0997C에서
2023. 11. 20. 인출.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2021.11.02.). 세대 간 자산 격차 분석: 가계금융복지데이터.

<https://data.si.re.kr/data-insight-report/65165>에서 2023. 7. 28. 인출

서울특별시. (2018.3.). 2기(2018년~2022년)마을공동체기본계획. <https://opengov.seoul.go.kr/public/16768662>에서 2023. 11. 20. 인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3a). 2023년 서울시 마을기업 전문교육. <https://sehub.net/archives/2085325>에서 2023. 11.20. 인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3b). 「2023년 서울시 마을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기업 모집. <https://sehub.net/archives/2084717>에서 2023. 11.20. 인출.

서정섭, 이장욱, 이효, 광채기, 남궁근. (2019). 주민주도 참여예산제 모델개발 (1): 주민예산서 개발을 중심으로.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남복지이음. (2023).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모집. <https://www.snbokji.net/6521>에서 2023. 6. 22. 인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2021). 세종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송소연. (2021.7.6.).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2021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공동포럼 자료집. p. 45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023). 회사소개. http://www.seniormanse.org/rankup_module/rankup_cooperation/introduce.html에서 2023. 11. 20. 인출.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 (2023). 2023년 15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신규 선발

- 공고. https://www.storymama.kr/bbs/AWM020101_P002/26660?page=1에서 2023. 11. 20. 인출.
- 안서연, 백학영. (2020).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 변화 연구: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 안현찬, 구아영.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 양지명, 정영금, 윤소영. (2017). 베이비부머 세대와 노인 세대의 여가활동 특성과 여가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두 세대의 경제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5(3), 1-20.
- 양해순. (2019.9.30). 지역데뷔 아카데미 강좌에서 조명된 50+세대의 일자리와 사회공헌. 서울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 <https://50plus.or.kr/dsc/detail.do?id=6319609>에서 2023. 11.30. 인출
- 오주현. (2018).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이 ICT 이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3), 1-12.
- 윤예인, 이현민, 김옥진. (2019). 차별경험이 2 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참여에 미치는 영향: 기회평등과 노력성취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205-222.
- 윤종주. (1994). 노인과 사회참여: 그 현황과 전망. 한국노년학, 14(1), 169-178.
- 윤태웅, 김형문, 조준, 하지희, 조용준. (2019). 우리는 우리를 덜 행복하게 하는 것을 선택한다: 사회정서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광고학연구, 30(5), 145-168.
- 의성노인복지관. (2023). 선배시민 발대식. https://smail.or.kr/board/bbs/board.php?bo_table=press&wr_id=146에서 2023. 6. 22. 인출.
- 이금룡. (2013). 지역공동체 운동과 자원봉사: 한 지붕 두 가족의 상생 방안. 자원봉사연구, 2013(1), 5-32.
- 이금룡. (2016). 노인 사회참여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9), 60-69.
- 이금룡. (2020). 생애전환기 경험프로젝트: 베이비부머 자원봉사단 사업. 보건복지부

- 이금룡. (2022). 고령자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2022년 제1차 사회정책포럼 사회기여 활성화 추진방안 자료집.
- 이로미, 박성희. (2022). 유럽 U3A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형 노인 대학평생교육 모형 제언. 노년교육연구, 8(2), 1-23.
- 이로운넷. (2020.12.21.). 고용부,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1만 1700명 지원.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818>에서 2023.11.6. 인출
- 이로운넷. (2022. 8. 22.). 마을활동가로 쑥쑥 성장하는 비결은?.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9388>에서 2023. 6. 20. 인출.
- 이로운넷. (2023.3.13.). 경기일자리재단,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음일자리사업' 추진.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1321>에서 2023. 11. 20. 인출.
- 이영라, 이숙중 (2018). 고령층의 자산빈곤과 소득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57(2), 111-157.
- 이원지. (2017).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매개 및 조절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72(3), 283-312.
- 이현기. (2013).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참여 및 참여의사의 영향요인: 노인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7, 227-256.
- 이호길. (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불안이 여가활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5(4), 163-180.
- 이호길. (2017).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지지, 여가활동,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6(6), 227-243.
- 이호길, 김광용, 심준섭. (2020).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이 우울증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 호텔경영학연구, 29(4), 165-175
- 인사혁신처. (2023.4.13.).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 참가자 참가 모집 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09호. https://www.mpm.go.kr/mpm/comm/noti/mpmNotice/?boardId=bb_00000000000000

- 205&mode=view&cntId=672&category=&pageIdx=2에서 2023. 9. 15. 인출.
-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2022). 2022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연구자료집.
-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2023a). <https://www.incheonmaeu1.org/%ec%95%84%ec%b9%b4%ec%9d%b4%eb%b8%8c>에서 2023. 11. 20. 인출.
-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2023b). 2022 마을상설공론장 결과자료집.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 인천 온마을 홈페이지. <https://onmaeu.incheon.go.kr/oms/intro/index.do>
- 장윤정, 이채정. (2023). 세대별 행복의 차이 및 결정요인 분석. 정책개발연구, 23(1), 129-165.
- 전성범, 임진선. (2021). 베이비부머와 노인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증진 요인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10(6), 91-109.
- 전주도시혁신센터. (2023). 온두레공동체소개. <http://jhub.or.kr/sub.html?menu=132>에서 2023. 11. 20. 인출.
- 정순돌, 전혜상, 정주희. (2015).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7, 61-82.
- 정영금, 윤소영. (2014).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 특성과 여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61-77.
- 정유수, 권소연, 이영순. (2021). 베이비붐 세대의 활동적 노화가 우울, 삶의 만족도, 죽음불안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6(4), 9-33.
- 정유수, 이영순. (2022). 베이비붐 세대의 죽음불안이 우울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활동적 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2(3), 559-583.
- 정은경, 김종근. (2017).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과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501-512.

- 주성수, 정희선, 윤영미, 김민정. (201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한국자원봉사문화.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2023). 노후준비서비스 소개. <https://csa.nps.or.kr/intro/intro01.do>에서 2023.11.15. 인출.
- 중앙년청춘문화공간. (n.d.). 사업소개. https://youthculture.kr/front/index.php?g_page=business&m_page=business01에서 2024. 1. 2. 인출.
- 조미라. (2017). 일 생활 균형 관점에서 본 한국 가구의 노동시간 유형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일선. (2016). 일본의 시니어 정책 및 활동의 주요 흐름[주제발표]. 2016 수원 인문도시 대축제 평생학습포럼. 수원시평생학습관.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내용보기(해설서).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에서 2023. 7. 15. 인출.
- 통계청. (2019). 고령자 통계. 통계청
- 통계청. (2023). 통계청 고령자 특성과 의식변화. 통계청.
- 한경혜, 박경숙, Hiroko Akiyama, 이재인. (2010). 도시의 은퇴 남성노인의 사회 참여에 관한 한국, 일본 비교연구. 2008년도 사회과학지정주체(Top-down) 지원사업 결과보고서1(2010년 5월 31일 등록완료). 한국연구재단.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report.html?actionUrl=search%2FchildListExpressionInner&selectedGroup=&collsGroup=&m201_id=10020888&indexForSearch=&executeQuery=&listPerPage=4&searchDiv=SYS&dataTypeCd=¤tGroup=&selectedColls=&sortType=&dbGubun=SD&metaDataId=&m310_arti_id=&local_id=10023855&category=Report에서 2023. 5. 15. 인출.
- 한경혜, 김주현, 박경숙, Hiroko Akiyama, 이재인. (2011). 도시지역 연소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동기 요인간의 관련성. 한국노년학, 31(4), 1189-120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07>에서 2023. 11. 20. 인출.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n.d.).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자원봉사활동. <https://>

- www.kordi.or.kr/content.do?cmsId=108에서 2023. 6. 22. 인출.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보건복지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2021). 2021년 선배시민자원봉사 제1차 기관장 세미나 자료집. https://jwnoin.org/bbs/?act=bbs&subAct=view&bid=report&page=1&order_type=desc&seq=10885에서 2023. 6. 22. 인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a). 2023년 「SE프로 지원사업」 SE프로 활동 희망자 추가모집.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pg=1&board_code=BO02&category_id=&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ed%94%84%eb%a1%9c&search_type=titl&seq_no=249872에서 2023. 11. 20. 인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b). 연혁.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intr/history.do?m_cd=F049에서 2023. 6. 20. 인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c). 사회적기업이란?-개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ncept.do?m_cd=E001에서 2023. 7. 20. 인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d).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pg=1&board_code=BO02&category_id=&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2023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예비창업팀+모집+공고&search_type=titl&seq_no=249456에서 2023. 11. 20. 인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e).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seq_no=248938에서 2023. 11. 20. 인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f). 2023년 사회적경제 분야별 창업입문과정(중장년-시니어/서울) 심화과정 수강생 모집. <https://www.socialenterprise>.

- or.kr/social/board/view.do?m_cd=D019&pg=4&board_code=BO02&category_id=&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50008에서 2023. 11. 20. 인출.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2). 자원봉사포털 관리자 실무 가이드. 서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https://archives.v1365.or.kr/download/files/original/afb7ab0b52d6ef92257e843e496c629c.pdf>에서 2023. 9. 15. 인출.
- 한상일, 박주희, 유한나. (2021).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에 대한 실증적 분석 :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1(4), 161-196.
- 행복의성지원센터. (2023). 사업소개. https://happyuiseong.or.kr/menu02/team01_01//에서 2023. 11. 20. 인출.
- 행복의성지원센터. (2023.2). 행복의성지원센터 뉴스레터 제1호(2023.02).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63losL5h0JU8iKsXOleBvxcDK8VgwzI=>에서 2023. 11. 20. 인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 07.05. 인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 6. 18.). 마을기업으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성장동력 찾는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1034#none에서 2023. 7. 20. 인출.
- 행정안전부. (2023.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4차(2023~2027) 국가기본 계획.
- 행정안전부. (2023a).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82564>에서 2023. 7. 20. 인출.
- 행정안전부. (2023b). 마을기업운영 현황(2022.12 기준). <https://mois.go.kr/frt/sub/a06/b06/village/screen.do>에서 2023. 7. 20. 인출.
- 홍천군노인복지관. (2021).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191>에서 2023. 6. 22. 인출.

- 황남희, 김경래, 박은자, 주보혜, 임정미, 김혜수, ..., 이금룡. (2020). 제 2 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영호. (2016). 정보격차가 장년층의 인터넷기반 사회·경제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1-21.
- COOP 협동조합. (n.d.a). 설립안내 > 협동조합 설립절차(사회적협동조합). https://www.coop.go.kr/home/contentsInfo.do?menu_no=2017 에서 2024. 3. 1. 인출
- COOP 협동조합. (n.d.b). 제도안내>주요내용. https://www.coop.go.kr/home/contentsInfo.do?menu_no=2011에서 2024. 3. 1. 인출
- COOP 협동조합. (n.d.b). 협동조합 현황>주요통계(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부처별)). https://www.coop.go.kr/home/statistics/statistics3.do?menu_no=2035에서 2024. 3. 1. 인출
- LIFEIN 홈페이지. (2021.7.7.).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협력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01> 에서 2023. 7. 20. 인출.
- UNESCO. (2023). 제5차 세계 성인학습교육 보고서. 시민성 교육: 변화를 위한 성인 역량 강화. 요약본 한국어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 Atchley, R. C. (1989).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29(2), 183-190.
- Backes, G., & Clemens, W. (2013). *Lebensphase Alter: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Altersforschung (4th ed.)*. Juventa Verlag ein Imprint der Julius Beltz.
- Baltes, B. B., & Dickson, M. W. (2001). Using life-span models in

- industrial-organizational psychology: The theory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5(1), 51-62.
- Baur, N., Lamnek, S. (2005). *Einzelfallanalyse*. In: Mikos, L., Wegener, C. (Ed.): *Qualitative Medienforschung: Ein Handbuch*, Konstanz: UVK Verlags-Gesellschaft, 241-252.
- Beaconhill Village. (n.d.a.) *WHAT WE DO > Programs*. <https://beaconhill.helpfulvillage.com/pages/10065-programs>에서 2024. 1. 2. 인출.
- Beaconhill Village. (n.d.b.). *WHAT WE DO > Services*. <https://beaconhill.helpfulvillage.com/pages/10085-services>에서 2024. 1. 2. 인출.
- Boje, T. P. (2010).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in the European Context*. In Anheier, H. K. & Toelper, 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ivil Society*. Berlin, Germany: Springer Press
- BMFSFJ. (2020). *Förderrichtlinie Bundesprogramm Mehrgenerationenhäuser. Miteinander - Füreinander*. https://www.mehrgenerationenhaeuser.de/fileadmin/Daten/04_Bundesprogramm/Inhalte_des_Bundesprogramms/MGH_Foerderrichtlinie_ab2021_BF.PDF. 에서 2024.2.1. 인출
- BMFSFJ. (2022). *Benchmarking-Bericht 2021*. Bundesprogramm Mehrgenerationenhaus, Berlin.
- Burgess, E. W. (1960). *Aging in western societies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rstensen L. L. (2006). The influence of a sense of time on human development. *Science (New York, N.Y.)*, 312(5782), 1913-1915.
- Carstensen L. L. (2021).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The role of perceived endings in human motivation. *The Gerontologist*, 61(8), 1188-1196.
- Catchafire(n.d.a). For organizations > Bundles. <https://www.catchafire>.

- org/menu/bundles 에서 2024.3.1. 인출
- Catchafire(n.d.b.). Solutions > Employee volunteering. <https://www.catchafire.org/csr/employee-volunteering> 에서 2024.3.1. 인출
- Catchafire(n.d.c.). For volunteers> Show me Virtual volunteer opportunities. https://www.catchafire.org/volunteer?name_filter=&type_filter=1&type_filter=2&page=1&init=true 에서 2024.3.1. 인출
- Catchafire(n.d.d.). For volunteers> Show me In person volunteer opportunities. <https://www.catchafire.org/volunteer/in-person> 에서 2024.3.1. 인출
- Chan, K. M. (2010).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in China*, In: Anheier, H. K. & Toelper, 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ivil Society* (Berlin, Germany: Springer Press), 242-247.
- Chiao, C., & Chen, Y. Y. (2018). Is caregiving by baby boomer women related to the presence of depressive symptoms? Evidence from eight national surveys. *BMC women's health*, 18(1), 1-11.
- Chiao, C., Kuo, P. H., Li, D. C., & Hu, S. C. (2022). The changes in feeling of loneliness after retirement among baby boomers and pre-boomers in Taiwan: Do work-family conflict before retirement and social engagement after retirement matter?. *SSM-Population Health*, 20, 101264.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199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abo-Cruz, S. (2014.6.3.). *Bildung im Alter - Luxus oder Notwendigkeit. Beitrag zur Podumsdiskussion 3.6.2014*: U3L Frankfurt a. M. als good practice Beispiel. Retrieved from <https://www.oefg.at/wp-content/uploads/2014/01/Dabo-Cruz-U3L-Frankfurt-201406.pdf>

- Dabo-Cruz, S., Lörcher, B., Lutz, K., & Pauls, K. (2022). Senior* innenstudium digital-Herausforderungen und neue Perspektiven. *Zeitschrift Hochschule und Weiterbildung, (1)*, 37-43.
- Dentinger, E., & Clarkberg, M. (2002). Informal caregiving and retirement timing among men and women: Gender and caregiving relationships in late midlife. *Journal of Family Issues, 23*(7), 857-879.
- Filipp, S.-H. (1981). *Kritische Lebensereignisse*. München, Wien: Urban&Schwarzenberg.
- Franke, A., Heusinger, J., Konopik, N., & Wolter, B. (2017). *Kritische Lebensereignisse im Alter - Übergänge gestalten*. Retrieved from <https://shop.bzga.de/band-49-kritische-lebensereignisse-im-alt-er-uebergaenge-gestalten-60640049/>
- Gabadinho, A., Ritschard, G., Müller, N. S., & Studer, M. (2011). Analyzing and Visualizing State Sequences in R with TraMine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0*(4), 1-37.
- Goethe Universität Frankfurt a.M. (n.d.). *Universität des 3. Lebensalters. Statistik*. Retrieved from <https://www.uni-frankfurt.de/130541580/Statistik>.
- Griebel, W., & Niesel, R. (2015). *Übergänge ressourcenorientiert gestalten: Von der Familie in die Kindertagesbetreuung*. Von Der Familie in Die Kindertagesbetreuung. Kohlhammer.
- Saz-Gil, I., Gil-Lacruz, A., Gil-Lacruz, M. (2019). Active aging and happiness: European senior citizen volunteers. *Sociología, 51*(3), 290-312.
- Schmidt-Hertha, B. (2019). *Subsisting Within Public Universities: Universities of the Third Age in Germany*. In: Formosa, M. (eds) *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and Active Ageing*.
- Hansen, T., & Slagsvold, B. (2020). An “army of volunteers”?

- Engagement, motivation, and barriers to volunteering among the baby boom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63(4), 335-353.
- Heinze, R. G. (2016). Wohnen und Wohnumfeld im Siebten Altenbericht. *Informationsdienst altersfragen*, 43(6), 11-18.
- Hering, L., & Schmidt, R. (2014). *Einzelfallanalyse*. In: Baur, N., Blasius, J. (eds) Handbuch Methoden der empirischen Sozialforschung. Springer VS, Wiesbaden. 529-542.
- Holt-Lunstad, J., Smith, T. B., Baker, M., Harris, T., & Stephenson, D.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 a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10(2), 227-237.
- Höpflinger, F. (2019). *Lebensgestaltung und Lebenszeitmodelle im Wandel - Trends und Perspektiven*, in: Helmut Bachmaier (Hrsg.) Erfahrungswissen und Lebensplanung. Spätberufliche Qualifikationen und Aktivitäten, Göttingen: Wallstein Verlag. 86-105.
- Hwang, H. H., Lee, Y. J., & Kim, B. R. (2021). Effects of Relative Leisure Deprivation between Regions on Life Satisfaction in Koreans: Focusing on Baby Boom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24), 12905.
- Jennings, M. K., & Stoker, L. (2004). Social trust and civic engagement across time and generations. *Acta politica*, 39, 342-379.
- Kaehler, B. (2020). *Komplementäre Führung. Ein praxiserprobtes Modell der Personalführung in Organisationen (3rd Ed.)*. Wiesbaden. <https://epub.jku.at/obvulihs/download/pdf/8678563?originalFilename=true>
- Katagiri, K. (2006). *Hierarchical Model of Civic Engagement*. proposal for 'Successful Aging and a Hierarchical Model of the Civic

- Engagement of Japanese Retirees'. Tokyo University, Japan.
- Kersten, J., Neu, C., & Vogel, B. (2022). *Das Soziale-Orte-Konzept*. Zusammenhalt in einer vulnerablen Gesellschaft, Bielefeld: transcript.
- Kiyak, H. A., & Hooyman, N. R. (1999). Ag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1(1), 56-66.
- Kohli, M. (1985). *Die Institutionalisierung des Lebenslaufs. Historische Befunde und theoretische Argumente*. I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37(1), 1-29.
- Kohli, M., Künemund, H., Motel, A., & Szydlik, M. (2000). *Soziale Ungleichheit*. In Die zweite Lebenshälfte. 318-336.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Kurz, R. (2011). *Senior Participation*. In Kobylarek(Ed.), Aging social,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Wrocław: Agencja Wydawnicza "Argi."
- Künemund, H., Kohli, M., Schmidt, T. (1999). *Partizipation an Bildung angeboten im Ruhestand*. Eine Analyse mit dem Alters-Survey, Forschungsgruppe Altern und Lebenslauf. Forschungsbericht 67, Freie Universität Berlin. http://www.fall-berlin.de/lit/FALL_-Forschungsbericht_67.pdf. 2024.2.1. 인출
- Künemund, H. & Schroeter R. (2014). *Alternssoziologie*. In: Günter Endruweit, Gislea Trommsdorff & Nicole Burzan (Ed.): Wörterbuch der Soziologie. Konstanz: UVK, 16-22.
- Künemund, H. (2005). *Altersgrenzen aus der Sicht der Soziologie*. In: Volker Schumpelick & Bernhard Vogel (Ed.). Alter als Last und Chance. Freiburg: Herder-Verlag, 527-538. <http://www.kas.de/upload/dokumente/verlagspublikationen/Alter-Last-Chance/Alter-Last-Chance-8-2.pdf>.

- Kwon, H. J., & Park, H. H. (2018). Cultural capital factors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in Korean baby boomers. *Journal of Public Health, 40*(1), e16-e24.
- Laslett, P. (1996). *A fresh map of life: Emergence of the third age (2nd ed.)*. Palgrave Macmillan.
- Levasseur, M., Richard, L., Gauvin, L., & Raymond, É. (2010). Inventory and analysis of definitions of social participation found in the aging literature: Proposed taxonomy of social activities. *Social science & medicine, 71*(12), 2141-2149.
- Levasseur, M., Lussier-Therrien, M., Biron, M. L., Raymond, É., Castonguay, J., Naud, D., ... & Tremblay, L. (2022). Scoping study of definitions of social participation: update and co-construction of an interdisciplinary consensual definition. *Age and ageing, 51*(2), afab215.
- Loh, V., & Kendig, H. (2013). Productive engagement across the life course: Paid work and beyond.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8*(1), 111-137.
- Mak, H. W., Coulter, R., & Fancourt, D. (2022). Relationships between volunteering, neighbourhood deprivation and mental wellbeing across four British birth cohorts: evidence from 10 years of the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3), 1531.
- Marshall, C., & Rossman, G.B. (2006).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5th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cBride, A. M., Brav, J., Menon, N., & Sherraden, M. (2006). Limitations of civic service: Critical perspective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1*(3), 307-320.
- Miranti, R., & Evans, M. (2019). Trust, sense of community, and civic

- engagement: Lessons from Australia.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7(2), 254-271.
- Neu, C. (2023). *Generationenübergreifendes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für Zukunftsthemen in Kommunen: Potenziale der verschiedenen Altersgruppen im Blick*. Discussion Paper No. 17, Berlin: Max Planck Society/Population Europe.
- OECD. (2017). *How technology and globalisation are transforming the labour market*.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 OECD. (2023).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 OECD/LEGAL/0472
- O'Loughlin, K., Loh, V., & Kendig, H. (2017). Carer characteristics and health, wellbeing and employment outcomes of older Australian baby boomer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32, 339-356.
- Pfuhl. (n.d). *Bildung kennt kein Alter*. Frankfurter Allgemeine. Studium für fortgeschrittene. Retrieved from <https://50plus.faz.net/bildung-kennt-kein-alter/>.
- Riley, M. W., Kahn, R. L., Foner, A., & Mack, K. A. (1994). *Age and structural lag: Society's failure to provide meaningful opportunities in work, family, and leisure*. John Wiley & Sons.
- Rosenkoetter, M. M., & Garris, J. M. (1998). Psychosocial changes following retire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5), 966-976.
- Roßteutscher, S. (2009). *Soziale Partizipation und Soziales Kapital*. In: Kaina, V., Römmele, A. (eds) Politische Soziologie.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Rupprecht, R. (2008). *Psychologische Theorien zum Alternsprozess*. In: Gerontopsychologie. Vienna: Springer.
- Schlossberg, N. K. (2011). The challenge of change: The transition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 48(4), 159-162.
- Shah, D. V., Kwak, N., & Holbert, R. L. (2001).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with civic life: patterns of Internet use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Political Communication*, 18(2), 141-162.
- Sherraden, M. (2001b). *Service and the human enterprise, perspective*. St. Loui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 Taproot foundation(n.d.a). Volunteers. <https://taprootfoundation.org/volunteers/>에서 2024.3.1. 인출
- Taproot foundation(n.d.b). Nonprofits. <https://taprootfoundation.org/nonprofits/>에서 2024.3.1. 인출
- Toffler, A. (1970). *Future shock*, 1970. Sydney. Pan.
- Tomioka, K., Kurumatani, N., & Hosoi, H. (2017).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of social participation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aged 65-70 years: a cross-sectional study in Japan. *BMC geriatrics*, 17(1), 1-13.
- UNECE. (2010). *Integration und Teilhabe älterer Menschen in der Gesellschaft*. UNECE Kurzdossier zum Thema Altern Nr. 4 Dezember 2010. Retrieved from https://unece.org/fileadmin/DAM/pau/_docs/age/2010/Policy-Briefs/4-Policybrief_Participation_Ger.pdf
- U3L. (n.d.a.). *Forschung und Projekte* > *Enigma*. Retrieved from https://www.uni-frankfurt.de/48281905/Internetprojektgruppe_Enigma.
- U3L. (n.d.b.). *Forschung und Projekte* > *Südosteuropa*. Retrieved from https://www.uni-frankfurt.de/49165779/Projektgruppe_S%C3%BCdosteuropa.
- U3L. (n.d.c.). *Forschung und Projekte* > *Erasmus+ Projekt DENTA*. Retrieved from https://www.uni-frankfurt.de/102379354/Erasmus_Projekt_DENTA.
- U3L. (n.d.d.). *Forschung und Projekte* > *Debattieren an der U3L - „Mei*

- nungen austauschen und verteidigen*". Retrieved from https://www.uni-frankfurt.de/102600206/Debattieren_an_der_U3L.
- U3L. (n.d.e.). *Forschung und Projekte > ÜberLebensKunst - das Projekt labor*. Retrieved from <https://www.uni-frankfurt.de/105355354/%C3%9CberlebensKunst>.
- U3L. (n.d.f.). *Forschung und Projekte >Partizipative Alter(n)sforschung mit Männern*. Retrieved from https://www.uni-frankfurt.de/42656439/Partizipative_Alternsforschung_mit_M%C3%A4nnern.
- van Solinge, H. (2013). *Adjustment to retirement*. In: Wang, Mo (Ed.): The Oxford handbook of retirement. Oxford library of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11-324.
- VtVN(Village to Village Network). (2022). *ANNUAL REPORT 2022*. Retrieved from <https://www.vtvnetwork.org/docs.ashx?id=1101469>
- VtVN(Village to Village Network). (n.d.). *Welcome to the village to village network*. Retrieved from <http://www.vtvnetwork.org>
- Watanabe, M. (2023). Longitudinal Changes in Occupational Balance among Baby Boomers in Japan (1996-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5), 4060.
- Weinberg, W. (1999). *Einführung in das Studium der Erwachsenenbildung. Deutsches Institut für Erwachsenenbildung*. https://www.die-bonn.de/esprid/dokumente/doc-1999/weinberg99_01.pdf
- Wolfer, T. A., Myers, D. R., Polson, E. C., & Bevis, B. (2017). Baby boomers as congregational volunteers in community ministry. *Religions*, 8(4), 66.
- Wright, M., Block, M., & von Unger, H. (2007). Stufen der Partizipation in der Gesundheitsförderung. *Info_Dienst für Gesundheitsförderung*, 7(3), 4-5. Retrieved from https://www.armut-und-gesundheit.de/uploads/tx_gbbkongressarchiv/Wright__M..pdf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Zacher, H., Chan, F., Bakker, A. B., & Demerouti, E. (2015).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strategies: Interactive effects on daily work eng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1), 101-107.

3BL(2019). Innovation & Technology > Taproot Foundation Launches Newly Transformed Matchmaking Platform Taproot Plus. <https://www.3blmedia.com/news/taproot-foundation-launches-newly-transformed-matchmaking-platform-taproot-plus> 에서 2024.3.1. 인출

大阪市市民活動総合ポータルサイト(오사카시민활동종합포털). (2018.8.6.). *야베노구의 사례*. Retrieved from <https://kyodo-portal.city.osaka.jp/case/8747/>.

立教セカンドステージ大学(릿쿄세컨드스테이지대학). (n.d.a.). *교과과정*. Retrieved from <https://rssc.rikkyo.ac.jp/curriculum/>

立教セカンドステージ大学(릿쿄세컨드스테이지대학). (n.d.b.). *졸업생 진로 및 사회공헌활동*. Retrieved from <https://rssc.rikkyo.ac.jp/pro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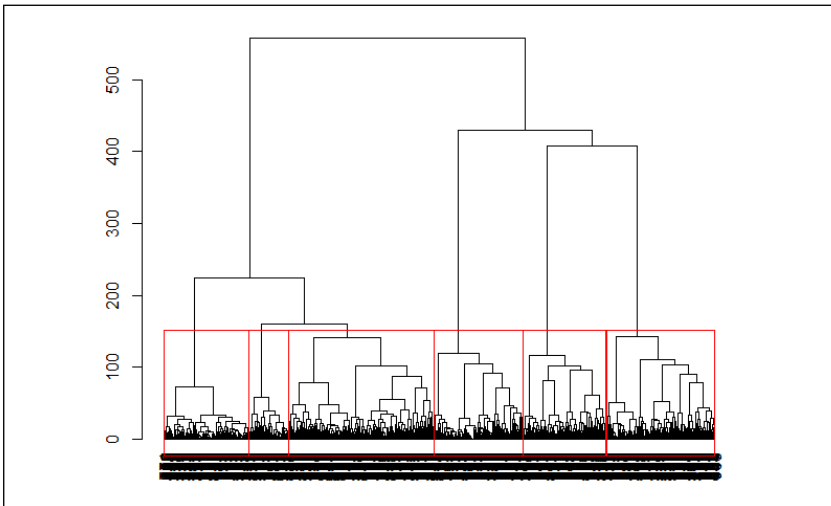
シニアの再チャレンジを支援する会(시니어재도전지원협회)(n.d.). Retrieved from <https://senior-rechallenge.jimd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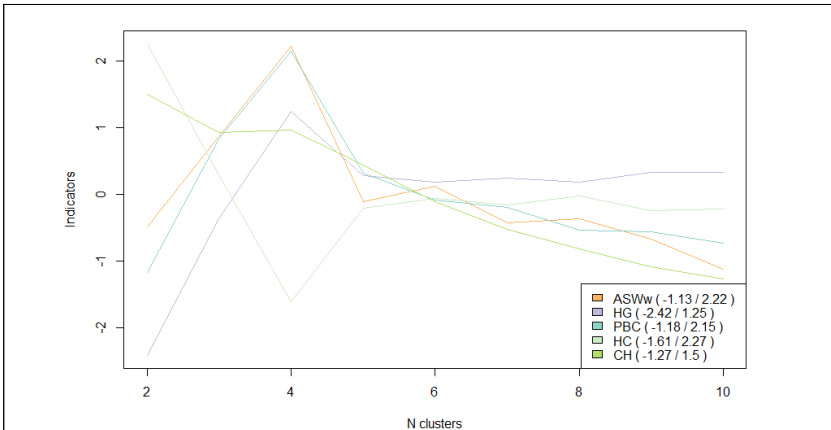


[부록 1] 다중채널 시퀀스 유형화 분석 결과

[부록 그림 1] 베이비부머 세대 6개 유형 도출을 위한 덴드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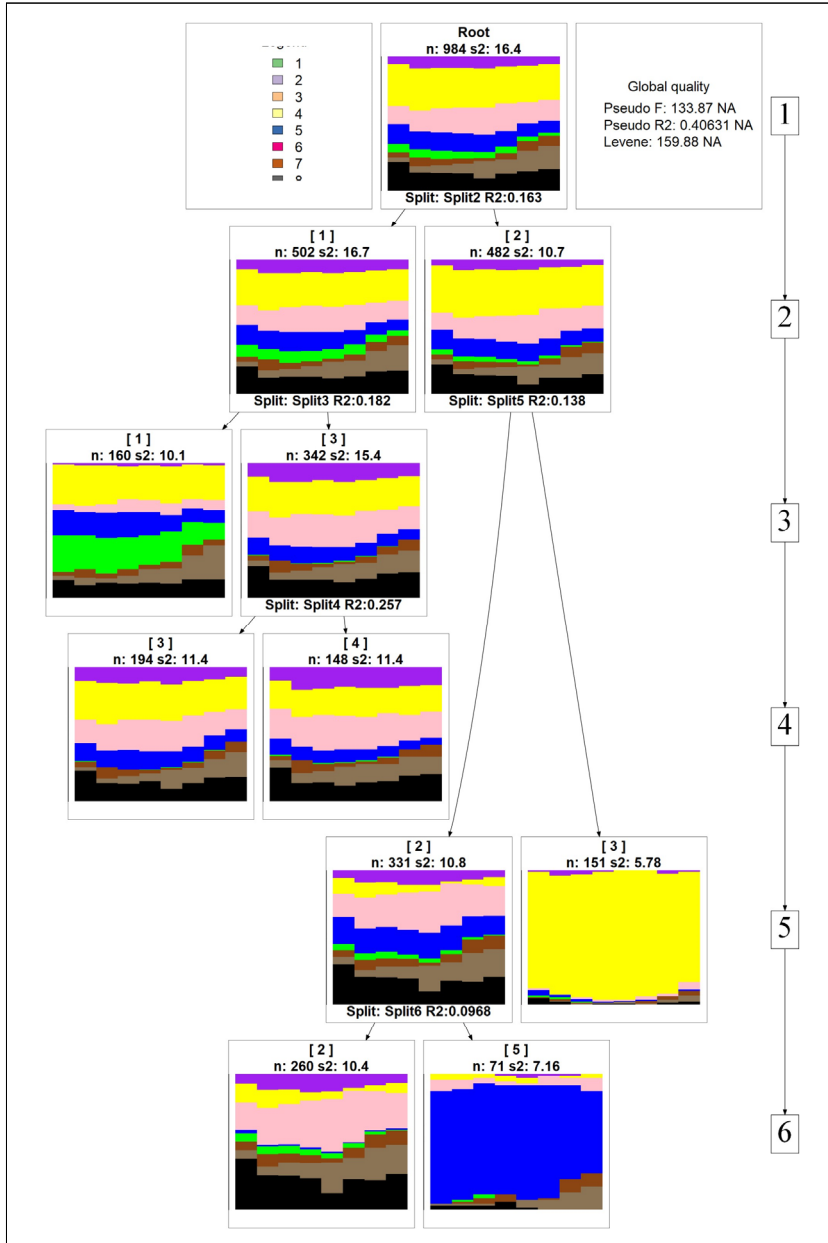


[부록 그림 2] 베이비부머 세대 6개 유형 도출을 위한 양적 지표



324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부록 그림 3] 베이비부머 세대 6개 유형 도출을 위한 나무그림



[부록 2] 사례 내 분석(사례별 기술)

참여자 구분	사례 내 분석
A	<p>미술을 전공하고 학원,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참여자A는 그간 끊임없이 직장 생활과 교육사업활동을 시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였다. 진취적이고 행동이 빠른 성향으로, 건강상 어려움이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거나 근로 활동을 하였다. 가장 마지막에는 월급 받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다가 그만둘 때는 다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휴식기를 가진 후 다시 취업시장에 나가 보니 막상 나이 때문에 경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수년 전 건강상 어려움이 생기면서 일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을 때는 근심이 컸다. 현재도 건강상 상태는 아니나 스스로 조절하고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오랜 시간 특정한 일을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p> <p>재취업을 시도했으나 몇 번의 부침이 있을 후 우연한 기회를 통해 구청의 양육코치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양육코치는 지금까지 교육사업에 종사하면서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업무 만족도가 매우 높다. 양육상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때는 큰 보람을 느낀다. 엄마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요구되는 전문성에 비해 낮은 보수로 인해서 회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신은 현재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은 맞지만,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소유한 집이 있어서 적은 돈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서 계속 하고는 있으나, 낮은 보수 때문에 업무 자체에는 매우 만족해하던 동료가 다른 일자리로 옮겼다고 전했다.</p> <p>지금 사는 동네에 오래 거주하여 동네 어르신들을 오래 알고 지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욕이나 나들이 가는 일을 가끔 하는데, 봉사라고는 생각해보는 적은 없다. 오랫동안 함께 세월을 보내온 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고, 그분들도 즐거워해서 기꺼이 하는 일이다. 이제 대부분 연로해져서 같이 갈 분들이 없는 것이 아쉽다.</p>
B	<p>퇴직 전후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퇴직을 하고 나니 처음에 일주일 이후에는 계속 외롭고 공허한 느낌이 있었다. 그 시기를 지난 후로는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면서 지내고 있다.</p> <p>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기이다. 출근 대신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기회를 알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동호회, 모임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된 이후에는 활발하게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고 각종 배움의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 참여자B가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비슷한 직업에 재취업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취업박람회를 방문하고 여러 회사에 문을 두드려봤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요양보호사, 산후도우미밖에 없었다. 다른 기대가 되는 업무에 지원서를 내봤지만, 나이 제한으로 서류검토도 되지 못한 것 같다고 한다. 자신과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시간도 많고 육아휴직 같은 것도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할 텐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고 속상하다. 원하는 직종에 재취업하기 어려우면 지금 하고 있는 마을플래너, 각종 봉사활동에 매진할 생각이다. 마을플래너 교육을 수료하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다니게 되었고, 최근 관광지로 개발된 인근 지역 **마을 사례를 보면서 우리 지역도 비슷한 조건을 잘</p>

참여자 구분	사례 내 분석
B	<p>활용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꾸며볼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에서 어느 정도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남편이 아직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생계유지 목적은 아니나, 활동하면서 생기는 교통비, 재료비, 시간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해주면 활동을 이어가는 데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활동을 해보니 갈 때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사회참여 기회가 특정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어떤 교육에 참여하고, 시장의 문자를 받았는데,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잘 찾고 있으며, 앞으로 흥미를 느끼는 활동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전하고 싶다.</p>
C	<p>2차 베이비부머에 속하는 참여자C는 성장 과정에서 많은 경쟁을 하면서 자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과는 다른 이웃 간, 친구 간 정이 있는 시절에 살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도 그 당시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많으면 나누고, 없어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관계로 남아 있고, 자녀들에게는 이런 추억이 없을 것 같아서 아쉽다. 또한 자라면서 대학 졸업장이 평생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고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1차 베이비부머에게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2차 세대는 그렇지 못했다. 대학교육을 받는 등 교육적 '혜택'을 받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대학 졸업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p> <p>참여자C는 교육사업에 종사하다가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스터디카페 운영 등 다양한 도전을 해 보았고 가장 최근에는 교육청 개방직 4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지금까지 자신이 교육 영역에서 쌓아온 지식과, 교육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고, 나름 사업계획 또한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기업 화동은 운영자에게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시 도전할 생각이 없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 직장과 같은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렵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위'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지위를 일종의 '신화'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퇴직할 때도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수많은 결정과 긴장 속에서 지냈던 시기가 끝난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자유를 느끼기도 했다.</p> <p>지금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되고, '틀'에 갇힌 느낌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같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직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과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틀에 박힌 일로 한정해놓은 것 같다. 더 다양하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도전하고 재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그러한 구상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돈인데 현재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적 목소리가 있는 것은 매우 아쉽다.</p>
D	<p>퇴직 후 집안의 눈치가 보이고, 아빠라는 사람으로서 집에 있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서둘러 재취업을 했다. 아직까지 생계유지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70세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일하는 회사는 이전 회사보다 작은 규모의 어느 정도 가족 같은 느낌이 있는 곳이다. 급여는 전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지만, 기존에 하던 일의 연장선에 있고, 소규모 회사이다 보니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적지 않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p>

참여자 구분	사례 내 분석
D	<p>퇴직 후 정부제공 교육을 들었을 때, 유용한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 사람들의 능력과 관심사가 다양한데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교육 시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다. 과정별로,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동사무소에서 하는 무료급식 봉사, 동네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해봤다. 이 정보는 다니고 있는 성당에서 모집과 연결이 되어서 시작해보게 되었다. 이전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다. 정신없이 일하기 바빴고, 퇴직을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퇴직 후에 한동안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스스로 의기소침해져서 주변 사람들도 거의 만나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도 직장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그 직장이 없어지니 더욱 만나게 되지 않았다.</p> <p>참여자D는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대표 경험이 있다.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요청을 수락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은 있었다.</p> <p>요즘 일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세대차이를 많이 느낀다. 예전에는 팀, 단체의 일부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젊은 세대는 자기 일만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회식 등 기회가 되면 후배 세대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는 편인데, 이것은 선배로서 책임감이기도 하다.</p>
E	<p>참여자E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이지만 자신이 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 현재 요식업에 종사한 지 * 년 차로 현재 조리장으로 종사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화학전공을 살려 화장품회사에서 일했다. 우연하게 발을 들여놓게 된 요식업에 오래 종사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는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 현재 있는 곳에는 오래 있을 수 있는 전망이 없고, 곧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타진을 해 보았지만, 번번이 나이 때문에 실패해서 이제 다른 사업장에 가는 것은 거의 포기한 상황이고, 자신이 직접 오너셰프가 되어 가게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p> <p>최근 건강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생긴 지병들이 있는데, 아직 자녀들도 어린데 자신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엇보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많지만, 요식업의 특성상 주말과 주중의 구분이 없어서 참여하기 쉽지 않다. 대신 다니는 교회에서 교회에 장애 교인 식사를 보조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입장 스케줄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어서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요식업 경험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자리에서 요리를 해서 제공하는 등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한다면 소정의 일당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오가는 비용을 실비로 보상해주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F	<p>참여자F는 취직, 출산을 비교적 일찍 하였으며 투자계열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투자자로 이어져 퇴직 직전 작은 건물을 취득하면서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준비된 은퇴’를 하였다. 현재 자녀들은 금전적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를 지났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워 의무감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지내기를 원한다. 현재는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전용체육관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으며 그곳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나면서 사는 이야기를 들곤 한다. 이외에는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거나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p> <p>퇴직 후 아직은 자유를 즐기는 단계이고, 이후 심심해지는 시기가 오면 여러 활동들을 자유롭게 시도해볼 생각이다. 영어를 전공하여 이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해보거나</p>

참여자 구분	사례 내 분석
F	<p>자기발전을 위해 통역을 공부해볼 마음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어 재능을 활용하고 궁 해설을 해보고 싶다.</p> <p>퇴직 전 스스로 소위 '꼰대'보다는 MZ세대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상명하복식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웠으며 자유롭게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전 세대) 교육 받을 때부터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젊은 세대도 국가와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자신들은 이전 세대보다는 더 우아하게 사랑하고 싶다고 말한다. 실제로 사회 분위기 자체가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때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p> <p>지방 출신으로 언젠가는 귀농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을 즐겨보며 실제로 실행을 위해 '귀농협회'에도 가입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실현이 어려울 것 같다. 또한 그만큼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주로 만나는 사람은 회사 사람이나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는 비슷한 배경 사람들을 만난다.</p> <p>자신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무엇인가 틀에 정해져 있는 일을 요구하는 것은 거부감이 있다고 한다. 퇴직 후 여러 활동 기회들을 접하면서 속한 자치구의 '주민제안'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원하는 활동을 제안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p> <p>봉사활동을 한다면 정기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하는 활동보다는 수혜, 자연재해 등 상황이 닥쳤을 때 일회성으로 방문하여 도와주는 형식을 희망한다. 아이들을 좋아하여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도 알아보았지만, 아이들은 젊은 선생님을 좋아하지 자기 세대는 일하는 것이 어색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동기 없이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시간을 내고 싶지 않다.</p>
G	<p>기술연구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후 경력을 활용해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교육을 받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정말 거주지에 인접한 복지관에서 교육은 원 없이 받아왔다. 신중년 교육, 각종 문화, 기술 등을 배워본 결과 교육 현장에서 배울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집에 와서 다시 하거나 실생활에 활용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나이가 더 많아져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p> <p>자신과 아내의 연금으로 생활에는 부족함이 없으므로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면서 살고 싶다. 최근 법적 노인 연령대인 65세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 느낌을 받았다. 코로나19 시기에 원하는 활동을 못한 것이 아쉬워서 요즘 들어 기회가 될 때마다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그간 하지 못했던 취미활동에 몰두하고 있는데, 충분히 즐겼다 싶으면 봉사활동을 해볼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대체로 단체로 하지는 않는다. 혼자서 시도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여럿이 같이 활동하는 것은 별로 경험이 없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수년 전 이사한 곳인데 주민들과 교류가 거의 없다. 술 한잔 하면서 대화도 하는 만나는 동네 친구가 거의 없는 것은 스스로도 아쉽다.</p> <p>봉사활동은 나보다 어려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면서 아픈 노인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측은지심이 생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집수리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배울 때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써먹기가 매우 어렵다. 능력을 발휘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별로 활용할 재주가 없는 것도 아쉽다.</p>

참여자 구분	사례 내 분석
H	<p>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직 직장 외에 다른 사회에 살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직장생활에 충실하게 살았다. 퇴직 후 노력은 해보겠지만 지금 하는 것과 같은 사무직은 다시 고용되기 어려울 것 같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보겠지만, 어려워질 경우 계획은 있다. 지역사회에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잡초, 나무 손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냥 원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활동도 관리사무소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 실제로 그런 활동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이기도 하나,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 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허락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다. 아파트에 수국을 심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정돈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나서서 치워주고 싶다. 가족들은 퇴직 후에 '통장' 일을 꼭 해보라고 조언할 정도이다.</p> <p>봉사활동은 회사에서 단체로 꾸준히 해왔다. 회사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퇴직 후에도 나서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원봉사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벌이가 괜찮은 사람들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돈을 내고서도 봉사활동에 다니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p> <p>건강 악화로 직장을 1년 동안 쉬어본 경험이 있는데, 당시 출산 경험에 버금갈 정도로 생활이 엉망이 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퇴직이 더 두려운 것도 있다. 일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생활이 훨씬 만족스럽다. 자녀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예정이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친하게 연락하는 지인들은 주로 직장동료에 한정되어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임이 나가지 않게 되었는데, 지금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가족 생애주기 변화로 다들 입장이 달라지면서 모임이 뜸해진 것도 있다.</p>
I	<p>현재 부동산 협동조합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참여자는 돈을 벌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찾아 왔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탓에 직장에 출근해도 막상 할 일은 없지만 어울려서 식사하고, 사는 얘기 하는 재미로 매일 나간다. 사실 지금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기, 다단계 등으로 큰돈을 잃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크게 손해를 본 이후 아직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걱정스럽다. 지금 하는 일이 소일거리치고는 고정 수입이 있는 편이라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있다. 남편이 병환이 있어서 자신이 버는 것 이외에는 주택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찾아서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자 노력한다.</p> <p>최근 들어서 건강이 많이 나빠진 느낌이 들어서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예전에 큰 병으로 수술한 적이 있어서 건강은 늘 조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 기력이 없어진 것 같아서 직장에 가거나 외출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나가고 싶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이다.</p> <p>적극적인 성격이 아니므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하고 싶지 않다. 예전에 부녀회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어느 순간 의미 없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단하였다. 노인들만 많은 복지관, 노인정도 가볼 생각이 없다. 경제활동 외에 여가, 문화생활에는 언제부터인가 전혀 관심이 없고, 해볼 여력이 없다. 새로운 배움 또한 별로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고, 적절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생각한다.</p>

330 베이비부머 생애전환 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참여자 구분	사례 내 분석
I	<p>예전에는 보험업에 오래 종사했다. 20년 이상 일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건강 악화이다. 건강이 회복된 후 다시 해볼 생각도 하였으나, 더 이상 옛날 영업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보험도 가입자들이 스스로 다이렉트로 들 수 있고, 큰 빌딩에는 영업을 위해 출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과는 멀어졌고, 이제는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적당한 일이 있나 찾아보고 있다. 그래도 육체적으로 고된 요양보호사나 산후도우미 같은 것은 할 생각이 없고, 지금처럼 적당히 일하면서 돈 버는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p>
J	<p>30대부터 컴퓨터 수리, 강의를 해왔다. 윈도우가 들어오면서 컴퓨터가 예전처럼 잘 고장 나지 않으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마지막 일했던 컴퓨터 학원 일을 그만둔 이후 평생교육원을 차렸다. 그러나 생각처럼 수입이 잘 나지 않고,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평생교육원 원장이 주되게 내세우는 직업이지만, 실제로 수익은 컴퓨터 강사로서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언젠가 다시 살펴보고 싶은 내 사업이지만, 당분간은 계속 컴퓨터 강사로 돈을 벌게 될 것 같다. 사실 이마저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고, 현재 좋은 평판을 쌓아서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해보고자 한다.</p> <p>사실 컴퓨터 강사로서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일하는 교육센터도 전체 수업 규모 자체가 줄어들어 강좌가 많이 없어졌고, 성인을 대상으로 '강사양성' 강좌를 계속해서 이어 오면서, 자신이 배출한 강사와 경쟁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다. 사실 최근에 투자를 잘못해서 크게 손해를 보아서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최소 5년은 지금처럼 일해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p> <p>평생 서울 생활만 오래 하다가 몇 년 전 치가가 있는 서울 근교로 이사했다. 이사한 아파트에서 우연하게 아파트 방범단에 입단하게 되었고,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다. 방범단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틈만 나면 서울 와서 친구들과 어울렸을 것 같다. 방범단 활동을 계속하다가 단장도 역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임 이후 다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에 좀 회의적이 되었다.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으로, 동창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한다.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와 회장으로 했다. 아무도 수장을 맡으려 하지 않아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임 또한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p> <p>컴퓨터를 다루는 재능으로 고아원에 층마다 설치된 컴퓨터를 고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이어서 계속 이어서 하고 싶다.</p>
K	<p>가족사업, 요식업 등을 거쳐서 집수리에 종사하게 되었다.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남다른 손재주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개인사업을 시작한 후 한 명의 고객도 소홀하게 하지 않은 덕에 여전히 성업 중이다. 비가 와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쉴 수 있는 날이 없다. 직업정신, 양심 등이 큰 탓인지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고객에게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쉬고 싶어도 찾는 고객이 많아서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 퇴직하고 싶지만 여전히 별이가 쫓기고, 자녀가 아직 취직을 준비 중인 등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p> <p>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집을 마련한 이후에 이제 주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에 한번은 일해서 번 돈을 구형에다가 무작정 갖다 주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던지고 온 적도 있다.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 그 이후로는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집수리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 직업정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p>

참여자 구분	사례 내 분석
K	<p>신앙적 동기와의 연관된다. 방탕하게 살았던 젊은 시절 우연하게 종교를 가지게 되어 가족을 전도했고, 지금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술을 마시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 외에는 특별히 취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인터넷 바둑이며, 이는 그가 쉬는 시간을 보내는 주된 방법이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p> <p>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새로운 배움 기회를 갖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을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아들이 도와준다. 여행, 문화활동 경험도 최근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러나 지금 사는 아파트에 이사하고 우연히 아파트 감사를 맡게 되었다. 어쩌다가 떠맡은 감도 있지만, 내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해서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수리, 설비 관련 시스템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꿔놓았다고 자부한다. 자신이 잘 아는 업자가 있고, 스스로도 시공할 수 있는 일이지만 철저하게 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게 업체를 선발하고 있다.</p> <p>퇴직 후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집수리 봉사 하고 있다. 벌써 적당한 사람들을 모색해 보았으며, 이 사람들은 노후에 다른 별이가 없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다. 3명이 모두 퇴직하면 집수리를 가르쳐서 봉사를 시작할 계획이다.</p>
L	<p>다자녀가정에서 경쟁이 심한 성장기를 보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들을 돌보느라 결혼이 늦었고, 취직도 늦었다. 아들이 있는데 아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으로 퇴직했지만 연금도 매우 적은 수준인데 자녀부양 문제가 있어서 걱정스럽다. 최근 홀흔해서 혼자 살고 있다. 가족에게 헌신하면서 산 지난 세월이 조금 억울하기도 하다. 베이비부머로 열심히 지난날 살아오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대부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자기 외에도 황혼이혼, 홀흔을 한 친구들 얘기를 들었는데,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돌아보는 옛날 노래를 들으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슬프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도 즐겨 보는데 자기처럼 이혼하거나 병을 얻었던 사람들이어서 공감이 간다. 그 프로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시골에 내려가서 조그만 텃밭을 일구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p> <p>인생을 되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살았던 적이 없던 것 같다. 젊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들 지원하느라 바빴고, 결혼해서는 가족 뒷바라지를 했다.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결혼생활 내내 외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버킷리스트처럼 예전부터 미국 대륙횡단을 하고 싶었다.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친구들을 아직 모집하지 못했다. 기회가 되면 꼭 실현해보고 싶다. 나름 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로운 마음이 들어서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고, 가끔 동창들을 만난다. 퇴직하고 나니 직장생활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게 되지는 않는다. 최근에 복지관에서 기타수업에 들어갔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었으면 못했을 텐데 온라인 모집이어서 용기 내 봤다. 몇 번 수업에 들어갔는데, 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수강생 단독방에 초대해도 되는지 물어봤다.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어색해서 일단 거절하면서 나중에 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어색하고 어려우며, 앞으로도 알던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게 될 것 같다.</p>
M	<p>오랜 직장생활을 하다가 48세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서 자영업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 했던 요식업은 비교적 자리를 잡고 수익을 올렸다. 내 사업을 한다는 보람도</p>

참여자 구분	사례 내 분석
M	<p>있었고 당시는 어느 정도 여유가 되어 기부활동에도 열심히 나서서 참여하였다. 꾸준하게 운영을 하다가 새로 바뀐 건물주가 임대료를 크게 인상하면서 업장을 접게 되었고, 이후 두 번 다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인 어려움, 특히 이혼과 가족 문제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모색했다. 현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연금과 자신의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하고, 빚을 천천히 갚아가고 있다.</p> <p>자신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 특히 인지 능력의 감소와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비상장사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본 탓에 경제활동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며 더 이상의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장가를 가지 않고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은 아들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는 활동적인 삶을 선호하며 혼자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즐긴다.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여행을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동적인 노후를 꿈꾼다. 모임을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이끌어주면 잘 따라가고 활발하고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성격으로 연락만 닿으면 예전에 일했던 동료, 동창들과 어울리기도 한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다.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집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밖을 다니면서 세상구경하는 것이 재미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지내고 싶다.</p>
N	<p>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초기에는 가수과 개그맨을 꿈꿨지만, 실제로 노래 학원에 다니기도 했지만 현실의 어려움으로 그 꿈을 포기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 주사기 공장에서의 직장 생활은 가장 오래 했던 일이고,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기도 했다. 직장생활에서 오라부장을 하면서 자신이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고 직원 화합을 도모하는 데 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기 때문이다. 일보다는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오래 일했던 곳이지만 회사의 합병으로 공장이전을 하게 되었고, 자신은 이사를 원치 않아 결국 그만두었다. 결혼 후 N 씨는 육아에 집중하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간 이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 현재는 판매업에 10년 넘게 종사하고 있다. 일찍 결혼한 탓에 아이들이 손이 될 가는 시점이 남들 보다 빨리왔고, 일을 하면서도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찾아서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등하교 교통보조 (유급)봉사활동이다.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일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으나,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보람도 있고 어느정도 경제적 보상이 있어서 열심히 했던 일인데 없어서 너무 아쉽다.</p> <p>현재 사는 아파트, 지역에 대한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우리 **아파트의 수호천사 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정도로 애정이 깊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입주한 내 집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지역을 떠날 생각이 없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부터 반장, 통장 등 주어지는 일은 모두 하고 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동네 일을 도맡아 하면서 '목소리가 크다', '나낸다' 등 부정적 평가를 들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지만 묵묵히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했다고 자부한다. 이외에도 **봉사 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해 왔다. 이 단체는 주로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반찬 배달과 청소 봉사, 어르신들과의 나들이 행사를 조직하고 실행하여 보람이 있다. 무엇보다 단체의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가 이 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이다.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계속 활동을 할 생각이다.</p>

참여자 구분	사례 내 분석
O	<p>학창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업계 학교에 다녔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습을 나가 **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이후 철도 정비상에서 일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 공업전문대학에 야간으로 다니며 공부했다. 그의 직업 생활은 주로 **시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퇴직 후에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헬스와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하며 지낸다.</p> <p>그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도시농업 실용 과정을 배우며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들과 만남과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지원 사업을 여러번 활용해 봤다. 그러나 지원 금액에 비해 요구하는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많다. 나중에는 그 돈 받으려면 안 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커뮤니티지원사업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또한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협동조합 설립할때는 그동안 공무원으로 평생 살아오면서 축적한 문서작업, 관리, 관공서 상담 등이 매우 요긴했다. 그럼에도 조합설립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힘들었다. 조언을 구하려고 여러 곳에 문의를 했으나, 다른 담당부서를 안내하고, 또 다른 부서를 안내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어렵게 시작한 일인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스마트팜, 교육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시작하면서부터 큰 수술을 여러번 해야 했다. 현재 이사장(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조합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진행하던 사업들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p>
P	<p>고등학교 졸업 전인 자동차회사에 입사하여 80년대부터 장기간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산업인력으로 5년 근무 시 군 면제 혜택이 있는 방산업체에서 시작해, 입사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본사 및 ** 지사에서 근무했다. 특히, **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사무직으로 전환,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과정까지 승진했다. 근무 중 **대학교 야간 과정을 이수했으나, 정식 졸업은 아니어서 이력서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되었다. 2000년 2월, IMF 사태와 **그룹 해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선택하고 **으로 돌아왔다. 자동차 텐트 사업을 시작했으나, 텐트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항운노조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양하 업무를 담당하며 22년간 근무했다.</p> <p>정년퇴직 후 농산물 시장에서 잠시 근무했으나, 몸이 받쳐주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새로운 직종을 탐색 중이며, 과거에 비해 일하는 방식과 업종에 대한 적응이 다소 늦는 것을 느끼고 있다. 현재 가계 부양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지만 아들이 분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 외의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배우고 있는 대형 차량 운전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사활동경험은 전무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문화회관 가봤는데 노인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라 자신이 올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나왔다.</p>
Q	<p>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의 직장을 하다가 20대 중반부터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가 이장직을 오래 하셨던 덕분인지 동네 어른들에게 신임을 얻어 일찍이 이장을 맡게 되었다. 이장으로서의 경력은 약 9년 차이이며, 이장협의회장과 문화체육회 회장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장 역할은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이장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p>

참여자 구분	사례 내 분석
Q	<p>다양한 활동을 조율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3년 임기인 이장직을 지금 세 번째 연임중인데, 생각같아서는 연임이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이장직을 수행할 생각이다. 주요 소득원은 ** 농사이다. 농촌 지역에서의 소득은 수확철에 따라 크게 변동되며, 주로 8월부터 12월까지 ** 수확과 판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 부수입으로는 이장과 영농회장 활동에서 오는 수당이 있고, 이장 수당은 최근 3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농업과 이장 역할 외에도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건강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언급은 그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잘 보여준다. 이 사업은 ** 지역 보건소가 주관하는 5년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여자Q는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 또한, 지역 내에서 물리적 공간의 활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고등학교 체육관의 사용에 제약이 있어 다른 면의 체육관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체육회 회장과 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으로서 동네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만, 귀농인들은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생활하고 원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한동안 **농사 수익률이 좋다고 귀농인들이 급증한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귀농인들이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많이들 도시로 돌아갔다. 소위 '긴세대'로서 세대간 교류에도 관심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마을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어르신들도 지역에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구상, 시도에 대체로 무관심하여 서운하기도 하다.</p>